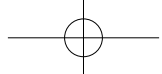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海  
上  
王

張  
保  
臯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발행처 | 재단법인 한국해양재단

발행인 | 이재완

지은이 | 김민중 외 16명 지음

감수자 | 이유진

발행일 | 2016년 12월 20일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2층

전화 | 02) 741-5278

팩스 | 02) 3673-3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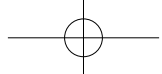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이메일 | maritimekorea@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koreaoceanfoundation.or.kr/>

공급처 | 원앤올

I S B N | 978-89-93511-51-2(03900)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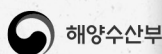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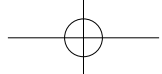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2 0 1 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기

김민중 외 16명 지음  
 이유진 감수



張保皋





##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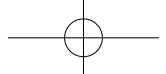
장보고 대사는 일찍이 해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한·중·일 무역과 물류를 주도하고, 멀리 중동까지 이어지는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의 해적을 소탕하며, 혼란한 해상질서를 바로잡아 패권의 바다가 아닌 무역의 바다, 상생의 바다를 이룩한 평화 수호자이자, 국제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세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 해양화라는 변혁적 시대 속에서 바다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장보고, 이순신 등 해양역사 인물의 업적을 되 짚어보고, 그들의 해양 정신을 우리 국민의 의식과 생활 속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해양재단에서는 해상왕 장보고를 재조명·평가하여 그의 진취적인 기상과 해양개척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2001년부터 초·중·고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 張保皋

현직교사들에게 바다에서 희망과 미래를 열었던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사상을 일깨워 일선 교육현장에 생동감 있는 역사 교육으로 계승되어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도전과 꿈을 심어 주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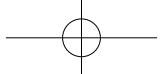
장보고 대사가 우리나라 해양개척 선구자로서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다 널리 알리고, 청소년의 해양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답사에 참여하셨던 선생님을 대상으로 답사 기행문을 모집하였습니다.

제출된 답사 기행문 중 우수한 작품 17편을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 하게 되었으며, 이 책자가 해양교육을 위한 생생한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답사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답사의 현장에서 역사적 고증과 의미에 대해 열의에 찬 강의를 해주신 인솔교수님들과 답사를 함께 해주신 해양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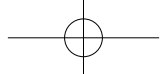
2016년 12월

(재)한국해양재단 이사장 이 재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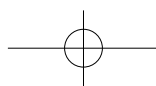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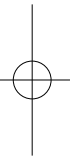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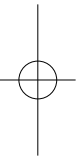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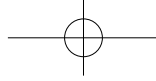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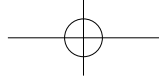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 009 • 끝없이 이어질 이야기  
김민중 <다사초등학교> | 대상
- 030 • 장보고 시대! 새롭게 열려야 한다  
박기윤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최우수상
- 048 • 기억속의 장보고를 찾아서!  
김창규 <삼정초등학교> | 우수상
- 068 • 동아시아 해상을 활보(闊步)한...활보(弓福) 장보고  
장문요 <귀인초등학교> | 우수상
- 087 • 장보고가 꿈꾸어온 세상 들여다보며 아들에게  
김덕용 <조원중학교> | 장려상
- 108 •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  
신종진 <남지고등학교> | 장려상
- 127 •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양 르네상스의 바람  
- 그 濼流를 찾아 세계의 중심으로 -  
이상훈 <창원고등학교> | 장려상
- 150 • 장보고의 후손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김경순 <강현중학교> | 가작
- 158 • 미래의 장보고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김대성 <두원초등학교> | 가작



# 張保皋

- 167 • 해상왕 장보고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동반도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만나다!  
김수미 <송라초등학교> | 가작
- 181 • 천년고찰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 이는 바람  
김천기 <의림여자중학교> | 가작
- 195 • 바다의 스승 장보고 유적지 답사기행문  
김효선 <영해초등학교> | 가작
- 213 • 너희는 해양강국이 되어라  
- 푸른 물결에 잠긴 장보고의 푸른 꿈을 펼치면서 -  
서미희 <진주봉원중학교> | 가작
- 233 • 바다를 향한 도전, 해상왕 장보고  
신경희 <환호여자중학교> | 가작
- 245 • 바닷길을 밝혀 역사를 펼치다  
이영지 <지세포중학교> | 가작
- 270 • 21세기 글로벌 미래 인재의 롤모델 장보고  
이인선 <사파중학교> | 가작
- 287 • 5박 6일 장보고와 함께한 중국유적답사  
진병창 <내성초등학교> | 가작





# 끝없이 이어질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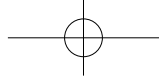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다사초등학교\_김민중(대상)



## 7. 29.(금) 첫째 날, 인천 밤바다 여행의 시작

여행이다. 배를 타고 가는, 역사책에서만 들었던 산둥 반도로 가는 여행. 중국으로 가는 배는 흔히 보따리장수라 부르는 상인들만 타는 배라고 생각했는데 어엿한 여객선이었다. 규모도 크고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나의 첫 중국 선박여행이 시작되었다.

한국해양재단에서 장보고 유적지 답사 공문이 왔을 때 나는 고민했다. 예전에 우연히 한 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일정이 맞지 않아 접을 수밖에 없던 기회였다. 그렇게 잊고 있다가 올해 다시 찾아온 기회. 놓칠 수가 없었다. 가슴이 뛰었다. 지원서를 쓰면서 벌써 내 마음은 중국을 향하고 있었다. 바다와 장보고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때마침 진로전담교사로 학생들에게 우리의 바다와 자랑스러운 인물을 가르치고 소개하는 역할이기도 했다. 지원서를 보내고는 매일매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다. 그리고 발표날이 되었다.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운 좋게도 내 이름이 있었다. 뭉치기 기뻐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양 엄청난 경쟁을 뚫고 승리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나중에 알았는데 사실 엄청난 경쟁률도 맞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을 향하던 내 마음은 드디어 진짜가 되었다.

처음 가보는 인천항, 왠지 지루한 중국인들이 가득했다.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교류가 많이 줄었다지만 생업의 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다.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아직은 희미하지만 중국 여행의 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사람들이 소란스러운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저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해양재단 사람들은 한 쪽에 탁자를 차려놓고 안내 간판을 걸어놨다. 두근두근 설레며 약간은 수줍은 마음을 안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가게 된...”

“예, 선생님, 학교가 어디세요?”

담당 직원의 밝고 상냥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다. 명찰을 받아 목에 걸고, 목베개, 모자 등을 담은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여행 전부터 푸짐한 선물을 받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났다.

배를 타는 수속 절차에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혹시 사드 때문에 반한 감정이 생겨 배를 타기 어렵게 된 것은 아닌가 괜한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기우에 불과했고 무사히 배에 올랐다. 4인실을 배정받아 함께 여행하게 된 3분의 선생님과 만났다. 모두 나와 같은 초등학교 교사들이었고 좋은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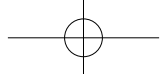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답사 참가등록]



[배는 인천대교를 지나서]



[선상 세미나]



이었다. 지역도 비슷한 우리는 말도 잘 통해서 금세 친해졌다.

배는 곧 출발했고 갑판에서 맞는 바다는 아름다웠다. 항구, 갈매기, 파도... 바다는 여행의 설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배는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고 신기하게도 인천대교를 피하지 않고 그 아래로 지나갔다. 그래서 배가 다리 밑을 지나갈 때 인천대교의 거대한 위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아름답고 웅장한 다리, 인천대교는 한없이 멋있었다.

배에 올라 이곳저곳 촌사람마냥 둘러보고 다니자 배도 고파왔다. 때마침 저녁 식사를 알리는 방송이 반가웠다. 식당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냄새와는 조금 다른 냄새가 풍겨왔다. 아니나 다를까 음식이 완전한 한식은 아니었다. 조금씩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국식 향신료 냄새, 이제 한동안 이 냄새에 적응해야 함을 알려주는 듯 했다. 밥 하나 먹는데 괜히 비장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여행 기간 탈이라도 나지 않기를, 무사히 먹을 수 있기를... 그리고 손가락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약간의 자극적인 향이 있었지만 먹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중국에서도 이 정도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릇을 비웠다.

선실에 돌아와서 룸메이트 선생님과 얼굴을 익히고 몇 마디 대화가 오고갈 무렵 첫 번째 공식 일정인 선상세미나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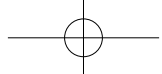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반드시 필기구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들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세미나에 성실하게 참가해주시기를 강조했다. 그렇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답사여행이니까 학문적 기틀이 탄탄해야 하니 당연한 일이다.

“이제 여러분은 2천 7백 킬로미터 대장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답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사뭇 비장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오로지 건강이 제일이라고, 절대 아프지 마시라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여행이 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의 감정이 나를 감쌌다.

이어서 부산외대 권덕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자며 시작된 강의는 우리나라가 해양 시대의 중심 국가임을 말해주었다. 앞으로 바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그럴수록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이어서 장보고를 세상에 알린 ‘라이샤워’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일본을 잘 알던 미국인이었는데 일본에서 장보고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연구해 해상 무역왕, 세계 시민이라고 극찬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중국에서 만날 장보고의 발자취가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과연 무엇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었다.

강의가 끝나고 담당자의 안내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기억나는 것은 중국의 공중화장실에는 대부분 휴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습기도 하고 중국이 이제 세계 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있는데 그에 걸맞은 문화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미나를 마치고는 갑판으로 나가 바다를 보았다. 정말 칠혹 같은 어둠이 바다와 하늘을 구별할 수 없게 하였고 거센 바닷바람은 몸을 가눌 수 없게 해 괜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예전에 대학에서 문학 강의 때 배웠던 ‘밤바다 여행’이 떠올랐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생각을 정화하고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밤바다가 눈앞에 있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생각을 다듬으며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인가. 후텁지근한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 밤바다는 나에게 묻고 있었다. 경이롭고 신비로운 밤이 깊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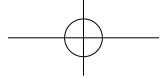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7. 30.(토) 둘째 날, 중국의 1일

### 석도, 안개의 도시? 봉래,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객실 2층 침대의 좁은 잠자리는 숙면을 주지는 못했다. 게다가 여행 첫날의 설렘도 단잠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웠다. 기상 시간이 되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함께 있던 선생님들도 모두 간밤의 숙취를 힘겹게 털어내며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아침이 아니었다. 지독한 안개. 무진기행의 무진을 떠올릴 만한, 안갯길 몇 중 추돌사고가 떠오르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안개였다.

“우리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후루룩 뜨거운 국물로 속을 달래며 모두들 의문을 품었고, 그 의문은 곧 현실



이 되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짙은 안개로 인하여 입항이 지연될 예정이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선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로 인하여 입항이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9시, 10시, 11시... 방송은 이어졌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에 입항 시간은 자꾸 늦춰졌다. 결국 배는 예정된 10시를 훌쩍 넘겨 12시가 되어서야 우리를 석도항에 내려주었다. 드디어 중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왔다.

“중국 텃세가 대단한가보네요.”

일행은 우스개소리를 하며 준비된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들 전날의 여독이 입항지연으로 인한 꿀 같은 단잠에 많이 풀려 한결 나아진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답사의 가이드입니다.”

어색한 우리말이 들려왔다. 가이드는 조선족 사람이었다. 한국말을 꽤 잘했지만 한국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자그마한 체구에 얼굴은 조금 까무잡잡했지만 인상이 무척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안개로 입항이 늦어져서 오늘 일정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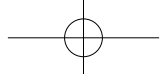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원래 오전에 가려 했던 성산두를 마지막날로 미루고 오후 일정인 봉래로 간다는 거였다. 무엇보다 1시가 완전히 넘어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배를 채워야 일정을 소화할 기력이 있을 것이 아닌가. 모두의 생각을 따라 차는 식당으로 향했다. 으리으리한 호텔에 딸린 큰 식당이었다. 중국식 회전 테이블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식사는 조별로 했는데 각 조는 10명씩이었다. 나는 4조였다.



[순한 인상의 가이드]

[중국식 점심]

[첫 고속도로 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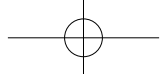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중국에서 맞는 첫 식사였다. 어떤 요리가 나올지, 어떤 강렬한 향취가 자극을 줄지 설렘과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수저를 들었는데, 이럴 수가! 맛이 아주 ‘땡화’였다.

“조개 맛있네요, 여기 닭고기도 맛있고. 새우도 아주 바삭바삭해요.”

저마다 동료 선생님들에게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을 권하며 즐거운 식사가 시작되었다.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끼니때를 놓쳐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이 아주 맛있고 향신료 냄새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단 측에서 미리 모든 식당에 부탁을 해서 향신료를 적게 쓴 요리로 준비했다고 한다. 재단의 세심한 배려가 무척 고마웠다. 그 은혜를 갚은 방법은 그저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것이었다. 그거라면 자신 있지. 접시가 하나 둘 비워졌다. 건배를 부딪치는 맥주맛도 아주 그만이었다. 맥주의 본산이 지척인 산동 지역답게 ‘칭따오 맥주’의 청량감은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식사를 마치고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봉래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였다. 거의 세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먼저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탑승한 일행은 한 명씩 마이크를 잡았다. 말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답게 모두들 말솜씨가 좋았다. 글 쓰는 것만큼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나는 차례가 다가오자 긴장이 되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번 답사를 통해 장보고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천기누설을 해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이 순신에 대한 어린이용 위인전을 출간한 나는 다른 인물들과 함께 장보고도 후보에 넣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이번 답사가 정말 절호의 기회였던 것은 사실이다. 어쨌거나 부족한 필력이지만 등단을 하였고, 밥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글은 꾸준히 써야 하기에 이번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자료 조사와 취재의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더욱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중국의 고속도로는 잘 손질되어 있었고 차들이 시원시원하게 달렸다. 크게 막힘도 없고 불편함도 없었다. 그러나 휴게소는 기대와는 달랐다. 중국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물론 압권은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은 매우 지저분했고 무척 시끄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충격은 문을 열고 불일을 보는 사



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다. 못 볼 꼴에 절로 눈살이 찌푸러지고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 사실 조금은 역겹고 미개한 문화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동행한 이유진 교수님의 말씀은 달랐다.

“중국은 도교 문화권입니다. 도교는 억지로 감추거나 꾸미는 것을 싫어하지요. 생활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밥은 벌린 입을 보여주며 같이 먹으면서 화장실에서만 감추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화장실은 우리로 치면 아낙네들의 빨래터 같은 곳입니다. 불일을 보면서도 감추지 않고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는 공간인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작은 충격과 함께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나의 생각이 부끄러웠다. 함부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거나 미개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도교의 그 아름다운 문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다. 아마도 영원히 그 부담스러운 문화와는 그다지 친해지지는 못 하리라.

어느덧 봉래에 도착했다. 봉래의 첫인상은 넓은 바다였다. 끝도 없이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장이 이어지고 관광지가 갖추어졌다. 해수욕장 규모도 엄청났다. 거대한 나라답게 큰 바다와 많은 사람들, 차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원래 일정에 있던 고선박물관은 입항 지연으로 인해 시간이 늦어져 문을 닫아버렸고, 봉래각과 등주수성은 간신히 부탁하여 입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자연히 발걸음이 빨라졌다. 봉래각은 중국의 특급 관광지답게 규모가 아주 크고 군데군데 멋진 건물들과 성들이 많았다. 중국 4개 누각 중의 하나인 봉래각은 이 지역의 전설인 여덟 신선을 모신 의미 있는 곳이고 진시황이 특별히 아껴서 자주 들른 곳이라 한다. 봉래각에 올라 바라보니 과연 해안선의 풍경에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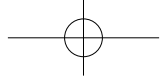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봉래 해수욕장]



[봉래각 입구]



[이유진 교수님 강의]



봉래각은 등주수성이라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등주수성은 해안가에 설치된 방어용 요새였다. 봉래각 일대는 워낙 넓어 우리가 늦은 시간에 가서 다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첫날부터 대륙의 스케일을 유감없이 접한 것이다. 봉래각을 나오며 교수님은 입구에서 짧은 강의를 들려주셨다.

“여기는 물론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아주 알려지고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의 문화유적을 관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왜 왔을까요? 바로 장보고가 이 근처에서 활약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봉래각의 역사와 얽힌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곳 일대를 장보고가 누비고 다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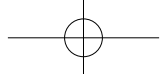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장보고와 신라 사람들이 실제로 걸었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당나라에 있던 신라 사람들은 여기 봉래근처에 많이 살았고, 장보고도 이주변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발을 들어 발바닥을 바라보게 되었다.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밟았던 길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가슴이 괜히 뜨거워졌다.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 신라인들에게 장보고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인 오늘, 여기 봉래각과 등주수성에 와서 장보고의 무역 정신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강의에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로 시작하는 김동명의 시 「파초」가 떠올랐다. 아는 만큼 보이고 그 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했던가, 봉래각을 나오면서는 무심히 보아넘겼던 성곽이나 강, 담벼락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여기부터 장보고를 찾아나서는 우리의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새삼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스치는 이 바람을 장보고도 함께 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녁을 먹고는 유방으로 향했다. 가이드는 멋쩍은 웃음으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좀 민망한 도시 이름이지만 전혀 그런 위험한 뜻은 없다는’ 곳이라 했다. 태산으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로 여장을 풀기 위한 곳이었다. 어쨌든 거리



는 만만치 않아 2시간을 넘게 달려 자정이 다 된 시각에야 호텔에 도착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린 일행은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버스에서 보았던 소설가 최인호의 장보고 관련 KBS 역사다큐멘터리는 어느 순간 쪽 빠져들게 되어 잠깐 눈이라도 붙일 엄두를 낼 수 없었다. 5부작으로 된 다큐멘터리의 2부까지만 보았는데 다음 편이 궁금해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몸은 마음과 조금 달랐던 듯, 나는 몸을 누이자마자 심연과 같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 7. 31.(일) 셋째날, 중국의 2일 태산이 높다 하되, '과연' 높구나!

근사한 호텔 뷔페로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서 우리는 고대하던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태산(太山)으로 향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라는 '티끌 모아' 만들었다는 바로 그 태산이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자외선차단제를 겹겹이 발랐다. 날씨는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태산은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일행을 놓칠 수도 있다는 당부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하긴 중국인들이 일생에 한 번은 꼭 와보고 싶어 하는 영험한 곳이라니 인파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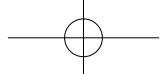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원래는 오전에 제나라박물관을 가기로 되어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박물관이 공사 중이라서 한동안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치박이란 도시에 들러 '중국 고차박물관'에 내렸다.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은 것은 더위를 썩 가시게 만드는 오싹오싹 납량특집 같은 말들과 전차 화석이었다. 제나라의 제후가 순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마리의 말과 말들이 끄는 전차가 나란히 묻힌 채 화석이 되



[중국고차박물관 앞에서]

[엄청난 규모의 순마와 전차 화석]

[역사를 바꾼 발명품 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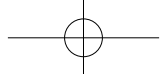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언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측은함도 있었다. 살아있는 말을 그대로 땅에 묻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참 못할 짓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천 년 전의 모습 같이 오늘날 이렇게 진귀한 볼거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니 참 아이러니하다.

박물관에는 그것 말고도 중국 고대부터 이어져온 수많은 마차와 전차, 수레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박물관에 오기 전 교수님의 안내를 되새기며 등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북방의 오랑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방 오랑캐란 실은 유목민이지요. 농경이 정착된 중국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꾸려갔지만 유목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북방 민족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등차가 있었지요.”

말을 타면 당연히 두 손으로 말고삐를 쥐어야 한다. 말고삐를 꼭 잡아야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손을 이용한 공격이 불가능하다. 유목민들이 침략을 위해 쳐들어와도 싸움을 벌이려면 말 위에서는 무기를 쓸 수가 없으니 별로 유리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등차의 발명으로 유목민은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발에 거는 등차를 이용, 말을 두 발로 조종할 수 있게 되니 두 손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게 된 기병에게 보병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유목민은 기병을 길러 중국의 여러 나라를 제압할 수 있게 되었다. 송나라 같은 경우는 그 유목민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말을 길러 대비했을 정도라고 한다. 결국 등차 하나가 강력한 원, 청 같은 북방 민족의 나라를 만든 것이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등차 하나가 역사를 바꾸었다고 생각하니 새롭게 보였다.

점심을 먹고 드디어 태산에 오르게 되었다. 35도를 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태산에 오른다는 설렘이 더위를 잊게 했다. 정상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타야 했다. 셔틀버스는 자그마했는데 여기서도 대륙의 운전 기사는 남달랐다. 분명히 포장된 길을 가는 버스였는데 내 엉덩이는 웬일인지



롤러코스터를 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위아래로 요동치는 이마와 엉덩이 때문에 옥황상제가 산다는 태산의 정상에 가는 셔틀버스가 맞구나 싶었다. 그렇다고 진짜로 옥황상제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기에 더위는 싹 달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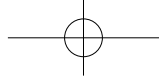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일요일이라 그런지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다. 차레를 기다려 케이블카에 올랐다. 태산의 공기는 아래와 달랐다.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냉기가 몸을 떨리게 했다. 정상에 오르는 길에는 군데군데 볼거리가 가득했다. 중국답게 옛 황제부터 현대의 마오쩌둥까지 바위에 큼지막한 붉은 글자를 새긴 곳이 많았다. 정상에 이르자 정상에 오른 소감을 새긴 바위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도 오악 중의 으뜸이라는 ‘오악독존’, 태산의 정상은 ‘과연’을 새긴 바위 등이 아주 유명해 사진을 찍기 위한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과연, 태산의 정상은 ‘과연’이 맞았다. 엄청나게 높아서, 웅장한 풍광이 눈앞에 펼쳐져서가 아니다. 그냥 과연이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황제가 직접 제사를 올리는 영험한 산이기 때문일까. 눈앞에 흐르는 희뿌연 구름 같은 안개는 그냥 ‘사바가 발 아래’였다. 정상의 바람 소리를 들으니 뭔가 더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알고 싶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기운이 있으면 옥황상제가 살 만도 하겠다는 느낌이였다. 정상의 감흥과 여운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태산을 내려왔다. 중국인들이 일생에 한 번 꼭 오고 싶어 하는 곳을 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이번 여행이 참 고맙고 큰 행운이라고 느껴졌다.



[태산으로 가는 입구] [글자로 가득 새겨진 바위] [태산 ‘오악독존’] [태산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

치박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미처 다 못 보았던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중간중간 교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다큐멘터리를 통해 장보고를 많이 알게 되었다. 일본 불교의 초기 선구자였던 엔닌 스님은 불교를 배우러 당나라로 갔지만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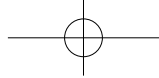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행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 때 장보고가 신라 사람들과 더불어 엔닌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 엔닌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일본에 돌아가서는 가히 신격화되었음을 알고는 많이 놀랐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시인 두목이 당나라 군대에서 활약한 장보고의 실력을 예찬하였고, 미국인 라이샤워가 무역왕이라고 부를 만큼 멀리 이슬람 문화권까지 자유자재로 드나든 해상 무역의 거장이었으며 뛰어난 리더십과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몇 번이나 우리가 가게 될 적산법화원이 나왔는데 장보고가 지은 절로 고향을 떠나 외롭게 살아가는 신라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어 장보고의 무역 활동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을 들으니 적산법화원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다큐멘터리는 장보고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다가 권력에 눈이 멀어 암살당한 사람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최인호 작가가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전해 받는 것 같았다. 장보고를 제대로 모르고 있음이 미안했고 안타까웠다. 2천 년을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장보고를 만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오해를, 후손들의 어리석음을 사과하고 싶었다. 신라명신으로 추앙받는 장보고의 위대한 리더십을 배우고 싶었다. 그러한 복잡한 마음으로 뒤척이다 새벽을 맞았다.

## 8. 1.(월) 넷째 날, 중국의 3일 세월 낚는 강태공, 사람 낚는 여행

전날은 흐린 날씨였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흠뻑렸다. 강태공 사당과 순마깁, 청주박물관에 가는 날이다. 오전에 향한 강태공 사당은 고즈넉한 중국식 정원 같았다. 제나라를 세우고 많은 공을 세운 '세월 낚는 어부' 강태공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유품을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관통도 만들어 놓았다. 입구에서부터 비가 흠날리더니 사당에 들어서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비가 내렸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사당을 돌아다니는데 비가 와서 구석구석 다 둘러보지



못함이 조금 아쉬웠다. 강태공이 강씨의 시조로 추정되기에 유품을 묻은 가묘 주위에 여러 성씨들의 비석이 보였는데 거의가 중국에서 기원한 성씨로, 공씨, 장씨, 차씨 같은 성이었다. 나는 김씨인데 김씨는 신라 시대부터 있던 우리나라 고유의 성씨이므로 당연히 여기에 없었다. 좋은 인증샷 거러 하나 놓친 것은 아쉬웠지만 내가 중국에서 건너오지 않은 자주적인 우리나라 핏줄의 사람임을 확실히 느낀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강태공 사당 입구]



[강태공에 대한 강의]



[강태공의 유품을 묻은 의관총]

이어 순마갱에 들렀는데 아쉽게도 여기도 공사 중이었다. 그냥 외부 공사가 아니라 순장된 말 화석 전체를 발굴하여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드는 대대적인 공사였다. 그래서 전시하던 화석의 일부만 그대로 내어놓고 나머지는 추가발굴 작업을 하고 있어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안내해주신 권덕영 교수님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ㄷ’자로 된 말의 무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여 기대가 되었다. 순마갱은 제후로 추정되는 사람이 죽을 때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산 채로 수많은 말을 묻은 것이라고 하니 엄청난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지면서도 죄 없는 가련한 동물의 죽음에 기가 찰다.

앞서 고차박물관에서 본 전차의 무덤과 흡사한 형태로 말들은 가지런히 누워 화석의 되어 있었다. 이토록 암전히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마도 마취제의 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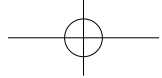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공사중인 순마갱 ①]



[공사중인 순마갱 ②]



[발굴작업단]



것이라고 한다. 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경이적이면서도 잘못된 믿음과 권력의 과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여실히 깨닫게 되었다. 또한 더운 날씨에도 학자들이 화석 뼈를 하나하나 닦아내며 조심스레 발굴하는 현장을 보니 노력이 대단하기도 하고 학문적 정성이 느껴져 감동적이기도 했다. 그 앞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시시덕거리기는 조금 미안했다. 물론 관광지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고 학자들도 그러길 바라며 발굴하는 것이겠지만, 죄없이 죽어간 말들에게도 미안하고 그 말들을 발굴하는 학자들에게도 미안했다. 이래저래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러나 순마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순마개를 떠나 청주로 향하는 길에는 세찬 비가 쏟아졌다. 어제 태산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모두 실내 답사라서 비가 큰 방해가 되지 않지만 태산에서 비가 왔다면 장엄한 정상의 풍경을 제대로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도 다 신라명신이라 일컬어지는 장보고의 은덕인지도 모른다. 태산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해주려는, 그렇게 생각하니 새삼 우리가 장보고의 발자취를 좇고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청주박물관에서 권덕영 교수님은 장보고와 청주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셨다. 청주에서 제후가 반란을 일으켜 그 진압에 장보고가 큰 공을 세웠다 하니 역시 장보고와는 큰 관계가 있는 도시였다. 청주는 당나라 때는 매우 큰 도시였기에 박물관을 잘 지어냈고 유물도 아주 많았다. 학창시절에 배운 가락바퀴, 청동거울 등의 유물들은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수없이 많은 불상, 그림, 조각, 도자기 등이 '과연 중국이구나'를 연발케 했다. 불상의 크기나 규모가 남달랐고 개수도 엄청나게 많았다. 꽤나 많은 온전히 보존된 유물을 보면서 중국의 문화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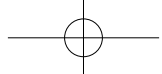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청주박물관 입구]

[박물관 입구에서 교수님 강의]

[웃는 기와 아니고 웃는 삽]

[십이지신상]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다. 곳곳에 유물이 많아 정해진 시간에 다 보기 힘들 정도였다.

박물관을 나와 점심을 먹은 후에는 이번 답사의 극한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극한 코스란 우리가 처음에 배를 타고 왔던 석도로 돌아가는 것인데 거의 400km에 달하는 거리를 사실상 논스톱으로 달리는 것이었다. 말이 400km이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가는 거리가 아니었다. 그것도 KTX나 우등 고속버스도 아닌 그냥 관광버스를 타고 네 시간 이상을 달리는 일은 사실 여행의 즐거움으로 극복하기에는 무리였다.

“여러분, 전부 내리시면 엉덩이가 납작해져 있으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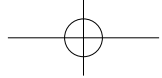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재단 직원의 농담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실제로 다섯 시간이 넘도록 버스를 타고 가니 모두들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다. 이제 역할놀이를 간다.”

여행 첫날부터 죽이 잘 맞았던 우리 룸메이트 팀은 지루한 버스 여행을 달래기 위해 멋진 생각을 해냈다. 궁하면 통한다고 자다 깨다 하며 비몽사몽으로 버스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였다.

“우리가 어제 본 다큐멘터리처럼 장보고 답사의 역할놀이를 해보는 거야. 역사 속의 한 장면을 가져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겠어? 교사인 우리가 먼저 해봐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

그리하여 역할놀이가 시작되었다. 먼저 역할을 정했다. 제일 연장자인 선생님이 장보고를 했다. 그리고 막내인 친구는 최인호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일본 영웅의 시조인 ‘신라 사부로’ 역을 맡았다. 뒤이어 순서대로 엔닌 스님, 시인 두목 등등의 역할이 정해지고 장보고를 암살한 염장, 신라방의 관리원까지 단역도 정했다. 고맙게도 나는 글 쓰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최인호 작가라는 영광을 얻어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따라 상황을 만들어 역할놀이를 하니 의외로 꽤나 재미가 있었다. 우리는 실없는 소리도 섞어가며 재미나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역할놀이가 아니었다면 지겹고 따분해 몸이 뒤틀려 참 힘든 여행이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여행은 좋은 사람과 함께 떠나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그렇게 장보고의 역사를 재창



조하는 역할놀이와 더불어 서서히 해가 지고 길고긴 버스 여행은 끝나 저녁 식사 자리에 도착했다.

버스에 지친 우리를 맞은 것은 중국식 샤브샤브인 ‘휘귀’라는 성대한 저녁 만찬이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귀한 손님을 만났다. 바로 우리 여행의 주관 기관인 한국해양재단의 이재완 이사장님이 깜짝 방문을 하신 것이었다.

“오늘 대학생 해양영토대장정에 다녀 왔는데 선생님들을 꼭 뵙고 싶어서 이 자리에 들렀습니다. 다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뜻깊은 답사를 무사히 끝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돌아가셔서 학생들에게 장보고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배!”

이사장님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건배를 하시고 잔을 권하셨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시면서 학생들에게 장보고를 잘 가르쳐달라고 거듭거듭 부탁을 하셨다. 푸근한 인상이면서도 때로는 날카로운 지식인 같은 품모가 해양재단을 이끌어 가실 리더답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이사장님의 기분 좋은 격려로 우리는 즐겁게 만찬을 즐겼다. 샤브샤브에 넣어 먹는 각종 고기와 해산물이 가득했고 특히 해산물은 매우 싱싱했다. 중국식 양꼬치구이를 비롯 각종 요리까지 곁들여진 산해진미가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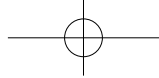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식사를 마치고 호텔 근처 해변가를 거닐며 저녁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중국의 마지막 밤이 아쉬움 속에 저물었다.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구나. 길다고 생각해도 아쉽기만 한 여행의 하루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마치 멈췄던 시계태엽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일이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 일상을 맞이해야 한다는, 여기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여행이 끝난다는 것은 그저 아쉽기만 했다. 우리는 아쉬움에 밤이 늦도록 맥주캔을 수없이 찌그러뜨리며



[한국해양재단 이사장님의 말씀]

[우리 '불4조'의 건배]

[최고의 만찬]



이야기꽃을 피우고 어떻게든 밤의 끝을 잡고 싶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어김 없이 해는 떠오르고 아침은 밝아 왔다.

## 8. 2.(화) 다섯째 날, 중국의 마지막 날 안녕 적산법화원, 안녕 장보고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예정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일정은 오전에 성산두에 갔다가 오후에는 드디어 장보고의 모든 것을 만나는 적산법화원을 답사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석도항에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여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어찌 되었든 답사는 한 번으로 끝이니까 이곳은 다시 오기 힘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중국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허투루 보이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기 아까워 전부 다 눈에 담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더 눈으로 붙잡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차에 오르니 버스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아침이 더욱 새로운 느낌이었다.

차는 먼저 성산두로 향했다. 안개로 입항이 지연되어 첫날 가보지 못한 곳이 다. ‘중국의 희망봉’으로 불리며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왔다가 바다에 가로 막혀 더 가지 못한 곳으로 태양신의 전설이 얽힌 곳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의 동쪽 끝이며 해안가의 절경으로 이름난 유명 관광지라고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산두에 도착하니 과연 명승지답게 관광객이 아주 많았다. 해안 절벽에 세워놓은 비석은 가히 절경이었다. 눈앞이 아찔한 바다 절벽 끝에 우뚝 선 비석은 ‘하늘의 끝’이라는 뜻으로 ‘천진두(天盡頭)’를 새겨 놓았는데 여기가 대륙의 동쪽 끝임을 엄숙하게 말해주는 듯 했다. 그냥 사진만 찍고 오기에 너무나 아쉬워 뭔가 정기를 더 받고 싶은 곳이었다. 울산의 대왕암 공원과



[중국의 4A 명승지  
성산두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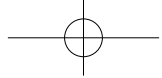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하늘의 끝,  
‘천진두’ 비석]



[교수님의 강의]



[영원한 황제 진시황]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장엄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었다.

뒤이어 방문한 진시황의 사당에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신비롭게 생각하는 진시황이었기에 소원을 비는 향불이며 자물쇠 등이 가득했다. 태산의 정상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었기에 그다지 새롭지는 않았지만 중국인들의 진시황 사랑이 유별나다는 것을 느꼈다. 어찌 보면 불로장생의 허황된 꿈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 폭군일 뿐인 인물을 그렇게 오랜 시간 기려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성산두의 감동을 가슴에 담고 차에 올랐다. 땀이 비오듯 흘렸지만 맑은 날이라 성산두의 시원한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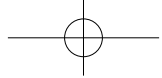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오후에는 드디어 적산법화원으로 향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벌써 몇 번이나 보도 듣고 만난 곳이다. 이제야 직접 발을 딛게 되었다는 생각에 절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당나라에 살던 신라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된 곳, 불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게 한 신라인의 정신이 숨쉬는 곳, 적산법화원은 단순한 불교 사원 그 이상이었다. 우리는 먼저 장보고 기념비에 들러 기념촬영을 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를 상징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가 직접 세워져 신라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본진이 되었지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져서 복원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장보고의 업적을 기려 이곳에 한, 중, 일의 공통된 노력으로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 사실 장보고의 활약에 세 나라 모두가 수혜를 입었으니 후손들이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장보고의 업적이 재평가 받아서 이곳은 이 근처 지역명인 적산 지역의 관광 명소이자 많은 중국인들도 장보고를 알고 배우게 해주는 중요한 곳이 되었지요. 마치 우리의 임시정부청사가 중국인들이 소중하게 다루는 유적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작년에 상하이 임시정부청사에 들렀던 기억이 떠올랐다. 초라한 이층집의 좁고 단출한 구조와 가구들. 아무리 임시정부라지만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살림집 같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러



나 거기서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곳은 비행기로 두 시간만 가면 되는 또 다른 우리나라임. 그렇다면 적산법화원 이곳도 하룻밤 즐거운 배 여행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옛날 우리 조상 신라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 속 우리나라인 것이다.

먼저 적산명신상에 들었다. 대륙의 스케일을 한껏 자랑하며 적산명신상은 황금빛 눈부심으로 거대한 몸집을 뽐내고 있었다. 적산명신상을 내려와 지친 몸을 장보고 전기관에 우뚝 선 장보고 동상이 반겨 주었다. 거대한 동상은 장보고의 위용과 호탕한 기개를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고, 대륙과 바다를 호령한 무역왕의 풍채를 잘 표현하고 있었다. 장보고 전기관은 장보고의 역사를 한 눈에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둔 것이 참 마음에 들었다. 장보고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글로 된 역사 안내를 순서대로 읽으면 장보고를 잘 알게 되고 그의 위대한 업적에 감화될 수 있는 구조였다.



[황금빛 적산명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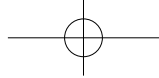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적산명신상에서 바라본 석도의 풍경]



[장보고 동상]

마지막으로 들른 복원된 적산법화원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다. 물론 원래 건물은 사라지고 1998년에 전부 새롭게 지은 건물이다. 원래 적산법화원이 있던 자리엔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다. 원래 건물은 어떠한지 무척 궁금했다. 물론 이 절을 세운 장보고와 신라인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때마침 사원 옆에 있는 커다란 분수대에서 음악분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화려한 음악과 어우러진 역동적인 분수의 움직임이 장관이었다. 중국을 떠나며 멋진 공연을 보고 가게 되어 참 기분이 좋았다. 물론 노래를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음악은 그 선율만으로 내 마음에 아름다운 인상을 남겼다.



[적산법화원 입구에서]

[장보고 기념탑 앞에서 단체사진]

[적산법화원 경내]

적산법화원을 끝으로 답사는 모두 끝이 났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일행이 무사히 석도항에 도착해 무사히 돌아가는 배를 타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인천항에 도착해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디야 끝나는 여행이었다. 우리는 무사히 배에 올랐다. 적산에서 우리를 떠나보낸 적산명신과 신라명신이라 일컬어지는 바다의 왕 장보고는 돌아가는 길까지 우리를 지켜주었다. 청해진 대사로서 끝까지 후손들을 책임진 것이다.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고맙게도 안개마저 걷어가 주었다.

### 8. 3.(수) 여섯째 날, 여행의 마지막 밤 바다 위에 떠오른 빛나는 저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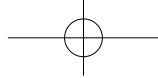
한밤중, 여행을 마치는 아쉬움이 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갑판에 올라서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 때 어디선가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찾아 주어서 고맙다.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나를 기억하는 글을 한 편 써주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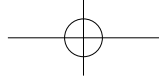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수평선 저 끝에서 한줄이 빛이 비쳐왔다.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엔닌 스님에게 나타났듯이 장보고는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칠혹 같은 밤바다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풍랑도 없이 고요한 밤바다 저 끝에 떠오르는 해상왕의 온화한 미소와 장엄한 목소리에 나는 몸이 굳는 듯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겨우 입을 떼어 외쳤다.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게 돌아가 당신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가려져 있던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아침이 되어 나는 무사히 인천항에 내렸다. 정든 사람들과 아쉬운 악수를 나



누며 간밤에 본 것이 잊혀지기 전에 수첩을 꺼냈다. 그리하여 이제 이 글을 맺는다. 다음 이야기는 나의 제자이자 장보고의 새로운 후손들이 이어갈 차례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다. 저마다의 가슴에서 장보고가 기억되는 한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답사 여행과 함께.



# 장보고 시대! 새롭게 열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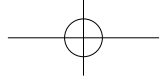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_박기윤(최우수상)

바다.

뭉게구름 아래로 펼쳐지는 코발트블루의 물빛. 파도에 부서진 하얀 포말이 백사장 위를 구르는 해변. 장 끌로드 보렐리<sup>1)</sup>의 바다의 협주곡이 잔잔히 사라지는 수평선. 이렇게 단순하고 감상적인 바다의 편견을 황해는 일순간 깨버렸다. 검은 물빛의 민낯을 부끄럼 없이 내보이는 산둥성 석도 앞바다. 여명과 함께 찾아든 해무는 잔영을 드리운 채 정오가 가까워지는데도 걷히질 않는다. 탁류에 둘러싸인 항구. 석도 항은 반갑지 않은 객을 맞은 듯 불통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

1) 1953년 파리 출생의 트럼펫 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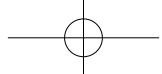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2016년 여름. 한국해양재단에서 주최하는 장보고 중국유적 답사단의 일원으로 산둥반도를 찾았다.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인물들. 그 속에 장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서<sup>2)</sup>에 더 자세히 기록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누군가가 기록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해석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역사를 끝이끝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사란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고 현재의 이해를 통해 과거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 어두운 바다를 헤치고 1200여 년 전 장보고가 찾은 곳. 무엇이 그에게 시대를 꿰뚫는 혜안을 갖게 했을까. 어떤 행적이 그를 진취적 기상과 개척정신의 표본으로 추앙받게 한 것일까. 장보고는 FTA와 같은 국가 간 동반성장의 미래를 그 시대에 예측한 사람이다. 역사의 오류를 파헤쳐 보리라는 욕심과 용기는 없다. 다만 그를 현대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더불어 중국 역사의 현장에서 새로운 부국으로 등장한 저들의 저력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다.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북아시아. 각국이 해양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바다. 그 바다를 배경으로 사라진 역사가 숨어있을 것이다.

## 무변광야를 달리며.

위해(威海)를 간다. 산둥성 동북쪽 끝에 자리한 항구도시다. 산둥에서 웨이하이까지의 고속도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직선의 도로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들판. 몇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평야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린다. 이 광야를 달렸던 장보고는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광활한 대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며 호연지기를 한껏 길렀으리라. 버스 속에서 답사를 함께하는 분들과 인사를 하였다. 우스개와 노래를 곁들인 각자의 소개 시간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을 보며 문득 옛 노래가 생각났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구전되어

2) 중국 정사 당서(唐書), 중국 제도와 문물사 문헌통고(文獻通考), 시인 두목(杜牧)의 문집 번천문집(樊川文集), 일본 정사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일본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온 노래를 주섬주섬 불렀다.

### 사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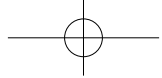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말없이 광야를 달리는 사나이  
 오늘은 북간도 내일은 만주 땅  
 흐르고 또 흐르는 부평초 신세  
 나라 위한 일편단심 목숨인들 아까우라  
 새벽별 바라보며 달려라 사나이  
 사나이 인생은 아깝지 않다

암울한 시대에 자신의 의지를 다잡으며 불렀을 노래다. 이 여정에 가벼이 부를 수 없는 노래여서 웬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들판을 가로지르며 말달리는 사나이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끝없는 대지 위를 힘차게 달렸던 사람들의 기운이 다가온다.

### 등주 항 펄 속에 묻힌 우리의 빛.

한반도를 향한 북방항로의 종착지 등주항. 장보고 시대 이전부터 등주항은 고구려와 백제 유민의 생활 터전이였다. 얼마 전 고려의 고 선박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하다. 14세기 무렵 고려의 항구를 떠나 이곳에 입항하려다가 침몰한 배. 600여 년간 펄 속에 묻혀있던 고려의 이름을 찾아낸 것이다. 등주는 발해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228년 동안 고구려를 계승하여 부활한 나라. 발해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해양력을 강화했다. 강력한 해군력으로 732년 9월에 이곳 등주성을 공격한 기록이 있다. 당 왕조가 담당한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라는 발해. 동북공정<sup>3)</sup> 일부를 중국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궤변이다. 자기들 입으로 ‘해동성국’이라 부르지 않았는가. 바다 동쪽의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발해

3) 중국에서 만주 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 문제 따위를 연구하는 국가적 연구 사업의 명칭.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다. 이후 발해는 이 항로를 이용하여 고구려 후손인 이정기의 제나라와 무역을 하였다. 등주 일대에는 많은 우리 민족들이 거주하였다. 특히 7세기 중반에 ‘신라방’이라는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살았다. ‘구당신라소<sup>4)</sup>를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이루었다. 이후 산동반도의 재당 신라인은 장보고의 통솔 아래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고 한다.

나라를 떠나는 이유야 많다. 가장 큰 것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 선택은 셋 중 하나다. 그냥저냥 살거나, 변화를 위한 투쟁을 택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1200여 년 전 한반도를 떠나 중국에 뿌리박은 한인 사회가 이곳에 존재했다. 등주 수성 주변 거리를 옷통을 벗고 활보하는 사람들. 저 무리 속에 우리 조상의 후손들이 섞여 있을 것이다. 고성을 지르며 웃고 떠드는 저들에게 뿌리라는 단어는 의미가 있을까.



[등주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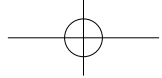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등주항]

## ‘충신과 효자가 신선이다.’

여덟 신선이 술을 마셨다는 봉래각. 등주의 봉래에는 중국 도교의 성지인 봉래각이 있다. 도교는 불로장생과 신선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신선이 되고 영원불멸로 살 수 있다는 이론이다. 봉래 바다를 오고 갔다던 신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봉래 앞 바다에는 신기루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고 전한다. 바다 위로 누각과 정자가 보이고 산봉우리와 우거진 숲이 보였다고

4) 8C 중엽 이후 당나라 연해지역 각지에 신라인들을 통합하기 위한 자치기관으로 신라의 교역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함.



한다. 사람들과 질주하는 말의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전설. 바다는 열은 안개만 깔아 놓은 채 전설 속의 그림은 보여주지 않았다. 송나라의 문호 소동파<sup>5)</sup>는 바다로 간 신선과 신기루는 환상이라고 했다. 허황한 이상만 꿈꾸는 인간들에게 ‘충신과 효자가 신선이다’라고 일침을 놓은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이 속한 곳에 정성을 다하라는 그의 글이 소공사 벽에 걸려있었다. 신선이 사라졌다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도에 이르는 길이 어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행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둘러 보아야 할 장소와 숙박지와의 거리가 멀다면 여행 가이드는 더 분주해진다. 밤늦게 도착한 숙소 로비 벽에 봉래각 신선들이 붙어있었다. 호텔 종사자들은 밤늦게 도착한 숙박객이 그리 반갑지 않은 표정이다. 고객 서비스라는 단어는 이곳에서는 그리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 같다.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해도 중국어로 대답을 투명스럽게 한다. 자국에서는 영어가 필요 없다는 행위이다. 자존심으로 해석해야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개혁 개방은 정부 일이고 개인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나라다. 지금 자신이 속한 곳에서 정성을 다해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라는 말을 다시 생각한다. 피곤한 몸을 누인다. 내일 오를 태산을 눈감고 그려볼 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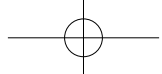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봉래각 八仙醉酒]



[봉래각에서 본 바다]

5) 중국 북송 때의 시인. 당나라의 시가 서정적인 데 대하여 그의 시는 철학적 요소가 짙었고 새로운 시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대표작인 적벽부(赤壁賦)는 불후의 명작으로 널리 애창되고 있다.



## 하늘 아래 산은 있으나 그 아래 세상은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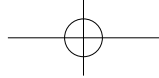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태산을 오른다. 정확히 말하면 태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다. 중국의 창세 신화<sup>6)</sup> 주인공의 머리가 묻혔다는 태산은 중국의 오악독존(五岳獨尊)으로 불리며 산중에 산으로 꼽는 곳이다. 산청, 하동, 함양군 등에 걸쳐있는 우리의 지리산 면적과 높이가 비슷하다.

중국인에게 태산은 그냥 산이 아니다. 신앙과 믿음을 주는 영적인 산으로 존재한다. 중국의 황제들도 태산에 올라 봉선 제사를 지내야만 진정한 황제로 인정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황제가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태평하고 번영한다는 믿음. 신권을 빌어 왕권 강화와 통치권을 결속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겠는가. 이들이 산을 이처럼 신성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양사상에서 차지하는 동쪽의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동(東)의 의미는 만물을 잠에서 깨우는 생명의 탄생과 연결된다. 생명의 탄생은 바로 번영과 연결되고, 역대 황제들은 그 번영을 태산 봉선 의식을 통해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고 싶었을 것이다. 산 자체가 신앙의 대상으로 풍년과 추수 감사제는 물론 홍수나 지진이 나도 제사를 올렸다.

중국의 민족 종교인 도교 발상지이기도 하며, 불교 사원도 곳곳에 있다. 여러 시대에 걸친 경문, 시문 등이 다양한 서체로 새겨져 있는 암벽 문화유적이 즐비하다. 우뚝 솟은 봉우리가 보여주는 화려한 경관과 함께 태산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중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산. 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올라야 한다는 산.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산동성 근로자들의 평균 월수입의 10분의 1 정도가 태산을 오를 수 있는 경비라고 한다. 태산의 초입에서부터 길을 따라 산 정상에 향해 걷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한 번 오르면 10년은 장수할 수 있다는 태산.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는 한여름 땀별 아래 칠천여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6) 중국의 시조신은 반고로 죽어서 그의 내쉬는 숨은 바람이나 구름이 되고, 목소리는 천둥이 되었으며,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다는 신화.



태산을 찾은 정치인들의 일화가 한동안 회자한 적이 있다. 태산을 찾았을 때 비가 오면 자신이 꿈꾸던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누구든 큰 뜻을 품어 대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로도 유명한 이 성구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태산불양토양(泰山不讓土壤), 태산은 작은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음을 크고 넓게 가져 어떠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여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게 보였다는 공자님 말씀이 떠오른다. 즉 흥 졸시 한편을 읊조리며 산을 내려 왔다.

## 태 산

오르고 또 올라 태산에 당도하니  
하늘아래 산은 있건만 산 아래 세상은 보이지 않네  
산꼭대기는 나의 도움 없어도 올랐건만  
이제 눈 아래 세상을 보지 못하니  
그저 더 높이 오르면 어찌 세상을 내려 볼 수 있으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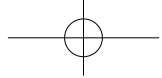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태산의 경문과 시문]

[태산 무자비]

[태산 정상]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때를 기다려 주지 않은 사람.

강태공 사당과 의관총을 찾았다. 강태공이 낚시대 드리우고 세월을 건질 고민을 했던 사건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변화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하고 주나라 문왕이 자신을 분명히 찾을 것이라며 기다린 것이다. 그는 무왕과 함께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운다. 훗날 그 공을 인정받아 봉건제의 주나라에서 제나라의 제후가 되고 시조가 되었다. 흥망의 결과로 백이숙제의 슬픈 고사<sup>7)</sup>가 충신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한 역사적 사건이 여기서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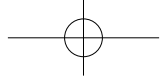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세월을 낚는다는 것은 시간을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인물이다. 군주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좌했던 유능한 정치가이자 군사 모략가의 대명사로 꼽힌다. 전쟁에서 시기(時機)는 절대적 요소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강태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당 뒤로 강태공의 옷과 관을 묻었다는 의관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의관총을 따라 강태공에서 파생한 여러 성씨의 비석이 둘러서 있다. 지금은 성(姓)과 씨(氏)가 같은 개념으로 쓰이지만, 한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구별되었다. 즉 하나의 성에서 봉토를 받아 사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씨로 분화된 것이다. 강(姜)에서 분화한 성씨가 여(呂), 허(許), 사(謝), 고(高), 국(國), 노(盧), 최(崔), 정(丁), 문(文), 신(申) 등 모두 102개나 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강태공을 그 시조로 삼고 있는 셈이다.

우리말로 된 비석을 보니 진주 강씨 종친회에서 세운 비석이다.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 중 한 분이 강태공과 자신의 성씨의 족보 자료를 부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이 사당을 방문하고 친필로 ‘선조의 높은 뜻을 받드오리다’라는 방명록까지 썼다고 하니 개운치 않은 기분이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다.

역사적으로 여인에게 매몰찬 말을 던진 남성 중에 강태공은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다. 강태공의 일화를 알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그에게 호감을 보일 여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강태공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세월만 낚던 시절이었다. 그의 부인이 가장의 역할을 거둬 요구함에도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 버린 것이다. 강태공이 훗날 제후가 되어 제나라로 향하던 길에 옛 부인을 만났다. 다시 거두어 주기를 간청하는 아내를 보며 “엎어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이요”라고 말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족의 고통을 모른 채 눈감는 남편.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판단에

7) 중국 주나라의 전설적인 형제성인.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신하가 천자를 토벌한다고 반대하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서우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맡겨야 할 것 같다. 이 부인의 죄는 강태공이 그토록 강조한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유일까.



[강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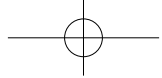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의관총을 둘러싼 성씨 비석]

## 도로 위의 외제 차, 그 아래 문헌 세계 최고의 차량 기술.

강태공 사고차박물관. 중국의 차(車) 역사와 조차(造車)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전쟁에서 사용하였던 전차와 말들이 매장된 춘추마전시관. 그리고 전국에서 출토된 여러 차량과 고대 차량을 복원한 전시관이 있다. 대륙의 주요한 교통수단이었던 고차를 보면서 저들의 근원적인 힘을 생각해본다. 중국의 고차는 고대 세계사에서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았다. 특히 말을 타는 데 중요한 부품인 말등자는 세계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한 발명품이다. 자동차의 기원을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태엽이 풀어지는 힘을 이용하여 달리게 하는 자동수레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이미 명나라 초인 1400년경에 자동차를 시험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절강성의 어떤 부자가 최초의 자동차를 시험하였다는 기록이다.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달리게 하는 로켓 식 자동수레. 기록상으로는 다빈치보다 80년이나 일찍 자동차 발명에 도전한 중국이었다.

박물관을 나와 다음 여행지로 향한다. 고속도로변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소개되는 광고판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는 감성을 자극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광고를 주로 한다. 중국은 사람 위주 즉 명망 있는 배우나 스포츠 스타 위



주의 광고를 하고 있다. 홍콩의 국민배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분명 한국 자동차인데 이름이 달랐다. 중국 내 자국 자동차 회사가 합작했을 경우 이름은 현지법인의 두 글자와 외국회사의 두 글자가 합쳐진 명칭을 가진다. 광고판의 한문이 합작회사명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전략적인 사업 대부분을 합작의 형태를 취한다. 핵심기술 습득을 위해 반 이상의 지분을 외국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변형된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 어쩌면 중국식 개혁 개방을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이 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외제 자동차의 물결. 결국,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임을 알 수 있다.

1800년대 중후반 자동차 역사의 태동기에 중국은 아편전쟁<sup>8)</sup>의 패배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 개혁 의지가 태동했던 1966년에는 무산계급 문화대혁명<sup>9)</sup>이라는 사회주의운동으로 다시 한 번 암흑기를 지냈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시작으로 체질을 급격하게 바꿨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감수하고서라도 전 세계 상품 생산기지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은 물론 생산 설비와 노하우까지 축적했다. 합작회사라는 운영방안으로 부족했던 기술개발 능력을 단시간에 흡수해버렸다. 매년 세계경제성장 1위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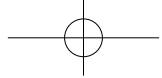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고차박물관]



[고차와 순장된 말의 화석]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기업은 일본산 차들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8) 1840년 청나라 사람이 아편을 싣고 들어온 영국의 상선을 습격한 데서 발단된 청과 영국(英國)과의 전쟁  
9) 1966년부터 10년간 중국의 최고지도자 모택동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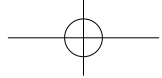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한 유럽 자동차와 경쟁해야 한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1400년 전에 세계최초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던 중국의 모험과 도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 이상의 노력과 끈기가 필요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신차효과나 감성 광고효과를 노린 판매만을 고집한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찬란한 고대의 유물들을 보면서 우리 자동차산업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 땅속에 묻힌 저 차들이 먼지를 털고 일어나기 전에 말이다.

## 손잡을 수 없는 역사, 그 간극에 서서.

청주박물관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동시대에 살지 못했지만, 중국의 역사서<sup>10)</sup>에 당당히 이름을 새긴 인물들. 그들이 함께 뜻을 함께 모았다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깊은 회한이 유물실로 가려는 발걸음을 묶어버렸다.

청주는 산동성의 중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황하 하류와 산둥반도 여러 항구와 가까이 연결된 도시. 교통의 요지이며 과거 국가의 수도를 지키는 요새이기도 하였다. 이곳 청주에는 우리 역사에 희미하게 기록된 이정기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서기 668년 고구려의 멸망으로 보장왕과 함께 당으로 끌려온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다. 출세를 위해 군인이 된 이정기는 중앙 정부에 반대하는 여러 반대파를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운다. 그 공을 인정받아 그는 청주지사가 된다. 이정기는 한반도에 버금가는 면적에 당시 인구로는 540만을 지배하였다. 10만의 군사를 지휘하는 당나라 최대의 강력한 절도사로 군림하게 된다. 이곳 청주현지(靑州縣誌)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고 수많은 농토를 새로 개간하였으며 창고에는 물산이 가득 쌓여 멀고 가까운 곳에 명성이 자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이정기가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고 독립 국가를 세워 대항하다 49세의 나이로 병사한다. 이후 당나라 현종은 당군과 선무군 및 장보고가 속한 무령군을 동원하여 이정기 왕국을 공격하였다. 이정기의 손자가 부관인 유오에게 시해당하여 사망하므로 이정기 일가의

10) 중국의 신당서 본기 숙종권과 대종권 덕종권, 구당서 본기 현종 2권, 숙종권, 대종권, 덕종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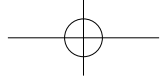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왕국은 멸망한다. 서기 818년 4대 58년간의 짧지만 의미 있는 역사였다. 산동 반도에 산재한 이정기 제국 유민들은 곧바로 해상왕 장보고 세력의 바탕을 이루며 문화적 자존심과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갔다. 중국의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신라 교민과 고구려, 백제 유민들이 또다시 일어나 황해무역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해 갔다. 제국이 망한 뒤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을 무대로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해상의 왕이 되었다. 중국천하를 지배하려 했던 이정기의 원대한 구상을 장보고가 바다에서 이루어낸 것이다. 장보고의 해상왕국은 군사 대신 무역을 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정기의 높은 기개와 해방 의지는 기억해야 할 역사이다. 확고한 정체성으로 중원 땅에 독자적인 반당 정권을 세우려 했다는 역사적 경험. 이제 다시 동북아무역경제시대에서 정치와 문화, 경제를 개척하는 에너지로 삼을만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세월을 거슬러 이정기와 장보고가 만나는 장면을 상상한다. 이른바 역사의 재구성이다. 웅대하고도 힘찬 손을 굳게 잡은 두 사람의 그림이다. 이 영웅들이 가진 에너지는 중국 천하가 두려워 할 최고의 조합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 아닌가. 박물관을 뒤로하고 걷는다. 갑자기 한 줄기 소나기가 쏟아진다. 비 소리에 섞여 ‘좁은 땅에 갇혀 아웅다웅 다투지 말고 저 힘차게 달리는 대륙을 보라’고 꾸짖는 환청이 들리는 듯하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다.

## 파라다이스를 바라보는 곳.

성산두(成山斗)는 중국에서 동쪽 끝 땅이며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일출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호미곶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한 무제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소정방이 백제와의 전쟁을 위해 출발한 곳도 성산두라고 하니 이 바다에 떠 있던 전함들은 이제 어디로 사라졌을까. 우리 서해를 붉은 깃발로 물들이는 중국 꽃게잡이 선단의 영상이 오버랩 된다. 이 바다를 통해 역사는 흘러갔지만, 또 다른 전쟁이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걱정이다. 지나간 날의 시간이 또다시 우리 곁



으로 다가오는 역사의 교훈이 새삼스럽다. 성산두 초입에 서있는 동천문은 중국수도에서 보아 동쪽의 끝이면서 이상향의 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한다. 그 문을 지나면 바닷가 끝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다. 하늘과 땅이 끝나는 곳으로 이곳을 지나가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하는 바위이다. 오후에 한국으로 떠나는 우리는 이곳 위치에서 보자면 모두 파라다이스로 가는 것이다. 진시황이 불사(不死)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불로초를 구하고자 신하<sup>11)</sup>를 출발시켰다고 하는 성산두. 아름다운 우리의 땅을 신비의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주어서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천하를 휘두르는 권세를 가졌어도 목숨은 정해져 있는 것. 자신의 허황한 욕망을 채우려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자. 그가 사라진 땅속에서나마 불로초를 보았을까.



[진시황과 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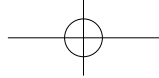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하늘과 땅이 끝나는 곳 성산두(천진두)]

[동천문]

## 빼앗길 뻔한 역사. 그리고 장보고.

석도항이 있는 영성시 적산 기슭에는 법화원이 있다. 통일신라 흥덕왕 때 산둥(山東) 반도 일대에 신라인들이 늘어나면서 절을 세웠는데 이를 신라원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신라원이 법화원(法華院)이다. 여름에는 금광명경(金光明經), 겨울에는 법화경(法華經)을 정기적으로 강의했다고 하니 신라인들에게는 법화원이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 무종(845

11) 서복 : 진나라 시황제의 영생하려는 소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수천 명의 남녀를 데리고 영약(靈藥)을 찾아 배를 타고 떠났으나 중국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년) 때 불교 탄압으로 파손된 후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해에 재건된 사찰이다. 1990년 5월 법화원이 있었다는 적산 촌을 찾은 한국의 연구진들은 아연실색했다. ‘법화사’라는 절을 일본인들이 새로 단장하고 개원식을 하려는 사실을 목격한 것이다. 그 일본인들은 ‘장보고는 일본사람이고, 법화원도 일본인이 만든 것’이라며 그 절을 새로 단장하였다. 연구진이 수차례 중국 측에 항의한 결과 중국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인들이 세우려고 한 기념비를 법화사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옛 수도 경도의 한 절간에서 신라의 해상영웅 장보고의 목상이 보존돼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저술한 엔닌은<sup>12)</sup> 그가 탄 배가 난파되어 닿은 곳이 장보고가 지어 유지하고 있던 적산 법화원이었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곳에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법화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그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장보고의 은혜를 갚는 뜻에서 교토 히에이 산 서쪽 기슭에 법화원을 본뜬 적산선원을 세우고 적산명신(赤山明神)을 모시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적산명신은 그 후 이 산의 서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주민들의 숭앙을 받아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본이 중국의 법화원을 자기들이 세웠다고 주장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칫했으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고스란히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었다.

장보가 세웠던 절터 위에 자리 잡은 가람은 신라의 절 모습이 아니었다. 중국식 색채와 일본 절의 걸모습에 내심 실망을 하였다. 그나마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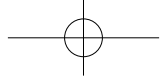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 기념탑]



[적산명신]

12) 일본 헤이안 시대의 승려. 재당 시절 및 귀국 시 장보고 법화사의 도움을 많이 받음.



의 전시물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장보고를 인식하는 깊이를 가늠할 수 있어 마음이 가벼워졌다. 2007년 4월 건립된 장보고기념관 앞에 서면 거대한 동상이 한 눈에 들어온다. 8m 높이에 무게만 자그마치 6톤이 넘는다. 월전 장우성(1912~2005) 화백의 장보고 대사 영정을 기초로 제작된 것이다. 기념관에는 장보고기념사업회가 기증한 150여점의 유물과 청해진 발굴 유물 복제품, 장보고 시대의 무역선 복원 모형 등이 전시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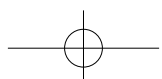
장보고는 790년경 전라남도 완도의 한 섬에서 태어났다. 당시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는 많은 신라인을 당나라로 이주하게 하였다. 장보고는 20대 초반인 810년경에 당나라로 건너갔다. 무령군이라는 군대에 소속되어 공로를 세우면서 30세에 소장(小將)이 되었다. 당시 신라 백성들이 해적에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이 있었다. 828년 귀국 후 흥덕왕에게 해적 소탕의 의지를 전하고 청해진을 설치한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신라와 당나라 및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개척하였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이 왕래하는 동남아 항로를 동아시아와 항로와 연결하는 동서 무역망을 갖추었다. 이를 두고 세계 최초로 군상(軍商) 복합체제의 종합무역상사를 만든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바로 해상상업 제국의 무역왕<sup>13)</sup>이 장보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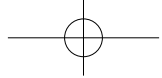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1994년 우리의 손으로 세워진 장보고 기념탑. 우리나라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그 탑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을 기념하는 탑. 그 앞에서 우리는 장보고 해상왕의 주 활동 무대인 석도항으로 눈을 돌렸다.

## 뜨거운 서해.

석도항은 소규모 항구이지만 인천을 오가는 여객·화물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 위해와 청도 등 산동성 전역으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망이 잘 확충돼 있기 때문이다. 장보고 해상 무역 시절에는 해상무역의 핵심적인 항구 역할을 한 곳이

13) 미국의 동양학자 Reischauer의 저서 *Ennin's Travels in Tang China*에서 지칭





다. 북방항로를 통해 한반도로 향할 수 있었고 황해를 건너 우리나라의 서남해를 갈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장보고 시절의 일본은 이 해상 루트를 통해 서만 무역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인천항 10개 국제항로 중 석도를 이용한 승객 이용률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짐을 선실에 정리하고 갑판으로 나왔다. 푸른색 조끼를 입은 한국인 상인과 몇 마디 나누었다. 중국을 오가며 10년째 보따리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수년 사이에 한·중 항로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의 비율이 한국인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오늘도 역시 승선한 중국인 상인은 한국인 상인에 비해 3배나 많다고 하였다. 이유는 한국 보따리상의 수입이 이전 보다 줄어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상인은 보따리상에 대한 인식을 내게 물었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노력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주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메이저급 무역거래의 틈새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땀 흘리며 채우고 있다. 저들의 모습에서 장보고의 혼이 설핏 보였다.

배가 움직인다. 거대한 몸체는 서해로 향한다. 서서히 다가오는 바다가 천천히 달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한반도 서쪽의 이 탁한 공간이 순식간에 세계와 세계가 충돌하는 굉음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중국이 그리는 21세기의 질서가 시작되는 곳. 각국의 영토 분쟁으로 시끄러워진 이 바다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옛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바다를 호령했던 장보고의 외침은 또 무엇인가. 검은 바다는 무거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어두운 시공을 팽팽하게 채우고 있는 힘들의 실체를 생각한다. 거대 공룡의 몸집으로 다가오는 메이드인 차이나. 촘촘히 그물망을 드리우고 몸을 일으키기 시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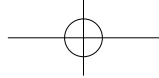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석도항]



[출항하는 중국배]



[중국 남자 화장실 격문]



대륙의 그림자가 이 바다를 덮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점점 커지는 바다. 세계를 품으려 꿈꾸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는 이 바다를 장보고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 교실에서 만나는 해상왕 장보고.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자료 수업 적용]

장보고를 만났던 여정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해상왕 장보고가 누볐던 중국 대륙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는 무엇이 이들에게 근본적인 힘이 되었는가를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개혁개방이라는 미명하에 신 이이제이(新以夷制夷)<sup>14</sup> 정책을 펴나가는 경제정책은 세계자본을 잠식하는 공식이 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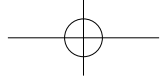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장보고 정신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첫째,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알려주고 싶다. 장보고의 삶은 도전정신으로 일관된 삶이었다. 탄생에서부터 당에서의 활동과 귀국 후의 행적을 통해 무한도전의 표본을 역사적 기록으로 전하고 싶다.

둘째, 바다를 도전의 목표로 삼은 개척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고대 해양문화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바다를 개척한 인물임을 증명하고 싶다.

셋째, 세계 경제의 흐름에 편승한 무역입국 감각을 칭찬하고 싶다. 국제적인

14) 오랑캐를 이용하여 다른 오랑캐를 통제하고 부린다는 뜻으로 이 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저나라를 제어한다는 풀이. 신 이이제이는 중국이 표방하는 개혁 개방정책을 묘사한 것



시아와 지식을 체계화시켜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을 이룬 수완을 설명하고 싶다.

넷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인간애를 들려주고 싶다. 해적들에 의해 납치되어 중국의 노비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라의 왕을 만나 해적을 소탕하겠다고 자처한 인간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말해 주고 싶다.

다섯째, 호혜·평등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한 무역능력을 설명하고 싶다. 주변국과 독특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일 삼국의 원만한 문화교류를 위해 지원하고 교역사 파견, 무역전진기지 설치 등의 무역기법을 설명해 주고 싶다.

그리고 장보고의 세계경영 모델과 세계화 시대를 예견한 장보고 해상활동의 현대적 적용 방법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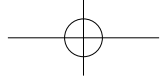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첫째,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동북아경제의 중심지를 건설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이다. 대륙문화와 해양문화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신라방을 구축해야 한다. 뛰어난 국외교포들이 세계에 퍼져있다. 해외의 한인들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재외 교포를 활용한 세일즈는 창조적인 경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장보고 정신으로 무장된 국제 무역인 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창의성을 지니고 강력한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의 육성은 다변화하는 국제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을 둘러싼 중·일 양 대국이 자존심을 걸고 경제 전쟁과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외교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쫓고 쫓기는 싸움이 연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두 나라 사이에 끼여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양국과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면 걸어가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제 무역의 상징적 인물이자 세계경영인이 지향해야 할 장보고, 그의 업적과 정신이 시사하는 역사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해양대국과 무역 강국으로 가는 동북아 중심국가가 눈앞에 있다.

제2의 장보고 시대가 열려야 한다.



# 기억속의 장보고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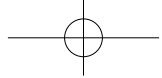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삼정자초등학교\_김창규(우수상)

## 들어가면서 - 설레임 그리고 준비

2003년부터 문을 두드렸던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 그리고 2016년!

관심을 갖고 첫 문을 두드린 것이 만약 초등학교 3학년 때라면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기에 문자 한통을 받았을 때,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을 확인 했을 때의 기쁨이란 무어라 말 할 수 없다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다. 답사 신청자 중에는 단 한 번에 된 운 좋은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기다림이 길었기에 기쁨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려 했지만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은 “방학이 그렇게 좋으세요?”라는 물음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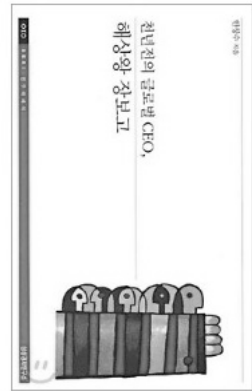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장보고 관련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을 찾았다. 아이들



수준의 아동용 위인 책들은 거의 30권이상의 종류가 있었는데 일반인이 읽을 수 있는 장보고 관련 책은 단 2권밖에 없었다. 그나마 한권은 여러 이야기 편중에 잠시 이름정도만 언급되어있는 책이었고 나머지 한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펼쳐낸 책이었다. 어떻게 해서 장보고가 해상왕이자 무역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나름 분석한 책이었는데 기업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한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라 생각되었다. 나중에 배에 승선하기 전에 받았던 ‘2016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라는 안내 책자와 중복되는 부분이 제법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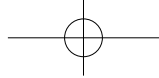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한국해양재단(전 해상왕 장보고 기념 사업회)이 주최한 주제가 뚜렷한 행사이기에 어느 정도 답사 여행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50여명이 넘는 전국의 낯선 동료교사 및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실 교수님과 함께 장보고가 갔던 길을 배를 타고 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일까? 나도 모르게 계속 주간 날씨를 확인하고 있었다.

어렸을 적에는 단순한 위인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해적 소탕’, ‘청해진 설치와 한·중·일 해상 무역 장악’, ‘왕위 쟁탈전 개입과 암살’ 등 드라마 속에서 알게 된 막연한 지식으로, 그리고 답사 선정 후 방학 중 찾아 읽은 ‘1000년전의 글로벌 CEO 해상왕 장보고’를 읽으면서 기다리는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답사’는 그렇게 빨리 가던 방학 중 시간을 아주 느리게 느리게 가도록 만들고 있었다. (물론 답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시간이 빨리 흘렀지만…….)



## 다니면서 - 인천으로

차수가 결정된 뒤 같은 지역 창원에 사는 선생님을 찾아보니 세분이 있었다. 연락을 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함께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창원에서 인천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시간마다 있어서 그냥 조용히 버스를 이용해하기로 결정을 했다. 창원에서 인천까지 5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점심도 먹어야 하



고, 휴가철이라 차량이 밀릴 수 있음을 고려하여 5일 아침 8시 인천행과 10일 오후 3시 창원행 버스표를 예매했다.

다음날 아침 창밖을 보며 날씨 체크하고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 앞에 가는 한 사람이 꼭 나와 같은 곳을 갈 것 같은 차림으로 정말 인천행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닌가? ‘답사 가시는지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이 기사 분에게 10일 날 돌아오는 버스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을 확신을 하고 용기 내어

“혹시 장보고 답사 가는 창원 고등학교 ‘이상훈’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맞는데 어떻게 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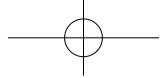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저도 장보고 답사 가는 삼정자초등학교 ‘김창규’라고 합니다.”

우연이 인연이 되는 순간이었다. 혼자였으면 조금은 지루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인천까지는 금방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창원(마산)에 계시던 다른 선생님 한분도 우리와 같은 버스를 타고 온 것을 알았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서로 많은 것이 다르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참 비슷했구나’ 하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동질감이 가슴으로 다가왔다.

## 다니다면서 - 승선 그리고 출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점심을 먹은 후 시간적 여유도 있고 버스 탑승도 답사 여행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기에 택시 대신에 신세계 백화점 건너편에서 36번 버스를 타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향했다. 명진 약국 옆에 장보고 답사 배너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 앉아 2시간 가량의 여유를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 중국말이 들렸다 우리말이 들렸다 하여 누군가 하였더니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인지 여행자인지 혼돈되었는데 여행자가 더 많은 듯했





다. 얼마 후 7대1의 경쟁을 뚫고 온 선생님들이 모여들고 조별로 줄을 서고 앞 뒤로 눈인사를 나누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2조 선생님들의 파이팅이 넘칠 줄은 전혀 몰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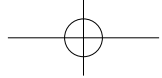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승선 시 지켜야 할 것을 안내를 받고 배표를 받은 후 출국 수속을 마친 사람부터 배에 탔다. 타이타닉을 떠 올려서 그런지 배는 생각보다 작았고 오래된 듯한 느낌(올해 9월 1일부터 바뀐다는 소식)과 ‘와! 중국 사람 진짜 많고 시끄럽네’라고 나도 모르게 중얼 거리고 있음을 알았지만 일탈을 꿈꾸며 답사의 길에 오르는 부푼 마음은 잠재우지 못했다. 303호실 키를 찾으니 먼저 받아 가신분이 계셔서 방으로 갔더니 전라도 나주, 경상도 거제, 사천, 창원에서 오신 4명이 좁지만 아담한 303호 룸메이트가 되었다.

몇 시쯤 되었을까? 드디어 인천항을 뒤로 하고 배가 출항한다. 멀어지는 인천항 풍경과 일몰을 담을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갑판 위에 올라 셔터를 누르다 문득 1,200년 전 중국으로 떠나며 멀어지는 우리의 산하를 바라보았을 장보고를 떠올린다. 우리 땅을 떠난다는 것, 13년의 기다림이 길어서였을까? 새로운 경험에 대한 들뜬 기대와 설레



임으로 잠 못 이루는데 청년 장보고는 어땠을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가져다주지 못한 우리 땅에 대한 서러움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 낯선 이국 땅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잠 못 이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이 느린듯하지만 배는 어느덧 호수 같은 바다를 거침없이 나아갔다. 해무가 있어 선명하고 아름다운 일몰은 아닐지라도 부푼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충분했다.

왁자지껄! 답사단과 중국인들이 섞여 길게 늘어선 저녁 7시 식사 줄! 15분전에 와서 섰지만 제법 많은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있었고 여전히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었다. 젓가락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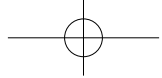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데 중국 남성이 자신의 젓가락을 나에게 건네 길래 “Thank you!”라는 말이 튀어 나왔다. 순간 속으로 ‘아이 참~ 「세세」라고 해야 하는데 바보 같이’라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났었다.

사람이 많아 저녁시간이 다소 길어져 예정시간보다 20분 늦게 선상 세미나를 가졌다. 진해해군사관학교 고정석 박사님의 강의를 있었는데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 답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었지만 우리의 답사를 알차게 해 줄 지혜의 양식이라는 생각의 전환덕분에 스카우트 활동 시절의 답사를 추억하며 강의를 즐길 수 있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당나라 시인 두목의 ‘변천문집’, 일본 승려였던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통해 들어난 장보고! 신당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사략, 동국통감, 동국통감제강, 동사강목 등에 밝혀진 장보고!

특히 미국의 동양학자로 주일대사를 지낸 ‘라이샤워(Reischauer)’는 ‘해양상업제국의 무역왕(The Trade Prince of Maritime Commercial Empire)’이라 극찬한 장보고의 존재가치에 대한 제고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에 대해 말한 꼴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해상왕 장보고 답사단의 일원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행해야하는 가를 안내하는 지침이 되었다. 또한 장보고가 1200년 전에 지배했던 ‘해양’에 지금도 키워드를 두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화두가 글을 쓰는 지금도 뇌리에서 춤춘다.

우리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 속에 일몰을 뒤로 했던 배는 깊어만 가는 어두운 밤 고요한 바다를 나아갔고 뱃고동이나 작은 엔진 떨림, 그리고 갑판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를 봐야 내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잠깐 잠깐 일깨워 줄뿐이었다. 선실 룸메이트 처음 만남의 서먹함을 달래줄 초 간단 회식을 위해 장소를 탐색하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하면 좋을 것 같아 갑판위로 올라갔지만 해무와 후덥지근함이 우리를 다시 선실로 밀어 넣었다. 결국 아주 아담한 4인실 1층 침대를 의자로, 여행용 가방을 탁자삼아 이야기를 나눈 후 잠이 들었는데 습관처럼 눈을 떴을 때는 아직도 황해 바다를 달리고 있는 이른 새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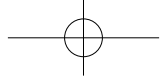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다니면서 - 답사 1 일차

일출이 있는 후 서서히 바다 저쪽으로 중국 산둥성 주변의 섬들과 어선들이 보이고 드디어 중국의 석도항 도착. 안개 때문에 하선이 늦어져 느긋하게 올림픽 개막식을 신청하다 방송을 듣고 하선 준비를 하는데 우리 조 2분 남선생님이 보이질 않아 찾아봤더니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계시다 방송을 못 들으셨다고 했다. 대기 시간이 길었고 인석상인(인천 · 석도의 줄임말인 듯)회 조끼를 입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입국 수속을 마쳤는데 강원도를 빼고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전라도, 경기도 선생님이 모두 포함된 우리 2조는 어디를 가나 파이팅이 넘쳤다.

첫째날 계획에 있었던 성산두는 시간관계상 마지막 날에 보기로 하고 위해, 연태를 거쳐 봉래로 먼저 향한다고 연변이 고향인 가이드의 안내가 있었다. 발음은 명확하지 않지만 구수한 입담은 때때로 웃음을 선사했고 오랫동안 차량을 타야하는 우리들에게 작은 활력소가 되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 물을 때쯤 '위해라는 도시는 철저하게 사람이 먼저인 도시로서 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라는 가이드 안내가 들려왔다. 신라인들이 신라방을 세우고 집단으로 거주하며 장보고 선단의 주요 활동 처였던 위해, 연태를 뒤로하고 한참을 더 달려 1차 목적지이자 산둥반도 최북단에 자리한 항구도시인 봉래에 도착하였다. 봉래각으로 향하는 도로 옆 바닷가 '팔선군조'라는 석조 조각상도 보였고 백번을 지고 핀다는 백일홍이나 강아지풀 그리고 피서를 즐기는 중국 사람들 모습에서 우리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먼저 봉래고선박물관을 견학했다. 먼 옛날 선박의 흔적, 선박 제조과정, 진시황 동상, 배의 변천사 등이 전시되어있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옛날 우리 땅이었던 요동반도와 산둥반도가 가장 가까운 발해만 묘도군도를 표시해 놓은 지도 앞에서의 김희만 교수님의 설명이었다. 한반도에서 거리상 가장 가깝지만 위험이 많은 횡단항로보다 멀지만 안전한 연안항로(沿岸航路)를 따라 중국과 왕래를 하려면 이곳을 이용했다는 이야기였다.

다음은 봉래각! 봉래각은 봉래의 북쪽 해안가 가파른 절벽으로 된 단애산 정



상에 있는 2층의 건물로 중국 4대 누각 중 하나에 속하고, 2층에 ‘팔선취주’라고 이름 붙인 조각상을 두어 ‘중국 도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는 교수님의 강의와 읽었던 자료를 머릿속에 염두 해두고 이곳 저곳을 유심히 살피며 카메라에 담으려 노력했다. 그때 어디선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진은 다 나오는데 굳이 왜 사진을 찍으려는지? 와이프하고 여행가면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사진으로 찍어도 지나면 가물가물한데 찍지 않으면 기억 속에 담아 두기가 너무 어렵고 각을 잡으며 카메라 앵글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려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런 저런 모습을 카메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 기억 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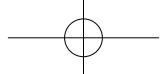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봉래각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과 등주수성은 산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어서 인지 꽤 인상 깊었다. 바다에서 싸우거나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군(해군)의 중요성을 미리 알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다. ‘조선시대 이순신이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합류했다라면 조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동해 용왕이 거주하는 용왕궁, 바다를 다스리는 여신을 모신 곳인 천후궁외 생각나지 않는 여러 건물들이 수성안에 있었고 내려오는 도중에 명나라 때 척계광 동상이 여전히 등주수성을 지키고 서 있었다.

“척계광하고 척사광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라고 곁에 있던 고경석 박사님께 물었더니 “척사광이 누구죠?”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척사광은 SBS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나왔던 최고 검술의 소유자인데 드라마속에서 얼핏 척



계광에 대해 들은 것 같아서 물었지만 드라마속의 척사광은 만들어진 인물임을 뒤에 알았다. 우리나라 이순신처럼 해군을 지휘한 용맹한 장수인데 재미난 사실은 척계광이 엄청난 공처가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만명의 원수는 무섭지 않으나 집안에 있는 한명의 원수는 무섭다.' 라는 말을 남겼다는데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의 등주항과 등주 수성은 항구와 수성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신선의 성지인 봉래각과 함께 해안의 절경을 감상하러 사람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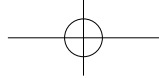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멈출 수 없는 지구의 자전으로 태양은 어느덧 서산 아니 서지로 서서히, 우리보다 1시간 늦은 중국의 하루해가 저물어 가고 우리의 배꼽시계도 신호가 울쭈 식사하러 간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어떤 여행지에 가던 그 지역의 요리를 맛보며 아무거나 잘 먹는 습성은 어쩌면 복 받은 일이라는 생각에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감사한다. 우리 2조에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를 잘 구사하시는 김성자 선생님도 어떤 음식이든 잘 드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식사 전 우리 2조는 늘 반주로 건배를 외쳤는데 어느 순간 다른 조들도 같이하고 있었다.

우리조가 선발주자!! 역시~ !!

연의 도시 유방 숙소까지는 거의 3시간! 차량이동시 긴 시간에 툼툼이 교수님 강의나 장보고 관련 비디오, 그리고 가이드 설명을 들었었는데 저녁 식사 후에 듣는 교수님 강의는 졸음 때문에 가물 가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한 참 후 숙소에도착한 우리 2조는 '그냥 잘 수 없잖아?' 한마디에 시간이 늦었음에도 우리 방으로 전원 모여서 이름 외우기 게임 등을 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고 '어떻게' '왜' '몇 번 만에' 답사에 참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하다 12시쯤 내일을 기약했다.

## 다니면서 - 답사 2 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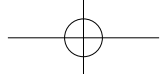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따르릉 따르릉” 모닝콜이었다.

아직 설레임이 남아 있는지 모닝콜이 울리기 전 벌써 눈을 떴었다. 보통 여행지에 가면 저녁이든 아침이든 숙소 주위를 둘러보는데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출발해야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넓은 곳을 다니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오늘은 중국고차박물관과 태산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뿌리고 있어 ‘어! 안되는데, 비가 오면 태산을 어떻게 등정하지’하며 걱정하는데 “태산은 여기와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고 오후에 등정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올수도 있어요”라는 가이드 말에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비 내리지 말라고 빌었다.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수박들이 널브러져 있는 허름한 곳으로 들어섰다. ‘박물관 간다고 했는데 어디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박물관 가는 반대편 길이었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 발견된 대규모의 차마유적이라는 설명에 맞게 고속도로 바로 옆 지하에 전시관이 있었는데 전시관으로 들어서니 먼저 들어갔던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는 중이다. 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처음 보는 장면에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TV나 잡지 사진에서 진시황릉 병마용갱만 보았지 직접 이런 장면을 보기는 처음이기에 생각했던 것보단 작은 규모지만 가슴속 울림은 제법 컸다. 2800년 전에 만들어진 중국 최고의 전차와



말의 유적이라고 했다. 살아있는 말을 이렇게 순장했을까? 어떤 권력이 이런 대규모 매장을 가능하도록 하였을까? 허름한 길보기와는 달리 그 규모와 소장품들의 역사적 무게에 다시 한 번 감탄을 금치 못했다. 춘추차마전시관에서는 일승마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전차병의 모습, 매장된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중국고차진열관에서는 고대 차량을 복원한 차량, 복원 모형이 진열 되어있었다. 마차를 이끄는 동물이 말만이 아니라 소, 낙타, 코끼리 등 다양했다. 옛날 주나라부터 춘추전국시대의 황하강 유역, 산둥성의 경제적, 군사적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이었는데 뒤편 입구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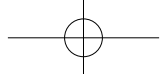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이제는 태산이다. ‘티끌모아 태산’의 속담,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뾰이로다 ~’로 시작되는 시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산, 공자가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게 보였다는 중국 5대 명산 가운데 으뜸으로 일컬어지는 ‘오악지장’, ‘오악지존’ 천하제일의 명산, 그 산이 바로 1545m의 ‘태산’이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와서 인지 아침 나절 잠깐 내리던 빗방울은 거의 사라지고 구름인지 안개인지 이름 모를 수많은 물방울을 끌어 앉은 채, 정말 많은 중국인들을 품에 앉은 채 우리를 맞이했다. 나도 그 품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었다. 태산에 올랐으니 10년은 젊어질까? 7412개



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 효험이 없을려나? 안개가 없었다면 공자님께서 가졌던 느낌을 공유하며 깊은 골짜기와 자연 풍경을 온 몸으로 느끼고 가슴에 담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시원한 신비스러움만 한 움큼 가져온 것이 못내 아쉬웠다.

태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숭상은 지나칠 정도다. 태산이 위치한 황하 하류에서 중국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 뒤 많은 나라가 건국되어 황제이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받고 땅에 알리는 봉선(封禪)의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태산의 최고봉에 세워진 옥황정은 황제가 봉선의식을 거행했던 곳이라고 했다. 봉선의식은 기원전 219년 진시황에 의해 시작되었고 현재 옥황묘 옆에 남아 있는 ‘고등봉대’의 표지석은 역대의 황제들이 봉선을 행하면서 권위와 위상을 강조했던 뜻깊은 장소라고 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태산은 좀 관찮다고 생각되는 바위에는 어김없이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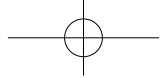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1800여개의 석각이 있어 ‘석각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오랜 시간을 역사와 함께한 글씨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이 글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다.” 라는 말을 여러분의 선생님이 이야기 했지만 나는 반대로, ‘글씨? 자연의 아름다움은 있는 그대로 때 묻지 않은 자연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다소 인공적이지만 비석에 비문이 없는 한무제가 세운 무자비가 기억에 남는다.

또한 바위산인 우리나라 전라도 월출산, 합천의 악견산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태산보다 더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방식 이내 피 속에 흐르고 있거나 구름 속에 갇혀 있어 태산의 진정한 면모를 보지 못한 나만의 편견일 수도 있으리라! 천가(하늘거리)



에서 하룻밤 머물고 태산의 진면목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갔던 길을 그대로 다시 온 것이 아니라 고경석 교수님과 함께 봉우리를 한 바퀴 돌아서 왔다는 것이었다. 공사 중인 태산의 백운정에 앉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산을 느껴볼 여유가 없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중국인이 죽기 전에 그토록 오고 싶어 한다는 태산에 작은 꿈 한 가지를 물어놓은 것만으로 감사히 여겼다. 구름 속에 거닐었던 태산! 지금도 서늘한 기운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아마 불타는 한반도 때문이리라…….

시원함을 뒤로하고 다시 만호대주점 숙박시설이 있는 치박으로 향했다. 어제 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 “내일 새벽 독일과 축구하는데 응원해야겠죠? 자면 힘들고 밤새면서 응원합시다.” 라는 우리 조 강정권 선생님 말에 모두가 호응을 했다. 1조 2분 포함해서 12분의 선생님이 모여서 어제 못 다한 회포를 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피곤하신 분은 먼저 가시고 30분쯤 잠깐 졸다 일어나니 3시 10분쯤, 그 사이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룸메이트도 잠들어 있었다. 결국 혼자서 열심히 한국과 독일 전 응원했는데 3대 2로 이길 때만 해도 혼자 응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후반전 추가시간 3분에 한글을 지키지 못하고 3대 3 동점골 허용. 답사로서 답사 생각은 안하고 올림픽 축구 보고 있어서 그랬나?

## 다니면서 - 답사 3 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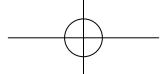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따르릉 따르릉” “세세 ~”

샤워를 하고 정신을 차린 후 뱃속을 든든히 하고 출발준비, ‘관중포숙’ 스토리가 있는 제나라 박물관은 공사 중이라 못가서 못내 아쉬웠지만 아쉬움을 뒤로 하고 강태공묘와 순마갱, 청주박물관으로 출발! 리무진 버스지만 제일 뒷자리가 조금 불편하다보니 조금 나은 자리를 앉기 위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풍경이 그려졌다.

먼저 강태공 사당으로 갔다. 139세까지 살았다는 강태공은 춘추시대의 오패 가운데 하나이자 전국시대의 칠웅중의 하나로 산둥반도 이대를 장악했던 제나라의 시조이다. 강태공의 시신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가 썼던 모자와 옷을 묻은 무덤인 ‘의관총’ 그 앞에 사당을 세웠다.

‘강태공’하면 기다림의 원조 ‘낙시꾼’이라는 한량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강의를 듣고 사당을 둘러보면서 낙시꾼 한량 이미지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실제 강태공의 작은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러 성씨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듣는 순간 사진을 잘 찍지 않던 모 선생님이 “우리의 조상인데 사진하나 찍어주세요.”라며 부탁하기도 했던 강태공 사당! 전시실에는 노태우 대통령 사진이 있었으나 반갑지만은 않았는데 이유는 모르겠





다. 비석과 울타리 돌이 없다면 무덤이라기보다 작은 숲 같은 느낌, 원형문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던 사당이였다.

다음은 순마갱! '제경공 순마갱'은 제나라 군주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로 춘추전국시대에 산동성 일대를 지배하던 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유적이였다. 전쟁 시 기병전의 핵심인 말을 순장할 수 있었다니, 그 대단함과 잔혹함에 소름이 돋는다.

우리가 관람한 전시실은 옥수수 밭 한 칸에서 발굴중이고 작업 중인 곳으로 유리장 안에 백 마리가 넘는 뼈만 남은 말들이 두 줄로 나란히 똑같은 자세로 안치되어 있었다. 진시황 병마용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이지만 그 대상이 실제 살아있는 말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발굴 중이었는데 유리벽 안에서 작은 붓으로 조금씩 놀리는 손짓에 진지함을 느끼면서도 '참 힘든 작업이겠구나!' 라고 더위와 함께 가슴을 무겁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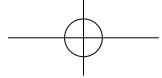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돌아 나오는 한 쪽 어귀에 두 분의 노인이 옷을 벗고 탁구를 치는데 자세는 엉성하지만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탁구장국 중국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다.

오락가락하던 비가 강태공사당과 순마갱을 관람할 때는 비가 잠시 멈춰주더니 청주박물관에 도착 했을 때는 참았던 비를 한꺼번에 뿌린다. 물 빠짐이 되지 않아서인지 도로가에는 물이 찰랑거리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하는 듯 흐르고 있었다. 준비한 우산을 펼쳐들고 청주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5성급이라



지만 1959년도에 지어져서인지 부분 부분 수리해야 할 곳도 있었고 옆 건물 전시실로 이동시에는 비를 맞고 가야된다는 것이 작은 불편함을 주었다. 박물관 처마 밑에서 빗줄기 물보라를 맞으며 빗소리 장단에 맞춰 열강하시던 선배님을 많이 닮은 교수님! 이정기 일가가 당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



켰을 때 장보고는 서주 무령군에 속하여 진압에 참여했고, 진압과정에서 신라 소와 해당 주현에 의해 치밀하게 통제되는 재당 신라인 및 발해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장보고가 이정기 이후에 신라와 당, 신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활동을 빠르고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흥미거리가 다소 부족한 듯하지만 이 지역이 장보고와 재당 신라인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는 곳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신라지만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낼 때 고구려유민과 신라가 힘을 합친 것처럼 ‘고구려 유민 이정기와 신라의 장보고가 힘을 합쳐서 당에 대항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잠깐 상상도 해보았다.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12개의 전시실 물품들. 특히, 박물관 남쪽에 위치한 용흥사 유적에서 발굴된 400여기의 불상·보살상·나한상·비천상 등 불교 조각상이 인상 깊었는데 발굴 중에 깨어진 것을 이어 붙인 것도 있었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잠깐 여행하고 오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박물관을 나온 뒤에도 여전히 비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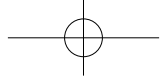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가이드님! 버스에 비가 썩니다. 어떻게 해요?” 라고 가이드에게 묻자

“버스 속은 독일제인데 껍데기는 중국산이라 어쩔 수 없어요. 기사도 답이 없답니다.!” 라고 가이드가 대답했다.

“하하하 ~ 하하하~!” 버스 안은 한참 동안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만 막상 빗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앉은 선생님은 안절부절 빗물 닦기에 여념이 없어 웃고 있기에는 조금 미안했다.

가로등 위에 나비모양의 무늬가 늘어섰던 유방에서 점심을 먹고 첫날 우리가 도착했던 석도로 향하는 톨게이트 입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듯 했다. ‘사고가 났나? 뭐지?’

“비가 많이 와서 대형차나 버스는 고속도로 진입을 못합니다.” 라는 가이드의



안내가 있었다. 안전을 우려해서 진입을 금지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을 이곳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안전 속도를 지키도록 안내하면 되지 굳이 진입을 막는 것 또한 중국의 문화라 생각하며 조용히 기다리기를 한참 누군가가 답답했는지 질문을 한다.

“그냥 국도로 가면 안되요?”

“국도로 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 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난 후 가이드가 또 한마디 한다.

“중국은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30명 이상 사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50명이 사망하던 100명이 사망하던 29명 쯤 사망이고 나머지는 실종이거나 사장자로 보고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고 옷을 벗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고개도 기울었다. ‘버스의 고속도로 진입도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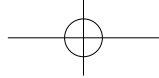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쯤에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한참을 달리고 달려서 중국에서의 마지막 숙소이자 첫날 만났던 석도 ‘적산대주점’에 도착하였다. 마지막 밤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양재단에서 준비해준 해물 샤브샤브와 함께한 최후의 만찬! 다양함과 푸짐함에 감사하면서 밤늦도록 소중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충분히 적절한 회식을 즐긴 우리는 숙소에서의 2차는 생략하기로 하고 조용히 방에 가서 짐을 풀었다. (과유불급!) 만호 대주점도 좋았지만 적산대주점은 더 좋았는데 무엇보다도 주변이 바닷가라서 정말 좋았다.



여느 때보다 일찍 호텔의 품안에 안겨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잠자리 시간이었다.

## 다니면서 - 답사 4 일차

모처럼 단잠을 자서인지 모닝콜이 울리기 전 아침 일찍 눈을 떠여서 카메라



를 들고 호텔 밖을 나섰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다. 호텔주위는 광장처럼 넓게 펼쳐져있고 화단도 잘 가꾸어져 있으며 가슴을 탁 트이게 해주는 바다도 있었다. 호텔보이와 길거리를 걷어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음악을 틀어 놓고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벤치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며 혼자만의 여유도 즐기면서 1시간 가량 호텔주위를 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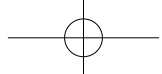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우리의 입맛에 제법 잘 맞는 호텔식 아침 식사를 하고 첫날 보지 못했던 성산두로 향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가로운 해안마을의 풍경을 감상하며 첫 번째 답사예정지였던 성산두, 잠깐 갈 줄 알았는데 약 1시간가량을 달려 중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해안 절벽으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태양이 떠오른 곳, 중국의 희망봉’이라 불렸다는 성산두에 도착하였다. 매표소 입구에 기린과 반달곰이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반겼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닭이 울면 이곳에 들린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 이리라!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었다. 그때 였다.

“2조 모이세요. 단체 사진 찍읍시다.” 라는 말에 2조 선생님들은 함께 손으로 브이 자를 그리며 찰칵!

진시황과 얽힌 이곳의 역사이야기부터 우리가 있는 이곳 바다의 역사적인 중요성 그리고 대륙의 끝 새로운 바다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까지 그냥 단숨에 보고 감탄하면서 사진 찍기에 급급했을 뻔했는데 동행한 교수님의 강의가 의미 있는 답사임을 한 번 더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찬찬하게 둘러보며 진시황은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그리고 꿈꿨을까?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이면서 거대한 중국을 통일 했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그도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 왔다는 이야기는 욕심으로 치부하기엔 안타까움이 찾아들어 진시황의 마음이 정말 궁금해진다. 진시황 행렬을 형상화 한 동상들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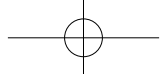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어 진시황 마차로 올라 사진을 찍으려는데 손짓을 하며 “살라 썰라~”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 급하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퍼뜩 찍고 내려왔다. 옆에 있던 가이드가 하는 말이 5위안을 내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말이었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살리기보다 터를 넓게 닦고 시멘트로 광장과 계단을 만들어 인공적인 미가 가득한 성산두는 ‘거대한 해안 절벽’, ‘하늘이 끝나는 곳’이란 명성을 조금은 퇴색하는 듯 해 안타까움도 들었다.



다음은 진시황 사당! 진시황 사당 앞에 커다란 향 서너 개에 불을 붙이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원하는 사람들! 진시황과 같은 소원을 빌고 있을까? 무엇을 빌고 있을까? 생각하며 둘러보았다. 그런데 진시황 바로 옆 건물에 청일전쟁 때 순국한 등세창 사당도 함께 있어 시공을 초월한 사당의 공존은 나에게 조금은 어색했다.

점심 식사 후 마지막 장소, 우리가 여기를 온 이유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종결 점 적산법화원으로 향했다. 장보고가 당나라 무령군의 소장으로 있을 때 1년 수확량이 500섬이나 되는 토지를 기본 재산으로 적산촌에 창건한 법화원은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 사원이었다.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 간 왕래 사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 기도 도량이었다. 엔닌에 의하면 당나라에 구법하고서 귀국하려는 신라 승려는 물론 일본 승려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적산 법화원이 자리한 적산풍경명승구 일대는 중국의 ‘AAAA’급 관광명승지로 개발한 특별구역으로 장보고 기념탑, 장보고 기념관 외에도 적산명신상, 영성민속관, 청동관음보살상과 관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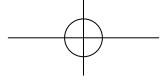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적산선원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산법화원도 그 주변시설도 내가 기대하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장보고가 주인공일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장보고 기념탑과 장보고 기념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 답사원들 밖에 없는 것 같았다. 세계 여행지에 가면 우리 나라 사람이나 우리 나라 여행사가 제법 보이는데 몇 일 동안 둘러본 곳과 이곳 법화원일대는 우리 외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법화원 보다는 석도항을 굽어보는 거대한 적산명신상과 분수가 설치되어 한 시간마다 돌며 만인의 복을 빌어주는 청동관음보살상, 엔닌의 적산선원에 집중되고 있는 듯 보였다. 하기가 내 눈에도 첫날 도착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도 적산명신상 이었고 마지막 날 아래에 봤을 때 그 크기에 압도당했으니 남을 탓 할 일이 아니었다. 가이드도 관음상 분수 쇼를 보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곳 법화원은 1972년에 터가 발견된 뒤 1989년에 다시 지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장보고가 세운 절임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적산법화원의 건립이 엔닌을 추앙하기 위한 일본인의 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해상왕으로서 장보고의 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장보고’의 자리매김이 너무 허술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적산을 둘러보는 내내 기뻐지지만은 않았다. 위안이 되는 것은 장보고는 신라인이었으며 당과 일본, 그리고 인도양을 넘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아우르던 세계인이었다는 것, 엔닌이 법화원의 위력과 장보고 대사의 아량에 감응,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적산법화원의 실체를 기록했다는 사실과 적산법화원이 일본 자기 조상의 행적과 관련된 곳이라서 애착을 가졌지만, 적산법화원을 건립한 이는 막상 신라인 장보고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적산법화원은 복원되고 건너편에 장보고 기념탑과 기념관이 갖추어져 이전 중국인 뿐 아니라 한국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는 것, 한국해양재단(전 해상왕 장보고 기념 사업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답사단을 보



내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도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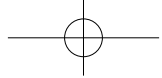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나오면서 - 감사 그리고 변화

승선하고도 한참을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은 아까웠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법회원 일대를 좀 여유 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가슴을 비집고 들어온다.

저녁메뉴였던 육개장을 두 그릇이나 비우고 2조 선생님 몇 분과 303 룸메이트가 함께 아쉬움을 달래며 연락처를 주고받고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별주 한잔으로 달랬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 위에서 바다를 보며 끊임없이 출렁이는 망망한 바다위에서 1200여년전 꿈을 펼치던 한 영혼, 안분지족을 넘어 꿈을 가지고 현실을 개척해 나갔던 삶을 짧게나마 더듬을 수 있었던 답사여행에 감사한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같은 일정이었지만 귀를 즐겁게 해주셨던 교수님들의 강의가 있었고, 파이팅 넘치는 2조 선생님들이 계셨고, 늘 가고 싶었고 꿈꾸어왔던 답사라 작은 아쉬움은 저 발끝 밑에서 조용히 움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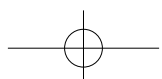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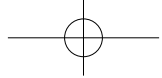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릴 수밖에 없으리라!

어젯밤 아니 낮에 승선 후 한참 후 출발한 배는 역시나 오늘 예정시간보다 늦게 인천항에 도착한다. 안개 때문에 하선은 더 늦어졌다. 그래도 괜찮다. 가는 날과는 아주 많이 다른 내가 돌아왔으니까. 무엇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상 역사를 살펴볼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껏 역사에 대해 대략 알고 있던 나에게는 크나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어렸을 적 계몽사 15권짜리 한국 위인전집에서 읽었던 막연한 장보고에서 조금은 뚜렷하게 그려졌던 답사,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고 백 번 행하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게 낫다’는 깨우침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답사 여행이었다. 또한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에 이어지고 다시 우리의 미래를 운명 짓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우리는 수비적인 삶이 아닌 장보고처럼 진취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이었다.

창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는 것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유홍준 교수님의 말을 빌어 바다와 장보고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빌었다. 나아가 나를 거쳐 가는 우리아이들과 여러 주변 동료선생님 들께도 해양과 장보고에 대한 나의 기운이 나누어지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로 다짐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여운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안전하고 알찬 답사를 위해 도와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펜을 놓는다.

가까운 시일 내에 완도도 다녀와야겠다.



# 동아시아 해상을 활보(闊步)한... 활보(弓福) 장보고

귀인초등학교\_장문요(우수상)

張保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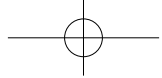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섬마을 청년이 꿈 따라 바다를 건너다!

장보고의 꿈을 쫓아 가보자!

8월의 이글거리는 태양... 활보라 불리는 섬마을 청년이 꿈을 찾아 새로운 땅으로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혼란하고 도탄에 빠진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향하는 청년 장보고의 마음을 생각해보며 이번 장보고 유적지 답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인천항에 정박한 엄청난 규모의 화동훼리호에 오르면서 내 마음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차고 있었다.

화동훼리호 선상에서 이루어진 세미나는 이번 여정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다.



배를 타고 가는 새로운 경험에 덧붙여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여러 장소들과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장보고의 이름 이야기, 세계 3대 중국기행문으로 일본승려 엔닌이 쓴 <입당구례행기> 이야기, 당나라 시인 두목이 쓴 <번천문집>에 나타난 장보고 기록들에 대해 설명 들으



[선상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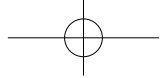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며 한층 더 이국땅에서 오로지 맨몸으로 인간 승리를 이끈 장보고의 명성이 중국과 일본에서 깊게 새겨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라도 더 알고자 열정에 가득 찬 눈빛을 가진 50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뜻 깊은 선상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 장보고도 이렇게 생경한 아침공기를 맞이했을까?

날이 밝고 생기로 가득 찬 석도항에 도착했다. 석도의 아침공기는 한국의 것과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장보고가 어느 곳에 첫발을 내딛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낯설었을 것이다. 섬마을 소년으로 태어나 활을 잘 쏘던 청년이 오로지 자신만을 믿고 미래와 희망을 쫓아 새로운 땅에 왔을 때는 그 두려움과 떨림은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이다. 장보고는 제일 처음 무엇을 했을까? 말은 통했을까?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을까? 등 궁금증만 더해져만 갔다.

#### 산둥에 첫발을 디딘 우리의 첫 목적지는 '봉래'였다.

우리를 태운 버스가 한참을 달려 나타난 바닷가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곧이어 잘 조성된 공원이 나타나고 바다에 살았던 전설 속 8명의 신선들을 표현한 거대한 팔선취주(八仙醉酒) 조각상이 나왔다. 일정상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여유로운 표정의 여덟 신선들의 모습이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현대 건축물이지만 차에서 내려 그 섬세한 표정과 세세한 몸짓을 살펴보지 못해 아쉬웠다.



[고선박물관 - 친숙한 모습의 신라관]

장보고가 해상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배를 이용, 활용했을 것이다.

우리가 차에서 내려 수성 문을 지나 다리를 건너 도달한 곳은 그러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고선박물관이었다. 장보고는 섬사람으로 태어나 거친 바다와 함께 보낸 인물이었기에 배와 항해에 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

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박물관에 들어섰다. 다양한 형태의 배를 보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방법인 연안항로와 황해 횡단항로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금과 같은 항해술이 없던 시절 어떻게 망망대해를 건너오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횡단항로는 2일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인천 사람은 산동의 여자와 결혼할 확률이 경주의 여자와 결혼할 확률보다 높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와 중국의 배들이 수없이 서로를 오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박물관 곳곳에는 한민족의 발자취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신라인, 고려인들이 무역을 위해 머물렀던 신라관, 고려방을 보았고, 고려청자가 발견되어 고려시대 무역선으로 추정되는 배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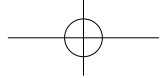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발걸음은 중국의 4대 누각이라는 봉래각을 향했다.**

누각을 오르는 야트막한 언덕길에는 장난스런 모습을 한 사자 석상들이 있었다. 어미와 새끼처럼 보이는 석조물들은 엄숙하고 근엄한 모습이 아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어 친근하게 느껴졌다. 도교의 성지라



[봉래각 - 끝없이 펼쳐진 황해를 내려다보다]

불리는 백운궁을 지나 봉래각에 오르니 그 명성처럼 황해가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해안절경과 수성이 어우러져 멋진 풍류가 흐르고 있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신선이 노니는 신기루를 보았다는 말처럼 나도 곧 그러한 신기루를 볼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팔선취주의 조각상과 황해, 등주수



성의 절경들이 어우러져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그 옛날 한반도로 출발하는 이곳에 장보고의 발자국도 역사 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기대와 흥분으로 고동쳤다.

역사적으로 군사적 요충지이며 수많은 교역이 이루어졌을 이곳에 수성까지 지은 것은 그 중요성이 당시 얼마만큼 중요했던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등주수성과 함께 보이는 황해는 낯설기도 하며 친숙하기도 한 모습이었다. 자꾸만 황해로 눈길이 가는 것과 발걸음이 멈추려하는 것을 달래며 차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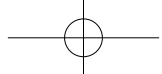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새로운 땅에서 꽃 핀 청년의 꿈

바닷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수영을 잘 하거나 물고기를 잘 잡는 것이 아닌... 활을 잘 쏘다?!

얼마나 활에 정통했는지 이름조차도 ‘활보’, ‘궁복’, ‘궁파’였을까. 옛 속담에 ‘글로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무예로는 그 사람의 덕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활’이라는 도구를 통해 장보고는 정확성과 강한 힘 그리고 움직이는 사물을 정확히 맞추어 내는 집중력을 가진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꾸준한 기량 연마와 수련을 통해 높은 경지에 이르는 인내심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당연히 성공의 밑거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장보고는 10년 인고의 세월을 지나 당의 무령군 소장에 오르게 되었다.

당나라는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으나 지방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하는 쇠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당나라는 ‘초재진용(楚材晉用)’의 정책을 통해 산둥반도를 장악한 막강한 세력인 이정기 일가의 반란을 해결하려 하였고 이 때 장보고는 반군 토벌에 두각을 나타내어 난을 진압하였다. 결국 그 공을 인정받아 관직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역만리에서 갓은 고초 끝에 꽃을 피운 결과였다. 장보고가 반군 토벌에 나선 곳은 바다가 아닌 육지이다. 따라서 육상전투의 중요 요건이었던 전차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임치의 고차박물관은 고대마차를 전시한 중국 최고의 차마 유적 박물관이었다.

끝없이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는 고속도로를 한참을 달려 임치의 고차박물관에 도착했다. 그곳은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 순장마차들을 발견하게 되어 그곳에 박물관이 세워지게 된 유래가 있었다. 당시 '전국10대 고고학 발견의 하나'



[고차박물관 - 역사와 함께 화석이 된 말과 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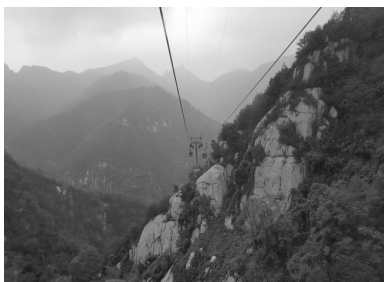
로 평가될 만큼 대단한 발견이었다고 한다. 박물관은 춘추차마전시관과 중국고차진열관으로 나누어져있으며 뼈만 남은 말과 바퀴 등을 통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차들은 군사력을 나타내는 척도였다. 말과 수레는 주요이동수단이었으며 전쟁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이다.

장보고도 육상전투에서 이러한 말과 마차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산동지역이 넓은 평원인 점, 먼 거리를 효과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군사적 기동성의 필요, 군량과 물자의 보급 등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만큼 다양한 형태와 동물이 이끄는 마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며 이들 전시물을 보며 잠시나마 장보고가 이끈 군사의 성격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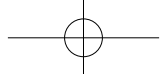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우리는 중국 제일의 명산, 태산으로 향했다.

중국 오악(五岳) 중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는 태산(五岳之長, 五岳獨尊)으로



[태산 - 케이블카에서 보이는 태산의 환상적인 절경]

출발했다. 태산의 날씨가 걱정되었지만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차에 올랐다. 황하문명이 시작되었고, 황제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봉선의식을 행했으며, 조선 전기 4대 서예가인 양사언의 시조에도 나오는 태산을 내가 직접 가게 되어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다. 도착해보니 다행히 안개만 끼었을 뿐, 태산에 오르기에 나쁘지 않은 날



씨였다. 하늘은 나에게 태산이라는 신성한 산을 허락해 주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태산의 풍경은 절경이었다. 천천히 걸어 오르며 태산의 소소한 것을 느끼는 것과 비유할 수 없겠지만 태산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감히 환상적이라 할 만 하였다. 중국의 산은 한국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탄과 환희가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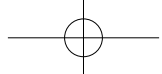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진시황과 같은 황제들이 올랐고, 공자와 같은 성인들이 올랐으며, 수많은 글귀와 책에 나오는 태산을 오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특히 수많은 명승고적과 석각이 있어 야외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당연히 산 위에는 수많은 중국인과 관광객들이 있었다. 중국인이자라면 마음에 두고 있는 명소일 것이며, 명산으로서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곳이기엔 ‘끝까지 모두 보고 가겠다.’라는 표정들을 볼 수 있었다.

태산의 핵심코스라 불리는 곳은 하늘 거리, 즉 천가(天街)였다. 남천문에서 옥황봉까지 이르는 길에는 수많은 글귀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짧은 지식이라 내용을 알고 싶어도 그러지 못함이 아쉽기만 하였다.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음미하는 것도 좋으련만 시간과 지식이 허락지 않았다.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자욱한 안개로 마치 구름 속을 걷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사방이 안개로 가득해 주변 경관을 보지 못하였지만 꿈을 꾸는 듯 한 분위기가 되어 신령한 기운이 감돌았다.



[대관봉 - 태산 정상에 오르는 바위에 새겨진 글귀들]

다. 한참을 오르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공자의 글귀(공자소천하처: 공자님이 제자들과 함께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아 보이더라는 말을 했다고 함)가 있었고 (그 옆에 ‘과연’이란 글귀도 있다.) 한무제의 무자비(태산에 올라 봉선의식을 행할 때 자신의 공덕을 새기려 했으나 공덕이 너무 많아 비석에 다 쓸 수 없어 글자가 하나도 없는 비를 세웠다 함.)도 있었다. 정상에는 도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옥황묘(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가 있었다. 옥황묘에는 태산의 정상이라는 비석과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소망이 새겨진 자물쇠와 붉은 천이 매달려 있었다.

### 장보고도 혹시 태산에 오르지 않았을까?

태산에 오르며 꼭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자신에 대한 약속과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니다. 태산을 오르지 않았더라도 장보고는 이역만리 먼 길을 떠나 한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매일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다잡았을 것이다. 한 순간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태로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태산을 뒤로 하며 내려오는 길은 아쉽기만 하였다.

### 장보고의 삶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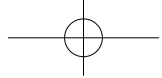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싱그러운 아침을 맞으며 강태공 사당으로 향했다.

제나라의 시조이며,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인 강태공은 자신의 주군을 찾을 때까지 바늘 없는 낚시를 들고 강가에서 하염없이 세월만 낚고 있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가 도착한 강태공 사당은 의관총이다. 비록 강태공의 모자와 옷을 묻은 곳이긴 하지만 100여개 성씨의 기원이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강태공사당 - 의관총의 비석]

영향을 미친 인물로서 그 의미가 있다. 사당 안에는 대나무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정자와 어우러져 강태공이 사색에 잠겼을 곳으로 손색이 없는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의관총은 거대한 모습이었다. 한 바퀴 둘러보며 여러 성씨와 관련된 비석들을 살펴보았다.



### 장보고는 자신의 성(姓)을 정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삼국유사, 삼국사기, 신당서, 속일본후기 그리고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록을 통해 장보고는 어렸을 때에는 성이 없는 평민 이하의 신분이었으며 당나라로 건너온 이후 당나라 실정에 맞게 성씨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보고는 용병으로서 월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성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이지만 자신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활 궁(弓)자가 들어간 ‘장(張)’이라는 성을 스스로 선택한 장보고…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어진 상황과 낮은 신분엔 순응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인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준다.

### 순마갱은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한 늙은 농부가 발견한 이 묘는 제나라 군주인 경공의 묘 안에 순장한 말의 묘이며 ㄷ자 형태로 두 줄로 말을 나란히 매장하였다. 우리가 도착한 그때도 발굴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약 600여 필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니 그 규모가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당시 말은 부를 상징하며 힘을 나타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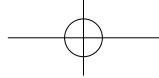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순마갱 - 아직 발굴이 진행 중인 순마갱]

용도로 쓰였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말을 순장한 것은 권력자의 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국력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생명을 잃고 가지런히 놓여진 말이 한없이 불쌍했지만 역사의 한 조각이 되는 모습에 숙연해지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사 모두 부질없다 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부와 명예에 집착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다.

### 장보고는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갔다.

무령군 소장이라는 위치에서 때를 알고 물러난 뒤 무역활동을 통해 크나큰 부를 쌓게 된다. 하지만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추후 신라인들을 괴롭히는 해적 소탕과 노예무역의 근절 등 서남해안 해상세력을 규합하고 동아시아 무역의 패



권을 장악하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자신의 몸을 편안히 하고 좋은 음식과 좋은 물건을 쓸 만큼의 충분한 부를 쌓았지만 장보고에게는 더 큰 이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주박물관에서는 장보고도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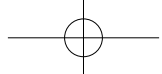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박물관이 위치한 청주는 예로부터 교통 요지이며 군사 요새인 지역이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문화가 교류되던 곳이었으며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 일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이처럼 역사적 부침을 겪은 청주에는 쌓여진 역사만큼 수많은 유물을 간직하고 있었다. 청주 박물관에 들어서니 여타 다른 곳과는 달리 개인 소장품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입장할 수 있었다. 그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유물이 있다는 것이었다. 유물을 돌아봄에 앞서 중앙 정원을 둘러싼 회랑에서 옹기종기 모여 교수님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산등을 지배한 이정기 일가와 장보고의 활약, 파손된 불상, 진귀한 서화, 도자기, 석각 등의 간략한 내용을 듣고 전시실로 향했다.

이곳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 형태의 불상들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중국의 불상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나라의 친숙한 불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장보고 역시 적산법화원을 건립한 것으로 보아 불교와 밀접한 삶을 살았고, 일본 구법승 엔닌에게도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의 마음도 부처님의 자비와 구원을 바



[청주박물관]

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불상을 가까이 삶은 때로는 불상으로, 때로는 불교 서적으로, 알게 모르게 신라로 건너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시물 중에 과거 장원급제한 시험의 답안이 있었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에서 그 중에 장원급제한 사람의 답안이 전시되고 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떤 내용의 문제였으며 어떤 글이 장원을 차지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지만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인지 궁금증은 더해만 갔다.

## 장보고의 정신... 적산법화원

**피약별이 내려찍는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성산두로 향했다.**

첫날 일정조정을 위해 미뤄뒀던 성산두는 산동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해안절벽이다. 진시황이 이곳에 세 차례나 방문하였으며, 불로초를 찾기 위해 서복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동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서려있는 곳이다. 진시황은 성산두에 다다라 자신이 바랬던 장생불로초가 저 바다 건너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더 크게 가졌을 것 같다. 맑은 날씨에도 황



[성산두 - 진시황의 행차를 표현한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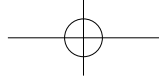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해의 바다 한가운데에는 마치 다리가 놓일 것 같은 뿌연 안개가 들어어져 있어 더욱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산두에는 해안절경과 여러 조각상들이 진시황의 이야기와 서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

**성산두 근처에는 진시황의 행차시 머물렀던 행궁을 시황묘로 만든 사당이 있었다.**

시대의 폭군이었지만 동시에 통일대국을 이룬 영웅이었기에 이러한 사당을 지어 향을 피우고 기원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사당 안에는 시황전을 비롯하여 해신을 모신 일주사와 천후궁이 있었다. 바다를 상대하며 바다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안전과 안녕을 바라는 백성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의 힘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러한 바람은 더욱더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답사의 가장 정점인 적산법화원으로 기수를 돌렸다.**

장보고의 이상이 중국 땅에 펼쳐진 곳, 적산명신의 염원이 서린 곳이 바로 적산법화원이다. 적산 산자락 중턱에 우뚝 솟은 거대한 크기의 청동상이 눈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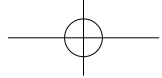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 먼저 들어온다. 압도적인 이 조각상은 적산명신을 조각한 그것으로 앞쪽은 스님의 모습, 뒷모습은 장군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장보고는 왜 산동반도 적산이라는 곳에 법화원을 세웠을까? 통일신라 시기 산동반도는 한반도와 왕래가 빈번하였고 신라인들이 머무는 신라방이 있었다. 적산법화원은 이곳에 거대한 사찰을 창건함으로써 당나라 거주 신라인들의 힘을 모으는 거점을 삼는 동시에 민심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무역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적산법화원은 1년 수확량이 500섬이나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규모의 토지는 대규모의 사찰을 운영하기에 충분했고 신라인들도 산동에서 규모가 제일 큰 불교사원인 적산법화원을 찾아 마음의 안식처로 삼게 된 것이다. 신라인들의 구심점이 된 법화원은 자연스레 정보의 바다가 형성되었고 신라인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닌 또한 이곳에서 머물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법화원의 도움으로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우리 한민족이 이역만리 타지에서 굳세게 피워낸 꽃과 같은 법화원은 아쉽게도 현재 터만 남아 있다. 당 무종의 도교 숭상과 불교 억압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사원을 해체하고 스님을 환속시켰으며, 사원 소유의 토지와 재물들을 귀속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산법화원도 휘말 당했으며 현재는 그 터만이 과거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었다.

지금의 적산법화원은 중국 영성시와 적산그룹이 석도적산풍경명승구 내에 건립한 시설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던 적산법화원은 운영상의 문제로 그 권한을 적산그룹에 넘긴 것이다. 우리가 적산법화원을 오를 때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명승지인 이곳을 찾고 있었다. 관광객들을 보며 장보고라는 인물이 이곳 적산법화원의 원류임을 알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다.

**산 중턱의 장보고 기념탑에서는 신라인의 마음이 느껴졌다.**

파란 하늘을 향해 두 개의 기둥이 솟구쳐 있었고, 두 기둥을 이루는 돌들이 신라인의 숨결을 나타내는 듯 했다. 탑의 두 기둥의 중간에는 ‘장보고 기념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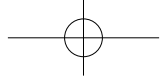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있었다. 탑은 한중 양국의 친선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양쪽 손바닥을 마주한 모양으로 만들었으나, 나에겐 저 황해를 건너 고향의 향기를 아련히 바라는 신라인의 마음과 따뜻한 눈빛이 형상화된 모습으로 보여 졌다.

흐르는 땀을 닦고 기념탑의 계단에 모여 장보고와 적산법화원에 관련된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다. 특히 장보고는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해상 경영 선구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설명을 들을수록 장보고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졌다. 머나먼 타국에서 이룬 무력군 소장이라는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혈혈단신으로 얻은 부와 명예에 눈멀지 않고, 그는 신라인을 위해서, 자신의 더 큰 꿈을 위해 나아간 인물이었던 것이었다.

#### **발걸음을 옮겨 거대한 적산명신 청동상으로 향했다.**

점점 가까워지는 조각상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59미터의 높이에 입이 절로 벌어졌다. 수많은 계단을 끝없이 올라 조각상 앞에 다다르니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 주었다. 앞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황해와 석도진 일대가 어우러져 대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뒤로는 질푸른 녹음 한가운데 고즈넉이 위치한 적산법화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적산명신은 이곳에서 황해를 굽어보며 해상의 안녕을 지켜주는 듯 했다. 적산명신은 중국 3대 신선 중 한명으로 해상을 지키는 신이며 바다의 어부들을 지켜주는 해신이다. 특히 일본의 승려 엔닌이 구법승으로 당나라에 유학하고 일본에 돌아가 일본 천태종의 30번째 수호신으로 명명한 것이 적산명신이라는 설도 있다.

엔닌과 장보고의 인연, 엔닌의 행적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았을 때 ‘적산명신의 현신이 바로 장보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우리에게도 장보고의 발자취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엔닌은 그런 장보고와 함께 숨 쉬며 동시대를 산 인물이다. 일본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장보고를 승려 엔닌의 입장에서 대단히 높게 여기고 존경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보고 기념탑]



[적산명신]



[장보고와 적산명신]

적산명신을 뒤로하며 장보고 전기관으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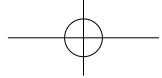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전시실은 장보고의 활약을 소개하고 있었다. 장보고가 당나라에 건너오게 된 배경, 친구 정년과 함께 무령군에 입대하고 이사도의 반란을 진압하는 활약상, 신라인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법화원을 설립하는 모습, 일본 승려 엔닌과의 인연, 청해진의 설치와 신라에서의 활약과 몰락 등에 관련된 자료들이 한글 설명과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전기관 정원에는 커다란 장보고 동상이 있었다. 2층에서 내려다 본 장보고의 모습은 당당함 그 자체였다.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허리에 찼으며 곳곳이 허리를 펴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에서 그 기상을 느낄 수 있었다.



[장보고 동상]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새롭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승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쓴 기록 때문에 적산법화원이 일본의 절로 잘 못 알려졌었고, 적산법화원을 재건하는데 일본에서 먼저 나섰다는 것이다. 엄연히 장보고와 적산법화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소홀했던 틈을 타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뻔 했던 것이다. 이후 이를 바로 잡아 장보고기념관이 세워진 것은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눈뜨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상상만 해도 몸이 떨려왔다.



전기관을 거쳐 관음상으로 향했다.

적산그룹이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이다 보니 관음상과 주변 볼거리를 많이 세워놓았다. 관음전 앞 넓은 마당의 중앙 좌단에는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상이 앉아 있었고, 관음상을 크게 둘러가며 16나한처럼 보이는 여러 형상의 석상들이 위치해 있었다. 마침 다다른 때가 장엄한 음악과 분수가 화려하게 나오는 시간이어서 잠시 이곳에 머물며 지켜보았다. 천천히 360도 움직이는 관음상에서는 물이 흐르고 분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때때로 불꽃이 쏟아져 나오며 장엄한 음악과 함께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꽤 많이 공들여 세운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사람들이 한번쯤 발걸음 멈추고 보길 바라는 의도가 비춰졌다. 그런 의도에 맞게 수 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적산법화원의 역사적 가치를 모르고 오는 단순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장보고의 업적과 적산법화원보다 관음상이 더 기억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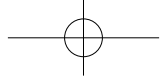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관음상]

적산법화원을 내려오는 길은 아쉽기만 했다. 내가 놓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못 본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발걸음을 늦추며 자꾸 기억을 떠올려보게 되었다. 이번처럼 특별한 기회를 다시 갖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적산법화원의 감동을 뒤로하고 귀국하는 배에 오르기 위해 석도항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완성

이번 답사를 정리하며 중국 이후의 장보고 삶을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었다.

잘 알다시피 장보고는 무역에 종사하는 많은 재당 신라인이 머물렀던 산둥반



도에서 신라로 돌아왔다. 신라 42대 왕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를 요청하여 허락 받고 청해진 대사의 자격으로 군사 1만을 거느리고 노예무역을 하는 서남해안 해적을 소탕하였으며 동시에 해상무역을 독점하였다. 그는 해적 소탕에만 그치지 않았다. 당시 공식외교 사절단의 조공무역만이 허용되었으며 이외의 사무역은 암암리에 성행하는 수준이었다. 이 점을 간파한 장보고는 재당 신라인 사회와 한반도의 서남해안, 규슈북부 지역을 잇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장보고 국가표준영정(이종상 작, 1979)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표준영정 제21호로 지정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명예교수 일련 이종상 화백 작  
크기 116.5×91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장보고는 삼국을 잇는 삼각 무역망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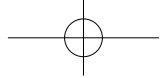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신라의 항해술이 뛰어난 점, 통역사 및 항해사 그리고 조선기술자와 같은 우수한 인력은 재당 신라인이 많았다는 점, 삼국의 정세에 밝았다는 점, 신라 물품이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 일본에는 항해술이 미친한 점 등등이 장보고의 국제정세 안목과 어우러져 신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개방적 사고와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현재의 융합형 인재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장보고는 시대가 낳은 영웅이 아닌, 시대를 이용해 스스로 영웅이 된 인물이었다.

청해진이 설치된 완도가 태풍을 막아주는 천해의 요소인 것과 수심이 깊어 정박에 편리한 지리적 이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허브공항이 아닌 허브항구로 발전시켰다. 청해진이 현대 홍콩과 같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된 셈이었다. 당나라산 비단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타의 타슈켄트에서 생산되는 슬슬(瑟瑟)이라는 에메랄드 장신구와 페르시아산 모직물까지 취급하였던 걸로 보아 해안 경제 벨트를 만든 장보고는 해상의 점을 이은 것이 아닌 육상 네트워크까지 연결하였던 것이다.

### 하지만 영웅 장보고도 신분의 벽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다.

재력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분의 벽이었다. 신라사회는 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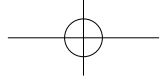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폐쇄적이었고 낡은 신분제인 골품제를 동요시키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장보고가 몰고 온 변화의 바람은 왕위쟁탈전에 휩싸이게 만들었고, 불안한 정치 상황과 함께 염장의 손에 죽음으로 끝맺게 되었다. 아쉽게도 장보고의 죽음과 함께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폐쇄적이고 견고했던 신라 사회를 흔들고 중세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을 이끌어 낸 장보고였지만 신라가 장보고 같은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 장보고가 꾸는 꿈과 우리의 미래

화동훼리에 올랐다. 인천항을 떠나 중국에서 보낸 4박 5일의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화동훼리에서의 하룻밤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조의 선생님들과 자연스레 이번 답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정마다 경험한 일들과 관련된 소감과 느낌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바다에 대한 생각과 시각이 바뀐 선생님, 장보고와 관련 역사에 대해 관심이 더 깊어진 선생님,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는 선생님 등 각자 자신만의 깨달음과 배움을 얻은 시간이었음은 틀림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밤과 함께 더욱 깊어져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나는 장보고란 위인이 재조명되고 재평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내 토래에서는 장보고는 ‘청해진’ 정도의 키워드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순신’장군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장보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는지 알 것이다. 물론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추측과 추정에 의한 선부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보고는 우리나라의 기록보다 일본, 중국의 역사서에 더 많이 기록되고 소개된 국제적 인물은 것은 확실하며, 그 위상이 타국에서 더 높



게 평가받는 인물임은 틀림없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개척하고 해상 네트워크를 이룩한 장보고는 분명 지금보다 더 많이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학생들에게 내가 이번 답사를 통해 보고 느낀 점을 해양 교육과 함께 가르쳐주어야 하는 임무가 있음을 느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진리를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번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내가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같은 학교 동료 교사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야 한다는 임무를 장보고가 나에게 준 것과 같은 답사였다. 나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이었음을 창피해 하지 않고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과 업적을 널리 아이들이 더 큰 꿈과 포부를 안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미래를 이끌 인재가 될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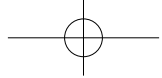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세 번째, 미래의 힘은 해양에 있고 지금 우리에게 그 잠재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함을 느꼈다.

지구의 70%는 바다이다. 육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개척되고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육지보다 훨씬 넓은 바다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만큼 우리에게 바다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바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 선박건조 분야 이외에는 그 성과가 미약하다. 미래의 식량과 자원, 에너지, 환경의 열쇠를 가진 해양을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재단!**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에 대한 열정으로 힘든 날씨와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한국해양재단 관계자 및 교수님들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참여하고 보니 해양에 대한 열정, 장보고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힘든 일을 내 일과 같이 준비해주시긴 어려웠을 것



이라는 생각이 답사 내내 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해주신 덕분에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장보고에 대한 관심과 해양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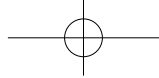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

답사 일정이 힘들고 이동거리가 방대 하였지만, 일본일초라도 아끼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 숙소에 도착하는 강행군이라 지칠 만도 하였지만 저 뿐만 아니라 참가하신 모든 선생님들의 눈은 그 노력만큼 더 빛난 것 같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시청한 '해신 장보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고 제패했던 장보고와 중국, 일본에 남겨진 장보고의 업적과 영향,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도 너무 좋았습니다. 답사하는 곳마다 열정적인 목소리와 몸짓으로 설명해주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습니다. 한국해양재단과 교수님들의 다년간에 쌓인 지식과 노하우가 느껴진 부분이었습니다. 나무 아래 모여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짧은 여정의 자투리 시간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알게 되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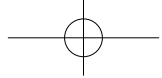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현장강의에 경청하는 선생님들]



현장의 우리 학생들에게 투입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식사도 최고였고, 숙소도 최고였습니다. 외국에 나가 집과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 욕심이있겠으나,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집과 같은 맛있는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주려 하시는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기행문을 쓰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 장보고가 꿈꾸어온 세상 들여다보며 아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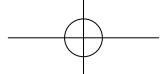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조원중학교\_김덕용(장려상)



## 1.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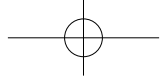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장보고와 관련하여 한국해양재단에서 주최하는 중국유적지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감 직전에 참가 신청하였는데 감사하게도 발표한 선발 명단에 아빠의 이름이 있더구나. 교사를 대상으로 장보고의 해양 활동을 직접 체험시킴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체득케 하고자 함이란다.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 함양과 해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후원을 받아 추진한다는구나.

평소 장보고에 대해서는 신라 때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중국의 산둥지역과 일본을 오가며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고 아는 정도란다. 무엇보다 당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신라방에 법



화원을 세웠다는구나. 평민 출신으로 일찍이 당나라로 건너가 공을 세워 소장이 되고, 신라로 와서는 대사로 활약하였으니 소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각자적인 인물로 평가된단다.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시기와 질투로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소인배들이란다. 안타깝게도 당시 기록권을 지닌 귀족들의 견제로 암살당하였다는구나. 더욱이 참담함은 그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장보고의 제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겠지. 그러다고 역사적 사실이 감춰지겠니.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지.

다행히 중국이나 일본 문헌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를 후대에 이르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엮이듯 옮겨 기록하였단다. 당나라 시인 두목은 장보고의 전기를 지어 『번천문집』에 실을 정도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단다. 이를 중국의 정사인 신당서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편찬자는 ‘진(晉)에 기해(祁奚)가 있고 당에 분양(汾陽)과 보고(保臯)가 있는데 어찌하여 동이에 인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단다. 삼국사기 편자는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어도 중국의 사서에 조금 남아 있지 않았던들 아예 없어져 전해들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단다. 조선왕조에 와서는 ‘기둥 돌과 같은 신하(柱石之臣)’를 도살하였다고 애석함을 나타냈단다. 근대에 이르러 ‘1천 년 전의 동방 해양 신라 청해진대사 장보고’라는 글을 통해 최남선은 ‘해상왕’이라 칭하였단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러움은 일본에 전하여지는 엔닌(圓仁)의 일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미국의 동양학자인 라이샤워가 번역한 책을 통해 장보고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Ennin's Travels in Tang China』에서 장보고를 ‘해상 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고 칭송하였단다. 엔닌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에서 무사히 구법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면서 ‘장보고에게 은혜 입은 것은 마치 태산과 같으며 그 은혜의 깊이는 형용할 바를 모른다.’고 하였단다. 그는 제자들에게 ‘교토에 적산선원을 세우고 적산대명신(赤山大明神)을 모시라’고 유언하였다는데 부귀영화를 관장하는 재신으로 알려진 이 신은 장보고일거라 하는구나. 『속일본후기(續日本後記)』에는 장보고 선단과 독자적인 무역관계를 맺고 신라와 당의 선진문화와 물품의 공급을 일본 정부가 의존하였다는 기록이 있단다. 이처럼 한중일 역사서에서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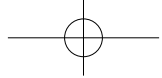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단다.

동북아 일대의 해적을 소탕하는 한편 신라와 당·일본을 잇는 해상무역항로를 개척하여 해상교통권을 장악하였고, 이를 통해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이 왕래하는 동남아·인도 항로를 동아시아 항로와 연결시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동서 무역망을 갖추어 나갔단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과 일본의 신라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무역체제와 군사를 갖춘 군상복합체로서 종합무역상사를 경영한 위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기회가 주어져 기대감에 들뜨고 흥분도 되는구나. 그의 업적과 리더십을 배워 익히고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단다. 엄마는 필요한 용품을 조목조목 정성스레 챙기는구나. 잘 다녀오마. 아들! 사랑한다.

## 2. 모여라! 답사길 떠나보자.

드디어 답사하기에 이르렀구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16시까지 집결하기로 하였단다. 초행은 아니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서 인터넷을 활용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도를 미리 살펴보고 소요 시간도 넉넉히 계산해 두었단다. 다소 여유로운 마음으로 수원-금정-오이도에서 환승한 후 수인선 신포역 4번 출구로 나와 한참을 기다려 24번을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30여분 늦게 터미널에 도착하였단다.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미안함을 가지며 명단 확인하고 지급되는 물품을 받아 답사단 일행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합류하였단다. 서로들 첫 대면이라 서먹함이 영력한 가운데에도 함께하는 일원이라는 동질감에 선뜻 눈인사로 안면을 트더니 점차 말문을 열어 대화를 나누곤 하였단다. 각 지역을 대표라도 하듯 서울 경기를 비롯해 충청, 전라, 경상도 곳곳에서 참가하였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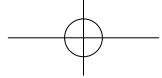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올해 답사에는 2차에 걸쳐 1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다는구나. 이번 1차에는 초등 20명에 중·고 각각 15명씩 해서 총 50명의 교사와 인솔 진행요원으로 한국해양재단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여행사 담당 직원, 그리고 현장답사 해설지도를 위한 교수와 보조로 대학생 등 각각 2명씩 총 10명이 같이하였단다. 모두



들 나름 열의에 찬 기색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에 임하더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참가 신청한 인원이 700여명이 넘었다 하는구나. 그만큼 치열한 서류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으니 나름의 희열을 느꼈으리라 짐작이 가는구나. 사실 신청 내용이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기준을 잡아 선별한다는 자체가 힘겨운 작업이었을 텐데 선발되었다함은 곧 복권에 당첨된 행운이란 생각이 들더구나. 선발되지 않아 참가할 수 없는 분들에게 웬지 미안함과 더불어 이들 뭉까지 다 해야한다는 사명의식이 은근히 생겨나더구나. 그래서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였단다.

대기 상태로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출국 절차가 진행되었단다. 단체 비자라 선두에서 수속을 밟은 덕으로 거침없이 통과가 이루어졌단다. 셔틀차량에 탑승한 후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여 영성화동해운에서 운영하는 화동페리에 승선하였단다. 첫발을 내딛어 오르는데 중국승무원이 우리말로 인사하기에 미소 머금으며 흔쾌히 '안녕하세요.'라고 화답하였단다. 여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4인실인 302호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함께 할 세분의 선생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단다. 나름 학교에서 중책을 맡아 역할을 하시는 분들로 훌륭하다는 인상을 받았단다. 6시까지의 휴식시간이라 일단 여장을 정리한 후 한여름 더위의 열기를 식히고자 샤워를 하였단다. 개운한 마음에 간편한 복장으로 갑판에 올라가 인천항 주위를 한참이나 조망하였단다. 뱃고동이 울리더니 서서히 움직여 서해상으로 빠져나가는데 선상에 서서 인천항구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치 잘 다녀오라고 배웅하는 듯이 느껴졌단다.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반수 이상이 중국사람 이었단다. 그래서인지 식단이 중국식이라 기름에 두른 반찬이 대다수였지만 빵과 쌀밥에 김치가 있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단다. 대체로 짜긴 했으나 기름과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난히 먹을 수 있었단다. 식사를 마친 후 이런저런 이야기로 담소를 나누다가 선상세미나에 참석하였단다. 먼저 해양재단 관계자의 사회로 행사 취지에 대한 설명과 유의해야할 당부의 말에 이어 진행요원 인사소개가 있었단다. 그런 다음 인솔지도 교수의 강연을 통해 장보고를 조명해 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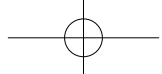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을 가졌단다. 생애와 업적, 활동 상황을 살펴보고 그의 가치를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의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자며 동기를 부여하더구나. 객실에 돌아와 새삼 장보고의 인물됨을 되새기며 그와 관련한 책자를 단순히 읽고 생각에 잠기다가 꿈에서 그를 만나 보았단다.

멀어져 가는 혜성의 잔영을 좇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을 뜨니 아직은 이른 새벽이더구나. 그의 행적을 따라다니느라 지쳤지만 재차 잠결에 들어 그를 찾았으나 이미 떠나간 뒤라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단다. 지난밤의 선상 강의 내용과 책자를 통해 알게 된 기록들을 견주어 비교하다가 일어나 답사 일정표를 유심히 살펴보았단다. 아무리 짜맞춰보아도 그의 행적을 더듬어 유추해보기엔 역부족이라 여겨짐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구나. 문득 버림받은 영혼의 한이 이 황해상의 어딘가에 서려있지 않을까 싶어지구나.

### 3. 蓬萊閣에서 8仙醉酒를 만나다.

기상하여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선상 여기저기를 오가다가 객실에 머물며 하선하기만을 마냥 기다렸단다. 이유는 해무 때문에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아 배를 정박할 수가 없어서란다. 이곳의 날씨는 평소에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변화가 심하고 희뿌연 해서 맑은 날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는구나. 멀리까지 확 트임이 없어 은근히 답답증이 생겨나더구나. 이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데는 늘 맑고 푸르기에 축복받은 땅이라 여겨지더구나. 게다가 배에 갇힌 꼴이라 어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자꾸만 들었단다. 인내를 실험이라도 하는지 좀처럼 하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내릴 준비하라는 방송이 나오더구나. 반가움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에 일어나 차례를 기다려 가뿐하게 걸음을 옮겼단다. 차량을 이용해 입국장에 도착하여 수속을 밟는데 역시 단체라서 비자 확인만 하고 허가시켜주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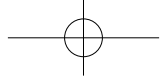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출입국사무소에서 나와 대기하고 있는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탔다. 조별 10명씩 6개조로 1, 2조는 1호, 3~5조는 2호에 타고 운영 관리팀도 적절히 배정하였었다. 그리고 현지 가이드가 합류하여 일단 식후경이란 명언대로 식당에 가서 점심을 해결하였었다. 식단은 중식으로 선상에서 먹은 음식과 별반 다를 바는 없었으나 간이 적당해서 좋았다. 이들의 식탁은 원형으로 음식이 놓인 탁자를 돌려 먹고 싶은 만큼 접시에 담아내는 형태라 마치 뷔페를 축소해 놓은 모양새이더구나. 손이 닿지 않는 먼 데의 음식을 쉽게 이동시켜와 먹을 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다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우려했었는데 먹을만하다며 호평을 하더구나. 아빠 또한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기름이나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 다 괜찮았었다. 특이함은 계를 기름에 튀겼나 본데 껍질만 있어 즐겨 먹기엔 꺼려질 듯싶더구나.

식사 후 봉래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두세 시간의 차량 이동은 기본이라 하는구나. 휴게소에 도착하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다녀오기를 시작으로 몇 가지 지켜야할 안전 수칙을 새기기도 하면서 가이드의 안내하는 내용을 들으며 가다가 참가한 선생님들 소개가 있었는데 말은 과목이 다르듯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나름의 특색 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다. 교육관련 단체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특기를 살려 봉사하는 등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분들도 상당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매사에 능동적으로 적극성을 가졌기에 이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구나. 부지런한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는 말처럼 열심히 전력하다보면 그 노력에 따른 성과가 훌륭하게 나오는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니. 아들도 이루고자하는 바를 초지일관으로 매진하기에 아빠는 항상 믿음을 갖고 지지한다.

한참을 내달아 도착한 곳이 봉래란다. 이곳엔 봉래각(蓬萊閣)과 등주수성, 고선박물관 등이 있다. 시간상으로 다 둘러 볼 수 없어 봉래각만 견학하기로 하였었다. 서둘러 표를 구해 입장하여 안내하는 화살표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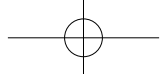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향으로 총총히 들어갔다. 봉래각은 봉래의 북쪽 해안 가파른 절벽으로 된 단애산(丹崖山) 정상에 있는 누각으로 호북성 무한(武漢)의 황학루(黃鶴樓), 호남성 악양(岳陽)의 악양루, 강소성 남창의 등왕각(滕王閣)과 함께 중국 4대 누각 중에 하나라 하는구나. 누각 2층에는 8명의 신선이 술을 마

시다가 바다를 건너는 놀이를 즐겼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8선취주(8仙醉酒)'라는 조각상을 두었는데 그래서 이곳이 '도교의 성지'로 알려졌다 하는구나. 누각에 오르면 북쪽으로 넓은 바다가 펼쳐졌고 기암절벽의 해안 경관이 한눈에 조망되어 지더구나. 누각으로 올라가는 길 아래에 동해의 용왕이 거주한다는 용왕궁이 있다. 이곳 주민들이 기우제나 출항할 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 하는구나. 또한 바다를 다스리는 여신을 모신 천후궁을 비롯해 미타사, 삼청전, 여조전 등이 있었지만 관람 시간이 지나 어쩔 수 없이 스킷이 눈길로만 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등주수성과 고선박물관은 곁에 두고도 볼 수 없어 무척이나 아쉬움으로 지금도 남는구나.

저녁식사를 마치고 3시간에 걸쳐 사뭇 달렸단다. 유방에 도착하여 부화호텔에 투숙하였는데 2인1실이더구나. 한동안 객실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곰팡내가 솔솔 나서 숨고르기 버거웠는데 피곤함에 잠이 들었다. 그리고 평소의 출근 시간에 맞춰 6시에 저절로 깨워지더구나. 냉큼 벗어나고픈 마음에 얼른 씻고 나와 호텔식으로 조식을 하였단다. 뷔페라서 선택해 먹을 수 있어 좋더구나. 우선 빵과 만두에 과일로 사과와 망고를 접시에 담고 주스와 커피도 곁들여 마셨단다. 가능한 느끼하지 않게 고르려고 오감을 총 동원하였단다. 혹여 탈이라도 날까봐 조심스러움에 일단 기름진 음식은 피하게 되더구나.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편식하는 경향을 띄었다. 식습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고 음식문화의 차이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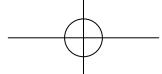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4. 泰山에 오르니 天下가 작구나.

셋째 날에는 태산을 등정하기 위해 태안으로 향했다. 도로 주변으로 넓은 평원이 끝없이 펼쳐졌는데 주로 옥수수 밭이더구나. 한참을 달리다 임치구 제릉진에 있는 중국 최고의 차마(車馬)유적인 고차(古車)박물관으로 갔다. 제남에서 임치를 거쳐 청도로 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 대규모의 순장된 말과 마차들이 있는 흙으로 된 봉분을 발견하였다 하는구나. 박물관은 전시관과 진열관으로 나뉘어 있다. 춘추차마전시관에는 전쟁에서 사용하였던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는데 규모가 매우 크더구나. 고차진열관에는



‘후이차마갱(後李車馬坑)에서 출토된 여러 차량과 임치 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출토된 고대 차량을 복원한 차량과 복원 모형이 진열되어 있다. 황하유역은 지세가 넓고 평탄하여 전차전에 적합해서 춘추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쟁터였다는구나. 이곳에서 출토된 마차는 4마리 말이 끄는 일승(一乘)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준다는구나. 이 박물관은 임차 주변에서 벌어진 전차전의 모습과 함께 중국 고차의 다양한 모습을 한 곳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곳이자 물산이 풍부하여 교류가 활발하였던 산동성의 경제적·군사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라 하는구나. 지나가는 길에 제나라역사박물관도 살펴보기로 하였으나 수리 중이라서 들르지 못했단다. 이름이 말하듯이 제나라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5개의 진열실과 2개의 특별실로 이루어졌다는구나. 제나라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흥망을 보여주는 3000여점의 유물과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하는구나. 특히 환공을 도와 제나라를 크게 발전시켰던 관중의 활동상을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이 소개되어 있다. 역시 말로만 듣고 지나칠 수밖에 없어 그저 아쉽기만 하구나.

이후로는 달리고 달려 태안에 이르러 중식을 하고 태산 등정에 나섰다. 산동성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5악의 하나인 동악이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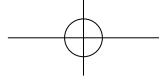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는구나. 서악은 섬서성의 화산(華山)이고, 남악은 호남성의 형산(衡山), 북악은 산서성의 향산이며, 중악은 하남성의 숭산(崇山)이라 하는구나. 이 중에 특히 태산을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하며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는구나. 이유인즉슨 태산이 자리한 황하 하류에서 중국의 문명이 처음 열린 이후 많은 나라가 건국되어 황제가 하늘의 뜻을 받고 땅에 알리는 ‘봉선(封禪)’의식을 이곳에서 거행했기 때문이라 하는구나.

중국 사람들은 태산을 ‘만물의 시작이고, 음양의 교대가 일어나는 곳’으로 여겼단다. 즉 태양이 뜨는 태산은 ‘만물이 생성하는 기가 동쪽에 있다.’는 믿음을 준다는구나. 이러한 까닭에 진시황은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봉선의식을 거행한 후 석각을 새겨 세우기도 하였단다. 그 뒤로 역대 군주들은 황제로 등극하면 반드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즉위를 하늘에 고했다는구나. 또한 태산은 태평세계의 실현을 보고하는 ‘봉선’의식이 거행된 곳이기도 하단다. 옥황묘 옆에 있는 고등봉대(古登封臺)는 역대의 제왕들이 봉선을 행하면서 권위와 위상을 강조했던 뜻이 깊은 장소라 하는구나.

답사단 일행이 탑승했던 차에서 내려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구불구불 고갯길로 한참을 내달은 후 이어서 곧바로 케이블카를 탔단다. 정상 가까이에서 내려 거슬러 오르면 건물이 즐비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더구나. 신령스러운 태산을 한번 오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적어도 10년은 젊어진다는 속설에 따라 누구나 등정하고 싶은 곳이라 하는구나. 성스러우면서도 빼어난 경관을 지닌 태산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절벽마다 글을 새겨 석각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는구나. 무려 1,800여 군데에 석각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나라 무제가 세운 무자



비(無字碑)와 당의 현종이 봉선의식을 하면서 세운 기태산명비(紀泰山銘碑)가 널리 알려졌다는구나. 태산의 정상엔 옥황정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옥황상제에게 제사지내는 옥황묘와 출산을 관장하는 벽하원군을 모신 벽하사(碧霞寺)가 있단다. 황제들이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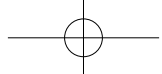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선의식을 올리던 대묘가 남쪽 기슭에 있는데 이곳엔 진시황의 각석비가 보관되어 있다하는구나. 경내의 천황전(天皇殿)은 북경 자금성의 태화전(太和殿), 북부에 있는 공자묘 안의 대성전(大成殿)과 함께 중국 3대 전각으로 꼽힌다는구나. 태산은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단다.

문득 ‘동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작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다’고 하였다는 공자의 일화가 생각나는구나. 또한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뒤희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오르고 뒤희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은 양사언처럼 태산보다 높은 기개를 아들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단다.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면서 태산의 풍광을 다시 한 번 더 조망하여 보았단다. 태산의 경치는 ‘여유묘오광(麗幽妙奧曠)’의 다섯 가지로 나뉘단다. 여구(麗區)는 산수가 서로 어우러져 오래된 사찰이 즐비하고, 유구는 녹음이 짙어 가는 곳마다 절경을 이룬다 하였단다. 묘구의 지세는 평탄하지만 매우 빼어나고, 오구는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며, 광구는 계곡이 깊고 녹음이 짙다고 하는구나.

## 5. 낚시로 제나라를 낚은 강태공

다시 태안으로 돌아와 이른 저녁 식사를 하고 달음질치듯 달려 4시간이 지나서야 치박의 만호대주점에 투숙하였단다. 어제와 달리 객실은 쾌적하더구나. 시간에 맞춰 숙소에서 나와 부근의 호텔식당에 들러 조식을 마치고 곧바로 강태공 사당으로 갔단다. 일반적으로 강태공은 낚싯대를 드리우고 세월을 낚는 위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그 인물됨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었단다. 강태공은 춘추시대의 오패 중 하나이자 전국시대의 칠웅 가운데 하나로 산둥반도 일대를 장악했던 제(齊)나라의 시조라 하는구나. 그는 평소에 위수에서 낚시를 하며 상념에 빠져 지내다 서백을 만나 그를 도와





그의 아들과 함께 주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었다. 이후 무왕이 나라를 나누어 공이 많은 신하와 형제·친지들을 제후국의 왕으로 책봉하였는데 강태공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 제나라의 초대 군왕이 되었다 하는구나.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 강씨가 바로 강태공의 후손임을 새삼스레 알게 되었다. 강태공의 묘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썼던 모자와 옷을 묻은 의관총이 이곳 치박에 있어 그 앞에 사당을 건립하였다는 하는구나. 사당 안에는 정면에 강태공 상이 있고 왼쪽엔 정공, 오른쪽엔 경공을 모셨단다. 그리고 벽면에는 일대기를 그린 벽화가 있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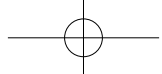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이어서 잠시 들른 곳이 돈구 광경에 자리한 순마갱(殉馬坑)이란이다. 이곳은 발견된 그대로 보존 전시하고 있다하는구나. 지금도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더구나.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景公)의 묘지 안에 순장한 말의 무덤이라 하는구나. 길이가 동쪽과 서쪽 면은 각각 70m이고 북쪽은 75m이며 너비는 5m나 된단다. 두 줄로 늘어서서 머리를 바깥쪽에 두고 옆으로 누운 채 매장된 228필의 말이라 하는구나. 춘추전국 시대에 산동성 일대를 지배하였던 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유적이란이다.

넓은 평원을 기반으로 막대한 경제력을 갖추었고 이를 통해 기병전의 핵심인 말을 순장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지닌 왕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구나.

아침에 비가 올 듯이 흐리더니 이내 추적추적 내리더구나. 우산이 없어 답사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는데 의외로 더위를 가실 정도로 적당히 내려주어 그다지 싫지만은 않았단다. 청주박물관에 도착할 즈음에는 제법 비가 왔으나 주차장에서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데 지장은 없었단다. 박물관에는 현재 3만여 점의 유물이 12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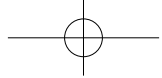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전시실에 소장되어 있다. 대표적 유물로는 동한의자손옥벽(東漢宜子孫玉璧)과 전국옥인(戰國玉人), 명나라 때 활동하였던 조병충의 전시권(殿試卷), 용흥사 출토 유물 등이 주로 알려졌다고 하는구나.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유방으로 이동하여 식당에 들러 중식을 하고 처음 출발점인 석도로 내달았다. 무려 5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한다기에 아예 느긋하게 여유를 갖기로 하였었다. 해상왕인 장보고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시청하였는데 이 행사를 추진하는 취지와도 관련되기에 좀 더 유심히 관심을 갖고 보았다. 작동이 불량하여 중간에 끊기기도 하였지만 이해하는 데에는 그다지 장애가 되지는 않았었다. 또한 장거리 이동하는 데에도 지루함을 달래는 청량제 역할을 해주었다. 오랫동안 앉아서 오다보니 엉덩이 꼬리뼈가 아픴을 호소하듯 살며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선뜻 내색할 명분이 없어 참고 견디어내는 수밖에 딱히 할 일을 찾지 못했었다. 기진맥진 되어갈 무렵 적산대주점에 도착하여 일단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침 한국해양재단의 이사장이 방문하여 만찬에 참석해 주어 더욱 흥성한 분위기였다. 인사말과 함께 건배 제의에 따라 모두들 ‘위하여’를 외치기도 하였었다. 이어서 해물 샤브샤브로 저녁 식사를 하였었다. 안주거리가 넉넉하니 그 유명한 청도맥주를 비롯해 고량주로 그간의 답사 여정에 따른 노고를 위로하는 권주가 수차례 오고가는 사이에 화기애애한 흥겨움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런 다음 숙소로 이동하여 여장을 푼 후 호텔 밖으로 나와 답소를 나누었다. 어둠이 깊어감에 따라 석도의 밤은 점차로 고즈넉해져 가더구나.

## 6. 태양이 떠오르는 희망봉, 成山頭

아침에 일어나 조식부터 조금은 서두르는 감이 있었다. 첫날에 입국 수속이 늦어 방문하지 못했던 성산두(成山頭)를 견학하기 위해서라 하는구나. 중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해안절벽으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 중국의 희망봉’이라고 불렀다는구나. 해안 곳곳에 웅장한 바위가 있는데 이는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용을 신선이 잡아서 암석에 묶어 놓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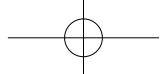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화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는구나. 예로부터 태양신이 사는 곳이라 하여 많은 황제들이 여러 차례 순행을 하였는데 특히 세 차례나 찾아 온 진시황과 관련된 유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하는구나. 지리적으로 볼 때 북방에서 위치가 가장 좋고 북과 행운을 주는 곳이라 호운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구나.

성산두는 중국의 동해에서 황해를 거쳐 황하로 들어가고, 한반도 연안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자리 하였기에 일찍부터 군사요충지로 중시되었다 하는구나. 한의 무제는 조선을 치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당의 소정방은 백제를 치기위해 이곳에서 바다를 건넜다는구나. 또한 진시황의 방사였던 서복이 불로장생초를 구하고자 배를 타고 동이(東夷)로 갔다는 데가 바로 이곳이라 하는구나. 현재 제주도에는 서복(徐福)이 한라산에서 식용과실인 '시로미'를 불로초라고 구해서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를 '서귀포'라고 부른단다. 그리고 정방폭포도 서복과 관련된 유적이란다. 진교유적(秦橋遺跡), 진대화석(秦代化石), 사교대(射蛟臺), 진동문(秦東門) 등도 진시황과 관련한 유적이란 하는구나.

자유롭게 사진 촬영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잠깐 이동한 후 내리니 시황묘(始皇廟)가 담담히 보이더구나. 이곳은 원래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하면서 머물렀던 행궁이었는데 훗날 복구하여 시황묘로 만들었다는구나. 무려 다섯 차례나 순행했다하여 세운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진시황 사당이라 하는구나. 안으로 들어서니 정면에 천후궁(天后宮)이 있더구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다가 숨진 여인을 기리는 사당이란다. 그 옆에는 청일전쟁 때 순국한 해군장령 등세창(鄧世昌)을 기려 세운 사당과 덕종이 세운 비가 있더구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 한참을 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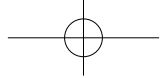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번거리다가 한쪽 모퉁이에 있는 시황전을 발견하였다. 보지 못하나 했는데 다행히 볼 수는 있었으나 의아하게도 건물 배치가 변형된 듯 이상하더구나. 시황묘라면 의당 진시황의 사당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하지 않더구나.

## 7. 張保臯를 만나다. 赤山法華院

다시 적산대주점 식당으로 와서 점심을 먹고 장보고기념관이 있는 적산법화원으로 향했다. 이곳 석도진의 적산포는 신라와 당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재당 신라인을 묶어주는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적산법화원을 건립하였다는구나. 이 일대를 적산풍경명승구라 한단다. 먼저 장보고기념탑에 들렀다. 해설을 들은 다음 답사단 전체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후로는 발길가는대로 전기관을 둘러보았다. 해양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영성시와 산동적산수산그룹이 건립하였단다. 한국해양재단에서는 전시물 지원과 함께 설명 자료의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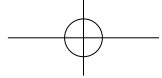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과 자문을 하였다는구나. 특히 청해진 발굴 유물 복제품과 장보고 시대 무역선 복원 모형 등 기증한 1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하는구나. 관음상을 비롯해 장보고동상, 적산대명신 등을 두루 살펴보았다.

제1전시실은 기념관의 건립 이유와 장보고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로 이루어졌더구나. 그의 생애와 나·당간의 찬란했던 교류문화를 재현하였다. 당나라로 가게 된 배경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더구나. 제2전시실은 장보고가 당나라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각인시켰던 주요 활동상을 볼 수 있단다. 신라의 무역선을 타고 당에 온 장보고와 정년의 무령군 입대, 활약상, 이사도의 반란진압을 성공시켰던 모습과 그 공적으로 소장에 오르는 과정을 소개하였더구나. 제3전시실은 재당 신라



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법화원을 세웠고 경전을 강독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내용, 당에 온 엔닌 일행의 순례를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었고 엔닌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장보고에 대한 편지 내용과 그의 활약을 상세히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소개되었구나. 제4전시실은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와 설치한 청해진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볼 수 있단다. 청해진을 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제조를 병행하여 해상 무역망을 구축함으로써 점차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어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등극시킨 일화, 그를 경계하는 귀족세력의 모함을 받아 암살당하고 청해진도 폐쇄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더구나. 끝으로 제5전시실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장보고 관련 활동이 소개되었더구나. 장보고 유적지 답사단 파견, 장보고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제작·방영, 전문 학술서적 출판 등 장보고연구와 재조명 평가사업 추진상황, 장보고 기념탑·기념관 건립, 법화원 중건 등 진행과정, 사업내용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더구나.

그리고 적산대명신이 있는 단에 올라 석도진(石島鎭)을 조망하였단다. 산동성 영성시에 속한 항구로 산둥반도 동남쪽 맨 아래에 위치한다는구나. 장보고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문동현 청녕향 적산촌으로 불렸다는구나. 연안을 따라 올라가면 진장촌과 등주에 이르고 아래로는 유산포와 소촌이 나온다는구나. 이들 포구와 마을에는 신라인이 이전부터 거주하였다 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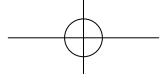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석도항에서는 산동반도 연안을 따라 묘도군도를 거치는 북방항로를 통해 한반도로 갈 수 있고, 바로 황해를 건너 한국의 서남해안에 이른 뒤 일본으로 건너가는 황해횡단항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하는구나. 장보고의 ‘대당매물사’ 선단도 이곳을



오고갔단다.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가는 교관선도 출발지가 여기였다 하는구나. 또한 법화원이 있어 구법을 위해 당나라에 들어왔던 엔닌도 적산포에서 귀국길에 올랐다는구나. 이 무렵의 적산포는 신라·당·일본을 연결했던 국제 무역항이자 당에 자리한 장보고의 대표적인 근거지였다고 하는구나.

이런저런 상념을 하면서 내려와 법화원으로 갔단다. 장보고가 세운 사찰로 불교탄압에 의해 소실되었는데 터가 발견되어 다시 지었다하는구나. 일본 천대종 제3대 좌주인 엔닌이 지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그 실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산동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불교 사원이었다는구나. 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간





왕래 사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기도도량이었다는구나. 엔닌에 의하면 당에서 구법하고 귀국하려는 신라와 일본 승려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구나. 그는 귀국한 뒤에도 적산법화원을 잊지 못해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의 이름으로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웠다 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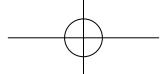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경내에는 주전각인 대웅보전이 있고 오른쪽으로 ‘청해진대사 장보고공적비’가 있더구나. 잠시 둘러보며 옛 법화원을 떠올려 보았다. 아마도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적산포에 근거지를 두고 오가던 때에 창건되었으리라 짐작이 가는구나. 연간 5백 섬을 수확하는 장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하는구나. 특히 장보고의 휘하에 있던 구당신라소의 압아인 장영과 임대사, 왕훈 등 3명이 법화원을 경영하였다하니 그 규모를 미루어 알

듯하구나. 불당은 물론 2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과 승려 27명이 머물 수 있는 승방,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방 등이 있었고 부속 건물로 장경각, 식당, 창고, 종루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구 24명에 비구니 2명, 노파 3명 등 29명이 상주하면서 『법화경』을 강설하고 『금광명경』을 강의했다 하는구나. 강회(講會)에는 매일 40명 안팎의 신도가 참여하였고, 신라어로 진행된 『법화경』 강경에는 250여명의 남녀가 모였다고 하니 어마어마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사찰이 당나라 무종의 첩포령에 의해 훼손되었다하니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구나.

## 8. 장보고의 行蹟을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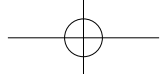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법화원을 나오며 잠시 장보고의 행적을 생각해 보았다. 가뭄에 기근이 연이어지고 끼니를 거르는 상황에 농작물이나 자질구레한 물건만을 훔쳐가는 초적의 발생, 먹고 살기 위해 바다를 건너 당과 일본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반란이 일어나는 등 매우 혼란한 신라 사회에서 더는 지탱하고 살아갈 희망



을 찾지 못해 당으로 건너간 장보고, 무령군에 입대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살았겠지. 하지만 아쉽구나. 문득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이이제이(以夷制夷)가 떠오르는구나. 어떤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제어함을 이르는 말로 고구려의 후예인 이정기의 일가를 재당 신라인인 장보고로 하여금 진압에 앞장서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소장으로 승진하였으나 목적 달성이후 쓸모가 없어져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한마디로 타국에 사는 이민자의 설움이 지. 만약에 이정기 일가와 장보고가 의기투합하여 손잡고 산동 일대를 공고히 평정하였다면 오늘의 역사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자꾸나. 즐거운 미소가 머금어 지지 않니.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구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만 하구나. 더구나 진압 과정에서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와 해당 주현(州縣)에 의해서 치밀하게 통제되는 재당 신라인과 발해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하였다함은 질책 받아 마땅한 처사라 여겨지는구나. 아마도 제론할 여력이 없어 그리했으리란 짐작에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애석함은 떨치지 못하겠구나. 얼마가지 않아 쫓겨나다시피 퇴역 당해야만 했을 심정을 생각하니 얼마나 서러웠을지 상상이 가는구나. 그래서일까. 다행스러움은 이정기 이후에 당-신라-일본을 잇는 해상무역활동을 빠르고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이어받았다는 것이란다. 차이점이라면 이정기가 산동 일대의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재당 신라·고구려·백제 유민(流民)을 아울러 당 황실에 대항함으로써 보호한 반면, 장보고는 정치적 색채를 가능한 드러내지 않고 이정기가 구축한 조직을 토대로 활발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는 점이지.

재당 신라인을 비롯해 고구려와 백제 유민사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장보고는 청해진 본영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민심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게다. 그래서 혼란한 말세를 극복하고 선단의 안전한 항해와 활발한 무역활동을 꾀하기 위해서 관음과 법화 신앙을 부각시켜 정토를 염원하였을 게다. 그 초석이 법화원이란 생각에 다다른구나.

이러한 모습은 장보고 선단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명주(明州), 천주(泉州) 등 남중국에도 영향이 미쳤을 게다. 오대십국 시대에 남중국 일대에서 설봉의존(雪峰義存)의 선법과 천태종이 크게 성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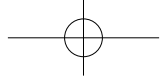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는구나. 따라서 적산법회원은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장이자 불교 발전의 성지였다고 할 수 있고 장보고는 이를 이끈 선구자인 셈이지.

장보고가 행한 일련의 활동들이 우리 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유추해 보았다. 당연히 바다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우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식량자원의 보고임은 확실한 듯하구나. 육지 곡물예의 의존도가 점차 바다 식량으로 자급률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구나. 또한 해양 영토 시대를 떠올려 보았다. 바다의 지배는 곧 세계를 주름잡는 초석이자 해외 무역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이지. 한마디로 무한 가능성을 지녔다 할 수 있겠지. 더구나 오늘날은 종종 세계화를 운운하며 해외로 눈을 돌리라고 하잖니. 특히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말이다.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 대안이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력풀의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이를 확대해 보자면 도래할 우주 시대에 대비하라는 뜻은 아닐까. 이것이 장보고가 지닌 혜안이자 개척 정신으로 우리 후대인이 본받아 이어가야 할 교훈이라 여겨지는구나.

## 9. 즐거운 귀가로 마무리 짓다.

상념이 여기에 머물다가 순간 상황을 둘러보니 차에 탑승하여 있더구나. 변화가로 접어들면서 슈퍼마켓에 들렀단다. 귀국하면서 선물로 가져갈 물건들을 사야한다며 우르르 몰려들 가더구나. 아빠도 잠시 들르긴 하였으나 그냥 눈요기로 구경만하고 나왔단다. 특별히 사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더구나. 생필품은 거의가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품이라 구태여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주로 인사를 하여야 할 경우만 최소한으로 알뜰 구매하는 모습이더구나. 희귀성을 고려하여 한국에 없을 법한 특산품으로 구입하는 듯이 보이더구나.

약속시간에 맞춰 모두 승차가 이루어졌고 곧바로 출발해 석도항으로 향하였단다. 출국 수속은 입국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간단히 이루어졌단다. 승객도 우리 답사단 이외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단다. 선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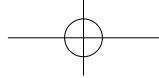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상 석식을 하였단다. 배가 한국으로 향해서인지 이번에는 한식으로 준비가 되었더구나. 밥과 김치 무엇을 하나 먹어도 꿀맛같이 느껴지더구나. 식사 후에는 갑판에 올라가 출항하기만을 기다렸단다. 그런데 어두워질 때까지도 배는 움직이지 않더구나. 이제 내일이면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못 다한 담소도 나눌 겸하여 캔 맥주를 사서 마셨단다. 그러는 사이 어렴풋이 뱃고동이 울리나 싶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더구나. 그리고 씻고 긴 시간을 보내기엔 잠이 최고라는 생각에 잠들기를 청하였단다.



수면에든지 얼마 되지 않은듯한데 금세 새벽이더구나. 출항이 지체된 만큼 도착도 늦어지는 느낌이 들었단다. 주위엔 안개가 자욱하여 멀리까지 눈길을 둘 수가 없었단다. 알려주지 않는 한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기에 배가 가는대로 내맡기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시간이 되어 조식을 하러 갔단다. 요리 솜씨가 좋아서 일까 아니면 입맛이 돌아서 일까. 아님 귀가한다는 설렘에 뭐든 다 긍정적이라서 일까? 잠깐 만에 식판을 말끔히 비우고 객실로 돌아와 짐을 챙겨 두었단다. 언제든 방송만 나오면 일어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었단다. 함께한 선생님들과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하면서 잘 지내라는 안녕인사도 나누었단다. 드디어 하선하라는 방송이 나왔단다. 모두가 지체 없이 빠져나와 입국장으로 가서 수속을 밟고 손을 흔들어 해단 의식으로 가름 짓고 작별하며 헤어짐을 가졌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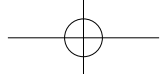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나와 바라보는 하늘은 뿌연 중국과는 달리 맑고 푸르더구나. 다만 더운 열기가 온몸을 감싸 가만히 있어도 어느새 땀이 조금씩



땀 흘릴 기세였고 햇살도 뜨겁다 못해 따갑더구나. 아빠는 한참이나 기다려 24번 시내버스를 타고 신평역에서 하차하였단다. 그리고 첫날 오던 길을 역순으로 오이도-금정-수원에서 환승하였단다. 기흥역 3번 출구로 나와 10번을 타고 집 앞의 정류장에서 내려 귀가함으로써 이번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 일정을 모두 마쳤단다. 짐을 내려놓는 순간 녹초가 된 아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단다.

아들! 이 무더위에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순한 성향이라 뭐든 차분히 해내리라 믿지만 그래도 노파심이 생김은 어쩔 수 없구나. 아들과 같은 믿음직한 군인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임하면서 마음 편히 여행하거나 아빠처럼 답사도 다녀올 수 있는 거란다. 수고로움을 고생이라 여기지 말고 이 기회에 만인을 위한 봉사를 하는 거라 즐기려무나. 군복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님을 알고 있지. 기득권으로 저 잘났다고 알량한 갑질이나 해대며 회피를 일삼는 이들에겐 기회조차 주기 아까운 성스러운 책무임을 꼭 명심하고 긍지가 지킬 바란다. 또한 동료들과도 매사 최선을 다해 원만한 관계맺음으로 호혜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그리할 수 있지. 아들! 두 손 모아 하트 만들어내며 사랑합니다.

2016년 8월 6일 아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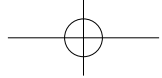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

남지고등학교\_신종진(장려상)

## 첫째 날 : 설렘으로 만나다

신 중반은 뭔가에 설레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듯하다. 그럼에도 금번 한국 해양재단에서 주최하는 2016년 초중고 교사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설렌다. 선발해 주어서 고맙고 참여하게 되어 기뻐다.

답사 길에 오르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생각하다 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부터 하자고 마음먹는다. 먼저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부곡 온천에서 목욕을 하였다.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도 끊자고 다짐하고 출발 이틀 전부터 금연도 하였다. 편안한 여행보다 불편하고 힘들게 답사에 참여하는 것이 장보고의 정신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듯하여 편한 교통편을 버리고 철저하게 걷고 대중교통만 이용하자고 다짐한다.



29일 오전 9시 작은 가방을 지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선다. 무덤다. 20여분을 걸어서 시외버스 주차장에 닿는다. 시외버스를 타고 마산, 마산에서 인천행 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버스로 연안부두에 내린다. 무더운 날씨로 등줄기에 땀이 배어나온다. 미팅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다. 배가 고프다. 점심을 굶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내식당에서 라면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운다. 허겁지겁 미팅 장소에 가니 벌써 선생님들이 다 모인 듯하다. 재단 관계자들께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작은 책자와 메모장, 목 베개, 모자까지 준비해 주신다. 정말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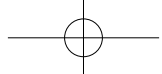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6시 경에 승선하여 선실을 배정받고 7시에 저녁을 먹는다. 8시 20분경에 식당 간에서 선상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담당 부장님으로부터 답사 일정과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권덕영 교수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장보고의 삶과 정신에 대해 강의하시고, 거꾸로 된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뭉클하게 와 닿는다. 세미나를 마치고 선실 동료 선생님들과 갑판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바닷바람을 쐬다. 망망대해다. 1,200여 년 전 장보고는 이 바다를 수없이 오갔으리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 둘째 날 : 봉래각에서 장보고를 더듬다

일출을 보려고 이른 아침에 갑판에 올랐지만 해무가 바다 전체를 덮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해무가 바다를 덮고 있어 12시가 넘어 겨우 입항한다. 예상보다 늦은 하선으로 석도항 근처 호텔에서 점심을 먹는다. 맛있다.

점심 후 일정을 바꾸어서 성산두 견학을 뒷날로 미루고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봉래를 향해 달린다. 오후 5시 30분이 지나서 봉래각 근처에 버스가 멈춘다. 봉래각 입구엔 고급스러운 호텔, 음식점들이 해안선을 따라 즐비하게 줄을 섰고, 해변에는 여름의 더위를 식히는 해수욕객들로 붐빈다.

버스에서 내려 봉래각을 향해 걷는다. 등주수성이 야트막한 산을 감싸고 그 산의 숲과 어우러진 봉래각의 기와가 보인다. 저물어 가는 흐릿한 햇살 탓에 둔



덕의 짙은 녹음이 더욱 짙다. 봉래각에 입구 “人間蓬萊(인간봉래)”라고 새긴 현판이 멋지고 높다랗게 걸렸고 그 안으로 붉고 둥근 중국식 연등이 여러 줄로 공중에 매달렸다. 조금 안으로 들어서자, 푸른 녹음이 탐방로를 뒤덮고, 고전풍 중국 음악이 흘러 나온다. 일행과 함께 숲을 지나 계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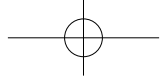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봉래각의 모습]

을 오르고 수십 개의 계단을 더 오르자 ‘白雲宮(백운궁)’, 백운궁을 거쳐 ‘蓬萊閣(봉래각)’에 오른다. 누각은 2층의 붉은 건물로 되어있고, 누각 안에는 8명의 신선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다를 건너는 놀이를 즐겼다는 이야기를 조각으로 새긴 ‘팔선취주(八仙醉酒)’ 상이 놓여있다. 누각을 내려와 뒤편으로 돌아가자 누각을 감싸고 있는 성곽이 절벽을 감싸고 그 너머로 한없이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가 남실거리고 있다. 바다를 등지니 ‘碧海淸風(벽해청풍)’, ‘海不揚波(해불양파)’라 새긴 석각이 있고 그 곁에 소동파를 기리는 소공사가 있다.

시간이 늦어 급히 누각을 내려오면서 신선이 되어 영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생각하고, 중국의 서적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의 문물과 문화가 발전할 것이 두려워 한 줄의 글도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창했던 소동파를 떠올려 본다. 신선의 삶과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함께 담아놓은 봉래각에 짙은 갈매빛 그늘이 드리우고 내 마음에도 그늘이 진다.

봉래각을 감상한 우리 일행은 봉래각 입구에서 송실대학교 이유진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가 누엿해도 한여름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지 등줄기에 땀이 쪼르르 흘러내린다. 그럼에도 교수님의 낭랑한 목소리에 일행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다.

‘등주는 일찍이 중국의 한국, 일본 진출 및 한국, 일본 사신의 중국 출입처였으며, 진나라 때 서북이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동해로 떠날 때의 출발지라고도 알려진 곳이다. 이곳 등주는 신라인이 많이 거주하여 신라인 촌락이 형성되어 재당신라방이 존재하였던 곳이다. 신라인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



관이었던 ‘구당신라소’까지 있었던 곳으로 장보고의 해상 사업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지역이다. 오늘날 이곳과 가까운 위해와 연태 지역에 한국인의 사업가가 많이 상주하는 것도 옛 재당신라방이 존재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1,200여 년 전 장보고와 신라인이 걸었던 길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이 가슴 깊이 찡하게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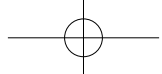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봉래각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일행을 태운 버스는 숙소가 있는 유방으로 출발한다. 어둠이 깔렸지만 낮 시간 동안 내내 보았던 옥수수밭은 밤에도 끝없이 펼쳐지고 고속도로 멀리 마을의 불빛이 보인다. 3시간가량 달려 유방의 부화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편안하다. 여행은 고달픈 즐거움이지만 더없는 안락한 밤도 덤으로 준다고 생각하며 잠을 든다.

### 셋째 날 오전 : 바퀴의 문명을 배우다

모닝콜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깊고 편한 잠은 몸을 가볍게 한다. 눈곱만 떼고 객실을 나서서 호텔 밖을 둘러보고 산책한 후 씻고 아침을 먹는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다. 내겐 음식이 맛있고, 맛있어서 많이 먹고, 많이 먹어 나이보다 더 많이 배가 나온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맛있는데 먹지 않고 어떻게 배겨내랴.

먹은 만큼 앞으로 불거진 배를 쓰다듬으며 버스에 오른다. 시원하다. 버스는 포만감에 젖은 나를 태우고 치박으로 향한다. 차 안의 냉방기보다 더 시원하게 일자(一字)로 곧게만 뻗은 고속도로와 그 곁에 한없이 넓게 펼쳐진 옥수수밭을 보면서 아주 오래 전에 보았던 중국 영화 “붉은 수수밭”을 떠올린다. ‘여자 주인공의 결혼과 야성적이고 다소 거친 운명적 사랑 이야기, 일본군의 침략과 마을 사람들의 저항 그리고 주인공의 죽음’을 떠올리며 지금의 일본과 중국의 영토 갈등, 우리나라와 중국의 샤프 배치로 인한 갈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문제를 생각하고, 수수밭에서의 적나라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전에 버스가 멎는다. 잠시 사이에 고차박물관에 닿았다.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곁의 작고 보잘 것 없는 건물에 먼지마저 끼안은 품



이 영 박물관답지 않다. 게다가 날씨가 더워 차에서 잘못 내린 듯한 느낌을 받는데 답사 일행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건물을 들어서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서니 흙속에 반쯤 묻힌 바퀴 모양의 화석이 있고 그 바퀴와 이어서 말들의 뼈가 연결되어 한 대의 완벽한 말이 끄는 전차들이 가지런하게 줄지어 있다. 놀랍다. 전차 10량과 말 32필이 매장되어 있는 모습을 그 매장된 모습대로 전시해 놓은 것이다. 춘추시대 차마전시관에서 권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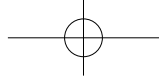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중국고차박물관 외관]

‘이곳 고차박물관은 1990년에 제남에서 임치를 거쳐 청도로 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중 순장 마차를 발견하게 되어 건립하게 되었다. 순장 마차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순장 터 위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아래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유물이 있는 곳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박물관을 세움으로써 유물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알 수 있

다. 인류 역사의 발전과 차(車) 또는 바퀴의 발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곳 부장품의 주인공은 마차를 아주 좋아하는 권력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카레이싱을 즐겼을 법한 인물일 듯하다.’는 교수님의 재미있고 유익한 설명을 듣는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왜 먼지를 덮어쓴 초라한 겉모습의 박물관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물의 겉모습보다 그 속에 담긴 것의 가치가 참된 가치라는 생각을 하며 고차전시관으로 발을 옮긴다.

고차전시관은 ‘후이차마갱(後李車馬坑)에서 출토된 여러 차량들과 임치 지구에서 출토된 다양한 고대 차량을 복원하여 전시해 둔 곳이다. 웅장한 마차, 화려한 마차, 소가 끄는 마차, 코끼리가 끄는 마차, 낙타가 끄는 마차가 전시되어 있다. 혼자 타기에 좋은 마차,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듯한 마차도 있다. 쌍두마차도 있고, 사두마차도 있다. 전쟁에 쓰이는 전차도 있고 투석기도 전시되어 있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려고 허둥대다 관람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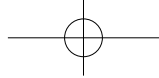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답사 기간 동안 버스 안에서와 관람할 때 짝지가 되어주신 분은 울산미용에 술고 선생님입니다. 나보다 두 살 윗분이셨지만 다정다감하시고 여러 분야에 해박하셨다. 전자·전기를 전공하신 후 학사장교로 복무하시다 포병부대 소령으로 예편하면서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뒤늦게 교직에 드신 분이다. 이동할 때면 밖의 풍경을 보고 낯선 풍경마다 선생님의 소회를 말씀하시고 또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 태안으로 가면서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마찰,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께서는 전공과 군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방력 그리고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군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각종 무기에 대한 우리의 낮은 기술력을 말씀하신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이 편협한 것임을 느낀다. 나를 깨닫게 해 주신 선생님이 존경스럽다. 또 선생님은 사진에 남다른 취미와 실력을 갖추신 분이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선생님께 DSLR카메라 사용법과 여러 가지 사진 촬영 기법을 배우니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선생님이 정말 고맙다.

### 셋째 날 오후 : 태산을 오르다

태안에 도착하여 여전히 맛있는 점심을 여전히 배불리 많이 먹고 태산 등정에 오른다. 태산 전용 버스는 케이블카를 타는 곳으로 좁고 굴곡진 산길을 조금의 조심성도 없이 마구 달린다. 차창 밖은 무성한 여름 산만 있고 그 아래 계곡으로 푸른 물이 흐른다.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을 바라보니 장관이다. 멋진 산이다. 답사 내내 넓디넓은 옥수수 들판만 바라보아서인지 태산은 더욱 멋있게 우리를 맞아준다. 외줄에 매달린 케



[케이블카에서 본 태산]



이블카를 타고 태산을 오르면서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 오르  
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뵈만 높다 하더  
라.’라는 고시조를 떠올리면서 문명이 인간 노력의 가치를 저감시키는 것은 아  
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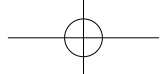
케이블카에서 내려 좁은 돌길을 사이에 두고 기념품 가게가 늘어섰다. 그곳  
을 지나 하늘을 보니 계단 위로 대리석 구조물이 늠름하게 서 있고 ‘天街(천  
가)’라는 멋진 글자가 새겨져 있다. ‘천가(天街)’, ‘하늘의 거리’.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수십 개의 돌계단을 오르면서 이곳을 들어가면 나도 ‘하늘의 사람’이 되  
겠구나고 엉뚱한 상상을 하며 문 안으로 발을 들인다. 태안으로 오는 버스에서  
권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태산’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상을 향해 걷는다.  
태산의 실제 높이는 1,545m이지만 동아시아인 모두가 태산을 가장 높은 산으  
로 인식하는 것은 인문학적 요소 때문이란다. 즉 태산은 동쪽에 있어서 만물을  
생성케 하는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으로 일찍이 천자라 칭하는 황제가 하  
늘에 제를 올리는 봉선의식을 거행하였기에 최고의 산으로 인식한다는 말씀이  
었다. 진시황제 이후 당나라 고종, 측천무후, 당나라 현종, 명나라 주원장,  
청나라 건륭황제 등이 이곳에서 봉선의식을 베풀었다고 한다. 그리고 태산을  
오르면서 바위에 새겨진 석각도 함께 감상하라는 당부 말씀을 떠올리며 태산  
속으로 들어간다.

길을 따라 오른편으로 돌난간이 있고 그 너머엔 깎아지른 절벽이다. 절벽엔  
바위도 나무도 모두 하나가 되어 어우러졌다. 왼편으로는 천가의 가게들이 늘



[태산 옥황정 가는 길]

어서서 옥수수, 과일, 꼬치구이, 튀김빵으로 여행객을 유혹한다. 십여  
분을 걷자 다시 대리석 구조물이 섰는데 맨 위에 ‘中升(중승)’이라는 글  
자가 새겨져 있다. 중승을 지나서 ‘공자묘’에 올랐다가 ‘西神門(서신  
문)’을 거쳐 대관봉에 이르니 우뚝  
선 바위마다 화려한 석각이 새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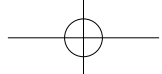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있다. 하나하나 짚으며 읽다보니 일행 중 나만 홀로 뒤쳐졌다. 석각을 뒤로하고 조금 더 오르니 옥황상제를 모신 ‘옥황정’이다. 정상이다. 사방을 조감하고 발길을 돌려 내려오는 길에 우뚝 선 두 조각의 바위에 ‘五嶽獨尊(오악독존)’, ‘昂頭天外(양두천외)’라 새긴 석각을 감상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천가’ 입구에 오니, 답사 일행들 여럿이 알록달록한 종소리 모빌을 사고 있었다. 가게 주인이 부르는 값에 하나를 덤으로 받고서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즐거워진다. 내려오는 길에 동료 선생님께서 복숭아를 사서 나눠주어 먹으니 피곤했던 몸도 가뿐해진다. 태안에서 저녁을 먹고 식당을 나와서 우리 일행이 올랐던 태산을 바라보니 하얀 뭉게구름이 옥황정 위로 피어오르고 있다. 태산의 신비로움을 태산 밖에서도 볼 수 있다는 감동을 고스란히 안고 숙소가 있는 치박으로 저녁 버스는 달린다.

## 넷째 날 오전 : 강태공과 제나라 문화와 장보고를 만나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리다. 후덥지근한 날씨다. 아침을 먹고 강태공의 사당에 들린다. 사당의 입구에서 이유진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강태공과 주 문왕과 무왕, 제나라, 봉건제와 종법제, 그리고 다양한 성씨의 파생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강태공 사당을 둘러보고 뒤편의 의관총으로 향한다. 흐린 날씨가 비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한다. 커다란 둥근 언덕의 무덤이 있고 그 둘레에 여러 성씨의 시조비가 세워져 있다. 측백나무 숲에서 은은한 향이 풍겨나고 가는 빗줄기 사이로 새소리가 들린다. 의관총 옆의 부속 건물에는 성씨 도감이 걸려 있다. 생명과학 책에 나오는 진화론의 수형도처럼 성씨의 분화 과정이 그려져 있다. 가지가 가지를 뻗듯이 각 씨족은 그렇게 나뉘어가지처럼 갈래져 있지만 하나



[강태공 사당]



로 연결되어 있듯 우리 인간들도 결국은 서로서로 이어져 있는 존재일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호혜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권덕영 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순마갱으로 버스는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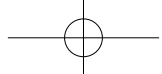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넓디넓은 옥수수밭 가운데로 버드나무가 두 줄로 곧게 서 있고 그 사이로 빗줄기를 맞으며 달리던 버스가 멈춘 곳은 ‘하애촌’이란 곳이다. 세계 유일의 순마 유적지라고 말하기엔 어딘가 어설퍼 보인다. 큰 움막 비슷한 건물 아래엔 촌부



[가지런히 누워 있는 순마들]

몇 명이 유물을 캐고 있는지 우리 일행들의 사진 촬영에도 아랑곳 않고 쭈그려 앉아 호미질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을 돌아가니 “臨淄東周墓殉馬坑(임치동주묘순마갱)”이라 새긴 현판이 걸린 붉은색 건물이 서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아직도 발굴 중인 ‘殉馬(순마)’들이 유리판 아

래에 가지런히 누워 있다. 권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곳은 청나라 말기부터 호골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호골을 사람들이 약재로 판매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순장된 말들을 발굴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치 말라리아 약재로 사용되던 갑골에서 고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은허를 발견했던 과정과 같단다. 순마갱은 제나라의 수도였던 옛 성터에서 동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각 선분의 길이가 70m인 ‘ㄷ’ 자형의 무덤에 약 500필 정도의 말들이 안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ㄷ’ 자의 가운데에 이 말을 순장시킨 주인공의 무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왕들의 업적이나 동물을 좋아했던 성향으로 볼 때 제나라 경공의 무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덧붙여 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순장이 횡행하던 시대에는 동물이나 인간에 대한 생명 의식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절대 권력자의 죽음에 순장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공자는 ‘순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순장을 매우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공자의 영향 때문인지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는 순장이 급감하였다고 한다. 당대의 문화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자는 선각자이며, 진정한 인(仁)을 실천한 참된 휴머니스트라는 말씀을 듣고 순마경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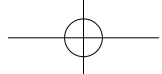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빗줄기와 함께 버스는 청주를 향해 달린다. 비 맞은 옥수숫잎의 질푸른 자태에 더위를 잊는다. KBS와 해상왕장보고기념사회 합작 다큐멘터리「KBS 신년스페셜-최인호의 다큐로망 해신」을 감상하는 중에 버스는 청주박물관 입구에 멈춘다.

청주박물관은 건물이 ‘口’자로 배치되어 있고, ‘口’자 가운데에 둥근 연못이, 연못 안에 석상이 세워져 있다. 내리는 빗줄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회랑 복도에서 권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교수님은 ‘여행할 때는 그 지역의 지도를 구입하여 이동 경로를 지도로 확인하여 지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



[비에 젖는 청주 박물관]

우리가 있는 곳은 산동성의 청주로 이곳은 제남과 치박의 중간으로 산동반도의 중앙에서 약간 중북부에 위치해 있다. 예부터 중국을 크게 9주로 나누는데 청주는 9주 중의 하나였을 만큼 큰 도시였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일찍이 고구려의 후예였던 이정기가 이곳 산동반도에 들어와서 평로치청절도사를 맡아 권력을 장악하여 당과 신라-발해-왜를 오가는 교역을 총괄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안사의 난 후 당의 통치력이 약화되자 이정기는 자신이 쌓은 부와 권력을 기반으로 제 나라를 세워 당나라 왕실에 납세를 거부하며 저항하여 당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 당나라의 전쟁의 위기와 혼란 속에 장보고는 당나라 서주 무령군(武寧軍)에 속하여 제나라를 진압하는데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우고 소장(小將)으로 승진한다. 제나라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장보고는 구당신라소에 의해 치밀하게 통제되는 재당 신라인 및 발해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제나라를 진압한 당나라는 이후 토사구팽 정책으로 병력을 감축하게 되는데, 장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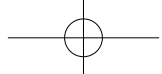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도 이때 군에서 물러나게 된다. 전쟁 과정에서 보고 확인한 구당신라소와 재당신라인에 대한 견문과 지식은 이후 장보고가 신라와 당, 신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청주에는 용흥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용흥사 안에는 신라원이 있어서 당시 신라인 거주자와 당나라로 온 유학생이나 구법승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엔닌이 용흥사 내의 신라원에 머물렀다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 설명해 주신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주 박물관 안으로 발을 들인다. 전시물은 대부분 불교 유물이다. 시대별로 다양한 불상들이 진열되어 있다. 백 분의 불상은 백 분의 얼굴로, 천만의 불상은 천만 분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했던가. 시대상에 따라, 사회상에 따라, 불상을 제작하는 장인에 따라 불상의 모습은 다르다고 한다. 시대에 따라 시대정신이 다르고, 사회에 따라 추구하는 이상형이 다르며 거기에는 개인의 정신과 취향과 이상이 다르니 억만의 불상들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싶다. 전시된 불상은 앞 시대 것은 다소 거친 듯 투박한 듯 몸매가 우락부락한 듯 힘차 보이고, 시대가 흐를수록 곱고, 섬세하고, 가녀리고, 온화한 모습을 띠었다. 이러한 불상을 마주한 나는 당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정신과 이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들의 구체적인 이상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족, 이웃, 사회가 더불어 살면서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아마도 오늘날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박물관을 나선다.

박물관 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날은 여전히 덥다. 버스에는 버스 짝꿍 선생님께서 먼저 자리하여 박물관에서 듣고 본 내용을 열심히 기록하고 계신다. 보고, 듣고, 촬영하고, 기록하는 선생님의 열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좋은 짝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곳을 보는 것보다 여행을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한다.

버스는 청주 시내를 벗어나 숙소가 있는 석도를 향해 달린다. 석도까지는 꽤 먼 거리로 3시간은 달려야 할 것 같다. 고속도로는 곧게 뻗어 있고 그 곧은 길만큼이나 더 빠르게 옥수수가 끝없이 줄지어 서고 옥수수 밭 가장자리에는 키 큰 버드나무가 근위병처럼 옥수수를 호위하고 섰다. 우리는 오전에 보던 다큐



멘터리 「KBS 신년스페셜-최인호의 다큐로망 해신」을 이어 감상하면서 석도로 가는 길을 재촉한다.

## 넷째 날 오후 :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다큐멘터리를 감상하다보니 2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중간 휴게실에 들러 모두들 기지개를 켜고 용변을 보고 편의점에 들른다. 모두들 먹거리도 사고 가격도 비교해 본다. 난 아직 돈 한 푼을 쓰지 않았다.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없다. 몇 번의 중국 여행 경험에서 우리나라 돈과 미화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겨 중국 화폐로 한 푼도 바꾸어 오지 않아 모든 물건들이 내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굳것질에는 소질이 없는 편이라 아쉽지는 않았지만 휴게소에 들릴 때마다 일행들이 사 주는 각종 과일과 과자류, 육포, 말린 과일과 과실꿀절임 등을 맛있게 넘죽넘죽 잘도 받아먹었는데, 난 단 돈 1원어치도 답례하지 못해 미안하기가 그지없다. 잠시 쉬고 버스를 타니 일행들이 산동의 명물 대추절임을 주기에 맛있게 먹고, 꿀뚜기포도 집에 있는 아내에게 줄 요량으로 넘죽 받아 챙긴다. 꿀뚜기포로 아내에게 일행들의 선행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미안함을 상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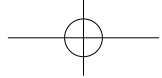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버스는 옥수수와 함께 곧은길을 달린다. 내 버스짜꿍 선생님께서는 좋은 카메라로 차창 밖의 풍경을 열심히 담으신다. 빛이 맞지 않다며, 구도가 잘 안되었다며, 노출이, 셔터 속도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또 찍고 찍으신다. 선생님의



[적산대주점에서]

열정은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다. 그러는 사이 버스는 오늘의 숙박지인 석도 바닷가에 자리한 적산대주점에 닿는다.

적산대주점 식당에서 만찬이 열렸다. 여태까지 먹은 음식들도 전부 가 산해진미였는데, 만찬이라니 기대도 되면서 만반의 준비로 답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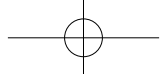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도와주는 한국해양재단이 더없이 고맙다. 만찬은 해산물과 고기 샤브샤브다.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다니 정말 감사할 뿐이다. 게다가 한국해양재단 이재완 이사장님께서 직접 중국까지 방문하시어 우리 일행을 격려해 주신다. 이사장님께서서는 격려사로 '우리는 장보고가 걸었던 길을 두 발로 밟으면서 그의 삶을 배우러 왔다. 장보고의 글로벌 인재로서의 정신, 민족을 초월한 상생의 정신, 해상 무역을 통해 인류 복리를 증진시킨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배워 우리 청소년들을 잘 교육하여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국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헌신해 달라.'는 짧은 격려 말씀을 하신 후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의 건배사를 하셨다. 일행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를 외치며 모두가 맛있는 만찬으로 술잔을 비운다. 독한 고량주 목 안을 찌릿하게 흘려내린다. 마음속엔 고량주보다 더 찌릿한 감동이 밀려온다. 석도에서의 밤은 이렇게 깊어간다.

## 다섯째 날 오전 :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르다

답사를 계기로 담배를 끊자고 결심하여 실천 중이었기에 만찬 때 술을 서너잔밖에 마시지 않았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만찬 때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재단 측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었지만 답사단 일행 중에 과음으로 횡설수설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 모두가 즐겁고 알맞게 마시며 답사와 장보고의 삶에 대해 말씀 나누면서 만찬은 끝났다. 만찬 모습에서도 일행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5시에 눈을 뜬다. 호텔 밖을 나서니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고 간밤에 내린 비로 땅은 흥건하게 젖었다. 간밤에 묵었던 적산대주점 돌면서 멋진 호텔의 경관을 감상한다. 비릿한 바닷내가 시원하게 코로 파고든다. 이 바닷내를 장보고는 수없이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숨으로 바다공기를 들이마셔 본다. 호텔을 한 바퀴 걸어서 돌고 석도시내 쪽으로 곧게 뻗은 도로를 따라 조깅을 한다. 간간히 차량들이 달리고 이른 시간부터 부지런한 환



경미화원은 도로위의 쓰레기를 줍는다. 3km쯤 뛰니 석도 해변체육공원에 닿는다. 몇 분의 아저씨들이 아침 운동 중이다. 장보고도 이곳에서 수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라 생각하며 목례로 인사 나누며 달린다. 돌아오니 여러 선생님들께서 호텔 주위에서 산책하고 있다. 답사가 끝나가는 즈음에 아쉬워서 더욱 일찍 일어난 듯하다.

아침을 먹고 성산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다. 이재완 이사장님께서 이른 시간임에도 버스에 올라 간단한 인사 말씀을 전하신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1시간 반을 달려 성산두에 도착한다. 일망무제의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곁에 긴 회랑과 진시황 순행 행렬 조각품이 세워져 있다. 우리 서해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회랑의 그늘에서 바닷바람을 쐬면서 이유진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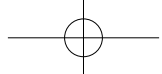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이곳 성산두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여 ‘천진두’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서쪽이지만 중국의 가장 동쪽으로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이기 태양신이 모셔져 있고 일찍이 진시황제가 몇 차례나 순행하였던 곳이다. 장태공도 이곳을 왔고 장보고도 이곳을 수없이 왔을 것이다. 시황제 때 불로



[바다 끝에 세워진 천진두비]

초를 구하기 위해 동쪽으로 떠났던 ‘서복’이 또한 이곳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서복이 제주도 서귀포와 일본 큐슈에 이르렀다는 전설이 있다. 서복의 동방 행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중국 도교가 전파되는 계기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삼죽오’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삼죽오는 태양과 지상을

매개해 준다는 전설상의 신성한 새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민족에는 거의 다 발견되는 상징물이다. 고구려가 ‘삼죽오’ 깃발을 휘날렸다는 것은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졌는데 이것 역시 고구려가 태양을 숭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산두를 내려가는 길에 반질한 석상이 있는데 이를 문지르면 복이오니 꼭 한 번씩 문질러서 모든 선생님들이 태양의 좋은 기운을 듬뿍 받으시라.’고 덕담으로



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신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 일행은 바다 끝 성산두 비석으로 향한다. 내려가면서 모두가 태양의 기운 가득 받기 위해 바쁜 가운데서도 석상 문지르기를 잊지 않는다. 모두에게 복 있으라고 마음속으로 빈다. 성산두에서 기념 촬영하고 심호흡으로 태양의 기운을 받고 돌아 나오니 진시황제 순행 석상이 서 있다. 석상을 무연하게 바라보다 인간의 영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육체적 영생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진시황은 이미 황제로서 역사적 영생을 얻었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생물적 영생마저 꿈꾸었을까? 영생이란 미명으로 황제를 낀 서북이 오히려 명성의 영생을 얻은 것은 아닐까? 서북을 생각하다 문득 박인로의 가사 “선상탄”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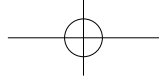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성산두 진시황 순행 상]

‘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족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배 저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의 말을 끝이듣고 동남동녀를 그토록 데려다가, 바다의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둑을 만들어 두어, 원통하고 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까지 미치게 하였는가?’ 박인로는 진시황이 서북

으로 하여금 동남동녀를 데려가서 불로초를 구하도록 하였기에 왜구가 생겼고, 이로 인해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범하였다고 한탄하고 있다. 서북이 데려간 동남동녀가 왜구가 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번 답사를 통해 인접 국가 간의 갈등 해결의 방법 모색에서 장보고의 삶이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며 씩씩히 성산두를 빠져나온다.

성산두를 나와서 진시황 사당에 올라 서둘러 보고 적산법화원으로 버스는 달린다. 가는 길에 진시황에 대한 권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진시황은 이곳 성산두를 순행하는 길에 죽음을 맞이한다. 조고와 이사는 진시황의 죽음을 감추고, 변방에 있던 장남 부소에게 황제의 명을 사칭하여 자결케 하고 차남 호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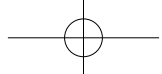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2세황제로 삼았다. 그리고 진시황 출생의 비밀과 역사적 기록의 객관성에 대한 말씀과 함께 역사를 기록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누가, 언제, 왜 역사적 유물을 만들었는가라고 의심을 품고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역사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하신다.

교수님을 말씀에 귀 기울이는 동안 버스는 적산법화원 앞에 멈춘다. 태양이 작열하고 습도가 높아 여름의 더위가 온 몸을 엄습한다. 입구를 들어서니 활짝 핀 배롱나무 꽃과 우렁찬 매미 소리가 우리를 반긴다. 장보고기념비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 길로 100여 미터의 계단을 지나야 하지만 측백 나무의 그늘이 더위를 잊게 한다. 둔덕의 정상에 대리석 블록을 쌓아 올린 높다란 두 줄기 조형물 가운데 '張保臯記念塔(장보고기념탑)'이라고 새겨져 있다. 기념탑을 한 바퀴 둘러보고 일행은 나무그늘에서 우렁찬 매미소리와 함께 권교수님의 설명을 듣는다. 시원한 바람이 등줄기의 땀을 씻어 준다.



[장보고기념탑]

'엔닌이 이곳 적산법화원에 도착한 것은 음력 6월 7일이었다. 우리가 답사하는 오늘처럼 무더운 여름이었을 것이다. 이 법화원은 장보고가 건립한 것으로 절의 땅에서 생산되는 500석의 곡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장영 등 3명이 법화원을 관리하였다고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되어 있다. 엔닌은 이곳에 머물다 장보고 일행의 도움으로 용흥사 신라방으로 가서 머물다 장안에서 구법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당의 무종이 불교 탄압 정책을 펼쳐 사찰을 부수고 승려를 환속시키게 되는데 이 때 용흥사와 적산법화원도 없어지고 엔닌도 환속 당한 후 일본으로 추방되었다. 2004년 적산그룹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래 절을 기준으로 절 주변을 아주 크게 확장하였고, 2007년 장보고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이곳 법화원은 당시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신라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 간 왕래 사절단의 변영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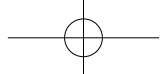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을 기원하는 신앙기도도량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에서 구법하고자 하는 신라 승려는 물론 일본 승려도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므로 이곳은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의 공동 평화의 장이었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상징하는 절이자 화합의 장이었다. 법화원의 의미를 오늘날에 되살려 동아시아 국가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탑 앞에서 기념 촬영 후 ‘장보고전기관’으로 향한다.

전기관 가는 길은 좁은 보도를 따라 측백나무가 양편으로 늘어서 시원한 그늘과 은은한 측백향을 내뿜고 있다. 뜰을 들어서니 장보고의 입상이 웅장하게 서 있고 현판에는 ‘武寧從軍(무령종군)’이라 새겨져 있다. 본당 1층에는 장보고의 좌상과 말고삐를 잡고 창을 든 장군의 입상이 세워져 있다. ‘緣定赤山(연정적산)’의 현판을 달고 있는 2층에는 장보고의 당에서의 활약과 청해진의 설치, 적산법화원의 건립 과정, 장보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그림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 전시실에는 청해진의 유물과 각종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적산법화원 장보고 입상]

전기관을 나와 적산대명신상이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긴다. 10여 분쯤 걸어나니 105개의 계단 위에 웅장한 적산명신상이 푸른 하늘 위 여름 구름보다 더 거대한 모습으로 좌립해 있다. 105개의 계단을 올라 내부로 들어가니 금박 입힌 명신상이 안치되어 있고, ‘ㄷ’ 자의 양편 벽 중에 바깥쪽 벽에는 거대한 탕화(?)가 옥으로 조각되어 있고 안쪽 벽에는 수많은 작은 불상들이 층층이 세워져 있다. 일정에 쫓겨 대충 둘러보고 언덕길을 뛰다시피 하여 법화원으로 간다. 법화원 앞에 이르니 웅장하게 “三佛寶殿(삼불보전)이라 새긴 현판이 보이고 앞 뜰 화단 흰색 기둥에는 <세계 인류의 평화가 이룩되기를>이라고 새겨져 있다. 아치교 건너 대웅전 앞 뜰 양편에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서 있다. 은행나무는 가지가지마다 ‘萬事如意(만사여의)’ 또는 ‘富貴平安(부귀평안)’ 등의 글귀를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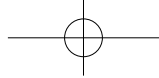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적산명신상]

긴 수많은 붉고 노란 깃발들을 달고 있어 여름더위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 뜰을 지나 높다란 수십 계단을 올라 대웅전에 이른다. 거대한 삼불 앞에서 '훌륭한 답사를 준비해준 한국해양재단이 더욱 발전하고 답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복 주십시오.'라고 간단히 빌고 시간에 쫓겨 급한 발걸음을 옮겨 버스를 탄다. 그런데 짝

지 선생님께서 약속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아직 승차를 하지 않으셨다.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었고, 또 나보다 앞서 관람하시는 것을 보아서 은근히 걱정이 된다. 걱정도 잠시, 인원 점검 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며 선생님이 탑승하는데 모든 전시관을 관람하고 음악분수대를 찾아가서 동영상을 촬영하라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 주위 선생님들께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아름다운 영상보다 선생님의 열정적인 답사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우리를 태운 버스는 석도항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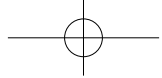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답사를 마치며 : 감동의 닷을 내리다

중국에서의 답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는 배에 오른다.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다. 배 안 침대가 안락하다. 침대보다 같은 선실의 선생님들이 더욱 정겹다. 답사의 기쁨과 감동을 이야기하고 학교에 돌아가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야기하다 보니 해가 저물고 있다. 선생님들과 함께 갑판으로 나선다. 가까운 곳에 석도항이 보이고 간밤에 묵었던 적산대주점이 열린 안개 속에 아득하게 보인다. 석도 시내 뒤편의 얇은 산자락 위로 해가 넘어가고 있다. 답사의 일정도 점점 저물어 간다. 석식 후 배는 석도항의 희미한 불빛을 밀어내며 우리의 서해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선실 선생님들과 함께 일출을 보려고 갑판에 오른다. 짙은 해무를 뚫고 해가 솟고 있다. 저 해무 속에 갇힌 일출과 간밤 선상에서 헤아려보았던 별들을 장보고는 수없이 보고 또 보았을 것이다. 1,200여 년 전 그가 살았던 바다, 그가 헤쳐나갔던 해무, 그가 보았던 밤하늘의 별을 생각하며 그의 삶과 정신을 조금이라도 본받자고 다짐한다.

오전 11시 배는 인천항에 닻을 내린다. 우리 일행도 여행의 닻을 내린다. 하선할 때까지 답사 참가자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재단 관계자들이 정말 고맙다. 거듭 한국해양재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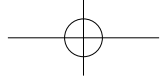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양 르네상스의 바람 - 그 源流를 찾아 세계의 중심으로 -

창원고등학교\_이상훈(장려상)

## 들어가는 말

2005년 해신 드라마가 끝난 뒤, 강한 여운이 남아 곧바로 완도 청해진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었다. 창원에서 4시간 정도를 달려 완도에 도착했다. 비포장도로를 지나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작은 운하를 가운데 둔 드라마세트장이 마치 옛 삼국시대로 돌아온 것 같았다. 청해진은 평화로운 남해안의 정경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보고는 계속되는 담임과 진학지도의 바쁜 생활 때문에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올해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답사의 일정을 보고 강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신청을 하였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운 좋게 선정되었다. 기쁜 마음도 잠시 뿐,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이 있었다. 16년째 이어져온 한국해양재단의 답사의



목적은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학생들에게 해양에 대한 지식과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 건강하게 답사를 마칠 수 있을까? 아내도 기뻐하면서 걱정스러워 한다.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유적답사에서 내가 얻어야 할 것과,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생각해본다.

## 1. 역사 -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다.

인류역사에서 바다는 많은 국가와 민족의 영욕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장소였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강대국이 되는 지름길이였다. 로마,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그러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인류의 문명이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지구를 한 바퀴 순환하고 있다. 2028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경제 1위에 오를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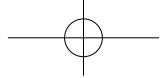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영국의 역사학자 카(E. H. 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의 사실을 알 수 있고 현재의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미래를 향한 안목을 기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역사속의 흥망성쇠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활동무대를 돌아보고 해양개척정신과 업적을 몸소 느끼고 배워야겠다.

## 2. 창조

장보고에 대한 자료를 대략적으로 살펴본 후 느낀 점은 한마디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요즘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롤모델이며 지덕체를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장보고는 790년경 완도의 한 섬에서 태어났다. 당시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어서 귀족이 아니면 벼슬길에 오르기 힘들었다. 때문에 20



대 초반인 810년경에 신분의 제약이 적은 당나라로 건너갔다. 그 후 무령군의 군인이 되어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전쟁에서 큰 공(당시 산둥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평로지청절도사 이정기의 번진을 진압)을 세워 30세에 1천명의 군사를 이끄는 무령군소장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새롭게 바다를 통한 교역의 일을 하게 되면서 산둥반도 적산포에 법화원을 세우고, 재당신라인을 결집하여 외국상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거대한 항구로 발전시켰다. 그 후 다시 신라로 돌아가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였고, 아라비아, 인도, 페르시아, 당나라, 일본의 상인들과 활발한 무역을 하여 거대한 해상왕국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이 장보고는 골품제도의 신분제를 극복하고 개방적인 중국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 왔으며, 청해진 설치와 해상교역 과정에서도 끝없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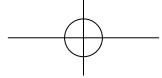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3. 人類共榮(인류공영)

한때 유럽의 열강들이 열린 바닷길로 식민지화에 힘쓸 때, 바다는 순수한 기능을 잃었다. 그들은 강력한 국력으로 약소국들을 약탈하였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장보고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해적을 소탕하여 상인들이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히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여객운송, 선박건조와 수리, 통역, 선원제공, 종교전파, 문화사업지원, 도자기제작 등 각종 상업서비스와 문화사업까지 하였다.

페르시아 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국과 중국, 신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완성하여 세계화를 처음 실천에 옮긴 그는, 진정한 개방주의자며 인류공영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주춤한 지금, 또다시 장보고의 후손이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라며, 설레는 마음을 누르고 잠을 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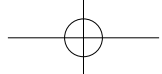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첫째 날, 인천항으로~ 석도항으로~

오후 4시에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집결하기 위해 창원시외터미널에서 8시 버스를 탔다. 늘 가족여행으로 함께 다녔기에 장기간 집을 비운다는 것이 아내에게도 조금은 걱정스러웠는가 보다. 보고 싶다고 울지 마라는 농담으로 작별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다. 반갑게도 창원에서 출발하는 일행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인천으로 향했다. 4시간 40분 정도 달려서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장거리이동으로 몸을 가볍게 풀었다. 시간도 넉넉하니 버스를 타고 부두로 이동하기로 했다.

처음 보는 인천시의 모습은 활기차고 생동감 있었다. 인천은 우리 근대사에 큰 사건이 많았던 곳이다. 문득 얼마 전에 감명 깊게 본 인천상륙작전이 생각났다. 적의 허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 해전의 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 한국전쟁의 인천의 바다, 임진왜란의 남해의 바다, 바다는 두 번이나 우리를 큰 위기에서 구해주었구나! 진한 감동이 몰려와 처음 온 곳이지만 모든 것이 친근해 보인다.

인천항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가득했다. 4시경이 되니 답사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답사관련 책자와 모자, 목베개를 받고 3조에 배정되었다. 목베개는 필경 장거리 이동을 암시하는 물품이라고 짐작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승선한 '화동훼리'의 크기에 일단 압도되었다.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배라 그런지 예상보다 거대했다. 배정받은 4인실 방으로 들어가니 아늑한 2층침대에 깔찍한 크기의 욕조와 세면대와 변기가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한 방을 쓰게 된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답사의 경험담과 궁금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6시에 식사를 하러 갔다. 가볍게 식사를 한 후 간판위에 올라가서 비행기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시원한 공기를 쐬었다. 배위에서의 풍경이 낭만적이거나 아름답지는 않았다. 보기 힘든 서해의 일몰을 보니 마음이 초연해졌다. 필경 나는 이 서해바다에 담겨있는 영욕과 흥망성쇠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당연합군에 의한 660년 백제의 멸망, 668년 고구려의 멸망,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94년 청일전쟁, 서해



[인천바다의 고요한 일몰 풍경]

대전 . . .

이 많은 역사를 품고 무심히 흐르는 서해바다는 여전히 고요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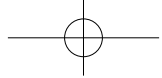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이 답사의 목적도 서해와 무관하지 않다. 1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의 첫걸음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바람이 세계 불어 몸을 가눌 수 없었다. 선실로 내려와 9시부터 시작되는 선상세미나에 참석했다. 몸은 피곤하였으나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기회가 흔치 않아 귀를 세우고 들었다. 장보고에 대한 공부를 조금은 하고 왔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책에서는 보지 못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중국에 도착하기 전 사전 지식을 갖추고 알찬 답사를 하기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항해술과 천문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텐데, 뛰어난 신라인들의 항해기술과 조선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마도 한국이 조선해양 강국이 된 것은 선조들의 우수한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으나 오히려 기분은 새로웠다. 처음 경험하는 배에서의 첫 밤. 창에 비친 바다는 칠흑같이 어둡고, 선실에서는 소란한 중국어가 쉬지 않고 들려오는 서해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 둘째 날, 한반도와 인연 깊은 산동성에 첫발을 내딛는다.

해상에서 안개로 인한 입국지연 사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승객 대부분이 익숙한 듯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안개가 걷히자 적산을 병풍처럼 두른 석도항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개인적으로 중국 여행지 순위에서 늘 1위였던 곳! 장보고의 인연으로 이곳을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짧은 기간이지만 오감을 총동원하여 답사할 생각을 하니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



했다.

중국 23개 성(省)의 하나인 산둥성은 중국 전체 면적의 1.6%에 해당되는 곳으로, 평지와 구릉이 70%이다. 1억에 가까운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며, 사계절이 뚜렷한 난·온대 계절풍 기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화교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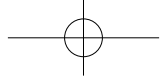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중국 석도항 아침 전경]

부분이 산둥성에서 들어왔고, 우리가 즐겨먹는 중국 음식 가운데 산둥 음식이 많다. 소금과 철광이 생산되어 중국 교통의 요지로 발전했으며 4대 문명발상지 중의 하나인 황하문명이 발원한 곳이다. 중국문명의 상징으로 일컬어져 오는 태산이 이곳에 있고, 유교의 지성(至聖)인 공자를 비롯하여 맹자·묵자·손자·강태공·서성(書聖) 왕희지의 고향이 모두 산둥성이다. 이처럼 산둥성은 중국 정치·경제의 대동맥이자 역사와 사상의 발상지이다.

또한 이곳이 바로 1200년 전 장보고가 해상무역왕이 되기 위한 첫 활동무대였다.

입국이 지연되어 제1답사지였던 성산두는 마지막 날로 미루고 곧바로 위해시로 이동했다. 한국말에 유창한 가이드의 인사말과 함께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되었다. 신도시처럼 깨끗한 위해시는 산둥성 동북쪽 끝에 자리한 항구도시이다. 한중 FTA 경제협력 시범도시인 동시에 특별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대한무역이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 관련이 깊은 곳이다. 이곳에 진출한 우리 기업수가 무려 1000여개 이상이며, 한류가 크게 유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위해항 역시 중국이 최초로 개방한 국제통상항구로써 최신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곳에는 특별히 한라방이라는 코리아타운이 있으니, 아마 장보고시절의 신라방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산둥성에서 첫 식사는 역시 원탁테이블의 중국식 요리였다.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독특한 향료와 기름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한국에서 준비한 반찬으로만 먹었던 기억이 났다. 이번에는 아예 현지식을 즐길 생각으로 아무것도 준



비하지 않았다. 다행히 음식들이 마치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나온 것처럼 맛있었다. 중국이 워낙 넓어 고속도로를 달리면 화장실 만나기가 힘들다는 가이드의 말이 생각나 점심을 먹고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화장실에 들렀다. 2시간 30분후 도착할 다음 목적지는 봉래이다. 목베개를 허리에 받히고 본격적인 중국풍경 감상에 들어간다.

봉래는 산둥반도 최북단에 자리한 항구도시이다. 요동반도의 끝에서 발해만을 지나 산둥반도로 이어진 묘도군도(廟島群島)가 있어 한반도의 연안 해상로를 이용하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곳이다. 신라는 멸망할 때까지 이곳을 잇는 항로를 중단 없이 이용하였다하니 과히 해상교역의 중심지라 할 만하다.

등주수성 입구에 있는 선박전문박물관인 '봉래고선박물관'에 들러 통나무배, 용선, 차륜선, 모래선 등 종류도 다양한 배들의 모형을 보았다. 특히 1984년에



[봉래고선박물관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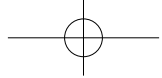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박물관내 복원된 고선의 하부 모습]



[고선박물관 - 최치원의 모습]



[고선박물관 - 신라관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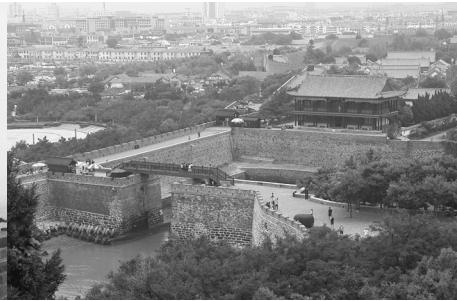


발견된 원나라 때 선박이 5:1의 비례로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2005년 7월에 고려청자를 실은 고려의 선박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봉래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중국 도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중국 4대누각 중 하나인 봉래각(蓬萊閣) 2층에는 8명의 신선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다를 건너는 놀이를 즐겼다는 ‘팔선취주(八仙醉酒)라는 조각상이 있다. 봉래각에서 내려다보니 등주수성의 전경이 한층 잘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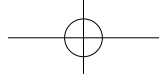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멀리서 바라본 봉래각]



[봉래각 위에서 내려다 본 등주수성]

등주수성은 명나라때 대대적으로 수리되어 비교적 완벽한 해상군사방어 체제를 형성하였다. 명나라 말에 왜구를 섬멸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척계광(1528~1588)은 바로 등주 출신이다. 그 옛날 한나라 수군이 고조선을 치기 위해 출발한 곳, 수나라 양제의 고구려 침략, 당나라 태종과 고종의 고구려·백제 공격의 출발지, 발해 무왕이 장문휴를 보내 당나라를 공격한 곳, 한·중 전쟁과 무역의 중심이었던 등주가, 지금은 모래와 흙이 쌓이면서 수심이 얕아져 그 역할이 약화되어 그저 도교 성지를 방문하고 해안절경을 조망하며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지로 변해 있었다. 도로가에 즐비한 대형식당, 현란한 조명이 반짝이는 놀이시설, 습관처럼 웃웃을 벗고 불룩한 배를 내밀고 있는 중국인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다.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가 있는 유방으로 이동한다. 이동 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 오늘 대략 이동거리를 생각해보니 500km 정도이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뒤따라 걷고, 정신없이 보고 듣고, 회전테이블을 열심히 돌리면서 체력을 보충했으나, 계속되는 차량이



동으로 체력이 방전되어 부화호텔 방 침대를 보자마자 몸을 눕혔다. 숙소는 안락했고 시설이 매우 좋았다. 같은 조 선생님과과의 가벼운 회식도 못한 채 답사 둘째 날이 꿈속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 셋째 날, 태산을 오르다.

새벽 5시 30분! 경쾌한 모닝콜 멜로디로 하루를 시작한다. 깔끔하게 차려진 뷔페에서 가볍게 아침을 먹은 후 서둘러 짐을 정리했다. 아내의 조언으로 배낭 하나만 가볍게 들고 출발하여 움직임이 쉬웠다. 문득 우리 인생도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볍게 여행하면 무척 편하겠구나 생각했다.

다음 목적지는 치박에 있는 고차박물관과 제나라 역사박물관이다. 제나라 역사박물관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관람이 불가하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치박은 산동성 중부에 자리한 연해개방도시이자 공업도시로, 원래 ‘치첸’과 ‘박산’이었는데, 1945년에 합쳐서 ‘치박’이 되었다. 이곳에 있는 ‘임치’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수도이기도 하며, 많은 유적지가 있는 역사도시이기도 하다. 교수님의 상세한 설명이 답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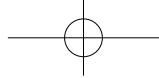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말과 마차의 모습이 선명한 고차박물관 내부]



[순장된 말들의 모습 - 고차박물관]

중국고차박물관은 중국 최고의 차마유적(車馬遺蹟)으로 고속도로 공사 중 발견된 것으로 28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곳은 당시 ‘전국 10대 고고학 발견의 하나’라고 불렸다. 황하 유역은 주나라 때부터 춘추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전쟁터였으며, 지세가 넓고 평탄하여 전차전에 적합한 곳이었다. 당시 전차병



은 4마리 말이 마차 한 대를 끄는 ‘일승(一乘)의 규모였는데 출토된 마차는 일승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임치 주변에서 벌어진 전차전의 모습과 중국 고차의 다양한 모습을 한 곳에서 이해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이제 3시간 정도 달리면 태안이다. 태안은 산둥성 중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관광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 5대 명산 가운데 으뜸인 태산(泰山)을 중심으로 화하(華夏)문명이 발생한 곳으로 과학과 기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오늘은 체력소모가 많은 날이라 점심을 든든히 먹고 태산으로 향했다.

태악(太岳)으로도 불리는 태산은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고 하여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꼽았다. 태산이 자리한 황하 하류에서 중국의 문명이 처음 열렸고, 그 뒤 많은 황제들이 이곳에서 하늘의 뜻을 받고 땅에 알리는 봉선(封禪)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기원전 219년에 진시황을 시작으로 한나라 무제는 5번, 청나라 건륭제는 11번, 당나라 현종 등이 의식을 거행했다. 성스러우면서도 경관이 뛰어난 태산에는 많은 명승고적이 남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벽에 비문을 새겨 천하제일의 석각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1,800여 군데에 석각이 남아 있는데 특히 한나라 무제의 무자비(無字碑)와 당나라 현종이 세운 기태산명비(紀泰山銘碑)는 유명세가 있다고 한다. 한나라 무제의 공적이 워낙 많아 비석에 다 적을 수 없어서 글자 없이 그냥 비석만 세워서 ‘무자비’라 한다. 정상은 옥황정이다. 오늘 그 태산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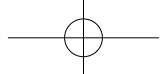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안개속의 태산 케이블카]



[천가-하늘거리]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을 장수하고 영생을 얻는다 하여 7,412개의 계단을 걸어서 오르는 것이 옳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셔틀버스를 타고 20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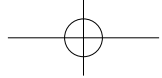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한 무제의 무자비(無字碑)]

[웅치전동]

[고등봉대]

도 산길을 올라 케이블카 승강장에 도착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감상하는 사이, 순식간에 안개가 밀려와 우리를 감싸 안았다. 태산의 신령스러움을 잠깐 보여주려는 것일까? 짙은 안개가 태산의 모습을 더욱 신비한 색으로 물들였다. 마치 내가 신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돌계단으로 잘 정비된 길은 걷기에 아주 편했고, 한참을 오르자 눈앞에 천가(天街)라는 글귀가 보인다. '하늘거리'라 제법 운치 있는 표현이라 생각했다. 태산 정상아래 각종 기념품을 파는 상인이 즐비하고 음식을 파는 상인 또한 많고, 더욱이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인지 호텔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과연 중국답다는 표현밖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부지런히 가파른 계단을 올라 오악독존(五岳獨尊) 앞에 이르러 기념사진을 찍고 싶었으나, 대기하는 중국인들이 많아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중국 여행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늘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태산에서는 외국인을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 드디어 태산이 자랑하는 석각 앞에 이르렀다. 생전 처음 보는 풍경에 정신이 혼미함을 느꼈다. 수많은 석각 사이사이로 보이는 붉은색의 크고 작은 글귀들, 황제를 비롯한 유명 문인들이 쓴 소망어린 글귀들을 보니 과연 이곳이 도교의 성지임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또 한 번 몰려온 안개는 이 신비로움을 더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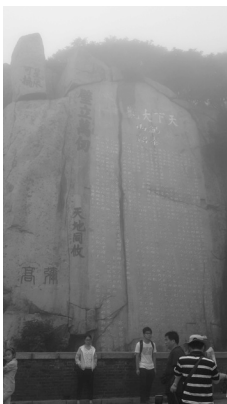


[태산에 오른 중국인들]



[석각 I]

발걸음을 돌려 공자가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구나’라고 한 곳에 이르렀다. 태산에 오르기 전에 공자의 그 기분을 같은 공간에서 느끼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건만, 나의 덕이 부족한지 끝내 안개는 천하의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또 한 번 찾아오라는 뜻인가? 아쉬운 마음으로 잠시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어 정상으로 올라갔다. 정상인 옥황정에서 교수님과 다른 일행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함께 다니고 있었다. 천천히 내려오면서 태산의 신비롭고 몽환적인 전경을 가슴 깊이 새겨 두었다. 어쩌면 맑은 날씨보다 더 태산다운 태산을 보았을 지도 모른다고 자위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석각II]



[석각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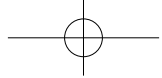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석각IV]



[공자소천하처]

이제 저녁 식사 후 다시 4시간을 달려 치박으로 가야한다. 조금이라도 태산을 더 즐기려고 이 곳 저 곳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내렸더니 저녁 밥맛이 꿀맛



이다. 역시 시장이 반찬이다. 중국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 만호대주점(숙소이름)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9시가 조금 지난 것 같다. 시간은 어느덧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기간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 넷째 날, 강태공의 땅 청주와 이정기, 그리고 장보고!

강태공은 춘추전국시대 산둥반도 일대를 다스렸던 제(齊)나라의 시조로서 이름은 여상(呂尙)이다. 위수(渭水)에서 낚시를 하다가 서백(뒤에 주나라 문왕)을 만났으며, 서백의 아들(뒤에 주나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무왕이 전국을 나누어 제후국을 만들면서 공신과 형제·친지들을 제후국의 왕으로 책봉하였는데, 강태공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 제나라의 초대 군왕이 되었다. 그는 천문·지리·정치·군사 등 여러 방면에 능하였고, 경제적 수완과 병법가(兵法家)로서의 재주가 뛰어나 제나라를 빠른 시간에 안정시켰다. 또한 강태공이 100여개 성씨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어 ‘백성’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긴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강(姜)씨가 강태공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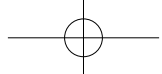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강태공 사당]



[구조전 모습]

강태공 사당 뒤에 의관총(衣冠塚)이 있어 그가 썼던 모자와 옷이 여기에 묻혀 있다. 그의 시신은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처음 섬겼던 문왕과 무왕 능묘 주변에 묻혔다고 한다. 의관총은 마치 거대한 동산처럼 나무가 우거져있어



[태공망 강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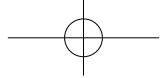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강태공 의관총 앞에서]

[강태공 추모비]

크기에 압도되었다. 공자의 무덤인 공림(孔林)과 관우의 무덤인 관림(關林)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규모는 중국답다.

문득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고사성어가 생각났다. 강태공이 제나라 왕이 되어 임지로 오던 중,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부인에게 ‘엷은 그릇의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하였다. 부부의 일은 알 수가 없듯, 조선 선비들의 모범이었던 강태공도 사랑 앞에선 평범한 사람이었나 보다.

치박에 위치한 순마갱은 제경공순마갱(齊景公殉馬坑)이라고 불리며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이다. 치박시를 흐르는 치구하(淄區河)에 인접해 있는 20개의 묘 가운데 제 5호분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갑(甲)자 형을 이루고 있는 5호분은 남북 길이 26m, 동서 너비 23m이며, 남쪽 묘도(墓道)의 길이 18m, 너비 12m로 큰 규모이다. 이 말들은 모두 전쟁에 사용된 6~7세 가량의 숫말이며,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규모의 말 무덤이다. 현대 108마리의 순마가 전시되고 있다. 한 대의 마차를 네 마리의 말이 끌었으니, 600마리의 말은 150대의 마차를 끌 수 있는 말 숫자이다. 웬만한 제후국의 마차 전투력 전체에 해당하는 군사력으로, 이정도의 말을 순장할 정도라면 당시 제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순마갱 발굴현장]



[순마갱 복원 작업중]

공자가 제나라 경공을 만났을 때, 경공이 정치하는 방법을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君君臣臣父父子子’라 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다워진다면 만사형통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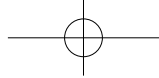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순마갱을 나오며 질서정연하게 누워있는 말을 보니 애처롭기도 하였으나, 그 희생이 지금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나오는 길에 야외에서 여유롭게 탁구를 치는 할아버지들을 보았다. 국민스포츠클럽을 입증하듯 시내 공원에도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순 없어 양해를 구하고 할아버지와 잠시 탁구를 쳤다. 할아버지의 탁구 솜씨가 예상롭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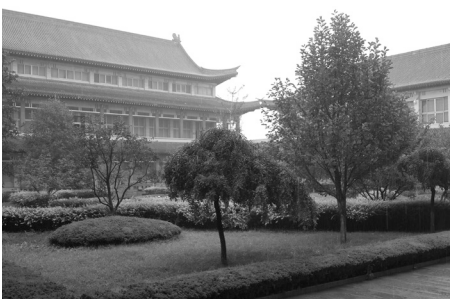
[여유로운 할아버지들의 모습]

다시 청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차를 타고 이동 중 비가 오락가락하여 덤지는 않았으나, 폭우는 약간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차창에 비치는 치박의 거리는 복잡하고 활기차서 가히 견마곡격(肩摩穀擊)이라 할 만 했다. 수레바퀴통이 서로 부딪치고 사람의 어깨가 스칠 정도로 수레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거리의 변화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치박은 2,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듯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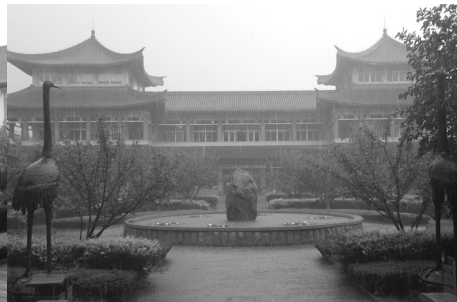


이제 이 답사의 핵심지 중의 하나인 청주에 도착하였다.

청주는 교통의 요지이며 한나라 · 수나라 · 당나라 때의 행정 · 군사의 중심지였다. 고구려의 후예였던 이정기는 765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동일대를 지배하였고, 그의 아들, 손자인 이납, 이사고, 이사도는 평로지정절도사를 맡아 819년까지 약 55년 동안 청주 · 운주를 중심으로 산동반도 전역, 안휘성과 강소성 일부를 장악했다. 특히 당 - 신라 - 발해 - 왜를 오가는 모든 교역을 총괄하고 산동지방의 농산물과 소금을 독점 거래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마침내 이납은 782년에 당나라에 대항하는 새로운 나라인 제(齊)나라를 건국하였으나, 당 황실과 주변 절도사들에 의해 819년에 패망하였다. 이 시기에 산동반도 연안에 자리하였던 신라인들은 청주와 초주 등 내륙이나 황해 연안, 회수 주변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이 때 장보고는 서주 무령군(武寧軍)에 속하여 제나라를 진압하는데 참여하였고, 큰 공을 세워 소장(小將)으로 승진하였다. 장보고는 진압 과정에서 구당신라소와 해당 주현(州縣)에 의해서 치밀하게 통제되는 재당 신라인 및 발해인의 모습을 보았으며, 이것이 이후에 신라와 당, 신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활동을 신속하고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먼 이국 땅 청주에 이러한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가슴 한쪽에서 밀려오는 애상감(哀傷感)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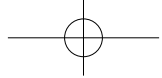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비오는 청주박물관 전경]



[청주박물관]

청주박물관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차례대로 관람하기로 하였다. 1959년에 건립된 종합박물관으로 3만 여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고, 중국의 현금 박



물관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 한다. 12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소장 유물 가운데는 옥질이 매우 귀하고 조각 수법이 뛰어난 ‘동한 의자손 옥벽’과 종교나 미신과 관련된 ‘전국옥인’이 있었다. 또한 용흥사 출토 유물로 400여기의 불상·보살상·나한상·비천상 등 불교 조각상이 있었다.

중국의 불교가 산둥 지역을 거쳐 백제·신라로 유입되었으니, 태안 마애삼존불, 서산 마애삼존불이 이곳의 불교 조각상과 비슷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외에도 도자기 서화, 석각 등의 유물도 전시되어 있었다. 실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관리자의 엄한 경비가 있어 안타깝게도 사진촬영은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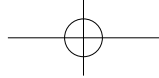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이제 유방으로 1시간 정도 이동하여 점심을 먹은 후, 이번 답사의 최종목적지 ‘적산법화원’이 있는 석도로 돌아간다. 예상 소요 시간은 5시간 30분이다. 역사 도시이자 수공업 도시인 유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의 도시’이다. 국제 연 축제가 매년 열리며 매년 수천만 명의 여행객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각양각색의 예쁜 연 모양의 가로등이 연의 도시임을 과시하듯 한껏 뽐내고 있다. 예쁘게 꾸며진 유방을 뒤로 하고 제법 눈에 익숙해진 중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한참을 달렸다. TV에서는 연속해서 장보고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답사기간이 지날수록 장보고에 대한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지식이 쌓인 만큼 경외감도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석도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은 후, 산둥반도의 마지막 밤을 적산대주점에서 보냈다.

산둥반도에서의 마지막 밤. 지난 3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며 장보고의 생애를 그려보다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 다섯째 날, 답사의 백미 적산법화원.

아침부터 서둘러 첫째 날 입국지연으로 가지 못했던 성산두로 향했다. 지금은 호운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국의 가장 동쪽 해안으로 예부터 태양신이 사는 곳이라고 하여 많은 황제들이 순행한 곳이다. 특히 진시황이 세 번이나 찾아온 곳으로 그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일찍부터 군사 요충지여서 한나라 무제



가 고조선을 공격할 때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당나라 소정방이 13만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이곳에서 바다를 건넜다. 우리 입장에서는 슬픈 역사의 현장이다. 또한 진시황의 방사였던 서복(徐福)이 불로장생초를 구하려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도에는 서복이 한라산에서 ‘시로미’를 불로초라고 구해서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를 ‘서귀포(西歸浦)’라고 부른다고 전하고, 정방폭포도 서복과 관련된 유적이라고 한다. 하늘이 끝나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천무진두(天無盡頭)라는 휘호는 1989년 천안문 사태로 물러난 중국의 전 총서기인 호요방이 남긴 것이라 한다. 모처럼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중국의 희망봉이라 일컫는 성산두의 이곳저곳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진시황의 마차 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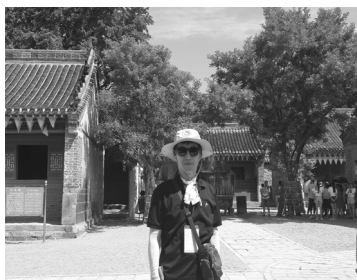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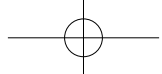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성산두 앞 바다]



[천진두]

[진시황과 신하들]

돌아오는 길에 ‘진시황사당’에 들렀다. 진시황이 동쪽으로 순행하면서 머물렀던 행궁이라고 한다. 사당 안에는 시황전(始皇殿)과 함께 진시황사당에서 한 킷해신(海神)을 모신 일주사(日主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숨진 28세의 여



[진시황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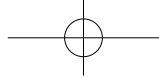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적산법화원 입구]

인을 기리려고 새운 천후궁(天后宮)이 있다. 천후궁 옆에는 1894년 중일갑오해전(청일전쟁) 때 순국한 해군장령 등세창(鄧世昌)을 기리는 사당과 청나라 덕종이 세운 비가 있었다.

이제 적산법화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적산법화원은 석도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적산(赤山)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 일대를 적산풍경명승구라 하고 'AAAA'급 관광명승지로 개발하였다. 명승구 안에 적산법화원, 장보고기념관, 장보고기념탑, 적산명신상, 법화탑, 영성민속관, 천문담공원 등이 있다. 장보고가 세운 사찰인 법화원은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집결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 간 왕래 사

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기도도량이었다. 일본 천태종 제3개 좌주인 엔닌(圓仁)에 의하면, 당나라에 구법하고서 귀국하려는 신라 승려는 물론 일본 승려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귀국한 뒤에 일본 교토의 소야산에 적산의 이름으로 적산선원(赤山禪院)을 세운 것은 장보고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일 것이다. 장보고 선단의 활동 영역이 남중국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당나라가 멸망한 뒤 오대십국 시대에 남중국 일대에서 선법과 천태종이 크게 성행한 것은 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산법화원은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장이자 동아시아 불교 발전의 성지였으니, 장보고는 동아시아 불교 교류를 이끈 선구자였다. 재당 신라인 사회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장보고는 청해진 본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심을 결집시켜야 했으며, 혼란한 말세를 극복하고 안전한 항해와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기 위해 관음신앙과 법화신앙을 부각하며 정토를 염원하였다. 장보고의 해안에 새삼 존경심이 일었다.



[장보고 기념탑]

[장보고동상]

[장보고전기관의 누각]

[적산명신상]

먼저 장보고기념탑에서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한 재당 신라인들의 활동, 장보고의 해상 활동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단체사진을 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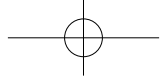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 전기관에 들어서니 보기에도 우람한 장보고의 동상이 우리를 반겼다. 5개로 이루어진 전기관에는 무령군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모습, 장보고와 재당 신라인 및 엔닌과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을 설치하여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망을 이룬 내용들을 순서대로 전시해 놓았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적산명신상으로 향했다. 압도적인 크기의 적산명신이 그윽한 모습으로 석도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옛 장보고 선단의 활동을 지켜보듯이.

소설 《해신》을 쓴 최인호 작가는 신라명신 즉, 장보고가 바로 적산명신이라고 하였으나, 아직은 명확한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가 저 바다에



[적산명신상에서 바라본 법화원 전경]

[석도항과 황해]



[관음전과 멀리 보이는 적산명신상]



[삼불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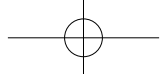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있음을 암시하듯 서해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참을 적산명신의 눈길을 따라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바라본 석도항의 모습은 평온하고 아득하였다. 발길을 돌려 관음상의 웅장한 분수 쇼를 관람한 뒤 법화원을 나왔다. 아쉬운 마음에 뒤돌아본 법화원의 모습은 내가 생각한 고적한 사찰이 아니라, 중국 색깔이 물씬 나는 건물과 붉은색 단청, 하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단장한 유명 관광지처럼 보였다. (재)한국해양재단의 많은 노력으로 장보고 유적이 이국땅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한 이방인에게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중국의 유연한 태도가 부럽기도 하였다.

산동반도에서의 마지막 점심을 먹은 후 석도항에 도착했다. 출국수속을 마치고 다시 만난 화동훤리와 승무원들은 변함없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돌아오는 배에서 미래의 바다에 대한 희망을 그려본다.

## 답사를 마치고,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 교실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여전히 활기차다. 학생들과 목포 MBC 보도특집 ‘장보고루트’를 시청한 후 바다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며 해양의 시대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동북아시아는 다시 세계 역사와 문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장보고 시대 ‘장보고루트’ 시청중인 학생들 이후 우리의 바다는 긴 격변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해양 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을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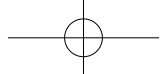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장보고루트' 시청중인 학생들]

1970년대 중동발 석유파동 때의 과감한 투자와 중국의 고도성장의 도움으로 우리의 조선 산업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사이, 중국은 우리를 추월하였고, 산업재편을 끝낸 일본은 우리에게 빼앗긴 조선업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일본에게 조선업의 1위 자리를 내준

독일 등 유럽연합(EU)은 차세대 성장엔진의 하나로 꼽히는 친환경 연료전지와 연료전지선박 부문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며, 상선이 아닌 크루즈선이나 특수선 건조에 주력하고 있다. 모두가 바다에 미래를 걸었다. 우리에게 경제 발전의 기회를 주었던 고유가가 이제는 계속되는 저유가로 해양플랜트 산업에 위기를 주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한자로 풀이하면 위기와 기회이다. 위기로 인해 성장하고 또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창조하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해상왕국을 건설하고, 다국적 기업의 모델을 추구했던 장보고! 시대를 앞서간 해상경영의 선구자! 그는 이미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을 알고 움직인 선각자였다. 장보고가 이룩한 업적은 '블루오션'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04년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의 김위찬(W. Chan Kim)교수와 리네이 모본 교수에 의해 주창된 '블루오션 전략 (Blue Ocean Strategy)'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없는 독창적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경영 전략이다. 비슷한 전략과 상품으로 경쟁하는 시장을 레드오션(Red Ocean)으로 규정하고,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인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전략의 요지이다. 다시 말해 '블루오션'은 높은 수익과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다. 1,200년 전 장보고는 이러한 블루오션 전략으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창출한 뛰어난 전략가였다. 해상왕 장보고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이번 유적답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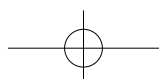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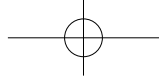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중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메디치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3대 거장으로 인해, 피렌체에서 일어났듯이, 해양 르네상스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장보고와 같은 창조적인 인물에 의해 한반도에서 힘차게 일어나길 소망한다. 창조적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의 현장까지 내다본 (재)한국해양재단의 제반 사업들은 성과가 있음을 확신한다. 창조적인 기술은 창조적인 인간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다. 창조적인 인재 양성은 교사의 의무이다.

이번 유적답사를 통해 바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이제는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들려줄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할 시간이다. 이 위기가 지나면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올 것이니, 미래를 보는 지혜를 열어주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의 어깨에 바다의 미래, 조국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 해양에 대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시의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위대한 장보고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가 걸어간 길을 통해 학생들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겠다.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바다의 중요성을 알려준 (재)한국해양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답사 기간 내내 상세한 설명으로 견문을 넓혀준 교수님들과, 6일간의 답사기간 동안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 2차답사팀 동료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 참고자료

- [1]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 안내 책자
- [2] 목포MBC 보도특집 다큐멘터리 '장보고 루트'
- [3] 장보고의 해상무역활동과 재조명 사업에 대한 고찰 / 한국해양대학교 (정창원)
- [4] 장보고의 해상무역의 범위와 역사적 의의 / 한국물류학회 (김천식)
- [5] 실크로드로 배우는 세계 역사 / 조혜진



# 장보고의 후손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강현중학교\_김경순(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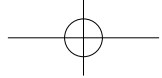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I. 장보고를 찾아

뜨거운 도시 지열을 딛고선 서해 바다 인천 제1국제 터미널  
기대와 설렘을 가득 실은 배낭을 지고, 캐리어를 끌고 오는 답사팀 동지들

내 나라를 벗어나는 흥겨움, 낯선 남의 땅을 딛는 이들의 흥분으로 가득한 터미널 누구는 기뻐하며, 누구는 아쉬워하며 수없이 오갔을 이곳을 지나 우리도 또 하나의 역사를 찾으러, 역사를 남기려 하고 있다.

천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온 분, 그분의 거룩한 자취를 찾아 천 년 전의 해안과 용기, 개척정신을 기리러, 만나러, 이어가려 하니 그분은 바로 해상왕 장보고!



이제 우리 그를 찾아 천년도 훨씬 넘는 그 세월을 넘실대는 물결에 실어가기 위해 배를 탄다. 화동훼리 일만 구천톤급, 승선인원 천여 명을 태우는 한 컷의 사진에는 담을 수도 없는 커다란 배를 타고 떠나려 한다.

이리 큰 배를, 문명의 이기로 움직이는 이 배를 타면서도 안전이니, 위험이니 등등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천 년 후의 후손들에게 장보고 그는 무엇이라 얘기 할까, 호사에 수다스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 할까

조류의 흐름에 따라 당시 교관선이란 무역선을 탔다한들 지금으로 보면 일엽편주같은 터, 그 배를 타고 그리 멀리 낯선 땅, 낯설은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 기상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는가

중국 상인, 여행객으로 시끌벅적한 틈으로 승선 후, 위아래 4인1실 처음 만난 같은 방 이웃님들 두루두루 자기소개, 진주, 삼천포, 광주님네 반갑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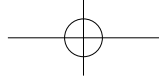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배 떠나기 기다리며 갑판 위 사방구경, 인천대교 길이 재며 두리번 거리며 맞이한 저녁 식사 이것저것 기웃기웃 무미진조함이 제 맛인 흰 밀가루빵 한 입 베어 물며 우리가 중국 배 탔음을 실감한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의 일원이 된 행운에 감사하며 선상세미나에 임한다. 우리에게 장보고는 어떠한 존재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그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권덕영교수님은 깊은 무게로 묵직한 교훈을 전한다.

세미나 속 살아있는 장보고를 품에 안고 잠시 갑판에 올라 가득한 해무내음만 맡다 자리에 눕는다. 넘실대는 파도의 작은 떨림 온 몸으로 느끼며 노곤함을 그대로 녹여 잠이 든다.

## II. 도교적 삶이란

분명 배는 이제 석도항에 다가온 듯한데, 13시간 넘는 승선에 이제 물에 발



딘고 싶지만 석도항 앞바다는 툭툭히 텃세부리며 짙은 해무를 드리우며 도시 우리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창 밖도 갑판위에서도 물안개에 가려 배는 정박하지 못하며 쉬이 대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장보고, 장보고 그가 수없는 뱃길을 오가며 겪었을 이런 날에 황망함을 우리에게 경험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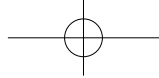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두서너시간 지연으로 일정상의 성산두, 진시황사당은 후일로 미루고 드디어 봉래각에 오른다. 봉래의 옛 이름은 등주, 등주 수성 올라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후텁한 땀내음의 보상을 받는다. 봉래각 가는 길에 보이던 수많은 모터보트, 요트 그리고 수성 위에서 바라본 바닷가의 넘쳐나는 피서객을 보며 대국에 풍기는 여유를 본다.

봉래각은 중국 4대 누각답게 가히 신선이 여덟은 충분히 있을 법한 풍광을 갖추고 있어 도교적 삶이 절로 지어질 듯

해박한 권덕영교수님의 진지한 강의를 듣고 나면 언제나 남는 질문에 이유진교수님은 쉽없이 답해 주신다. 호기심과 지적 소유욕이 강한 선생님들의 무더운 질문에도 짹짹하고 경쾌한 음색으로 답한다.

등주 일대는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이 있었다하니 신라인들의 분주함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 등주 수성 걸어봄은 시간상 아쉬움을 뒤로하고 유방을 향해 200여km 먼길을 재촉한다.

긴 버스 속의 답사, 버스 속의 여정은 창밖으로 나를 안내한다. 중국은 이러하더라고 한마디로 단정할 수 없다는 친절하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서도 중국의 변화를 단정한다. '정말 중국 많이 빨리 변하고 있구나' 내심 감탄을 한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미흡하다지만 훌륭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들 북경같은 대도시와 비하면 변방일 주변들이, 거대한 중국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 Ⅲ. 화석이 된 말, 꿈에 그린 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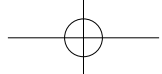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자고 나니 새날이다. 먼 여정에 어찌 잠 들었는지도 모를 새 잠이 들어 오늘은 제나라에 들어왔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순마경, 마침 보수 중이라 주춤하다 뒤돌아 가니 말, 말들 그 말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나란히 누워 화석이 되었다. 그대로 누워 돌이 되었다. 권교수님이 죽어 묻었다는 설명을 해 주신다. 인간의 끝모를 욕망, 권력, 죽어 사후에도 가지려는 권세로 인해 그 큰 몸둥이도, 그 긴 키도 이리 돌이 되어 누워 있구나.

태안으로 가고 있다. 태산에 오르기 위해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던 '태산이 높다하되'의 그 태산을 간다. 1,545 m란다. 정말? 그리도 높다높다 외우던 산이 설악보다 낮구나. 높아서가 아니라 황제가 자금성을 출발해서 공자 위해 모셔진 곡부로 제 지낸 산이라 명산이라한다. 명산답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고 훌륭한 명필 문장 가득하여 서예 전시장인 듯 하구나.

맑은 날 태산을 보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데 축복을 아주 가득 받아 화창, 화려, 수려한 경관을 보게 되네. 좁은 견문탕에 서틀로 케이블카 타러가는 주변은 북한산에 놀러 온 이웃들을 보는 느낌. 중국 전역의 5악중에서도 으뜸이라 오악독존(五岳獨尊), 등태산 보평안(登泰山 保平安) 태산에 오르면 평안해 진다하여 저리들 밝은 표정으로 글귀있는 바위 앞에 함박웃음으로 서는구나.

태산의 큰 뜻 품어 가득한 영산의 뜻을 내 담기 버거워, 명산을 앞에 두고 서픈 기념품에 눈이 멀어 허둥대니 문명의 이기를 두고 가라시네  
태산에 분신같던 휴대전화를 바치고 오니 비로소 답사에 전념하는구나.  
욕심으로 바라본 경치를 온 마음으로 담으려 더 진실히 다가가고,  
더 간절히 바라보네

저승에서도 우리에게 올림을 주는 최인호, 그의 선한 모습을 그리며 본 5부작 다큐멘터리. 일본의 엔닌과 라이샤위의 장보고 이끌어나가, 동아시아를 넘어



아라비아 반도, 터키까지 장보고와 함께 하는 역사 되돌아보기……그리고 그런 해신을 몰라봤던 우리의 어리석음, 게으름까지를 한꺼번에 느끼는 부끄러움

#### IV. 제나라에서

어제 그리 맑던 날이 흐려지더니 급기야 비가 온다. 100년만의 흑서를 뒤로 하고 가서인지 비도 반갑다. 여기도 오랜만에 오는 비라 반갑단다. 간간히 내리는 빗속의 강태공 사당이라. 아무렴 강태공은 빗속에 만나야 더 실감나지. 바늘 없는 낚시대를 드리웠다하여 만년 백수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세월을 낚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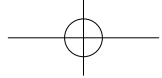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주나라 건국 후 제나라의 왕이 되어 산둥성 성씨의 시조가 되었을 터, 백만 성씨의 근원으로 장자상속제에 맞춰 세상 성씨가 만들어졌다는 교수님 말씀. 그래보니 '선조의 높은 뜻을 받드오리다'라는 노태우 전 대통령 방문록부터 우리 한반도의 성씨도 많이 파생되었겠음을 짐작한다.

그 고마움을,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강태공의 사당은 큰 규모로 업적을 알리고 시신없어 관모를 묻어 의관총을 만드니 후세에도 길이 이름을 만대에 빛내리다.

고차 박물관, 옛 마차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다. 1990년 고속도로 공사과정에서 대규모의 순장마차를 발견하여 그 위에 세운 박물관이란다. 원시형태부터 춘추전국시대의 전투용 마차, 남북조 시대의 우차, 명나라 코끼리차, 낙타가 끄는 차 그리고 지하에 순장마차 유적까지 화석이 되어, 그 옛날의 위용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지금도 저리 곳곳이 서서 위용을 떨친다.

도로 공사를 하다 발견하고, 농사를 짓다가 발견하고 대체 이 드넓은 나라의 유적 유물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계가 있기는 한 것인가.

비 내리는 청주의 박물관, 청주는 지금은 고요한 변방의 도시 그러나 이곳은



우리의 걸출한 선조 이정기와 장보고를 마주하는 곳이다.

이정기는 고구려인의 후손으로 평로군이 되어 산둥 지역으로 와 식솔들과 세를 넓혀가고, 권세를 굳혀가던 중 이를 불편한 심기로 보던 중앙에서 서주 무령군에 속해 있던 장보고로 하여금 이정기 일가를 진압토록하고 그 공으로 무령군 소장의 지위를 얻어 더욱 기세를 굳히는 장보고, 장보고의 입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결국은 우리 한반도 핏줄 간의 일이었네.

청주 박물관은 빗 속에 축축이 젖어들며 불상, 석상, 도자기를 아기자기, 오물조물 전시해 놓았다. 옛 고적의 흔적은 부족한 대로 팔없이 목없이 그래도 부처의 형상으로 살아 천년을 살고지고

다시 버스투어 먼 길 이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사육장의 흰 오리는 종이학처럼 뒹굴고, 끝없는 옥수수...옥수수... 대국의 크기는 가늠하기 힘들고, 부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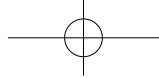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오늘 석식은 거창한 만찬, 적산대주점에서 우리를 격려차 먼 길을 왕림해 주신 이재완 한국해양재단 이사장님도 함께 하신 해물뷔페, 백합, 모시조개, 바지락, 오징어, 문어 등등 접시가 부족해 못 가져오는 해물, 두 손이 부족해 못 담은 채소류, 먹어도 먹어도 끝없이 나오는 간식거리들, 그리고 답사 내내 즐겨 마신 청도맥주 흥에 겨워 술에 겨워 즐거움이 넘쳐나고...

## V. 아, 장보고! 적산법화원

오늘은 몸도 마음도 급한 하루

우리 발길을 묶어두었던 해무로 인해 첫날 못 본 성산두, 진시황 사당을 지나 적산법화원으로 가야한다.

중국 가장 동쪽 성산두, 중국에서 가장 먼저 해 뜨는 곳 예부터 태양신이 살아 많은 황제들이 순행하였는데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3번이나 왔다나. 불로초를 위해 서복을 한반도로 보냈다는 성산두에 서복은 다시는 왔다나 못 왔



다나. 진시황 행렬에 섞여 사진으로 황제를 모신다.

곁에 있는 진시황 사당, 사당의 주인모신 시황전은 한참 찾아야 있고 그래도 복을 비는 향 공양, 시주 행렬이 있으니 진시황은 불로초는 못 구해도 불사조로 살아 우리 곁에 숨 쉰다.

아. 이곳 오려 이리 빙그르 돌고 왔구나. 적산법화원!

장보고 기념관의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 우리를 반기는 근엄함까지. 완도의 장보고 기념관이 머릿속에 겹쳐 그 차이로 작아지게 한다. 부족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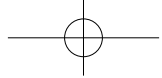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그림으로 이어 만든 장보고의 일대기, 친구 정연과 당나라를 밟을 당시의 옛된 장보고와 정연의 입체상, 지금 우리는 어디 서있는가 여기가 어디인가. 정녕 여기가 중국땅이란 말인가. 한반도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자랑으로 여겨야 할 분을 이들이 섬기고 이들이 해신으로 만들어 엔닌이, 라이샤워가 먼저 알려 주고 우리 지금 그 뒤를 따르는가.

이제 장보고는 우리가 지키고 함께하고 후학들에게 알리고, 섬겨야 함을 절감하며 층층이 칸칸이 돌아본다.

장보고 기념관을 둘러보며 허덕이다 보니 저기쯤 높이 솟아있는 거대한 석불, 적산명신 그래 적산명신이다. 긴 계단 저 높이 압도하는 크기로 먼 서해바다 바라보며 높이 앉아있다. 험떡이는 숨을 참으며 그 많은 계단 다 오르니 2층 누각으로 되어있고 서선생님 고이 굽어 절하는 모습 뒤로 2층에 오르니 옥으로 한판가득 장식한 풍경물이라. 이걸 붓으로 물감으로가 아니라 옥으로 만들었구나

장보고는 신라명신, 신라명신은 적산명신이라지만 누가 그 일이 분명하다 확신하랴.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해신 장보고의 위상이 적산명신과 맞먹고 모두 바다 향해 그 기개와 위엄을 드러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장보고! 비록 당신이 후대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더 큰 뜻, 더 넓은 마음으로 살지 않았음을 알고 있고 진심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팍팍한 우리네 삶을 인



간다움으로 만드심의 그 큰 뜻이 오늘에도 이어져 만 대손의 모범이 되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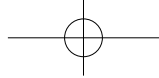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장보고의 후예들이여,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천여 년 전 선조께서도 휘젓고 다니시던 이 바다를, 삼면이 바다라 외치며 정녕 그 바다를 가까이하지 못하는, 더 유쾌히, 더 진취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대여, 그대 정녕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제 앞서 나아가야 한다. 아침마다 맞이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후학을 가르치는 대업을 이끌면서 바다를 일깨워야 한다. 바다로 세계로 나아가야 할 절박함을, 간절함을, 그리하여 그 방법론까지를 펼쳐 펼쳐 나아가야 한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어찌 잊으랴.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분들의 물심양면의 지원과 수고로움, 투박한 현지 가이드의 진심, 무더위를 마다않고 교육을 위해 찾아주신 교수님들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신 분들 복 받을 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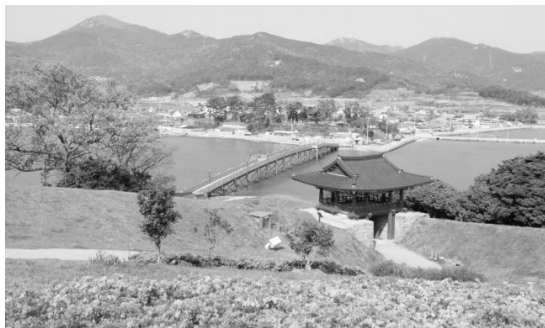


# 미래의 장보고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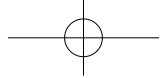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두원초등학교\_김대성(가작)

## ▶ 서문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장보고의 고향인 완도에서 푸른 바다의 미소를 품은 아이들과 함께한 교직생활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 기간 아이들이 나에게 보여준 순수함, 열정, 희망 등은 매년 학생들과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로 인해 교직



[완도 청해진]



생활에 대한 회의감 대신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다.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학생들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꿈과 실현한 우리 지역의 인물인 장보고에 대해서 얘기한 뒤,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차례가 되었다. 모두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 하던 중 까불이 김OO 학생이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 우리가 시골(완도)에서 태어나서 바다 일 해야 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는데 진짜예요?” 김OO 학생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정OO 학생 역시 “우리 아빠도 완도에서 살면서 집안 일 도우면서 살래요”라고 말을 했다. 대부분의 가정의 양식, 어업을 하는 완도의 특성상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가업을 잇고 완도에 정착하기를 원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꿈은 정말 꿈으로만 끝나고 학생들의 진로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의 의지와 다르게 정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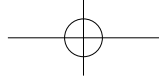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9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상길서를 이룩하고 신라·당·일본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아라비아·페르시아·동남아시아의 세계와의 교역도 주도하여 명실 공히 해상왕국의 무역왕인 장보고 대사의 후예인 아이들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장보고 대사가 어린 시절에 환경을 이겨내고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화, 바닥부터 시작하여 무령군 소장까지 올라간 일화, 신라의 왕과 독대하여 청해진을 설치



[장보고 대사]

한 일화 등을 학생들이 듣는다면 장보고에 대사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보고서를 쓰는 이 자리를 빌려 5박 6일 일정으로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를 탐방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편지로 전달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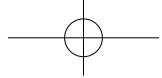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 편지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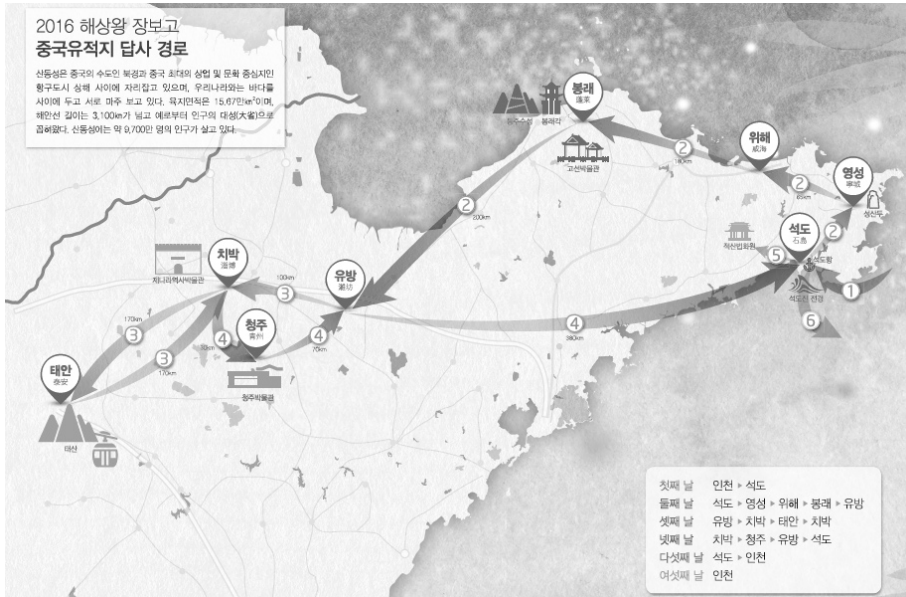
### 미래의 장보고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안녕? 나는 전라남도 완도군의 작은 섬마을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를 한 김대성 선생님이라고 해. 선생님은 완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의 해양의 아름다움과 장보고의 위대함에 대해서 많이 느꼈단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보고 대사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단다. 그래서 장보고 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알려주고 장보고 대사의 후예로서 너희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 선생님이 다녀온 5박 6일 동안의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통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써볼게.

우선 장보고 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장수, 청해진 설치, 해적을 소탕한 인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동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신라, 일본, 당의 무역을 주도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활발한 대외 진출과 해상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란다. 또한 전통의 조공무역 넘어선 민간무역을 경영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군(軍), 산(産), 상(商)의 복합 종합상사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을 동북아 허브항이자 해상무역센터로 발전시켰단다. 그리고 개인적 성품이 의롭고 표용력이 강하며 통솔력과 용병술이 뛰어나 한·중·일 3국의 정사(正使)에서도 그 업적을 높게 나타내고 있단다. 그 예로 일본의 승려인 엔닌(圓仁)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에서 무사히 구법활동을 마칠 수 있었으며, 그 은혜가 태산과 같다”고 하였단다. 또한 당나라의 문장가이자 시인인 두목(杜牧)은 『번천문집(樊川文集)』에서 사심을 버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이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저자인 김부식은 장보고 대사를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과 견주어 비교하였단다. 이렇듯 장보고 대사는 신라뿐만 아닌 당나라, 일본까지도 넓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업적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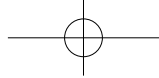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선생님은 아래의 그림처럼 이번 답사를 통해 장보고의 대사의 발자취 남아 있는 영성, 위해, 봉래, 유방, 치박, 태안 청주에서 다시 석도까지 중국 산둥성(山東城) 일부의 유적지를 다녀왔단다.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 경로]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하루에 500km를 5박 6일 일정으로 이동했으니 장보고 대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단다. 그리고 현재 보다 훨씬 느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 곳 저곳을 이동했을 장보고 대사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너 역시도 장보고 대사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5박 6일의 일정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불편한 버스를 타고 유적지를 탐방하며 밤 10시에 호텔에 도착해 씻고 자는 일정이 계속되어 몸이 피곤하고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웃으며 답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단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장보고 대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역사적인 장소를 걸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전남 완도부터 시작해서 인천, 중국의 산둥성(山東城)까지 1200



년 전 장보고 대사가 실제로 머물렀던 곳, 그리고 치열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곳, 문헌 곳곳에 내가 발걸음이 닿는 다는 그 자체로 선생님에게는 장보고 대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벽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 경험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무료로 5박 6일의 일정동안 호텔에서 자며, 맛있는 밥을 먹고 장보고 대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잘 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혜택은 미래의 장보고가 될 너희를 키울 밑거름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된다. 그러니 선생님에게 이런 혜택을 준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장보고 대사의 흔적, 그 외의 유물들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과 가슴속에 세겨넣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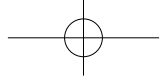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5박 6일 동안 중국의 이름난 4대 누각으로 불리는 봉래각, 신선도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의 등주항과 등주수성, 가라앉은 신라의 배를 볼 수 있었던 봉래고선박물관, 228필의 순장된 말이 발견되어 강한 군사력을 지닌 왕권의 상징인 순마갱, 중국의 5대 명산 가운데 으뜸으로 일컬어지며, 황제들의 봉선의 식 모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태산, 산둥반도를 장악하여 제나라의 시조가 됐으며 낚시꾼으로도 유명한 강태공의 사당,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진시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성산두 등 여러 가지 유적을 보았지만 이번 답사 가운데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든 유적은 단연 장보고 대사가 문등현 청녕향 전산촌에 지은 적산법화원이었다.



[고선박물관]



[고선박물관 유적]



[등주수성]



[등주항]



[고차박물관 마차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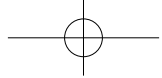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고차박물관 코끼리 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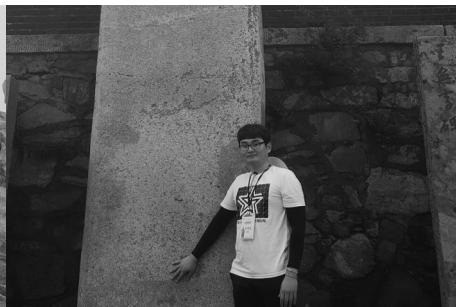
[순마갱 내부 말 유적]



[순마갱 외부 유적지 발굴]



[태산 공자의 비석]



[한무제의 무자비]



[강태공 사당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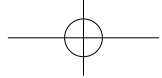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성산두 진시황 마차]



[성산두의 풍경]



[공자의 사당]



[장보고 대사 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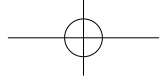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적산법화원은 엔닌(圓仁)이 지은 입당구법순례행기(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록에 의하면 재당 신라인을 하나로 결집 시키고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 간 왕래 사절단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기도도량이었다고 나와 있으며, 당나라에 구법을 하고서 귀국하려는 신라 승려는 물론 일본 승려들이 이곳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단다. 이렇듯 적산법화원에는 장보고 전기관, 관음상, 적산명신, 장보고 동상, 장보고 기념탑 등 불교 색채가 들어간 장보고대사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장보고 동상을 마주하는 순간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신라 백성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몸은 떠났지만 신라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무역을 하는 상인, 역모를 꾀하다 죽은 역적 등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은 폄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라의 백성이 해적에 의해 납치되어 노예로 매매되는 참상에 울분을 느껴, 828년에 귀국한 뒤 흥덕왕에게 해적소탕의 의지를 전하여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할 정도로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로 인명 될 정도로 신라 백성을 사랑하며 신라를 위해 노력한 위인이었다. 그렇게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 서남해안



[적산명신]

일대의 해적을 소탕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와 당나라 그리고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항로를 개척하였고, 당나라 수도 장안과 남중국·북중국을 잇는 물류망과 해상교통권을 장악하였고, 페르시아 아랍 상인이 왕래하는 동남아·인도 항로를 동아시아 항로와 연결시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동서 무역항을 갖추어 나갔단다. 이 때문에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은 재당·재일 신라인을 하나의 네트워크



크로 연결하는 무역체제와 함께 군사를 갖춘 군상복합체로서 ‘세계 최초의 종합무역상사’로 평가 받고 있단다. 하지만 이렇게 청해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시기하는 세력이 생겼고 841년(문성왕 3년) 신라 귀족들의 사주를 받은 염장(閔長)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된단다. 이렇게 장보고 대사는 자신이 고향인 완도에 묻히게 되지만 그의 업적, 영향력, 마음은 잊혀지지 않고 한국, 일본, 중국의 다양한 유적지에 남겨져 후손대대로 이어져 선생님, 학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이어지고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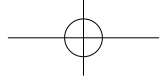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 대사 동상]

마지막으로 5박 6일의 일정동안 느낀 장보고 대사의 마음을 너희에게 적으며 이 편지를 끝내려고 한단다. 완도의 아이들아, 전남의 아이들아 아니 대한민국의 아이들아 너희는 모두 장보고 대사의 후예들이다. 1200년 전 동북아의 바다를 호령하고 신라를 ‘해양무역제국’으로 만든 장보고 대사의 후예들이다. 너희들 모두에게는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뤄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장보고 대사의 빛나는 혼을 이어받아 모두 꿈을 이루는 미래의 장보고가 되기를 바란다.

푸른 완도의 청해진을 바라보며  
교사 김대성 씀

## ▶ 참조

- (재)한국해양재단.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책)
- 네이버. 지식백과 장보고 이미지 사진
- 네이버. 지식백과 청해진 이미지 사진
- 네이버. 지식백과 장보고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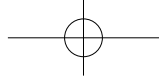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 해상왕 장보고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산동반도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만나다!

송라초등학교\_김수미(가작)

## 첫째날 여행스케치 - 해상왕 장보고를 만나러 다시 떠나다

2005년 우연히 장보고 유적지 중 일부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10년 만에 운 좋게도 한국해양재단의 후원으로 장보고 유적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인솔하느라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감흥이 남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장보고 유적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좋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국 각지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간다는 건 나를 더 설레게했다.

8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인천항에 도착했다. 여객터미널 안에는 우리나라에 왔다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국 사람들로 붐볐다. “2106년 초·중·고 교사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 안내판이 아니었다면 한국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땅에 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60명쯤 되는 참가자는 6조로 편성되어 여행 내내 함께 하게 되었다. 우리는 출국 수속을 밝고 화동훼리에 승선하였다. 캐리어를 들고 경사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배에 오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보다 더 큰 여행의 즐거움을 떠올리니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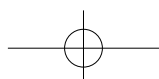
여행에서의 첫 끼니는 선상 저녁식사였다. 많은 여행객들 사이에 줄을 서서 식판에 음식을 담자니, 마치 급식시간이 떠올랐다. 식단은 우리가 늘상 먹는 콩나물국과 오이무침. 우리도, 옆테이블에 앉아있는 중국인 가족들도 맛나게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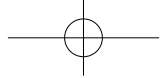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식사를 마치고 해상왕 장보고에 대한 선상세미나가 열렸다. 한 시간 동안 교수님의 강의를 통하여 장보고 대사의 생애와 일생에 대한 대강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달랑 몇 쪽 차지하고 있는 발해 역사. 그러나 중국·일본 등 동양사에서는 장보고 대사를 매우 국제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새삼 그의 일생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선상세미나를 마치고 4인 1실 객실로 들어가서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이가 몇인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어떻게 이 답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창밖은 새까맣게 어두워지고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여행의 설렘 때문인지, 아침 여섯시 반쯤 되니 저절로 눈이 떠졌다. 아침을 먹고 짐을 챙기고 있으니 입국수속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창 밖을 보니 저 멀리 석도항이 보인다. 비행기 여행이라면 꿈도 못 꿀 일이지만 배로 하는 여행의 매력 중 하나는 언제든지 밖에 나가 맘껏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일행들과 2층 데크로 나가서 앞으로의 여정을 상상하





며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멀리서 보이는 석도항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인천을 떠나 석도, 위해, 봉래, 유방, 치박, 태안, 청주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장보고의 숨결과 발자취를 어떻게 느끼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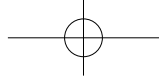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멀리 보이는 석도항]

## 둘째날 여행스케치 - 봉래에서 마주친 우리 역사의 발자취

입국수속에 생각보다 늦어져서 성산두 견학은 마지막 날로 미루고 바로 위해로 가는 길에 첫 현지식을 먹었다. 둥그런 원탁에 푸짐하게 차려진 상차림에 저절로 침을 꿀꺽 삼켜졌다. 아주 담백한 게살스프와 식감 좋은 목이버섯 요리가 특히 일품이었다.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를 한잔씩 따라 기운 넘치는 “건배!”도 외치고, 낯선 음식에 서로 조심스레 젓가락질을 해보며 중국땅에서의 첫 끼니를 기분 좋게 마쳤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봉래로 이동하였다. 봉래는 산둥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옛날 바다 가운데 신선들이 살았다는 전설 속의 산인 봉래산·방장산·영주산 등이 있었다고 한다. 한나라 때 무제가 신선이 살았던 산을 보고자 30여 차례나 이곳에 왔었는데 보이지 않자, 경관이 수려하다고 하여 ‘봉래’라고 불렀다고 한다.

봉래고선박물관은 1990년에 지어진 옛 선박 전문 박물관으로 등주수성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꽤 많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박물관



관 앞으로는 시원한 물가가 바로 펼쳐져서 박물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물관 내부에는 통나무배, 용선, 차륜선, 모래선 등 여러 배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등주항에서 1984년에 발견된 원나라 때 선박이 복원·전시되어 있었다. 1984년에 등주항을 정리하면서 성벽 아래의 빨 층에서 발견된 이 선박은 돛대가 세 개 달린 나무도 만든 범선의 일부로 가득 짐을 실었을 때 대략 173톤에 달하는 원나라 때 배로 추정한다고 한다.

또 2005년 7월에 등주항 서쪽의 빨 속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또 다른 고대 선박 세 척이 발굴되었는데, 이 가운데 두 척은 14세기 후반에 침몰한 고려 시대의 선박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선박 전체를 소나무로 만들고, 목재를 접한 부분에 쇠못이 아닌 나무못을 사용하였으며, 배 안에서 고려청자가 발견되어, 고려청자를 싣고 해외에 나갔던 고려의 선박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고려 선박은 통하여 등주가 예부터 우리나라 선박이 오가던, 한반도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항구임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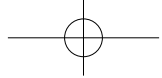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봉래 고선박물관 입구]



[옛 사람들이 배 만들던 모습 모형]

고선박물관을 둘러보면서 바닷길을 열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하던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은 열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바다길이지만 먼 과거에는 몇날 며칠을 해안가를 타고 바닷길을 따라 희망을 가득 품은 배들이 오고 갔으리라.



다음으로 둘러본 것은 봉래각이었다. 봉래각은 중국의 4대 이름난 누각 중의 하나라고 한다. 여덟 명의 신선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다를 건너는 놀이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누각을 오르면서 멋진 하늘빛을 보는 동시에 아름다운 바다 경관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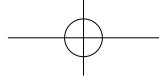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멋진 하늘과 푸른 바다가 일품인 봉래각]

오랜 시간을 거쳤는데, 외벽이나 기와 상태가 깨끗하여 현지 가이드에게 물으니 많이 훼손되었던 것을 후에 다시 보수한 것이라고 한다. 화재로 훼손된 송례문이 깨끗하게 복구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모처럼 찾아간 백담사에서 단청색이 너무나 선명하여 세월의 발자취가 사라졌음을 개탄하던 순간의 아쉬움을 여기 봉래각에서도 느껴본다. 역사의 지나온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일 때 더 의미있고 가치롭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것은 등주수성이었다. 봉래각 아래의 바닷가는 등주항의 흔적과 함께 명나라 때 해군을 훈련시켰던 수성이 남아 있다.

옛 등주항은 수·당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물론 발해·일본 등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번성하였다고 한다. 등주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시키는 수로의 출발지이자 한반도를 오가는 북방항로의 종착지였기 때문이다.

등주항은 바닷가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항구이지만, 산둥반도 최북단에 자리잡은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일찍부터 성을 쌓아 수군의 요새를 만들었다고



한다.

교수님께서 등주수성은 명나라 때 이미 거의 완벽한 해상군사방어체제를 갖춘 곳이었다는 설명을 해 주면서 등주수성의 시설과 구조가 한 눈에 보이는 포인트를 가르쳐 주셨다. 그 옛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에 일행 모두 동시에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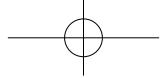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한반도와 산둥반도 잇는 길목 등주수성]

봉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200km를 달려 유방으로 향하였다. 숙소로 가는 길 중간에 잠깐 들른 휴게소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흔하게 기른다는 옥수수를 써서 판매하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우리돈 천원에 한 개하는 옥수수를 서너개 사서 일행과 나누어 먹었는데 강원도 옥수수만은 못해도 구수한 옥수수 향이 여행의 재미 중 하나인 ‘먹는 재미’를 더해주기에 충분하였다.

여행 내내 느꼈지만 중국에서는 “금방 간다”는 말은 “200km 정도 간다”는 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할 일이다. 이렇게 둘째날의 여정이 저물어갔다.

## 셋째날 여행스케치 - 중국의 名山, 태산에 오르다

깔끔한 호텔식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치박·태안 쪽으로 길을 떠났다. 우리 일행이 적산법화원 다음으로 가장 기대한 일정이 바로 태산 등반이 잡혀있는 답사 셋째날이다.



먼저 들른 곳은 중국고차박물관이었다. 고차박물관은 중국 최고의 차마유적으로, 1990년도에 청주-제남간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우연히 발견한 거마갱(말과 마차를 함께 순장한 무덤) 자리에 만든 박물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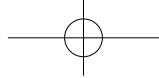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중국고차박물관]

박물관 내부에는 황제가 타던 수레를 비롯하여 전차용 수레, 시대별로 다양한 수레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점이 못내 아쉬웠다. 또 당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등자로 기마의 ‘혁신’이 일어났다는 안내 설명을 듣자니, 인류역사상 위대한 변화는 의외로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왔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



고차박물관에서 순장된 말과 수레도 놀라웠지만, 이곳보다 더 놀라운 곳이 ‘순마갱’이라고 한다. 그 곳에서는 맞불 놀라움을 애써 누르며 우리는 태안으로 이동하였다.

태산은 태안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태안을 일년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손꼽히는 여행 도시로 만든 일등공신은 바로 태산일 것



이다.

남다른 감회로 조선시대 양사언의 시조를 미리 떠올려본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뵈만 높다 하더라**

10년 전 태산에 처음 가 보았을 때, 정상까지의 높이가 1,545m라는 설명을 듣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 이 시를 배웠던 학창 시절부터 당연스레 태산을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높은 산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왜 태산을 천하제일의 명산으로 손꼽을까? 이번 여행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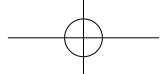


[케이블카로 안개자욱한 하늘을 날다]



[태산의 신비를 찾아 떠나요]

태산은 경관이 뛰어나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명승고적이 많아 있고, 산을 오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면서 절벽마다 새긴 붉은 글씨로 된 비문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바위에 좋은 글을 새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여 태산에는 1800여개의 석각이 있다고 하니 산 전체가 마치 석각 전시장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 수많은 비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한나라 무제가 세운 ‘무자비’라고 한다. 무제의 공을 치적하기 위한 비문을 적으려고 했는데, 한무제 스스로 자신의 공적이 너무 많아서 비문 안에 담을 수 없다하여 아무 글씨도 없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니 그 당당함을 누구에 비기겠



는가.

태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 자체로도 이름났지만, 중국의 역대 군주들이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태산에 올라 제사를 지내 자신의 즉위를 하늘에 알리는 ‘봉선의식’이 거행된 장소로 신령스러운 산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을 장수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누구나 7412개의 계단을 오르는 ‘태산 등정’을 평생 숙원한다고 한다. 우리 일행이 태산을 오르내리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우리 일행과 몇몇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몸이 불편한 노모를 등에 업고 태산을 오르는 장년인 아들의 모습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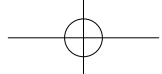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태산의 영험함에 대한 믿음이 산악신앙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 산에 사는 신선을 강조하는 신선사상, 즉 도교사상을 숭배해왔다는 것을 많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진홍왕순수비가 봉선의식을 치르면서 세워놓은 비석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태종 무열왕의 아들 김법민의 봉선의식도 이 태산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들으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진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현재는 어떠하며, 이십 년 쯤 후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



[빨간 색으로 바위마다 조각해 놓은 좋은 글귀들]

[태산 정상에서 굳은 약속을!]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동산에 오느니 노라라가 작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다.’고 하였다고 하고, 성리학이 크게 발전했던 조선시대의 문장가들은 선비가 가져야 할 높고 넓은 기개를 태산에 비유하였다고 한다. 태산은 그만큼 동양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특별함이 넘치는 산임에 틀림없다.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도보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았다. 굵이 굵이 골짜기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손을 맞잡고 태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태산에 다시 올 기회가 생긴다면 그 때는 걸어 올라가면서 태산 구석구석을 느껴봐야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 넷째날 여행스케치 - 과거 속으로 떠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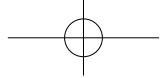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셋째 날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묵었던 곳은 오성급 호텔인 '만호대주점'이었다. 같은 3성급이나 4성급이라도 중국은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숙소 환경이 좋은 편인데, 우리가 묵은 호텔은 특히 조식 뷔페가 깔끔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만족해하며 아침 식사 시간을 보냈다.

버스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보니 한쪽 차로 가득 수많은 자전거들이 줄지어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차로 중 한 꽤 넓은 차선 하나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할당해준 모습도 새로웠지만, 남녀노소 구별없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과, 정장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는 젊은 여인들의 모습에서, 또 주차비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등 독특한 자전거 문화를 보거나 듣는 것도 여행의 쓸쓸한 재미였다.



[자전거가 점령한 출근길 도로 풍경]

먼저 들른 곳은 강태공 사당이였다. 사실 강태공은 '일은 하지 않고 늘 상념에 빠져 낚시만 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늘 등장하는 인물이다. 부끄럽게도 강태공이 춘추전국시대의 오패 가운데 하나이자 전국시대의 칠웅(七雄) 중의 하나로 제나라의 시조였다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었다. 또 강태공이 천문 · 정



치·정치·지리·군사 등 다방면에 능하였고, 특히 경제적 수완과 병법가로서의 재주가 뛰어나서, 짧은 기간 동안 제나라를 안정시켰다고 한다.

강태공은 우리나라의 여러 성씨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강(姜)씨가 강태공의 후손이라는 인식이나 강태공이 100여개의 성씨의 기원이라는 인식과 관련된 자료도 전시물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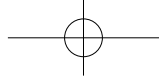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강태공 사당 현장장의]

강태공 사당을 나와 끝없는 옥수수 들판을 지나 순마갱을 향했다. 순마갱은 옥수수 들판 가운데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발굴된 면적을 고려하면 이곳에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순마갱은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의 말 무덤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순마갱을 통하여 춘추전국시대 산둥성 일대를 지배하였던 제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과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순마갱 내부에서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무덤 내부를 발굴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 그 거대한 규모가 더 실감나게 느껴졌다.



[거대한 무덤 내부를 발굴하는 모습]



## 다섯째날 여행스케치 - 장보고의 후예들, 장보고를 만나다!

여행 마지막날, 첫날 늦은 일정으로 못 가본 선상두와 적산법화원을 찾았다. 어찌면 이번 답사의 의미를 제대로 만나게 된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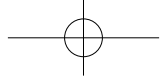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성산두는 중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거대한 해안 절벽으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성산두는 이번 답사 장소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절경을 지닌 곳으로 손꼽을 수 있는데, 진시황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동쪽으로 나아가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어 아쉬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으며, 정신없이 예쁜 풍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을 정도이다.



[성산두 주변 절경]

아름다운 성산두를 뒤로 하고 드디어 적산법화원으로 출발. 10년 전에 다녀왔지만 구체적인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설레이는 마음으로 발을 디뎠다. 적산법화원이 자리한 일대는 관광의 관광명승지로 개발한 특별구역이라고 한다. 지역의 대부호인 적산그룹에서 운영하는 적산풍경명승구에는 적산법화원을 비롯하여 장보고 기념관, 장보고 기념탑, 적산명신상 등 멋진 볼거리로 가득차 있어, 한국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었다. 큼직한 한글로 적혀있는 이정표나 기념비를 보면서 가슴 한편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단지 몇 쪽에 그려져 있는 인물인 장보고. 그나마 다행히도 몇 해 전 드라마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이 흥미롭게 장보고에 대하여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역사·문화적으로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고, 그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실감하며 비통한 마음마저 들었다.

역사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온 역사는 얼마나 진실된 것일까. 낯선 중국땅에서 해상왕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장보고를 만나면서 가슴 벅찬 한편 머릿속이 한동안 복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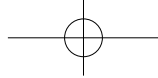


[장보고와의 만남!]

우리의 현재는 과거를 투영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가 담겨 발현되는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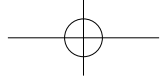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그 옛날 바닷길을 누비며 남들과는 다른 열려있는 생각과 기개로 그 시대를 호령했던 해상왕 장보고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 구석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지만 누구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멋진 터전을 마련해 주려면 현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해상왕 장보고의 활약상을 제대로 인식만해도 우리 아이들의 역사의식은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특정한 몇 명의 위인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협한 역사의식에서 벗어나 관심을 갖고 넓고



깊게 우리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함께 노력해가야겠다는 反省을 해본다.

중국의 명산인 태산 등반, 과거로 떠나는 역사 여행, 무엇보다 해상왕 장보고와의 만남 등, 5박 6일간의 여정을 아주 오래 오래 기억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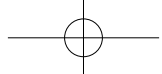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천년고찰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 이는 바람

의림여자중학교\_김천기(가작)

## 1. 장보고(張保臯) 장군 중국 유적지 답사(踏査)를 준비하며

2016년 초·중·고 교사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단’에 선발되었다는 공문을 받아들이고, 아무도 모를 행복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2003년, 2004년 2회에 걸쳐서 참가를 신청했지만 선발되지 못해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포기하고 있다가, 올해 참가신청을 알리는 공문을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선발이 되니 너무도 반갑고 기쁘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던, 나의 부단함에 뿌듯함조차 느끼게 되었다.

이번 답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서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현장감(現場感) 있게 통일신라 해상세력의 발전에 대하여 미래지향적(未來指向的)인 수업을 전개해야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며 한편



으로는 책임감까지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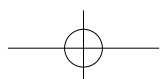
장보고 장군의 중국 유적지 답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우선 먼저 장보고 장군의 생애(生涯)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에서 장보고 장군과 관련 있는 자료를 검색해 보았고, 또한 인터넷의 여러 자료(인물 백과, 답사 후기, 장군에 대한 평가 등)를 자세하게 찾아보았다. 장보고 장군의 해양역량(海洋力量)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각과 역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해양을 바라보는 우리 민족의 숨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장보고 장군의 역사적 업적은 단순히 통일신라(統一新羅) 시대의 약사(略史)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계승(繼承)하고 확충해야 할 우리 민족(民族)의 해양역량(海洋力量)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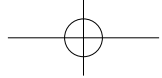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당(唐)나라 최고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목(杜牧)은 번천문집(樊川文集)에 장보고 편을 따로 만들어 장보고의 일대기를 소상히 다루었으며, 그는 장보고를 안록산의 난 때 활약한 곽분양(郭汾陽) 비유하며,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했다. 또한 일본 불교 천태종의 승려인 자각대사 엔닌(圓仁)은 자신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당나라를 여행할 당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갔던 인연을 소개하며 “평소에 받들어 모시지 못했으나, 오랫동안 고결한 품모를 들었습니다. 엎드려 우러러 흠모함이 더해갑니다.”라는 편지를 남겨 장보고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장보고 장군은 한반도(韓半島) 남쪽 끝자락의 어느 외딴 섬에서 아주 미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사료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말을 타고 창을 쓰는 데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예가 출중했음을 기록했다. 몇 살 어린 정년(鄭年)<sup>2)</sup>과 성장기를 함께 보냈는데, 두 사람 모두 싸움을 잘하고 수영(水泳)에도 능했다. 특히 정년

1) 곽분양(郭汾陽) : 당나라 화주(華州) 정현(鄭縣) 사람. 분양왕(汾陽王)에 봉해져서 곽분양(郭汾陽)이라고도 한다. 무예로 천거되어 천덕군사 겸 구원태수(天德軍使兼九原太守)가 되었다. 현종(玄宗) 때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가 되어 안록산의 난을 토벌하여 하북의 10군을 회복했고, 하북(河北)에서 사사명(史思明)을 격파했다. 숙종(肅宗)이 즉위하자 관내하동부원수(關內河東副元帥)가 되어 회홀군(回紇軍)과 연합하여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을 수복했다. 그 공으로 중서령(中書令)에 발탁되고, 나중에 분양군왕(汾陽郡王)에 봉해졌다.

2) 정년(鄭年) : 신라 말기의 무장. 장보고와 함께 당나라에 건너가 무예로 이름을 떨치다 귀국하여 청해진 대사로 있는 장보고에게 의탁했다. 아찬 김우징을 왕으로 세우는 데 공을 세웠고 장보고의 뒤를 이어 청해진을 지켰다.





은 장보고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 50리(里)를 가면서도 물을 내뿜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장보고 장군은 장군으로서의 해상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고결한 품성(品性)을 지녔던 우리 민족의 의인(義人), 해상경영의 선각자(先覺者)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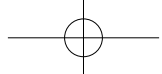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이번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장보고 장군의 중국 유적지 답사가 여러 가지 서적(書籍)과 인터넷을 통한 피상적(皮相的)인 통찰(通察)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장보고 장군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또한 잃어버린 바다의 역사를 찾아서 떠나는 값진 답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2. 장보고 장군의 숨결을 느끼는 답사는 시작되고

### 1) 첫째 날

중국 여행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되고 학구열에 불타는 굳은 각오와 다짐이 몽클하게 가슴을 채웠다. 폭염 정보라는 더위쯤은 아무런 걱정거리도 되지 않았다. 인천항 터미널에 도착하니 답사단에 참가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박을 이용한 중국 여행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수학여행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한번 다녀왔고, 또 백두산 역사탐방으로 24시간을 승선하여 다녀온 적이 있다. 선박을 이용한 세 번째 중국 여행이지만 이번의 답사는 그 어느 때와 다르게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며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였다. 이번 답사는 놀고, 먹고 하는 여행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또 그 경험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야 하는 답사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고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것이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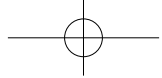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張保臯) 장군의 중국 유적지 답사 첫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선상 강의(船上講義)가 시작되었다. 선상 강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1) 해양(海洋), (2) 제(齊)나라, (3) 엔닌(圓仁), 두목(杜牧)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육지(陸地)



중심의 사고(思考)에서 해양(海洋) 중심의 사고(思考)로의 전환(轉換)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정관념(固定觀念)처럼 굳어진 육지 중심의 사고를 국가의 발전과 미래의 경제적(經濟的) 번영(繁榮)을 위하여 해양 중심의 사고로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또한 일본의 고승(高僧) 엔닌(圓仁)과 당나라 최고 시인으로 평가받는 두목(杜牧)의 장보고 장군에 대한 평가이다. 엔닌(圓仁)은 자신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장보고 장군에 대한 존경을 드러냈으며, 두목(杜牧)은 번천문집(樊川文集)에서 장보고 편을 따로 만들어 장보고의 일대기를 소상히 다루었으며, 그는 장보고를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성공한 장군이라고 칭송(稱頌)했다고 한다. 또한 장보고 장군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첫째 해적(海賊)을 소탕(掃蕩)하여 해상무역(海上貿易)의 질서를 바로 잡았고, 둘째 신행로(新航路) 개척의 선구자였으며, 셋째 해상무역을 통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고, 넷째 호혜평등(互惠平等)의 국제무역질서(國際貿易秩序)를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보고 장군은 단순한 영웅호걸(英雄豪傑)이 아니라 해양과 경제를 선도한 개척자(開拓者)였다는 교수님의 강의였다.

장보고 장군은 9세기 전반에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해상질서(海上秩序)를 바로 잡았으며, 신라(新羅)·당(唐)·일본(日本) 간의 교역(交易)뿐만 아니라 아라비아·페르시아·동남아시아 세계와의 교역을 주도하기 위하여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한 명실공히 통일신라(統一新羅)의 무역왕(貿易王)이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완성되지 않은 해상제국(海上帝國)을 완성시킨 바다의 경영자(經營者)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 2) 둘째 날

중국 석도항(石島港)의 심한 안개로 입항(入港)이 늦어져 오전에 계획된 성산두(成山頭) 답사를 뒤로 미루고, 위해(威海)로 이동하였다. 위해로 이동하는 동안 교수님은 이번 답사에 참가한 여러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답사단에 참가한 이유, 각오, 그리고 답사를 통한 새로운 경험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한 명 씩 한명 씩 각자가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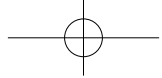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저는 제천 의림여자중학교 역사 교사 김천기입니다. 닉네임은 천기누설이고’ 등등 간단히 소개를 마치면서, 특히 ‘천기(天氣)가 궁금하신 선생님은 저에게 조용히 물어보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차안의 선생님들은 ‘다른 것은 그렇고 내일 날씨나 잘 관리해 달라’며 박수를 보냈다.

선생님들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이 끝나자, 버스에 장착된 비디오에서는 KBS 역사스페셜이 방영되었다. 답사단에 동참(同參)한 선생님들은 피곤한지 여기저기에서 눈을 감고 잠을 이겨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 역시 피곤함에 잠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이번 답사를 통하여 장보고 장군에 대하여 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는 굳은 각오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기에 잠을 이기고 TV를 시청할 수 있었다.

KBS 역사스페셜의 주된 내용은 장보고 장군의 행적과 업적에 대한 고증적(考證的)인 설명이었다. 또한 핵심 내용은 장보고 장군은 우리나라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중국의 신당서(新唐書) 그리고 일본의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등, 삼국(三國)의 정사(正史)에 기록된 범국제적(汎國際的), 실존적(實存的)인 인물로 출중한 능력을 갖추 해상왕이었다는 것이었다. 장거리 이동으로 굳은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르게 살며시 잠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위해(威海)에 도착하니 중국 현지식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진수성찬(珍羞盛饌)으로 차려진 음식은 중국 특유의 독특한 향신료 때문에 먹는 것이 약간 망설여지긴 했지만 맛있고 풍요롭게 먹을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봉래고선박물관(蓬萊古船博物館)으로 향했다. 봉래고선박물관은 등주수성(登州水城) 입구에 자리하고 있었다. 통나무배, 용선, 차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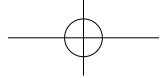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선, 모래선 등 다양한 선박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등주항(登州港)에서 1984년 발견된 원나라 때 선박이 5:1의 비율로 복원(復元)·전시되어 있었다. 고선박 물관을 살펴본 후, 우리는 봉래각(蓬萊閣)으로 향했다. 봉래각은 중국 4대 누각<sup>3)</sup> 중의 하나로 봉래의 북쪽 해안가 가파른 절벽 단애산(丹崖山) 정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누각은 2층 건물로, 이곳 2층에서 8명의 신선이 술을 마시다가 바다를 건너는 놀이를 즐겼다는 이야기인 동유기(東遊記)를 토대로 팔선취주(八仙醉酒)라고 이름 붙인 조각상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이 중국 도교(道敎)의 성지(聖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봉래각 아래의 바닷가에는 등주항(登州港)의 흔적과 명(明)나라 때 척계광(戚繼光)<sup>4)</sup>이 해군을 훈련시켰던 수성(水城)이 남아 있었다. 등주항은 춘추시대 이래 역사서(歷史書)에도 나타나지만 수(隋)·당(唐)대에 와서 우리나라는 물론 발해(渤海)·일본(日本) 등과 교류하였던 중요한 항구였다. 또한 등주 수성(水城)은 그 규모가 그리 방대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배치가 짜임새 있었으며 주변이 특히 아름답고 수려하였다. 등주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연결시키는 노철산(老鐵山) 수로(水路)의 출발지(出發地)이자 한반도(韓半島)를 오가는 북방향로(北方航路)의 종착지(終着地)였다. 봉래각과 등주항, 등주수성을 둘러보고 우리는 연(鳶)의 도시 유방으로 발길을 돌렸다.



3) 중국 4대 누각 : 호북성 무한(武漢)의 황학루(黃鶴樓), 호남성 악양(岳陽)의 악양루(岳陽樓), 강소성 남창(南昌)의 등왕각(滕王閣), 산둥성 봉래(蓬萊)의 봉래각(蓬萊閣)의 무장. 장보고와 함께 당나라에 건너가 무예로 이름을 떨치다 귀국하여 청해진 대사로 있는 장보고에게 의탁했다. 아찬 김우징을 왕으로 세우는 데 공을 세웠고 장보고의 뒤를 이어 청해진을 지켰다.

4) 척계광(戚繼光) : 중국 명(明) 말기의 장수(將帥)로서 왜구(倭寇)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기효신서(紀效新書) 등의 병서(兵書)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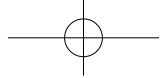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3) 셋째 날

매년(每年) 4월에 연박람회(鶯博覽會)가 열린다는 연(鶯)의 도시 유방(維坊)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치박(緇博)으로 향했다. 원래 치박은 치천(緇川)과 박산(博山)이었는데 1945년 합쳐져 치박이 되었다고 한다. 치박에서는 고차박물관(古車博物館)을 답사하는 일정이 잡혀있었다. 고차박물관은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가 대규모의 순장 마차들을 덮은 흙으로 된 봉분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곳은 중국 최고의 차마 유적으로 임치구 제릉진에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규모가 크고 시설이 견고하면서 장식이 화려하여 중국 최고의 차마로 손꼽힌다. 고차박물관(古車博物館)에 들어서니 차졸마혼(車卒馬魂)이라는 휘호가 눈에 띄었다. 마차(車)와 병사(卒), 그리고 말(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생각되었다. 고차박물관(古車博物館)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답사 일정이 촉박하여 태안(泰安)으로 급하게 발길을 돌렸다.



태안(泰安)은 산둥성 중부에 있는 중국의 최대 관광 도시 가운데 하나로 산둥성의 주산(主山)인 태산(泰山)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였다. 태안에서 대부분의 일정은 태산을 등정하는 일이었다. 태산 등정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을 왔을 때 한 번 한 적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이 두 번째 등정이지만 감회는 더욱 새로웠다. 천하제일의 명산인 태산은 대산(岱山), 태악(太岳)으로도 불려 졌으며, 해발 1,545m로 중국의 명산 중의 명산이다.

중국 사람들은 태산을 오악독존(五岳獨尊)이라 하여 천하제일(天下第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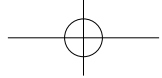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명산으로 꼽았다. 미니버스와 태산 케이블카에 의지하여 편하게 태산에 올랐지만 자욱한 안개로 사방이 막막하고, 시야가 20m 정도에 멈추어 있었다. 중국의 여러 황제들이 봉선의식을 거행했던 태산, 벽하사(碧霞祀), 무자비(無字碑), 옥황정(玉皇頂) 등을 살펴보고 하산(下山)하는 도중에 공자(孔子)가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다고 하였던 공자소천하경(孔子小天下慶)이라 새겨진 비석을 볼 수 있었다. 동행한 교수님의 “태산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는 질문에 조선(朝鮮) 전기(前期) 서예가 양사언(楊士彦)의 시가 떠올랐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흠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흠 높다 하더라.”하고 인간 의지의 소중함을 갈파한 금과옥조와 같은 명시조가 아니더냐!



#### 4) 넷째 날

치박만호대주점(치박의 만호 호텔)에서 호텔식으로 조식을 마친 후 우리는 강태공사당(姜太公祠堂)으로 향했다. 날씨는 아침부터 약간 흐릿하여 시원했다.

강태공의 본명은 강상(姜尙)이고, 그의 선조가 여(呂)나라의 재상에 봉하여졌으므로 여상(呂尙)이라 불렀고, 태공망이라고 불렀지만 강태공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강태공은 위수(渭水)에서 낚시를 하다가 서백(西伯, 주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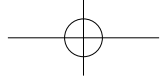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문왕)을 만나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무왕(武王)을 도와 상(商)나라 주왕(紂王)을 멸망시켜 천하를 평정하였으며, 그 공으로 제(齊)나라 제후에 봉해져 그 시조(始祖)가 되었다.

강태공은 100여개 성씨, 즉 백성(百姓)을 만든 인물이다. 강태공 사당은 소박하고 단아하였다. 강태공 사당과 의관총(강태공의 옷과 모자를 묻은 무덤)을 둘러본 후, 우리는 순마갱(殉馬坑)으로 향했다.

순마갱은 현재 중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의 말 무덤이라고 한다. 이는 춘추전국시대에 산둥성 일대를 지배했던 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순마갱을 간단히 살펴본 후, 청주박물관(靑州博物館)으로 발길을 돌렸다.

청주박물관(靑州博物館)은 1959년에 건립된 종합 박물관으로 청주성(靑州省)의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시된 유물은 약 3만 여 점으로 그 유물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방대하며, 중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풍속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진귀한 자료들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중국내외의 지도자 및 유명 인사는 물론 연구를 위한 학자들까지 즐겨 찾는 곳이라 한다. 답사단 일행이 청주박물관(靑州博物館)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졌다. 뜨거웠던 여름 날씨를 날려 보낼 듯이 세차게 내렸다. 청주박물관(靑州博物館)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 이번 답사의 마지막 종착지(終着地)인 석도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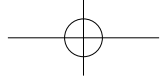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5) 다섯째 날

공식적인 답사 일정의 마지막 날, 적산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먹고 성산두(成山頭)로 향했다. 성산두는 중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해안(海岸) 절벽으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천진두(天盡頭)라고 하며, 중국인(中國人)의 희망봉(希望峰)인 곳이다. 옛날부터 태양신이 사는 곳이라 하여 많은 황제(皇帝)들이 여러 차례 순행(巡行)을 한 곳으로 진시황제(秦始皇帝)이 이곳에 세 차례 다녀갔다고 한다. 특히, 불로초(不老草)를 찾기 위해 동쪽으로 나아가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서 아쉬워했다고 한다.

천안문 사태로 물러난 중국의 총서기 호요방(胡耀邦)도 이곳에 와서 육지의 끝, 하늘이 끝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천무진두(天無盡頭)라는 휘호를 남기기도 하였던 곳이다. 현재는 성산두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호운각(好運角)이라 불리고 있었다. 오시는 손님들에게 복(福)과 행운(幸運)을 주는 곳이라 하여 호운각으로 명명(命名)하였다고 한다.

성산두 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답사 일정의 백미(白眉)인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으로 발길을 돌렸다. 적산법화원은 통일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 장군이 신라인(新羅人) 집단 거주지(集團居住地)였던 신라방(新羅坊) 적산촌(赤山村)에 세운 불교 사찰(佛教寺刹)로 1년 수확량이 500섬이나 되는 토지를 기본재산(基本財産)으로 건립하였고, 장보고 장군은 이 사찰을 통해 향후(向後) 무역활동(貿易活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명문(銘文)된 장보고기념탑(張保臯紀念塔)에서 교수님의 강의(講義)를 듣고, 장보고 기념관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마주하게 된 웅장한 장보고 장군의 동상(銅像) 앞에 서자 경외감(敬畏感)이 용솨음쳤다. 서로 앞 다투어 존경심(尊敬心)을 표하며 이번 답사의 계기가 된 훌륭한 장군의 면면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았다. 발걸음은 다시 적산 언덕 위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적산명신상(赤山明神像)으로 향했다. 적산명신상 앞에서 석도 항구를 바라보니 탁 트인 전망이 시원하고 아름다웠다. 천년 고찰(千年古刹) 법화원(法華院)을 돌아보노라니 나도 모르는 경외감(敬畏感)에 시



상(詩想)이 떠올랐다.

## 천년고찰(千年古刹) 법화원(法華院)에 이는 바람

작 김천기

적산의 터주바람 법화원(法華院) 넘나들 때,  
석도향을 바라보는 장군님의 당당한 기세(氣勢)  
온 세상(世上) 평정(平定)할 듯 호령(號令)한다.

산동성(山東省)의 신라인(新羅人)들  
임금님 섬기듯 장군(將軍)을 추앙(推仰)하니  
적산에 명신(赤山明神)되어 세상을 구원(救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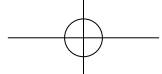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고승(高僧) 엔닌 오분향례(五分香禮)5) 합장하고  
천년보은(千年報恩) 눈물로 감읍(感泣)하니  
천년고찰(千年古刹) 법화원(法華院)에 바람이 인다.

금광명경(金光明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강독소리  
구름처럼 모여든 신라인들 장군님 열호(烈呼)하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적산명신상(赤山明神像)을 뒤로하고, 법화원의 주전각(主殿閣)인 대웅보전(大雄寶殿)으로 향했다. 대웅보전 오른쪽에 청해진대사 장보고 공적비(淸海鎮大使張保臯功績碑)에 합장(合掌)하고, 대웅보전 뒤쪽에 삼불전(三佛殿)으로 향했다. 삼불전은 서기 2,000년에 지어진 법당(法堂)이라고 동석(同席)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적산법화원은 재당(在唐) 신라인(新羅人)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정체성(正體性)을 확인시켜 주는 곳이자, 장보고 선단과 나당(羅唐) 간 왕

5) 오분향례(五分香禮) :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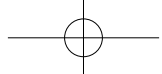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래(往來) 사절단(使節團)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신앙기도도량(信仰祈禱道場)이었던 것이다.

법화원의 답사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답사일정(踏査日程)은 모두 끝이 났다. 5박 6일간의 2,000Km에 달하는 대장정(大長征)이 마무리된 것이다.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후원해 주신 (재)한국해양재단에 감사드린다.

나는 이번 답사의 가장 큰 성과(成果)라면 육지(陸地) 중심의 사고(思考)에서 해양(海洋) 중심의 사고(思考)로 발상(發想)의 전환(轉換)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으며, 고정관념(固定觀念)처럼 굳어진 육지 중심의 사고를 국가의 발전과 미래의 경제적(經濟的) 번영(繁榮)을 위하여 해양 중심의 사고로 확대 재생산하는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認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역사(歷史)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민족 삶의 발자취이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승 되어야 할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다.

장보고 장군의 중국 유적지 답사를 마무리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커다란 고민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우리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칠 것인가?’하는 역사교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역사 수업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정답을 잘 맞추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수업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명감과 애국심을 심어주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동량(棟梁)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 더욱 무거워진 책임감에 마음이 한참 동안 멍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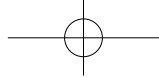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자, 살아서 숨 쉬는 수업을 하자, 학생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넓혀주는 수업을 하자, 국가와 민족의 혼을 느낄 수 있도록 진실된 수업을 하자, 학생과 교사가 웃는 모습으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밝고 즐거운 수업을 하자,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웠다.



### 3. 장보고 장군의 해상경영(海上經營) 역량(力量)을 계승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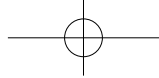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해상왕(海上王)이었던 장보고(張保皋) 장군을 생각하면, “평소에 받들어 모시지 못했으나, 오랫동안 고결한 풍모(風貌)를 들었습니다. 옆드려 우러러 흠모함이 더해갑니다.”라는 일본 천태종의 승려인 자각대사 엔닌(圓仁)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쓴 구절이 떠오른다. 장보고 장군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품성(品性)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다.

당(唐)나라의 무장이었던 장보고 장군은 당시 새롭고 급하게 형성되는 국제 질서의 핵심을 꿰뚫고, 더 이상 군사들을 동원해서 땅을 넓히고 약탈을 일삼는 전쟁시대가 아니라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그러나 치열한 다툼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는 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직감하여, 물류망을 장악하고 해양력(海洋力)을 강화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장보고 장군은 중국 강남(江南) 지역에서 한반도로 북상하는 항로가 만나는 곳, 그 시대에 한(韓)·중(中)·일(日) 지역을 연결하는 항로가 경유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에 청해진(淸海鎭)을 구축하였다. 청해진은 군데군데 떠 있는 주변의 섬들에 소규모 군항(軍港)을 만들고, 그 섬들을 연대하여 해양방어(海洋防禦)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수(攻守)를 유기적으로 엮은 대규모 해양 요새였다. 청해진 구축의 약사(略史)를 보면 ‘당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장보고 장군은 신라 사람들이 해적(海賊)에게 붙잡혀 와 노예로 팔리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당의 조정은 신라인을 노예로 삼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으나, 중국 연안지대 곳곳에서 자행되는 신라노예 매매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었다. 828년 장보고 장군은 귀국하여 흥덕왕에게 간청했다. “중국을 두루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으로 도적들에게 잡혀와 노비가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적들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흥덕왕은 그를 청해진 대사로 삼고 군사 1만 명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장보고 장군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혜안(慧眼)을 가지고 청해진을 구축한 것이다. 역사(歷史)가 끊임없이 이어지듯이 장보고 장군의 해상역량은 우리가 영원히 계승해야 할 우



리 민족의 자산이다. 국가의 영광은 단시일(短時日)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선조들의 역량이 함축되고 계승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식민경영(植民經營)의 시대를 지나 무한경쟁시대(無限競爭時代)로 접어든 현재의 국제상황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영광(榮光)과 경제적 번영(繁榮)을 위해 장보고 장군의 해상경영(海上經營) 역량(力量)을 계승(繼承),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民族)의 필연(必然)이고, 숙명(宿命)이다. 우리 조상들의 우수한 혜안(慧眼)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민족적 역량을 강화, 확충하는 것이 세계 질서의 주도권 다툼에서 자리를 선점하는 방법이며, 그것만이 상생(相生)과 협력(協力)의 국제질서(國際秩序)를 구축(構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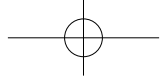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바다의 스승’ 장보고 유적지 답사기행문

영해초등학교\_김효선(가작)

2016년 여름 한 가운데에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들을 만났다. 한국해양재단에서 장보고의 해양개척정신을 되새기며 해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오던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행사에 참여하는 행운을 만난 것이다. 그동안 경쟁률이 높다는 사실을 듣고는 선뜻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올 해는 영덕으로 전근을 와서 바닷가의 시골학교에서 바닷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바다의 꿈을 더 심어 줄 수 있는 연수에 도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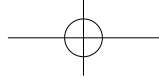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장보고답사 행사에 신청서를 보내고, 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런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더니, 결과 발표에 아이들이 먼저 기대하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다려 주었다. 결과 발표가 있는 날 아이들의 함성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든 아이들이 제 기쁨인양 기뻐해 주었고, 자신들도 커서 이런 행사에 꼭 참여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의 염원까지 담아서 떠나게 된 장보고 유적지 답사는 중국 산둥반도의 산둥성에 위치한 영성, 위해, 봉래, 유방, 치박, 태안, 청주, 석도를 둘러보는 1500km를 거치는 대장정이었다. 그 여정 속에서 고선박물관, 봉래각, 등주수성, 순마갱, 고차박물관, 태산등정, 강태공사당, 청주박물관, 산둥성 성산두, 진시황사당, 적산법화원, 장보고전시관 등의 유물 유적들을 만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 드리려고 한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 여행을 떠나기 2주 전에 여름방학은 시작되었지만 맡은 업무처리로 계속 학교에서 일을 하였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지 않을 뿐이지 방학의 휴식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답사 여행 이틀 전, 8월 2일은 방학 동안에도 돌봄교실에 나오는 1,2학년 어린이들과 현장체험학습으로 영해에서 포항까지 로봇체험학습관을 다녀왔다. 오는 버스 안에서 장보고의 어린 시절이야기를 해 주었다. 40명 초롱초롱한 1,2학년 어린이들이 먼 옛날 신라시대에 자신과 비슷한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수영도 잘하고, 활을 잘 쏘는 건강한 개구쟁이를 소개하였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는지 질문을 하였더니, 10여명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다. 작은 바닷가마을에서 태어난 장보고가 청년이 되어 황해를 건너 중국까지 가서 무령군 소장이 되었고, 노예로 팔리는 신라인들을 불쌍하게 여겨 다시 신라에 돌아와서 해적들을 소탕하는 이야기는 버스를 타고 1시간씩 왕복을 하는 체험학습에서 좋은 이야깃거리였다. 그에 앞서 선생님이 내일모레 실제로 장보고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해 중국에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어린이들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다. 그때 2학년 어린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나도 수영 잘해요. 할머니가 나보고 물개래요.”

장보고 유적지 답사에 참여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착오 없이 하고 드디어 8월 5일 오전 10시 40분경 포항역에서 KTX열차에 올랐다. 서울역에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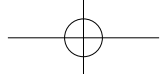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이동하면서 무사히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약속시간 오후 4시 보다 1시간 빨리 도착하여 약속장소에서 커피를 한 잔 하면서 약간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트레비스여행사의 안내를 받으며 등록을 하고 모자와 답사안내 책자와 목 베개가 담긴 쇼핑백 선물을 받았다. 서서히 함께하실 선생님들이 모여면서 5시경 출국 수속을 받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고 배에 오르기 전 에스컬레이터와 버스에 오르내리며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에서 이번 답사여행의 설레는 기대감이 뭉클 피어오르고 있었다.

2016. 8. 5. PM 5:30

오후 5시 30분경 화동명주6호에 탑승하였다. 배정받은 객실은 304호였고 우리 객실에는 모두 4분이 배정되었다. 각각 제주도, 광주, 안동에서 오신 선생님들이셨다. 모두 교육경력이 비슷하였고, 처음부터 마음이 맞아 2층 침대칸이어도 서로 원하는 침대를 고르게 되었다. TV를 보기 좋은 1층은 제주도 쌤이 맡으시고, 시원한 것이 좋아 에어컨이 바로 내려오는 2층은 활달하시고 에너지가 많으신 광주 쌤이, 나는 날렵하고 오르내리기 재밌어하여 2층 침대를 맡았다.

짐정리를 하고 선상으로 나가 보았다. 선내는 에어컨이 가동되어 시원하였지만 선상으로 나가는 문을 열자 훈훈하고 습한 기운이 온 몸을 덮었다. 아직 배가 출항하지 않고 계속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모습이 옆으로 보였고, 배의 맨 앞으로 가 보니 멀리 영종대교와 탁 트인 인천 앞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오후 6시를 지나는 시간이었고 붉게 달아오른 석양에 한 동안 서해의 석양에 마음을 빼앗겼다. 동해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석양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가끔 보았던 일출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일출은 분홍빛 붉음이라면 석양은 주홍빛 짙붉음으로 색다름에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그것도 여름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붉은 석양을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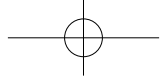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영종대교를 지나면서]

저녁 6시경 선내에서 저녁을 먹을 때 옆으로는 영종대교를 지나며 배가 출항을 시작하였다. 약간 흔들림이 있을 뿐 배가 워낙 커서 배 멀미는 없을 것 같았다. 저녁 8시 식당에서 전체 모임을 가졌다. 먼저 김성호 기획총괄팀장님의 이번 행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자기소개가 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 계속 기획을 하셨다는 말에 16년을 책임지고 진행해 오신 분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다음은 해군사관학교 교수님이신 ‘고경석교수님’의 선상 강의가 있었다. 미리 준비해 오신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이번 여행의 오리엔테이션식 강의였다. 30여분을 강의 하셨지만 재미있는 내용이라 시간이 금방 간 듯 느껴졌고 그 중에서 이번 답사여행에서는 해양, 제나라, 엔닌 3가지 키워드(key word)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여행기간 3가지 키워드는 계속 우리를 따라 다녔고 답사기간의 가장 핵심이 되었다.

9시를 넘기면서 자유시간이 되어 같은 방 선생님과 선내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배의 3층이며, 2층에는 안내실과 식당, 매점, 흡연실 등이 있고, 바깥으로 나가서 1층에 내려가 보니 8인실, 20인실, 54인실 등 주로 저렴한 가격에 승선한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1층에 백여 명이 있었다. 짐과 빨래가 서로 엉켜 있어 얼핏 보기에는 난민촌 같은 풍경이었지만, 여러 번 다니는 길이어서인지 시끄러운 중에도 잠을 청하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는 모습이 그들만의 일상처럼 보였다. 1층 객실의 복도를 지나면서 2004년에 찍은 장보고유적지 답사단의 단체사진이 크게 벽면에 붙여져 있는 사진을 보았다. 제일 오른쪽 앞줄에 김성호 기획총괄팀장님의 모습을 보고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행사를 꾸리셨구나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고마움과 반가움을 느꼈다. 함께 사진을 보신 선생님께서는 “김성호팀장은 10년 전과 지금 모습이 별 차이가 없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씀을 팀장님이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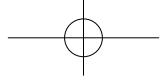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오시면 즐거워하실까? 속상해 하실까? 생각하니 더욱 웃음이 나왔다.

배는 계속 황해를 시속30km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2층 침대에 누워도 약한 진동만 느껴질 뿐 이 정도면 하룻밤 자는 데는 별로 무리가 되지 않을 듯 하였다. 이젠 뜻깊은 장보고 유적지 답사기행의 첫날을 마무리해야할 시간이 되었다. 이번 답사단의 경쟁률이 8:1이었다는 이야기가 잠을 청하는 순간 다시 금 떠올라서 내일부터 펼쳐질 새로운 만남들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고, 전국의 새로운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새로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내일을 위해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청하였다.

2016. 8. 6. AM 5:00

우리를 실은 화동명주호는 여전히 황해를 질주하고 있었다. 어제 일찍 잠을 청한 덕분에 5시가 안되어 일어났다. 어제 선상으로 나가던 방법으로 배의 맨 앞부분에 혼자 올라 보았다. 온 세상이 바다뿐이고 내가 타고 있는 배만 덩그러니 바다 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 문득 망망대해에 나 혼자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방에 보이는 것 하나 없이 나 혼자 한 조각 배를 타고 어딘가 육지를 그리며 떠돌고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니, 오싷한 느낌과 함께 '혼자서 버틸 수 있는 나의 정신력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궁금함도 일었다. 온 세상이 고요한 순간 나만의 홀로서기를 느끼고 있을 때, 서서히 동쪽 방향에서 밝은 기운이 피어나고 있었다. 몇 분간 계속 그 쪽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해의 기운이 느껴지며 바다 한 가운데에서 동그란 연분홍빛 희미한 동그라미가 살짝 수평선에 드러났다. 수증기의 양이 많아서 보이지 않던 해의 형상이 갑자기 바다위에 드러나더니 점점 짙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다 한 가운데서 일출을 맞이하는 신비로움은 혼자서 우주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선물 받은 느낌이였다.



2016. 8. 6. AM 11:00



[중국 산둥성 석도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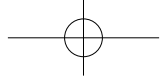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 도착하였다. 안개가 많이 피어 석도항에 입항하는데 시간 지체가 많았다. 예정시간보다 많이 늦어 중국에서 첫 일정한 영성의 성산두에 가는 것은 마지막 날로 미루고 바로 '위해'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었다. 중국에서 맞이하는 첫 식사를 하고 버스를 타고 '봉래'로 향했다. 32인승 리무진버스 2대에 2기 답사팀 50명과 교수님 2분, 중국여행 가이드 2분, 해운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는 지자체 공무원 몇 분, 트레비스 여행사 스텝 분들이 함께 하였다. '위해'를 지나 '연태' '봉래' 까지 가면서 고정석 교수님의 봉래각과 등주수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고구려인 이정기와 장보고와의 이야기에서는 같은 우리 조상님들이 서로를 모른 채 다른 운명으로 이국에서 서로에게 창을 겨렸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 편이 아려왔다.



[봉래 고선 박물관]

견학 첫코스는 고선박물관이다. 1호차에 탑승하고 계셨던 건국대 역사학과 교수님의 안내를 들으며 옛날 선박들의 모습을 견학하였다. 유래는 1984년에 원나라 때의 선박이 이곳 등주항에서 발견되어 그 선박을 5:1로 축소하여 전시 하면서 여러 통나무배와 차륜선, 모래선을 함께 전시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옛날 선박의 모습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의 판옥선을 비교하시면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하신 것은 판옥선의 위대함이 한 몫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곁들여 주셨다.

다음은 봉래각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이드님이 단체표를 끊고 우리들에게 한



장씩 나눠 주셨다. 신선도 감탄한 풍광이 있는 봉래각의 멋진 모습이 입장권 앞면에 있고, 뒷면에는 팔선녀의 조각상 아래에 140위엔이라고 적혀 있다. 역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념으로 보관하려고 잘 챙겨 두었다. 봉래각 입구를 통과하여 서늘한 곳에서 봉래각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중국 4대 누각 중 하나이며 8명의 신선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다를 건너는 놀이를 즐겼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팔선취주’ 조각상이 있으며 이는 이곳이 중국 ‘도교의 성지’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봉래와 장보고와의 관련에 대해 짧은 강의를 듣고 봉래각에 올라서 그 아래에 내려다보이는 등주수성을 한 컷 찍었다. 이 곳 등주(봉래)는 산둥반도에서 묘도군도를 거쳐 요동반도를 연결하는 수로의 중요 요충지이며, 7세기 중반 신라인들은 이 곳 등주 일대에 신라방이라는 신라인들의 거주지를 만들었고, 상인들을 접대하던 신라관과 무역을 거래하던 ‘구당신라소’라는 무역기관도 운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명나라 때 왜구의 침입이 잦아 대대적인 수리를 통해 비교적 완벽한 해상방어체제인 등주수성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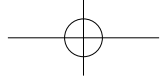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봉래각 입장권]



[등주수성]

다시 차에 올라 숙소가 있는 ‘유방’으로 향했다. 200km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일 먼저 해군사관학교 교수님이신 ‘고경석’교수님의 소개를 시작으로 1호차에 탑승하신 모든 분들의 자기소개를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명단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진행 되었다. 답사에 참가하게 된 동기와 간단한 자기소개를 진행하면서 1호차 32분의 얼굴을 익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장거리였지만 한 분 한 분의 색다른 목소리와 각기 다른 지원 동기는 또 다른 여행의 재미를 맛보게 하였다. 5시 30분경 저녁을 먹고 또 유방을 향해 출발하였다. 우리가 타고 있는 32인승 리무진에는 1대의 50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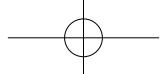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TV와 중간 중간에 작은 TV가 4대가 더 있어서 장거리를 운행할 때마다 장보고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었다. 작가 최인호의 안내로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이 다큐멘터리 5부작에 소개 되었고 우리는 장거리 운행 때마다 알차게 장보고의 위대함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스의 키케로가 한 말. “바다를 지배하는 자, 제국을 지배하리라.” 일찍이 아시아의 바다를 제패했던 우리 역사 속, 단 한사람의 세계인 장보고! 21세기 대한민국, 한민족의 모델이 될 1200여 년 전 한국판 포세이돈 '장보고'를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일본 전국 시대의 영웅 다께다 신겐. 장보고가 다께다 신겐 가문의 수호신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수수께끼를 추적하는 과정, 주일 미국대사였던 라이샤워. 일본 천태종의 중시조 엔닌을 통해 밝혀지는 9세기 아시아 해양에서의 장보고 파워.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 적산명신으로 신격화된 장보고를 추적한 내용, 한반도 서남단 작은 섬 완도 청해진의 변영을 통해 한, 중, 일 3각 무역을 독점하고 해양 차이나로드의 동쪽을 장악한 장보고. 9세기 최첨단 상품인 도자기의 국제적 유통과 직접생산을 통해, 무역왕에 이르는 장보고의 야망. 그리고,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신밧드의 고향 아라비아해의 오만에까지 9세기 당시 세계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간 세계인 장보고. 마지막으로 신라 조정과의 갈등 속에 암살 당하는 장보고와 그의 사후 우리 역사에 그가 미친 영향, 장보고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긴 내용들을 거의 빼 놓지 않고 진지하게 보게 되었다.

2016. 8. 6. PM 11:00

저녁 10시쯤 중국에서의 첫째 날을 보낼 숙소에 도착하였다. 2인 1실을 배정 받고 각자 숙소에 짐을 풀고 난 뒤 우리 2조는 다시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2조의 맨 앞에서 계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주에서 오신 강00선생님은 하루 종일 조장님으로 여기저기 도움을 원하는 조원들의 심부름을 하시더니 저녁 모임까지 주선을 하셔서 2조의 단합을 도모하셨다. 그 당시의 모습을 찍지 못하



여 안타깝지만 왼쪽 사진의 붉은 동그라미의 위치에 10분이 앉아서 낮에 사온 마른안주와 맥주, 고량주를 사이에 두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서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하게 되었다. 게임은 자기 이름을 오래 기억하도록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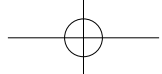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2조 저녁 모임 자리]

다. 내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부탁을 하였더니 실내정숙이 중요하죠? 라고 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정숙이라고 소개해주셨다. 두 번째에 앉은 나는 내 이름을 효성스럽고 착한 효선이라고 소개하고 “정숙이 옆에 효선이입니다.”라고 미션을 수행한다. 세 번째 앉으신 분은 또 자신을 요염한 탈렌트 안소영이 아닌 0소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숙이 옆에 효선이 옆에 소영이입니다.” 라고 미션을 수행하셨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모두 10분의 소개가 끝나자 처음에 시작하신 정숙샘이 다시 쪽 돌아가며 조원의 이름을 모두 외우시자 우리 모두는 놀라움의 박수를 치면서 서로를 더욱 알게 된 하나 된 기분을 나누었다. 이렇게 게임이 무르익어가면서 12시를 넘기면서 모임을 마치고 내일 일정을 위해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2016. 8. 7. AM 07:30

중국에서의 둘째 날의 키워드는 제나라이다. 오전에 치박의 순마갱, 고차박 물관을 견학하고 오후 태안으로 가서 태산을 등정한 후 다시 치박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어제의 여독이 풀리지 않은 오전이었지만, 태산을 등정한다는 기대감이 있어 또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었다. 어제 탔던 리무진에 올랐을 때 잠시 정겨운 풍경이 있었다. 리무진 좌석이 앞쪽은 넓고, 등받이도 편하게 뒤로 젖힐 수 있어서 좋지만, 제일 뒷좌석 4자리는 등받이가 움직이지 않고 다리를 놓는 공간도 좁아서 어제 뒤쪽에 앉으셨던 우리 조 2분 여성선생님을 위해 병창샘과 관수샘이 뒷좌석으로 자청하여 가 주셨다. 역시 2조의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고, 앞으로 가신 두 분 선생님은 고마움의 표시로 얼굴 한가득 미소를 담아 보내주셨다.

차에서 고경석 교수님의 강의는 한 편의 역사스토리텔링 시간들이었다. 해양을 이용하였던 우리의 역사를 고조선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이야기라든가, 장보고와 엔닌의 관계, 제나라 군주 경공의 묘지 안에 강한 군사력과 왕권을 의미하는 말들을 순장한 순마갱의 이야기 등을 들으며, 장보고 역사탐방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다. 고차박물관과 순마갱을 둘러 본 후 제나라역사박물관을 둘러야 하지만, 공사로 인하여 견학을 하지 못하고 바로 태안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태산등정에 들어갔다.

중국인들이 천하제일의 명산이라고 하는 태산! 오악지장(五岳之長)! 오악독존(五岳獨尊)! 태산이 자리한 황하 하류에서 중국의 문명이 처음 열렸고, 중국의 많은 제왕들이 하늘의 뜻을 받는 곳으로 알려진 곳. 또 한편으로 태산에 한번 오르면 10년을 장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령스러운 곳으로 중국 사람이면 누구나 죽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가고 싶어 하는 곳. 태산에 올랐다. 비록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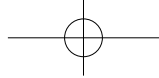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대관봉]

지만, 이렇게라도 중국의 명산 태산에 오른 감회가 너무 새로웠다.



[옥황정(태산의 정상)]

태산의 가장 높은 곳인 옥황정의 가운데 작은 비석에 1545m라고 적혀 있었다. 중국 사람들은 태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 해 있어 이곳을 태산의 기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서 이곳에서는 수많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 부적과 자물쇠로 가득하였다. 그래서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 하나를 빌고 내려 왔다. 옥황정에서 바로 내려오면 4.95m 높이의 글자가 없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다. '무자비'라고 하며 글자가 없어서 어느 때 누가 세운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진시황이 세운 것으로 추정하며, 어떠한 문구로도 왕의 업적을 다 칭송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글자를 새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한다. 바로 내려가려다가 고경석교수님과 우리조 쌤 몇 분은 시간도 넉넉하고 하여 같은 길로 내려가지 않고 조금 둘러서 가자고 하셔서, 좀 더 신비로운 운무 속에서 태산 등반을 하게 되었다. 그 때 본 태산의 모습들 몇 가지를 찍었다. 신선이 만들어 놓았다는 선인교와 북쪽을 향해 자연적으로 세워진 바위에서는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고 싶어서 멀리 클로즈업하여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북향석을 들어올리는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공자가 노나라를 보았다고 하여 붙여진 ‘첨노대’에서는 주위가 바위로 된 곳이어서 맨발로 첨노대 주위를 밟아 보았다. 태산의 정상에서 맨발로 태산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즉흥적으로 신발을 벗게 되었다. 태산을 맨발로 느껴보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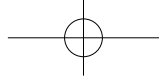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옥황정(태산의 정상)]



[선인교]

[북향망대]

[첨노대]



2016. 8. 8. AM 07:30

여행 4일째 아침은 올림픽 소식으로 시작하였다. 이른 새벽에 치러진 독일과 축구 예선전에서 마지막 종료 직전 1골을 주게 되어 아쉽게 3:3으로 비긴 것이다. 새벽 3시에 하는 경기를 모두 보신 선생님이 눈을 계슴츠레 뜨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다. 비록 독일에게 비겼지만(결국 리우올림픽 축구 결승에 오른 독일을 이정도로 우리가 경기를 치루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함. 특히 올림픽 축구감독이신 신태용 감독님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영해초등학교 졸업생이시다. 축구 이야기는 뒤로 하고, 차에 오른 뒤 우리는 강태공사당에 먼저 들렀다. 이곳에서 일백가지의 성씨를 나타내는 백성(百姓)의 뜻도 알게 되었다. 제나라의 시조인 강태공이 백가지의 성씨를 처음으로 정례화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성씨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강태공사당안 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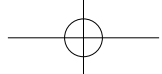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청주박물관]



[청주박물관 불상]

다음은 청주박물관으로 갔다. 더운 날씨에 굵은 빗발의 소나기는 고마운 넘을 만난 듯하였다. 이 곳에는 여러 종류의 특이한 불상들이 많았는데, 이 곳이 500여년 동안 북중국의 주요 사찰 가운데 한 곳이었음을 확인해 주었고, 현재 전시된 유물은 '중국 건국 이래 최대의 불교문화 재 발굴'이라고 불릴 만큼 중국에서 보기 드물게 진귀하고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전시실에서 여러 불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불상은 근엄하거나 신비로운데 반해 이곳 불상은 아름다운 곡선이 요염함을 드러내고, 불자들이 불상을 향해 소원을 빌기보다 불자들이 아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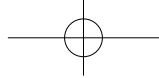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움에 취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색까지 칠해진 불상들도 있었다. 그리고 박물관 입구에서 판매하였다고 하는 중국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한 ‘조병충’의 장원급제 답안 필사본을 건국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 내용이 어떨까? 궁금함을 안고 박물관을 나왔다.

이제 우리는 장장 380km를 달려 석도로 가야했다. 그런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난처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 비가 많이 온다하여 7인승이상의 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 되었다고 한다.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일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곳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공간권이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령에는 모두 복종하는 듯 다른 대형버스들은 되돌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가이드, 교수님, 트레비스여행사 관계자, 해양재단 기획단장님 등 모두 손을 쓸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고속도로로 가도 5시간 정도를 가야하는데, 만약 국도로 간다면 내일 새벽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금 전까지는 내리던 비가 반가운 날씨였는데..... 이렇게 톨게이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2시간이 조금 지나서 출발하여 도착지점 석도에 저녁 8시경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저녁식사는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여 정해진 메뉴를 준비하기에 힘든 점이 있었지만 앞서 기획하시는 분들의 수고로 늦은 식사였지만 가장 성대한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산물 샤브샤브와 청도맥주 그리고 곶창주를 서로 나누며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였다.

2016. 8. 9. AM 05:30

석도 적산대주점은 오성급 호텔이었다. 한국해양재단에 다시금 감사를 느끼며 모닝콜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호텔 앞 바닷가에 가서 가벼운 산책을 하였다. 어제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져 새벽인데도 후덥지근하였지만, 새벽바다의 경치와 석도 바닷가에 펼쳐진 도시화된 관광명소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오늘 일정은 여행 첫 날 가지 않고 남겨두었던 성산두에 먼저 가고, 적산법화원과 장보고전기관에 가는 여정이다. 1200년 전 장보고가 이 곳 산동반도의 끄트



머리 성산두와 적산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가장 장보고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여정만 남았다.



[진시황 마차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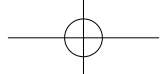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성산두]

먼저 성산두로 갔다. 성산두는 중국의 동쪽 끝에 있는 거대한 해안 절벽으로 일출을 보는 장소이다. 예부터 태양신이 사는 곳이라 하여 많은 황제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진시황은 세 번이나 이곳을 찾았다고 하여 그를 기려 청동 말과 마차 군상들이 꾸며져 있었다. 성산두라는 이름을 관광객들에게 복과 행운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로 ‘호운각’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성산두(호운각)에는 진시황 사당도 있다.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진시황의 사당이라 한다. 사당 안에 있는 천후궁은 북송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숨진 28세의 여인을 기리려고 세운 사당이 인상적이었다. 성산두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진기지에 해당하던 곳이다.

한나라 무제는 육해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치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올렸고, 당 소정방은 13만의 수군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기 위하여 이곳에서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또한 진시황의 부하 서복은 불로장생초를 구하려고 이곳에서 배를 타고 동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서복이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구해서 ‘서쪽으로 배를 타고 돌아간 포구’라는 뜻으로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 이름이 나왔다는 것을 이곳에서 알게 되었다.

다음은 석도진(石島鎭) 적산법화원으로 갔다. 석도진은 산동반도 연안을 따라 묘도군도를 거쳐 북방향로를 통해 한반도로 갈 수 있고, 바로 황해를 건너 한반도 서남 해안에 이른 뒤 일본으로 건너가는 횡단항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구법을 위해 당나라에 들어왔던 엔닌도 적산포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장보고가



활동할 무렵 이곳은 신라, 당,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항이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곳을 'AAAA'급 관광명승지로 개발하여 '적산풍경명승구'로 지정해 놓았다. 명승구 안에 적산 법화원, 장보고기념관, 장보고기념탑, 적산명신상, 법화탑, 영성민속관, 천문담공원 등이 있다.

우리는 장보고기념관 쪽으로 올라갔다. 장보고기념탑 계단에 앉아 고경석 교수님의 마지막강연을 들었다.

적산법화원은 연간 5백 섬을 수확하는 장전(莊田)을 가지고 있었고, 200여명이 수용되는 큰 강당, 승려 27명, 많은 객방, 장경각, 종루 등의 부속 건물이 있었고, 200~250명의 신자가 모였다고 한다. 장보고기념탑은 (사)세계한민족연합 주도로 1994년 건립한 것으로 탑신의 높이는 15m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탑명을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단체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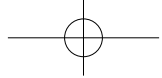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 기념탑에서 단체사진]

탑에서 아래로 걸어 내려가니 장보고기념관이 있었다. 2007년 개관한 장보고기념관은 중국에서 건립했고, (재)한국해양재단에서는 전시물 등을 지원했다고 한다. 기념관 앞에는 장보고 장군 동상이 서있다. 높이 8m의 거대한 청동 조형물이다. 기념관 안에는 다섯 개의 전시실이 있어서 장보고의 일대기를 따라가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장보고가 꿈을 좇아 당나라로 와서, 무령군에 입대해서 활약하고, 적산에 법화원을 세우고, 다시 신라로 가서 청해진 대사가 되고 신라 귀족들의 모함을 받아 암살되기까지 벽화와 조형물로 전시해 놓았다. 이곳 중국에 남긴 장보고의 업적에 경외감을 느끼며 한 참을 보고 나왔다.



[장보고 동상]



[적산명신]



[적산법화원지]

다음은 ‘적산명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작은 산 위에 거대한 인물 좌상으로 건립해 놓아서 아주 멀리서도 보일 정도이다. 엔닌이 만난 적산명신은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길에서 조난 끝에 위기를 탈출하게 해준 고마운 해신(토착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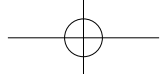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우리는 천천히 법화원으로 이동하였다. 법화원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828년(홍덕왕 3년)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불교탄압정책으로 그 터만 남아 있는 것을 그 후에 추정하여 복원하였다고 한다. 우연히 고경석 교수님을 이곳에서 만나 적산법화원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서 법화원지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을 찍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불별더위 속 한낮 주차장에는 우리 일행뿐이었다.

그동안 1500km의 장거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석도항으로 이동하여 화동페리호에 승선하였다. 다시 시계를 돌려서 1시간 앞으로 보냈다. 닷새 전 이용하였던 304호에 짐을 풀고 그동안의 일정을 되새김질 하려고 선상으로 갔다. 5일 전과 모두 같은 모습이었다. 다만, 내 안에 담긴 5일 간의 경험이 다를 뿐.....

그동안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최인호씨의 유황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며 기행문을 마치려한다.

신라의 대표 유적인 석가탑에서 1000여 년 동안 봉안 되어 있다가 발견되었던, 장보고의 무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유황에 관한 이야기이다.

“조그만 물기에도 감사하고 작은 자양분에도 기뻐하며, 이글거리는 태양에도 분노하지 않고, 건조하고 메마른 사막에도 순응하며 끊임없이 내리찍는 상처에도 이를 겸손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자신의 즈액을 내뿜어 향료를 만들어내



는.....”,

**“의인은 유향나무처럼 자신을 찌는 도끼에게 향냄새를 풍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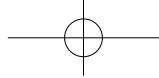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닷새 동안 장보고의 흔적을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며 그를 생각하였다.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황해를 건너 석도진에 발을 디뎠을 것이고, 중국에서 무령군 소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의(義)롭게 정진하여 그 지위를 가졌을 것이며, 노예로 팔리는 신라인을 보고는 중국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었을 터인데도 다시 신라로 가서 완도에 청해진을 세운 휴머니스트이며, 신라 서남해안의 해적을 소탕한 장군이며,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항로를 개척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해상교통의 질서를 통해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이 왕래하는 동남아·인도항로를 동아시아항로와 연결시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동서무역항을 갖추어 나간 무역왕이다. 그는 이후 고려, 조선에서도 활발하지 못하였던 해상무역을 가능하게 하였던 바다의 신 해신(海神)이었다.

그는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긴다. 자신을 찌는 도끼에게도 향내를 풍기듯, 그의 향기는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에서 적산명신으로 신격화되어 있고, 중국의 ‘문헌통고’에 무령군 소장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있다.

“사심을 버리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인물로 진나라에는 기해가 있고, 당에는 곽양분과 장보고가 있었다. 누가 동이(東夷)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며 장보고의 위대함을 당나라의 문장가이자 시인인 ‘두목(杜牧)’의 문집 ‘번천문집’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

장보고의 위대함을 더 찾기 위해 답사여행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문헌으로 보았던 그의 일대기와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컸다. 이제는 감히 알 것 같다. 1200여년 전 해상을 평정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추구하였던 휴머니스트이자 장군이며, 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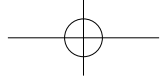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처기업가이자 진정한 선구자였던 장보고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스승이다.

화동명주호가 인천을 향하고 있다. 내 마음도 바다의 스승을 담고 대한민국을 향해 가고 있다.



[2016년 2기 장보고유적지답사팀 2조 선생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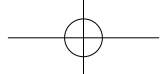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너희는 해양강국이 되어라

- 푸른 물결에 잠긴 장보고의  
푸른 꿈을 펼치면서 -

진주봉원중학교\_서미희(가작)

서해의 바람은 아직도 1200년 전 신라의 숨결을 실어 나르는 듯하다. 신라의 숨결. 아! 신라여, 해상왕 장보고가 살았던 그 시대여. 그 찬란한 역사 속에서 더 큰 신라를 꿈꾸며 바닷길을 왕래하며 신라를 점점이 실어 나르던 장보고의 발자취를 바람결에나마 스쳐보고 싶었다. 아직도 신라의 꿈이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몸소 느껴보고 싶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에 참가한 나는 마음속에 발톱을 숨기고 갔다. 우리 민족의 옛 땅을 둘러보리라.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을 이 두 발로 디더 보리라. 장보고가 건설했던 해양 상업 제국의 흔적을 보고 아직도 살아 있는 그의 꿈(정신)을 확연히 느껴보리라.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가를 이대로 물어 둘 손 없기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 나가리라. 그가 다녔던 바닷길을 그대로 따라 가 보리라. 답사에 나서면서 등에 진 짐보다 더 큰 무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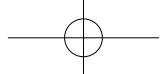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마음속에 짊어지고 옛 신라땅(경상도)을 나서 보리라.

산동성, 학교 다닐 때 산동반도라며 들었던 탓일까? 친숙한 느낌이다. 국사책에서 지도를 늘 베끼면서 공부한 시대여서인지 고조선의 옛 땅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다. 첫발을 내디디니 고국의 옛 땅에 온 듯하다. 고조선, 동예, 옥저의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가물거리는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리기만 할 뿐 실체가 없는 듯하다. 역사가 이렇게 잊혀 저도 되는 것일까? 역사는 언제나 살아서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답사에서 역사의 현장을 보고 싶었다.

그 뱃길을 따라 가 보리라. 나도 그 물결의 흐름을 느껴보고 싶었다. 제물포항이라고 배웠던 그 인천항을 난생 처음 가 보았다. 선실에서 1박을 경험한 나는 누워서 상념에 젖어 보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같은 선실을 배정받은 우리 일행(여교사4명)은 각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것 그 자체에서 동질성을 느끼고 서로를 신뢰하며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 옛날에 이렇게 큰 동력선도 없이 어떻게 신라와 당나라를 그보다 더 먼 나라까지 왕래하며 해상 상업 활동을 했을까라며 한 목소리로 감탄에 젖어 보기도 했다. 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향수가 그리웠다. 바람결의 방향 따라 움직였을 뜻을 달고 무역선들이 힘차게 내달렸을 그 바다들을 우리는 늘 동경하지 않았던가! 1박2일,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 재미삼아 해 볼 만 시간이지 않은가라며 선상의 밤을 친숙하게 보내고자 마음 속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그 시대 무역선들이 실어 날랐을 그 무수한 밤은 그들에게 나약한 상념이 아닌 삶의 강인함을 안겨다 주었으리라. 해내야 했던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바다 위 선상에서 파도에 부딪히며 자신을 깎아가는 바위같은 생활을 했으리라. 점점이 쏟아지는 밤바다 위의 별들을 보며 그날들을 헤아려 보았다.

선상의 일출은 또 다른 감흥을 줄 것 같아 모두가 자는 선실을 조용히 빠져 나와 보았다. 선원들의 아침을 상상해 보고 싶었다. 철저히 느끼고 싶어 뭐든 하나라도 놓치지 싶어 부산을 떨었다. 장보고는 어떤 삶을 살며 어떤 푸른 꿈을 키워 나갔는지 그려보고자 했다. 바다 위를 살짝 솟아오른 아침 해는 부끄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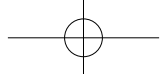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듯 금새 구름 속으로 숨어 버렸다. 목적지 석도항을 40분 거리에 둔 거선은 아침 안개 속으로 서서히 들어서더니 이내 안개에 포위 되어버렸다. 망망대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안개에 휩싸여 꼼짝없이 표류하는 기분이란 승객에게는 호기심을 피워 낼 수 있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애타는 선장은 암흑 속의 불빛을 내보내듯 간간히 굵은 뱃고동 소리만 뿜어낼 뿐이었다. 기약 없는 안개 속에서 지체하는 우리는 또 다시 옛날에 그 신라 뱃사람들은 그들을 이끌고 항해를 하던 장보고는 어떤 심경이었을까를 얘기하며 모두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서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그들을 생각하는 것일까? 잊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진실은 살아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생각 한 가닥을 희미하게 걷히는 안개 속에서 걸어 올랐다.

## 1. 봉래각과 등주수성을 보고

-바닷가 해안의 성에 부딪히는 신라의 옛 숨결, 그 이야기

안개로 인해 일정이 늦어진 우리는 봉래각 입장을 다투며 뛰듯이 가야했다. 그래도 보리라는 일념으로 모두들 바쁜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본격적인 중국 답사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기대와 나름의 신념으로 무장했다. 바닷가에는 해안선만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큰 성벽을 해안선을 따라 쌓아 올린 이들은 무얼 꿈꾸며 이토록 긴 성을 쌓고 지금은 그 흔적만 덩그러니 남겨 놓았을까? 진·한의 황제들이 신선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찾아 온 곳이 이 곳이라는 설명은 가히 인간 내면의 부인할 수 없는 진정성으로 들렸다. 황해와 발해의 분기점이 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니 발해 또한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성은 우리의 역사와 어떤 연관이 있었을 거라며 그들의 지붕을 훑어보았다. 우리 기와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중국 기와지붕의 선을 보고 문화는 교류하는 것임을 인식했다. 신라의 장보고도 here를 드나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저 바다에서 오는 배 한 척을 보며 장보고 장군을 그려 보았다. 결코 신선과 같은 삶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오직 바다를 생각하며 큰 뜻을 키워냈음을 확신했다. '벽해단심' 바빠 내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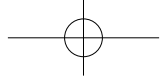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는 발걸음으로 저 건물은 뭘까 라며 들여다 본 건물 벽에 붉은 글씨로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장보고의 마음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 단 한 마디였다. 언제나 진주 축석루의 성벽을 지나면서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켜내는 성벽의 아픔을 생각하며 자랐던 나는 봉래각과 등주수성의 성벽의 온화함과 견고함, 바닷가의 낭만이 겹쳐 영화 속 배경처럼 멋진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곳을 드나들었던 신라인과 장보고 장군의 발자취가 바닷가 모래사장 어딘가에 묻혔을 거라 생각하니 한결 정겨운 느낌이 들었다. 지명도 우리 고장에서도 사용하는 지명이라 더욱 친근한 듯 했다. 봉래산. 내가 사는 고장의 주산이름이 아닌가? 봉래동. 혼자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다는 어떤 분이 중국의 지명과 한국의 지명이 같은 것은 중원 땅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선비 정신을 가지고 살던 수준 높은 문화인들이었으며 야만족들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곳 한반도까지 와서 살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일설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김진명의 소설 「글자 전쟁」 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하며 지는 해에 쫓겨서 신라에서 불어왔을 그 바람결과 신라의 이야기를 펼쳤다 접었다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일본 스님 엔닌의 기행문에도 봉래각과 등주수성 연안 바닷가를 통해 중국 본토로 많은 스님들이 드나들며 공부를 했다고 한다고 하니, 어찌 스님들만 드나들었겠는가? 신라인들과 장보고 선단의 선원들이 드나들며 삶을 엮어 나갔던 곳이라 생각하니 지금의 해양 휴양도시다운 풍경과는 자못 대조를 이루는 듯했다. 나는 끊임없이 푸른 바다 푸른 물결의 흐름을 보면서 장보고 장군의 푸른 꿈을 찾아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다.

## 2. 순마갱과 고차박물관을 보고

– 사람들의 오랜 동반자 말(馬)의 희생에서 느낀 쓰라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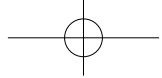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순마갱’이라는 단어에서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가 없었다. 거대한 말들의 희생을 본 적이 없기에. 더운 여름을 이고 가던 길에 내려서 고속도로 변의 고차박물관을 보고 그 힘찬 말들이 묻혀있어 생명이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



는지 씹었다.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유물이라. 그들이 인간의 생활을 위해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있었던가를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약동하는 그들의 자태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들이 얼마나 무고한 희생을 당해야 했는지를. 오직 강자를 위한 약한 것들의 희생 앞에 약자로 살아가는 이로서 한숨을 잠시 내설 수밖에 없었다. 너무 나약해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스치웠다. 각종 수레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의 수레와 비교도 해 보고, 수레의 발명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이론을 들은 적이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본 원리는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시골집 마당에 있는 세 발 수레가 그 곳에도 있었는데 인간의 삶은 근본 틀(원형)은 같다는 것에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확신했다. 나란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는 말들과 양상한 뼈로 남아 있는 어느 마부의 흔적에서 우리는 무얼 생각하고 무얼 추구해야 하는지 약자의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시골에 다다른 우리 일행은 순마갱 입구의 땅을 비질하는 작업을 보고 뭔가 발굴하려고 흰 선을 긋고 조심스레 흙을 갈퀴 가는 정도로만 보았다. 이쪽으로 돌아 가보겠다는 인솔인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름한 건물을 돌아 들어간 우리는 각자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교수님의 발굴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십 마리의 말들이 두 줄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에게도 이 장면을 보여 주고 이 설명을 들려주고 싶어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 갱이 'ㄷ'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700여 마리의 말들이 묻혀 있다는 설명에 어안이 병병하였다. 과연 땅도 크고 손도 큰 사람들이고 생각도 단위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무얼 위한 희생이어야만 했는지, 어디서 이런 명마를 구했는지. 명마 한 필이면 삶이 달라졌을 그 무수한 사람들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갔다가 이제사 저 말들의 뼈 한 대 한 대를 약품으로 솔질하며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 역사는 정말 공부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중국땅에서 당당하게 신라인으로서 이름을 알리며 무역을 한 장보고 대사는 어떤 방식을 적용시켰을까? 그는 과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감히 나 정도가 알아보겠다고 찾아 나설 위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 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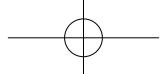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있던 한국의 위인전에서 보았던 많은 위인들을 떠올리며 장보고에 대한 위인전은 제대로 없었다는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고, 지금이라도 자라는 영리한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장보고에 대한 위인전을 읽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는 한 줄의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3. 태산 등정을 마치고

– 마치 세상의 정상에 올라서 본 느낌, 문학 작품 속 상상의 산이 아닌 실제

어렸을 때 문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태산은 사람들의 상상 속의 산이라고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태산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다고 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태산은 없는 산인 줄 알았다. 현지 인솔자가 옛 시조 속에 등장하는 그 산이라 하니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태산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왕래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피약별 아래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까지도, 맨 앞자리에 앉게 되어 태산으로 가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태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기 전 우리 일행이 타고 다니던 버스 안에서 현지인솔자와 교수님의 태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산이 웅장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가치를 더해 주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은 태산을 올라 바위에 새겨진 술한 기록들을 보면서 실감을 했다. 태산으로 오기 전 차 안에서 김태희가 가장 미인으로 손꼽히는 이유를 말해 보라던 유머가 생각났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기에 그녀가 제일로 손꼽힌다는 설명은 태산에 대한 가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이었다. 짹짹이 일행을 지식의 세계로 지루하지 않고 유익하게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교수님의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우리 일행을 친절하게 섬세하게 동행해 주는 해양재단 식구들과 현지인솔자의 온정이 느껴지기도 했다.

내 생애 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 태산을 오르며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이라던 양사언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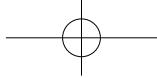
처럼 아끼고 아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르고 또 올라 정상에 다다랐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온 느낌이 이런 것일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아서 눈에 넣고 마음에 담고 머릿속에 저장했다. 사람들에게 태산을 가보라고 말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반드시 와 보고 싶다는 생각과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어릴 적 배운 시조 속에 등장한 태산을 공자도 올랐다는 태산을 자신도 올랐다는 기쁨에 겨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정말 다들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이 곳 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늘 아래 오직 이곳’이라는 이곳에서 잠시나마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가 되어봤다는 느낌을 오래 전 사람들이 바위에 새겼듯이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듯이 신라인들도 장보고도 이 태산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산동성의 곳곳에 있었던 신라방에 살던 신라인들의 정서는 그저 무역이나 장사하는 일에만 매달렸을까?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일 외에도 뭔가를 찾아 나서고 싶어 했을 거라 본다. 어느 신라 청년이 이 태산을 올라 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다. 세상은 늘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아닌가. 세상은 늘 보다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알기 위해 스스로를 다 잡아 보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 이번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는 나를 세밀한 곳까지 가보고 느끼게 하는 생의 새로운 기회였음을 스스로 알고는 이제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해 본다.

#### 4. 강태공 사당과 청주박물관 그리고 성산두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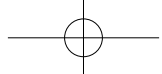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저 건너 한반도가 보일 듯 마치 서해 끝자락을 밟는 듯한 푸근함과 낮익음

강설의 시에 나오는 눈 오는 강가에서 빈 배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노옹이 강태공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은 대강 아는 듯한 내용이다. 산에는 눈이 쌓이고 산새는 겨울을 가르며 날고 오가는 이 없는 산길에는 인적의 흔적조차 없다는 그 배경 속의 주인공 또한 실존 인물이었던 것이 믿기 어렵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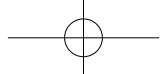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아침부터 서둘러 강태공의 사당을 간다고 하지 않는가. 첫날 안개로 보지 못한 성산두까지 오늘 다 본다고 하니 일정이 바쁘다. 숙소 바로 옆에 강태공 사당이 있어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사당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의관총에 관한 이야기나 우리나라 여러 성씨의 기원 등에 관한 이야기는 나의 관심 밖이었다. 나는 우리나라 것이 좋다. 굳이 중국에 기원을 두고자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은 것이었다. 다만 그가 80세가 넘도록 낚시로 세월을 낚았다는 이야기와 강가의 노인이 재상이 되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게는 더 흥미가 있었다. 일행은 다들 하나라도 더 담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자신들의 사진을 찍었지만 나는 벽면의 그림과 색채, 우리나라의 사당과 분위기를 비교하는 등 내 나름의 한·중 문화를 비교해 보았다. 아직은 중국의 곳곳에 옛 문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좋았다. 우리나라는 너무 현대화 시켜서 허름한 옛정취가 사라져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 강태공에서 기원한 성씨가 100개는 넘는다는 이야기에 약간은 어아해하며 석연찮은 마음으로 훌쩍리는 비를 피해 차에 올랐다.

청주박물관. 마침 우리나라에도 청주라는 곳이 있어서인지 청주박물관을 향하는 발걸음이 마치 우리나라 청주를 가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뭔가 정돈되어 있는 역사의 도시를 가는 것일 거라는 짐작과 교수님께 들은 산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박물관 터 주변이 옛날 신라원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시기에 귀가 번쩍 뜨였다. 신라인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 보고 싶고 무슨 이야기든 듣고 싶었다. 하물며 장보고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 애절하게 찾아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은 아마도 그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어렵풋하게나마 알 수 있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지 않은가. 청주박물관에 전시된 도자기들에서 불상들에게서 우리와 공통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싶었다. 문화는 원래 흐르는 것이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이 곳 산동성과 옛 고구려의 땅에서는 우리 것이 많이 산재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박물관 유물 해설 자료에 이정기가 고구려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교수님의 설명에서는 이정기가 고구려인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국수주의자들의 생각이라고 본다는 교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다. 청주박물관에서도 청주를 무대로 활약



한 이정기가 고구려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 민족도 산동성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 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산동성을 무대로 살아 왔던 우리 선조들의 옛 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 보았다. 장보고도 이곳 청주에서 활약했다고 하니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당나라에 와서 활약한 고구려의 후예와 신라인들의 삶의 흔적을 아직도 버리고 싶지 않았다.

성산두, 우리나라에도 성산이 있고 성산일출봉 또한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 받은 곳이다. 성산은 동쪽하고 연관이 되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을 보지 못하고 갔으면 정말 안타까울 뻔하였다는 생각과 챙겨서 보게 해 주는 배려가 고맙게 여겨졌다. 간신히 박물관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얼핏 보고는 역사는 안 좋은 인물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중국의 습관이 과히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성산두에서 내려다보는 바닷물은 평화로웠다. 성산두를 보면서 여기가 중국 동쪽 끝이고 우리나라의 서쪽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쪽 끝, 서쪽 끝을 와 보았으니 우리 국토의 동쪽 끝을 봐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학 전 장보고 유적 답사 공문을 보고 출력해서 교무실의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행사가 있으니 가자고 면면히 물어보았다. 혼자 보다는 둘 이상 가면 더 좋을 것 같았고 장보고를 알아보자고 말하고 싶었다. 다들 연수와 개인 사정 등으로 결국 혼자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동쪽 끝 독도도 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의기투합한 다른 후배선생님과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교사는 독도를 가 보아야하지 않겠냐며 아양과 너스레를 떨면서 모객 한 결과 29명 중 12명이 신청해서 우리는 교사 독도 탐방 일정을 정해 놓았던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 독도를 보고 우리 땅임을 느껴보고 싶었다. 한국해양재단에 전화를 해서 교사 독도 탐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를 해 보았으나 지금은 없다고 해서 좀 아쉬웠다. 성산두를 보면서 제주 성산과 독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곳의 자연 경관이 빼어남에 감탄하고 또 감탄하였다. 그리고 동쪽 끝을 보고 달리다가 멈춘 진시황의 마차를 보고 진시황이 이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상상해 보았다. 물론 교수님의 설명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서북과 불로초는 진시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제주 서귀포의 서북전시관과 남해 금산에 서북이 다녀갔다는 바위를 가



보았기에 성산두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마치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가상현실 속을 거닐고 다니는 듯 했다. 작년에 잠시 맹자 공부를 하면서 진시황의 출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역사 속 진시황은 어떤 소년기를 보냈는지, 자라면서 어떤 감정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갔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진시황. 중국과 우리나라에까지도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닌가. 역사는 이토록 오래 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진정성을 남긴 것이 있을까? 단지 죽지 않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의 대변자라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회자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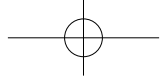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현지인술자의 우스개 설명이 다시금 생각났다. 여기서 우리나라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밥짓는 연기가 보이는 곳이라는 얘기가 떠오르면서 한걸음에 달려 가면 우리땅 한반도가 나올 듯하였다. 성산두. 참 오래 기억하고 싶은 곳이다. 만지면서 한 바퀴 돌면 행운이 온다는 옥석도 있어 모두들 다투어 돌아보았지만 이곳은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땅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곳 산동성의 여행 상품이 널리 홍보되고 개발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동성을 둘러보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보았다.

성산두를 빠져 나오면서 우리들은 진시황 사당을 방문했다. 정말 그때 사당인 양 퇴락한 붉은색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당 건물과 회색 벽돌은 진나라 때로 잠시 가보게 하는 듯 하였고, 진시황의 가장 가까운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듯해서 이곳저곳을 살살이 둘러보았다.

장보고도 이곳 성산두를 와 봤을까? 장보고도 이곳에서 동쪽 땅 신라를 바라보면서 신라의 강국을 꿈꾸었을까? 해양 강국을 꿈꾸며 자신의 푸른 꿈을 바다에 펼쳤으리라. 그가 우리를 정말 이곳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오직 해양 강국이 되어라고.

## 5. 아! 적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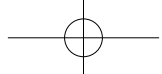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오직 바다와 사람만을 생각했던 장보고의 온기가 아직도 살아 있음에 역사는 시간의 흐름일 뿐이었다.



적산법화원. 아직도 그곳을 가보지 않은 것이 약간 안달이 날 지경이다. 얼른 가보고 싶었다. 떠나기 전 미리 본 일정표에서 여러 지명을 보아도 실감 나지 않았지만 장보고의 적산법화원은 생생한 느낌이 들어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2800Km를 달리면서 버스에서 장보고 관련 영상 자료를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 여행을 하면서 스치는 창가의 이국적 풍경은 나를 새로운 세상과 마주 대하게 해 주었고, 달리는 버스에서의 역사스페셜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게 해 주어 일석이조인 양 즐거웠다.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았다. 해양강국을 향한 장보고 대사의 열정이, 신라인을 향한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분의 높은 뜻이, 그분을 예사롭게 신라시대의 어느 바닷가 장군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임을 알았다. 내 정도가 거론할 분이 아닌 참으로 지존의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자신이 무엇이라도 알아보겠다는 양 간죽거린듯하여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참으로 완도 바닷가에서 중국 선원 배에 몰래 타고 당나라로 가서 뜻을 펼쳐 보려는 한 청년이 해상 상업 제국의 해상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되고 난 후 그가 무엇을 꿈꾸었는지 알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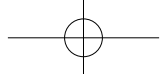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가장 먼저 들른 장보고기념탑에서 어느 여교수님의 기증으로 우리 돈으로 건립한 것은 이것뿐이라고 해서 더욱 의미 있었다. 그 앞에서 전원 기념촬영을 하고 지금도 그 단체 사진을 보면 웬지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모두가 정겹고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다. 적산항에서 가장 높다랗게 치솟아 있는 듯 장보고 대사의 높은 뜻을 세우려는 듯 장보고 기념탑은 그렇게 높게 이국땅에서 당당하게 버티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교수님들의 강의는 우리를 향한 진심이었고 우리는 또한 열심히 들었다. 그래야만 대당 신라인들의 후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상도에 산다고 늘 신라인의 후예라고 신라시대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우리 민족다운 시대라고 늘 생각했다. 간단한 경상도 말이 중앙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기분 좋았다. 그래서 늘 신라를 동경하고 그리워하지 않았던가. 그런 신라인의 후예가 되어 이곳 적산항까지 왔다는 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 나에게 의미 있는 답사이다.

암튼 얼른 직접 가보고 싶어 발걸음을 한여름의 뜨거운 피약별도 무사하고 산 위로 올라갔다. 과연 중국 사람들은 웅장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데는 세



상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 적산항에서 장보고만큼 큰 뜻을 지녔던 이가 또 있는가. 그들이 가장 신성시 한다면 적산의 역사에서는 장보고 외에는 더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난 오래된 석탑을 보면 그 돌을 살짝 만져보곤 한다. 거대한 적산명신. 탁 트인 적산항. 아, 여기 구나! 장보고 대사가 저 바다의 항구를 드나들었구나. 이렇게 휼한 곳에서 신라 선이 신라인들이 이곳에서 무역을 하며 신라방을 이루고 살았구나. 감동의 바다물결이 밀려오 듯 몽클거렸다. 하염없이 적산의 바다를 보고 또 보았다. 신라의 범선이 돛을 달고 항구를 향해 물살을 가를 때 범선 앞에 우뚝 선 자세로 서 있는 장보고 대사의 늙은 모습이 밀려 왔다. 해양의 개척자이자 동아시아 일대의 무역왕으로 거듭 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수식어도 바라지 않는 듯한 얼굴로 오직 바다와 사람을 생각하며 항구에 발을 내딛는 모습이 그려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중국인이든 신라인이든 얼마나 반기며 의지 했을까? 그가 그들을 얼마나 큰마음으로 품었을까? 그는 적산의 명신이었을 것이다. 항구도 덩달아 들썩거리며 그가 오는 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적산이 춤추고 노래하는 날이었을 것이다. 바다도 춤을 추었을 것이다. 바람도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살아 있는 초목과 모든 생명들이 장보고 그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는가? 와글거리는 삶의 소리들이 이 적산의 바람이 되어 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도 그토록 그를 찾아 나서고 있지 않은가? 해양강국의 그 날이 오기를 우리는 얼마나 소망하는가? 그의 꿈이 약속이 다시 실현되기를 우리는 모두 바라고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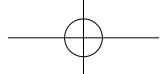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장보고기념관 앞뜰에 우뚝 선 장보고장군의 동상은 어떤 동상보다 힘 있고 늙은하고 강인하게 살아 있는 듯 했다. 장보고 장군의 신 끝이라도 어루만져 보고 싶어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후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동상의 발끝이라도 만져보았지 당대였으면 어림도 없이 항구로 접어드는 길모퉁이에 엎드려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감히 지금이라도 장보고대사를 말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인 듯 하고 행복했다. 장보고 대사의 푸른 꿈이 푸른 물결을 타고 넘실거렸고 신라와 당나라와 일본과 동아시아까지 신라의 무역선이 무역풍을 타고 다녔다는 생각에 가슴이 뒹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장보고 장



군과 같은 늪같은 기개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를 바랐다. 이제 다시는 그분을 놓지 않으리라. 우리의 역사가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야겠다. 우리나라가 큰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겠다. 우리 국토가 신라인들이 꿈꾸던 불국정토(이상세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겠다. 아픔이 너무 많은 민족이고 나라가 아닌가? 이제 스스로 치유와 상생의 길을 가기를 소망해야겠다. 바다를 두고도 바다를 잊어버리고 살아 온 우리가 너무 안타깝다. 바다를 되찾고 싶고 바다를 품고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해양 강국이 되어라고 장보고 장군이 말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은가? 너희는 썩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팔 물건들을 가득 실은 커다란 무역선을 오대양에 뚝뚝 띄워 실어 나르는 해상 상업 제국이 되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요동치지 않은가? 약동하는 민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대로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 본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산동성 끝자락 적산땅에다 남겨 놓지 않았는가?

적산 법화원. 나는 이 행사를 알고 난 후로 참 가보고 싶었다. 원래 신라를 좋아했던 나는 늘 신라를 찾고 있지 않았는가? 시대는 흘러가도 장보고 장군의 흔적은 이 곳 적산에 뿌리 박혀 있지 않은가? 사람이 사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가 보다.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나는 한 줄기 신기루를 찾았다. 누구든 그가 이루려던 꿈이 정당할 때 그 정당함은 힘을 잃지 않고 영원히 가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1200년 전. 소설 속세계도 아닌 현실에서 1200년 전 이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우리는 지금 뜨겁게 한 위인의 삶을 거론하고 찾고 있지 않은가? 장보고는 비록 염장의 칼날과 그를 끝내 지켜내지 못한 신라의 무력(無力) 앞에서 희생되었지만 그의 정당성은 이제라도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의 정신이 부활하여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꿈의 노랫소리가 전해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적산 법화원을 바삐 빠져 나오면서 그분을 아직도 당나라땅 적산에 두고 오는 것 같아 서운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언제 다시 우리들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아직도 끝끝내 신라의 후예들을 지키기 위해 꿈쩍도 않고 계실 거라는 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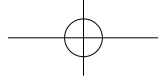


믿음이 돌아보는 발걸음을 재촉해주었다. 사랑합니다. 좋은 뜻 훌륭히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후예로나마 잠시나마 찾아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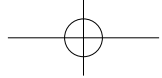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답사를 마치면서

스스로 삼면이 바다라는 사실을 아주 어릴 적에 사회책에서 배우고 난 후로 나와는 무관하게 살아왔다. 삶이 무언지도 모른 채 아주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이제 길을 찾아 나선 김에 우리 바다의 서쪽 끝을 보았으니 동쪽 끝도 가보고 싶었다. 미리 잡아 놓은 독도 일정에서 우리는 한 교무실 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이 모여 독도를 가 보기로 했다. 바다도 고맙게 좋은 날만 다녀 순조롭게 울릉도와 독도를 갔다 왔다. 나는 항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장보고 선단이 이곳 울릉도 도동항에도 왔을 터이라고 흔적을 캐내고 싶었다. 독도가 분명 우리 땅임을 느껴도 보고 싶었고 바닷길을 알아 가고자도 하였다. 삼면이 바다라. 이제 남은 것은 몇 번이고 갔지만 아직 남쪽 바다 마라도를 밟지 않았으니 이번 여름에 다 가보고자 했다.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또 언제 갈지 모르기에. 여고시절 친구들과 마라도를 정말정말 띄약벌 아래서 한 바퀴 돌면서 마라도가 좀 더 멀리 있지 하고 투정을 부렸다. 국토의 최남단 마라도 그 중에서도 남쪽 해안선의 거센 파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제주도 해안선을 따라 갈 적이면 장보고선단이 왔을 제주도항은 어디였을까 찾아보곤 했다. 제주도에도 법화사가 우리 숙소가 있었던 서귀포시 한라산 방향에 있다고 내어준 책자의 한 면에서 보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던가. 내어준 참고책자에는 너무나 소상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감탄했다.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는 나에게 그 이상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제 나는 돌아오는 화동훼리 갑판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폼으로 가져다 놓은 맥주와 오징어땅콩을 사이에 두고 같은 선실을 쓰면서 형제처럼 친해진 우리 네 명의 여성동지들이 신라의 함선을 이야기 하던 때를 다시금 떠올린다. 조선의 판옥선도 거북선도 신라의 배 기술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겠냐며 우리는 신라를 의기양양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장보고 장군을 가슴 가득히 경외롭게 담아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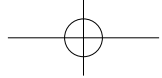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 답사 관련 사진 자료〉



[봉래각 어느 건물 벽에 붙은 바다를 향한 단심 글귀]



[발해와 황해가 나누어지는 두 용이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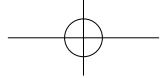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고차박물관과 순마강-車竿馬魂]



[태산과 푸른 하늘]



[태산 정상]



[강태공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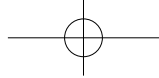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낚시하는 강태공]



[적산법화원]



[장보고 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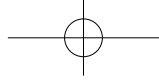
[적산명신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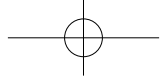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 장군 동상]



[적산항과 적산 바다]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지 답사 기념 1기 단체사진-첫째 줄 왼쪽7번째]



# 바다를 향한 도전, 해상왕 장보고

환호여자중학교\_신경희(가작)

장보고를 만나다.

1522년 9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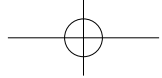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에스파냐 산루카르 데 바라메다의 수평선에 난파 직전의 배 한 척이 나타났다.

바람에 흔들리는 누더기 돛, 태양빛에 바래고 폭풍에 닳은 선체가 3년 전 떠  
나온 도시 세비야를 향해 과달키비르 강을 천천히 거슬러 오고 있었다.

세상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세계 일주를 실현하고 돌아오는 빅토리아  
호였다.<sup>1)</sup>

이 위대한 발견의 대가로 치른 희생은 출항 당시 우려했던 것 보다 훨씬 컸지

1) 로런스 버그린, 『세상의 끝을 넘어서』 중에서



만 이를 통해 에스파냐가 얻게 된 부와 영화 또한 상상 이상의 것이었다.

1559년 영국의 월터 러레이 경(Sir Walter Raleigh)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 세계의 부를 지배하고, 곧 세계 자체를 지배하게 된다.”고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the Great)에게 설파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적극적 지지와 후원 아래 증강된 영국 해군은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며, 세계의 바다를 지배했고 부와 권세를 함께 얻어 ‘해지는 날이 없는 영국’이라는 국가 융성의 시대를 구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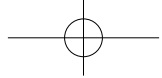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1596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야코프 반 헤임스커르크와 빌럼 바렌츠의 원정대는 극지방을 따라 아시아로 가는 동북항로 개척에 나섰고 희망봉을 따라 동남 아시아로 나아간 네덜란드의 원정대는 아시아와 유럽의 만남을 주도하였으며 극동 지역과의 무역을 주도하는 최초의 다국적기업이자 첫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의 설립을 통해 아시아와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805년 완도 부근의 한 섬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출생한 ‘해도인’ 궁복은 약관의 나이에 당나라로 건너가 무장으로 출세하였고, 흥덕왕 3년(828년)에 장보고라는 이름으로 신라에 돌아와 왕을 알현하면서 이렇게 아뢰었다.

“지금 중국 해적들이 우리 신라 사람을 잡아다 노비로 파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대왕께서는 청해(전남 완도)에 진을 설치해서 해적들이 노략질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 서남해안 일대의 해적을 소탕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와 당나라·일본을 잇는 해상무역항로를 개척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당나라 수도 장안과 남중국·북중국을 잇는 물류망과 해상교통권을 장악하였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이 왕래하는 동남아·인도 항로를 동아시아 항로와 연결시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동서 무역망을 갖추어 나갔다.

세계사를 통해 보면 바다는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영육의 현장이



었다. 서양사에서 시대를 지배했던 강대한 제국들은 해양진출을 통해 국가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유럽의 탐험가들은 바다를 개척해 나아갔고 그 때마다 바다는 새로운 영토와 부, 명예를 가져다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다는 인류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현장의 교사로서 바다와 해양교육에 관심을 갖고 해양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운동을 실천해 오던 중, 위대한 해양인, 무역왕 장보고를 만날 기회가 찾아 왔다. 천 년 전 서해 바다를 넘어 더 큰 세상을 열고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이를 통해 글로벌 CEO의 면모를 보여준 위대한 해상왕 장보고, 그를 만나러 간다!!

5박 6일, 해양재단을 통해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 가며 천 년 앞서 해양개척에 나선 그의 행보가 보여준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배워 우리 아이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가자, 장보고를 만나러, 바다로,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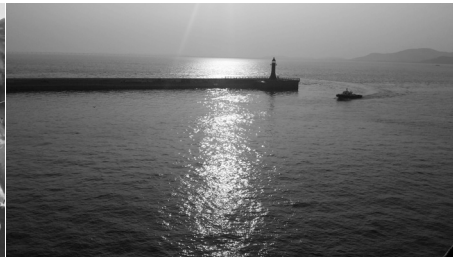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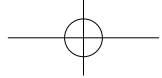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2016년 8월 5일

떠나다. (1일차)

천 년 전 골품제도라는 신분사회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바다로 나아가 당시 아무도 생각지 못한 민간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글로벌 CEO,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2016 초중고 교사 중국 유적지 답사단(2차)' 50명은 설레임을 안고 인천항에 모였다. 교사, 유적지 답사라는 우리 팀의 명칭은 여행이 주는 설레임 이상의 무게를 우리들에게 실어 주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배에 오르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 년 전 같은 바다를 건너가던 이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작은 배로 거친 바다와 맞선 그들의 용기와 바다의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나아가는 개척자의 모습을.

화동 뱃길을 타고 건너가는 서해바다에는 아름다운 일몰이 함께 했다. 해가



지는 서해의 아름다움은 천 년 전에도 오늘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일몰을 바라보며 바다로 나아간 이들의 가슴 속에 어떤 꿈과 큰 세상이 웅크리고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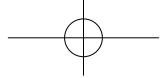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5박 6일의 여정은 일몰과 함께 약간의 흥분과 설레임을 안고 시작되었다.

‘시엔짜이 워 취 쯡꾸오(現在我去中國).’

**2016년 8월 6일**

**니 하오(你好) 차이나!! 등주 수성을 바라보며 (2일차)**

지난밤 선상 강의와 함께 배에서 밤을 지내고 오늘은 일출을 안고 석도항과 만난다. 처음 만난 산동반도의 인상은 전에 만났던 중국 관광객의 모습이 아닌 민낯 그대로의 중국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을 보



며 버스를 타고 달리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아담한 해수욕장이 나타난다. 수심이 얇은 해안에서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산동반도의 여름더위를 식히며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흔투오런(很多人)!!”

‘아이고 사람 많네.’하는 소리에 현지 가이드의 말.

“사람 많다고요? 사람 많은 것 한 번 보여드릴까요”하며 웃는다.

대륙적 규모를 가늠케하는 그의 너스레에 함께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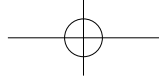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여기는 등주수성, 봉래각 입구.

산동반도 최북단의 항구도시 등주(봉래)는 신선들이 살았다는 봉래산이 있는 곳으로 등주항을 통해 발해, 일본과 교류하였고 당시 한반도를 오가는 북방항로의 종착지였던 곳이다.

‘신라방’이라는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이곳에 있었고 ‘신라관’과 ‘구당신라소’가 있어 장보고 시대 때 발해 및 신라 교역 등을 관장한 곳이었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기지였으며, 장보고의 도움으로 당에서 구법한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따르면 많은 스님들이 이곳을 거쳐 낙양이나 장안까지 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등주수성의 북문은 선박이 출입하던 수문이었고, 남문은 사람과 마차가 출입하는 성문이었다. 적대와 포대는 적들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쌓은 성벽이었고, 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었다. 큰 파도를 막는 방파제와 함께 항구 안팎의 수위를 조절하였던 갑문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모래와 흙이 쌓이면서 수심이 얕아져 큰 선박이 정박할 수 없게 되었



다. 그 결과 주변의 연대항 등이 주목을 받게 되자, 등주항과 등주수성의 군사·정치·교통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도교의 성지를 방문하고 해안의 절경을 조망하며, 물길 따라 뱃놀이를 즐기고 해수욕을 즐기는 휴양지로 변해 있다.

이 곳에서 엔닌이 만난 신라인들은 단순한 무역상을 넘어 당, 신라, 일본 등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제동향을 꿰뚫는 안목을 지닌 종합무역상이었으며 개방적 마인드로 국제사회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교역을 통해 신라의 불교 사상과 불교 미술 등 문화 교류의 장도 펼쳤던 듯하다.

바다는 해상 무역의 통로일 뿐 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통로이며 새로운 문화 창출의 장이 될 수 있구나 새삼 깨닫는다.

넓은 세상과 소통하면서 한편으로는 고향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고 위로해가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갔을 신라인들, 그 들도 한 여름에는 이 바다에 모여 더위를 식히며 고향 얘기도 함께 하였을테지.

## 2016년 8월 7일

### 태산에 오르다. (3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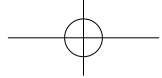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뒹이로다.”

바로 그 태산에 오늘 내가 간다.

석도를 출발해 버스를 타고 달린 700여 km.

더위에 좁은 차안에 갇혀 장시간 가야하는 무리한 여정이지만 태산을 본다는 기대하나로 견딜 만하다.

버스를 타고 달려오던 길에 간간히 내리던 비는 태산에 이르자 고맙게도 멎었다. 버스 안에서 비가 내려 시원하게, 태산에 올라서는 구름으로 강한 햇빛을 가려 주니 태산아래 펼쳐지는 풍광을 다 즐기지 못한다 해도 이만해도 고맙지 아니한가?



지난해 답사팀은 케이블카가 운행되지 않는 악천후로 태산까지 달려와 그 정상에 오르지도 못하였다하니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나 또한 작년 유럽여행에서 마테호른 코앞까지 갔지만 악천후가 정상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 발걸음을 되돌린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 감사의 정도가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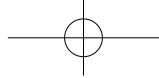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태산은 산둥성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1,545m의 중국 명산이다. 중국인들은 ‘태산을 보고나면 다른 약(岳)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찬했다고 한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부터 한나라 무제, 당 고종과 현종, 청나라의 건륭제 등이 정상에 올라 하늘을 향해 장엄한 봉선 의식을 거행했다. 덕을 쌓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황제들에게 정통성을 부여받는 신성한 산이며 경관이 뛰어나 태산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명승고적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 가면서 절벽마다 비문을 새겨 석각 전시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신령스러운 태산을 한 번 오르면 10년을 장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7,412개의 계단을 오르는 태산 등정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중국 사람이면 누구나 죽기 전에 반드시 한번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꼽힌다고 한다.

그 길을 우리는 반은 버스를 타고, 반은 케이블카를 타고 단 숨에 오른다.

명성에 비해 한산해 보이던 아래쪽과는 달리 정상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태산을 보러 올라와 있다.



산을 오르며, 산에 올라와 수많은 기도를 남겼을 중국인들.

온산이 그 들의 기원을 담은 촛불과 향연기로 자욱하다. 촛불 하나하나, 향 하나하나에 담긴 그 들의 간절한 기원은 하늘에 닿아 오늘 그 들의 생활 속에 젖어 들었으리라.

천 년 전 신라인들도 태산에 올랐을까?

그 들도 태산에 오르며 한 계단, 한 계단 걸음을 옮길 때 마다 간절한 염원과 기도를 담아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내며 낯선 땅에서의 힘든 생활을 이겨 내지 않았을까?

## 2016년 8월 8일

장보고의 흔적을 찾아 중국의 역사 문화 유적을 더듬다.(4일차)

부슬 부슬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아침부터 내린다.

빗속에 강태공 사당을 찾아 가는 버스 속에서 산동반도 임치 일대가 고대 축구의 발상지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다. 어디까지나 중국 사람들 이야기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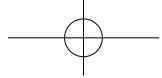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임치구에 있는 강태공 사당은 그가 입던 옷이나 모자를 묻어놓은 의관총(衣冠塚)을 중심으로 그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사당이다.

정치적 의미를 떠나 강태공은 정염제신농황제의 51세 후손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장의 성씨를 이룬 인물이며 이후 49가지 다른 성씨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성이다. 그리고 강씨로부터 파생한 전체 성씨는 103가지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이로부터 파생된 성씨가 많아 후손들이 찾아와 제사지내고 비석을 세우기도 했다. 노태우대통령도 이곳에 와 시조 사당을 참배하고 기념회호를 남겨 두었다.

강태공사당을 떠나 찾아 간 곳은 순마갱(殉馬坑).

제나라 군주였던 경공의 묘지 안에 말을 순장한 묘로 '제경공 순마갱'이라고 불린다.



이 말들은 전쟁에 사용되었던 말로, 모두 6~7세가량의 수말이라고 한다. 현재 발굴된 면적과 그 안에서 나온 순마의 밀도를 고려하면 약 600필의 말이 순장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는데, 순마갱은 춘추전국시대에 산동성 일대를 지배하였던 세력의 규모를 보여 주는 유적으로 기병전의 핵심인 말을 순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살아있는 말이 저리 가지런히 누워 땅에 묻히지는 않았을 터, 자신의 사후세계를 위해 살아있는 생물을 저렇게 묻어야 했던 잘못된 신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삼가 말들과 그 밖에 함께 묻힌 모든 생명의 명복을 빌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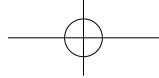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이어서 또다시 빗길을 뚫고 찾아간 청주박물관.

청주는 산동성의 중북부에 자리한 오래된 도시로 내륙에 있지만 황하의 하류와 산동반도 동쪽 여러 항구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고구려 후예였던 이정기는 산동반도에 들어온 뒤 사조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 도시를 지배한다. 특히 그는 이 곳을 무대로 당-신라-발해-왜를 오가는 무역을 총괄한다. 덕분에 신라 사람들이 청주, 초주 등 내륙으로도 활동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장보고 또한 이정기가 구축한 조직을 토대로 활발한 해상무역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하니 청주는 신라인들에게 각별한 도시가 아닐 수 없다.

청주박물관은 청주성의 서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3만여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어, 중국의 7대 역사박물관 중의 하나로 지역박물관으로써는 소중한 역사 자료를 어느 박물관 보다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특히 1996년 용흥사지에서 발굴된 불상 400점과 이정기에 관한 기



록물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에게 각별한 박물관이다.

전시되어있는 용흥사 출토유물은 신라의 불교사상과 불교미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를 오고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의 요지이자 행정 중심지였던 청주의 신라원에는 당나라 불교 성지를 찾는 구법승이나 여행자를 위한 법당이 마련되었을 것이고, 이런 유물, 유적들은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무역이 활발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산동반도 모든 곳에 신라인의 발길과 숨결이 닿았음을 오늘의 유적 답사를 통해 배운다.

## 2016년 8월 9일

### 천 년 전 그의 숨소리를 오늘에 듣다.(5일차)

이른 새벽에 일어나 숙소 앞 방파제에 찾아 온 아침을 맞는다.

답사의 마지막 아침을 맞는 순간, 방파제를 따라 운동 삼아 산책길에 나선다.

석도 방파제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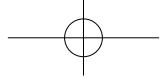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아침 식사를 마치고 떠나는 길은 첫날 답사를 미뤄둔 성산두와 이번 답사의 하이라이트 적산법화원 견학이다.

중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거대한 해안 절벽 성산두를 먼저 보고 적산법화원으로 향한다.

산동반도 동남쪽 맨 아래에 위치한 항구, 신라시대 석도항에서는 북방향로를 건너 한반도로, 황해를 건너 일본으로도 건너갈 수 있었다. 장보고의 '대당매물사' 선박도 이곳을 오고 갔으며, 장보고는 이곳에 법화원을 건립해 재당 신라인을 묶어주는 구심점으로 삼았다.

적산법화원은 재당 신라인들을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찰을 통해 장보고의 무역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신라와 당, 일본을 연결한 국제무역항이자 장보고의 대표적인 근거지였던 것. 중국 영성시와 적산그룹이 만든 '장보고 전기관'도 있어 수많은 한국인과 중



국인들이 장보고 업적을 보고 간다. 해양 진출과 무역으로 동아시아 번영을 이끈 장보고 대사의 이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이 곳에서 다시 한번 시대를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해상 재패에 나선 장보고의 용기와 시대를 앞서 세상을 바라 보는 지혜로운 눈에 찬사를 보낸다.



2016년 8월 10일

또 만나요, 짜이찌엔(再見). (6일차)

6일전에 타고 떠난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인천항.

선내의 TV에서는 리우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이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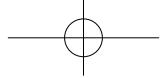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넓은 세상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던 장보고의 피가 젊은 박상영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모양이다.

장보고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침에 만나는 박상영의 금메달 소식은 감회가 다르다.

장보고가 교역했던 중국 도시들을 다니며 그의 행적을 좇아 다닌 5박 6일.

무엇보다 한국의 폭염을 피해 답사기행을 다닌 기간이 고마웠고 다소 불편했지만 중국의 음식문화를 한껏 누리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다닌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3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올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 이 같은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해상무역을 선도한 장보고 대사의 위대



한 업적을 볼 수 있었다.

천 년 전 장보고의 활약상을 보며 바다의 중요성과 조선과 항만 등 해양산업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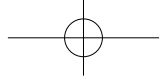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의 후예로써 앞으로도 해양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K-pop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청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 본다.

바다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천 년 전의 글로벌 CEO, 해상왕 장보고. 답사를 통해 그의 해양개척정신을 느끼면서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 줄까 목하 고민 중이다.

바다에서 꿈을 찾고 바다에서 위로 받으며 바다를 자신의 무대로 삼아 활약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려 보는 즐거운 상상과 함께.

## 출처

- [1] 한창수, 『천년전의 글로벌 CEO, 해상왕 장보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 [2] 로런스 버그린, 『세상의 끝을 넘어서』, 서울: 해나무, 2006
- [3] 최형태·김웅서, 『해양과 인간』, 서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2
- [4] 계은진, “황금시대, 세계무역의 중심지가 된 암스테르담.” 『OCEAN』 제4권, 2016
- [5] 『Enjoy 중국』, 서울: 넥서스북스, 2016
- [6] 다음카페: [cafe.daum.net/heukeung](http://cafe.daum.net/heukeung)
- [7] [moonyb01.blog.me](http://moonyb01.blog.me) 화분과 화병 그리고 나전칠기의 “오아시스”
- [8] [blog.naver.com/koreamof](http://blog.naver.com/koreamof)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그 외 다수의 블로그.



# 바닷길을 밝혀 역사를 펼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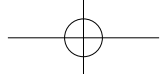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지세포중학교\_이영지(가작)



## 1. 여는 말

인천행 버스표를 끊으면서 장보고답사 기행의 길에 들어섰다. 공문에 늘 꼬리표로 붙어 있던 사회역사과에 관한 특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반기대도 못했는데 가게 되어 좋았다. 지원 동기에도 말했지만 장보고의 행적을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은 역사의 발자국을 처음 만드는 자의 외로움과 의지이다. 버스에서 장보고 다큐를 보면서 십여 년 전 드라마 '장보고'가 한창이던 여름날 완도 청해진 세트장에서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번 답사는 장보고를 황해와 접한 중국과 신라를 잇는 상인이 아니라 넓고 거대한 세계를 무대로 무역을 주도한 인물로 느끼게 해주었다. 장보고가 신라인으로 세상을 살아간 인물이 아니라 세상 중심에서 나라를 경계 짓지 않고 삶



의 터전을 바라보았던 인물로 생각되는 것이다. 신라인의 비참한 삶을 보며 그들을 구제하고자 한 마음은 신라인으로서 신라인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겠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자애로운 마음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장보고는 엔닌이라는 일본 승려도 품고, 신라인으로 함께 중국 당나라에 와서 무령군 대장이 되었던 정년이라는 인물도 품었다. 그는 장보고를 배신하였지만 대업을 맡기며 품어줌으로써 편협하지 않았고, 엔닌과 같은 일본인과도 가까이 교류하면서 국수적이지도 않았으며,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마음을 둔 인물도 아니어서 세상을 아둔하게 품지도 않았다. 그가 얼마나 큰 인물로 살아갔는지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는지 더듬어 가는 일이 이번 답사의 길이 될 것이다. 그 위에 우리 고대사의 흔적을 행운처럼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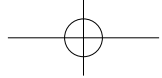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2. 산동성, 장보고의 발자취를 디디며

### 1) 7월 29일 첫째 날

- 버스를 타고 큰 배를 타고

인천터미널에서 내려 국제선 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만난 광양선 생님과 함께 인천항으로 향했다. 인천항에서 외국을 나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설레었다. 국제인천항 앞 입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한 사람이 중국어를 하며 다가왔다. 파룬궁 수련자들이었다. 중국정부가 그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탄압 증거 사진들을 붙여 놓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핍박을 호소하였지만 한국인들은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파룬궁과 같은 종교에 대한 일률적 탄압을 보며 중국이 공산국가임을 알게 된 정도에 그칠 뿐이었다. 무관심에 미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 주위를 둘러볼 밖에…….

인천항에는 눈짐작으로 7할 이상이 중국인 승객들로 보였다. 박스에 테이프를 두른 중국인들의 짐에 유난히 밥솥이 많이 눈에 띈다. 시끌벅적한 대합실에 섞인 중국인과 한국인은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목소리 크기는 확연히 다른 것



을 느낄 수가 있었다. 중국 사람들이 별나게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마 중국어의 사성이 뜻의 차이를 만들다 보니 크고 강하게 발음해야 하고, 그레야 어휘의 변별성을 지니게 되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하고 이해하였다. 여행이란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섞여 공감하고 느끼며 깨달아야 하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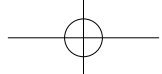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오랜 기다림 끝에 승선시간이 되었다. 배는 비행기처럼 야박하지 않아서 출발시간도 느긋하였다. 높고 큰 배를 타느라 높다란 승선계단을 올랐다. 화동 페리호는 오랜 시간 바닷길을 다닌 늙은 배의 나이가 느껴졌다. 침대칸 객실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는 처음이었다. 4인 침대칸에 함께 배정을 받은 선생님들과 금세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지원동기를 물었다. 유쾌한 말들로 시종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해운대 초등 선생님, 진지하고 배려가 깊은 포항의 지리 선생님, 진로로 전과한 전 영어선생님이 한 방에 배정되었다. 한 시간도 넘게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배는 떠나지 않았다. 배 안에서 저녁을 먹을 무렵 배가 울렁거리며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거대한 배가 속도를 얼마나 낼까 싶었지만 황해를 건너는 배는 물살을 거칠게 가르고 있었다. 배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한국을 떠나자 뿌연 안개에 싸여 배 끝을 알리는 빨간 칠을 한 외등만 선명하게 보였다. 고미 부분의 갑판에 오르자 안개 속에 오직 배 한 척만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선생님들이 갑판 꼭대기에 올라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장보고 답사에 지원하여 함께 가는 것만으로 서로 통하고 있다는 마음이었다. 고미 가장자리 굴뚝에서는 연기가 조용조용 솟아올랐다. 연



[중국행 화동페리호 이층침대방 - 4인실]



[중국행 페리호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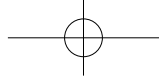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기는 일제 강점기 중국으로 밀항하던 독립지사들의 항해를 생각나게 했다. 이 육사의 ‘노정기’를 생각하며 마치 역사의 한 장면에 내가 속한 것처럼 감개가 무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저녁을 먹는다는 기쁨에 바로 식당을 향했다.

저녁을 먹은 뒤 권덕용 교수님의 저녁 세미나를 들었다. 아침부터 멀리서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오느라 지친 우리는 열강을 듣는 와중에 소리 없는 졸음의 공격에 스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강의 내용 중 나는 우리나라의 고대사 기록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 한 번 느꼈다. 고구려 역사서 ‘유기100권’과 ‘신집5권’, 백제의 ‘서기’와 같은 역사서가 지금까지 전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새로운 역사와 인물을 지니게 되었을까 하며 안타까워 해본다.

기록에 관해 처음 알게 된 사람은 장보고를 오늘날에 이르도록 기록으로 남겨준 연력사의 스님인 ‘엔닌’과 ‘라이샤워’였다. 그의 책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장보고를 기록해주었다는 사실에 그간 우호와 수용보다는 갈등과 미움이 많았던 일본인에 대한 마음이 저으기 누그러졌다. 또한 일본사를 연구했던 미국선교사 ‘라이샤워’가 엔닌을 소개하면서 앞의 책에서 찾은 최고의 해상무역인, 해상상업제국의 영웅으로 장보고를 소개했는데, 그는 한글과 한자의 로마자 표기법을 체계화하여 ‘매륵-라이샤워 표기법’으로 한국어 문서를 작성했다니 국어교사로서 고마운 일이었다.

강의를 들으니 우리 문화의 세계화 ‘한류’가 오늘날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 해상무역의 한류, 도자기의 한류, 신라 금관의 한류 등 이미 통일신라와 발해 시대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었던 일이었다. 강의를 듣고 나오자 배는 밤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밤이지만 까만 밤이 아니라 흐릿한 안개 속의 뿌연 밤이었다. 304호 객실로 돌아와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포항은 덤지 않느냐, 양양에서 주문진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느냐, 부산해운대 고층 아파트는 지진이 나면 어찌느냐, 지세포 바닷가는 얼마나 후진 곳이냐 하면서 이야기 하던 중 넷 모두 바닷가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는 ‘이것 때문에 장보고 답사팀에 선정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한국해양재단에 고마움을 전한다. 이층 침대에 누워 과거 선조들은 흔들거리는



배를 타고 어떻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었을까 궁리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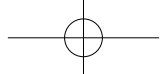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2) 7월 30일 둘째 날

- 도교의 도시 봉래(등주수성과 봉래각, 해변)

여행의 꽃 아침밥을 먹고 난 뒤, 늦은 새벽에 나가본 갑판 위는 여전히 안개에 싸여 배 바로 밑의 바다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침입해오는 적들처럼 안개가 포위하고 있다고나 할까. 밤새도록 뱃길을 달렸지만 갑판 위에 올라 봐도 땅이 보이지 않았다. 이미 스마트폰은 통신이 끊겨 있었고, 문자만 받아 볼 수 있었다. 시간은 중국과 한국 시간 두 가지가 동시에 떴다. 중국은 한국시간에 비해 한 시간 늦다. 9시에 도착 예정이었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배를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접안이 되지 않아 내내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미 로비에는 중국 사람들이 사온 짐들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다. 긴 기다림 끝에 석도항에 내렸을 때는 이미 점심때가 되었다. 일정에 잡힌 성산두는 마지막 날의 일정으로 돌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위해서 적산대주점으로 이동했다. 석도항에서 '위해'로 가는 길은 잘 가꾸어진 바닷가 공원길이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오년 전의 황산여행에서 달렸던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와 달라진 이 길을 달리고 있다.

- 신들이 반한 풍경 삼국 외교의 중심, 등주수성과 봉래각

위해에서 점심을 먹고 부지런히 달려 연태 시 봉래에 도착하였더니 여섯 시가 가까웠다. 봉래로 오는 길에서 바라본 들에는 내내 사과밭과 옥수수 밭이었다. 입장시간에 쫓기어 겨우 입장하였고 유적지 관리인들이 우리를 따라 다니며 빨리 보도록 독려하는 바람에 마음이 바빴다. 등주는 봉래의 옛 이름으로 한무제가 신선은 보지 못하고 이름만 신선의 고향인 봉래로 삼았다고 하였다. 신선이 되어 죽지 않고 영원한 제국을 거느리고 싶은 한무제는 7차례나 이곳을 찾아 신선이 되기를 갈망하고 불로초를 구했단다. 봉래각으로 오는 길의 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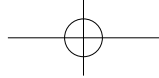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육장 입구에 본 팔선취주(八仙醉酒) 조각상이 봉래각 안에도 모셔져 있다. 봉래각은 도교 사원으로 불교사찰처럼 정전이 없었다. 봉래각을 둘러싼 등주수성 안에 미타사, 용궁각, 천후각, 삼청전, 여조전 이런 건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봉래각 누각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봉래각 안에 술을 자시고 흥청망청 자유분방하게 모여 계신 여덟 명의 신선을 보았을 뿐이다. 근엄하고 거대한 부처상이나 위패가 모셔진 사원과 다른 인간미 넘치는 여덟 명의 조각상은 귀엽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봉래라는 이름은 물론, 삼청각의 '삼청'은 도교의 최고신 신선 옥청, 상청, 태청을 말한다. 용궁 역시 도교의 용왕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미타사를 빼고 나면 도교의 전각들로 가득한 곳이다. 왜구나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성을 쌓았지만 바다를 향한 비경이 신선들이 살만한 곳이라 여겼을 법한 곳이다.

등주수성과 봉래각은 별 다섯 개의 최고 유적 등급지였다. 발해만의 바다를 향한 중국 동쪽 끝바다 도시로 우리나라와 일본인들이 드나들기 적합한 곳으로 보인다. 이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지고 있다고 한다. 장보고 시대 신라 시대에도 청주와 이곳에서 신라소를 형성하고 신라방을 두어 무역과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았다고 하니 우리와 살가운 곳이겠다.

등주 앞 바다는 발해만이다. 지명까지 발해만으로 삼고 발해를 중국은 자기들의 역사로 끌어넣으려 애를 쓰지만 등주는 발해 무제 때 장문휴가 이곳을 거점으로 산동성을 대파하여 초토화시킨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무제의 아우이자 발해의 배신자로 당나라 제상이 된 대문예를 당나라 대장으로 내세워 공격에 대응하였으나 크게 패하여 한동안 발해가 산동성을 점령하기도 했던 역사를 지닌 국제적 관문인 셈이다. 이곳 등주항은 청일전쟁 때 중국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일본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이곳으로 건너왔을 것이다. 일본, 우리나라, 중국의 출입의 입구가 되었던 이곳은 외적의 침입도 잦지만 해양도시로 성장할 동력 또한 큰 도시라고 여겨진다.

긴 모래사장이 이어진 봉래해변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온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차를 보니 생활수준이 높아진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등주수성을 나오면서 가이드가 나누워 준 입장권 가격을 살펴보았다. 140위안이었다. 환율



로 23,000원 정도이다. 매우 비싸다. 관람을 마치고 매표소 입구에 서서 어둑해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이유진교수의 설명을 듣는 답사단들의 얼굴이 매우 진지하다.

등주수성 부근의 ‘천천어항 반점’에서 밥을 먹고 나왔을 때는 어둑어둑했다. 지금부터 세 시간을 달려가야 숙소 유방에 닿는다. 밤을 새워 달려갔을 때 시간은 열한 시를 훌쩍 넘겼다.



[등주수성 안 봉래각에서 본 바다풍경]



[등주수성 오르는 길]



[봉래각 쪽문들 - 도교적 이상향을 그린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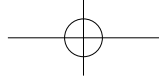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등주수성 가는 해변가의 팔선취주]

### 3) 7월 31일 셋째 날

- 유방, 치박의 고차박물관, 태안과 제남시의 ‘태산’

호텔뷔페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삼시 세끼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먹는 경우는 여행할 때뿐임을 깨달았다. 중국은 아직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는 듯했다.



고차박물관을 향해 치박시로 가는 길의 가로등에 나비문양이 많아서 알아보니 유방은 연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라고 나온다.

- 제후들의 자존심 마차의 행렬, 제나라 수도 치박의 고차박물관

유방 시에서 한 시간 정도 달려가면 치박 시 길가에 고차박물관이 있다. 길 이편에 입구가 있는데 길 아래 지하통로에 순마갱이 전시되어 있고 길 저편에 고차박물관 건물이 서 있다. 낮설고 영성한 곳에 주차하여 어색했지만 전시된 내용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유리관도 없이 순마와 마차 갱을 전시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모조전시로 알았다. 그런데 제남에서 청도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발견된 유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발굴된 그 장소에 박물관을 세우고 있는 그대로 전시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고속도로가 위로 지나가



[고차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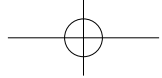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도연명 시비 음주 5수]



[(생)나라의 마차]



[제나라 재후의 마차 10량 - 말 40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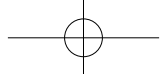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는 지하에 박물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춘추전국시대에 가장 강성하고 부유했던 제나라 사람들의 국력과 재력을 발견한 현장이었다. 무덤에는 순장 말이 32필에 마차 10량이라니 2500여 년 전에 이런 정도의 재력은 얼마만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수레바퀴를 가장자리를 쇠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테두리를 한 것도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 마차가 돌이라 마차와 순마갱이 모형인 줄로 착각했다. 오랜 시간 동안 화석화된 마차는 돌처럼 보였다. 안양의 은허지역 갑골문이 우연히 발견 되고, 진시황릉의 병마 용갱이 나타나는가 하면, 순마갱이 우연히 발견된 일련의 역사가 아직도 땅 속에 남아 우연한 등장 of 시간을 맞이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밟고 선 땅조차 신비롭기 그지없었다.

위층에 전시된 마차들은 시대별 마차들의 모형들로 상(은)나라에서부터 비롯되어 각 시대마다 마차의 바퀴에 지렛대가 촘촘하기도 하고 바퀴 가장자리가 넓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 마차도 있고, 코끼리 차도 있으며, 우차, 기린차 등 다양한 동물들도 이동의 동력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전시된 수레 중 가장 고대의 상나라 것이 어느 시대와 비겨도 빠지지 않는 정교한 모습이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편‘전단열전’에서 제나라의 친족인 전단은 연나라와 제나라가 싸워 제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용감히 싸워 거와 즉묵(청도에 속한 도시로 과거 제나라 땅)을 지켜냈는데 그 때 수레바퀴 가장자리에 쇠를 덧씌워 부서지지 않게 하여 지켜냈다는 기록이 있다. 마침 전시된 마차 중에 가장자리를 쇠로 동글게 테를 두른 것이 있었다. 고대인에게 마차는 요즘 갑부들이 타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의 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재력을 상징할 것이다. 고차박물관 앞 화단에 ‘도연명’의 ‘음주20수 중 제5수’가 돌에 새겨져 있었다.

### - 봉선 제례와 도교의 산, 태안시 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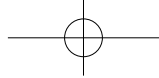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치박을 떠나 다시 여정은 태안으로 향했다. 태안에 있는 태산을 찾아가는 길이다. 가는 길에 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차번호 앞에 노(魯)를 붙인 차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이드 말씀이 산동성 표시 기호라고 한다. 버스에서 바라본 고속도로 옆 들에는 수수밭과 미루나무 숲이 열을 지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집들은



모두 주황색 기와벽돌을 올려 맞배지붕으로 지었는데 예외 없이 똑같았다. 표지판에는 제남시 덕주가 눈에 띄었다. 춘추전국시대에 노나라와 제나라의 땅이 어서인지 ‘노(魯)’로 산동성을 대표하는 글자를 삼았다. 한참 바깥구경을 하며 가는 길에 또 표지판을 보았는데 우편으로 ‘곡부’라고 새겨져 있다. 산동성에 간다고 할 때 제일 처음 떠오른 도시가 그곳이었다. 아쉽지만 공자의 고향은 뒤에 보아야 할 것 같다. 태산은 오악(동산 태산, 서산 화산, 남산 형산, 북산 향산, 중앙 승산)의 하나이지만 가장 대표되는 산으로 우리나라 고전에 많이 등장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찬송가에도 등장하는 산 이름이다. 태산은 태산 산맥(泰山山脈)의 주봉으로 태산과 함께 동악(東岳, 秦代), 태중산(泰中山), 태악(泰岳) 등으로 불리다가 중국공산당에 의해 옥황산(玉皇山)으로 명칭이 개명됐다. 지금은 정상(頂)을 옥황정(玉皇頂)으로 부르고 있다. 예로부터 중국 국민의 숭배 및 신앙의 대상으로 역대 왕조의 국가적 행사 가운데 가장 장엄한 의식인 봉선(封禪, 왕조의 번영을 하늘과 땅에 고하는 의식)이 행해졌으며 지금도 추수 감사제, 홍수, 지진 때 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태산은도가(道家)와 결합된 광범위한 민간 신앙의 본산으로 양(陽) 원리의 중심지로 여겨진다는 산신 신앙은 도교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정상의 봉우리 이름들은 대부분 도교의 명칭들이다. 태산 역시 옥황봉으로 도교의 최고 신직인 옥황상제 봉우리인 것이다. 우리의 지리산도 과거 방장산으로 불려졌으며, 그 꼭대기 봉우리를 천황봉으로 부른다. 이들 용어들은 모두 도교의 말들이다.

한 편 도교의 기원이 중국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 땅으로 건너온 것으로 의심 없이 믿고 있지만 도교를 연구하면 기원은 발해만과 우리나라에서 비롯되어 중국 산동성을 거쳐 중국 본토로 이동한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한국의 도교는 중국의 노자의 도덕경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최치원이 쓴 ‘난방비서’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도교는 화랑의 ‘풍류도’에 특징이 드러난다.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섬기고 혼례의 의식은 모두 도교적 절차에 따른다. 도교가 우리 민족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힐 실마리를 찾고 싶었던 바람으로 봉선과 도교의 산인 태산에 많은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넓은 태산의 갈래 길 중 우리는 천가(天街) 입구를 향하고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



라가 한 시간 남짓 주어진 시간에 산을 오르고 내려왔으니 그 원을 이루기에는 무리였다.

태산을 오르기 위해 태산 전용 버스를 갈아탔다. 버스 운전수는 꼬불꼬불한 길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몸이 내내 이리저리 쏠렸다. 계곡의 물놀이는 꼭 한국같다. 태산 삭도(索道)에서 내리니 잘 정비된 산길은 정상에 오를 때까지 흙을 밟지 않아도 되는 돌길이었다. 중국 온 뒤 태산에서 처음 푸른 하늘을 본 것 같다. 입구에는 여느 곳처럼 가게들이 늘어서서 특산품을 팔고 있었다. 5년 전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물가가 꽤 올랐다는 생각이 든다.

천가 입구를 들어서자 바로 글씨 조각들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유산 건설동약 태산”이라 쓴 글이 붉은 글씨로 시작된다. 산 상부에 공자묘(孔子廟) 사당이 보였다. 올라가보지도 못하고 시간에 달려 멀리서 보고 지나치니 아쉬움이 컸다. 더 올라가 돌무더기 벽이 있는 광장에 이르자 온갖 글씨들이 거대한 벽



[천문을 올라 바라본 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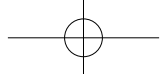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태산을 오르는 문 중 하나인 천문]



[태산 정상에 새겨진 공자의 말씀  
- 태산에서 보니 천하가 작다]



[태산 정상에 세워진 육일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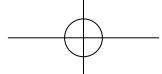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붉은 글씨 도 있고, 푸른 글씨도 있다. 길고 화려한 황금색 글씨로 장문을 새겨놓은 사람은 당나라 고종이었다. ‘나라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건강하라’는 기원과 같이 다 안녕과 국가의 부흥을 비는 글들이 많았다. 꼭대기에 가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는 ‘태산에서 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는 글도 보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곳에 ‘육일빈관’이라 써 붙인 여관이 있다. 지리산 천황봉에 턱하니 큰 모텔이 하나 있는 셈이다. 진시황, 명나라 주원장, 청나라 누루하치도 제를 올렸을 뿐 아니라 『관자』에는 황제 72인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전하는 이곳에 용마루가 없는 민기와지붕 여관을 보니 무엇인가 중국다웠다.

많은 시간들이 먹고 자고 이동하는 일들로 채워졌다. 중국 같은 넓은 나라는 특히나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 길다. 그렇지만 먹으러 가는 길은 언제나 기대된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다시 제나라의 수도로 향했다. 치박을 향해가는 차 안에서 울릉도에서 온 선생님이 봉화의 정다운 사투리로 “치박이 와 치박인 줄 아니꺼?”라고 물었다. 해운대 선생님이 답하기를 “치고 박고한다고 치박이니꺼?” 했다. 귀여운 아재개그로 말문을 튼 뒤 그 길로 세 시간 남짓 타고 가는 버스 안은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다. ‘치박만호호텔’ 로비에 들어섰더니 역시 여기도 배추옥 조각상이 있다.

#### 4) 8월 1일 넷째 날

- 치박의 강태공사당, 임치의 순마갱, 청주박물관

7시30분에 치박만호 호텔에서 출발했는데 강태공사당까지는 몇 분 걸리지 않았다. 월요일에다 출근시간이라 거리에 길을 다니는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편이었다. 주말에 비하면 거리는 번화하고 활기에 차 있었다. 중국에 올 때마다 간체자 공부를 틈실히 해서 글자를 척척 읽어내려고 했건만 간판을 볼 때마다 의아하게 생긴 한자를 붙들고 씨름을 한다. 흐린 날씨는 기어이 우리가 내릴 시간이 되자 비를 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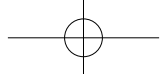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낙시대 드리우고 사람을 낚았다는 동이족의 조상 묘(廟), 강태공 사당**

강태공 사당은 도시 길 거리에 있었다. 바로 사당이어서 편안하게 살필 수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얼른 사진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니 이유진 교수님의 설명이 있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함께 다니며 군데군데 전시된 사람들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다. 현장을 보니 그렇게 하다가는 한국에 돌아가기 어려울 듯하긴 했지만 말이다.

제나라의 수도이고 제나라를 건국한 사람의 사당이므로 춘추전국시대의 시대상과 인물들을 알지 않고는 사당에 함께 모여진 이들의 면면을 뜻 있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우선 강태공은 은나라 사람으로 태어나 당시 은나라 주왕의 폭정과 억압으로 나라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나라를 구상하며 위수에서 낙시를 드리우고 있던 중에 서백(주문왕)을 만났다. 문왕이 그를 받들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바로 주(周)나라 이다. 강태공의 본명은 강상이며 벼슬을 높여 태공망으로 서백이 하사한 이름이 지금에 전한다. 은을 물리치는 공을 세우고 병법서를 저술하는 등 나라를 세울 기반을 치밀하게 세워 새나라를 일으킨 인물이다. 나는 처음에는 그가 그저 낙시나 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산 인물로 정치적 뜻이 없는 청빈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치밀한 정치적 인물이었다. 병법서 『육도삼략』를 저술하여 손자병법서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문왕으로부터 제나라 땅을 하사받아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줌으로써 환공에 이르러 가장 강력한 제후국가를 만들게 한 인물이다. 여기서 내게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가 동이지사(東夷之土)의 기인으로 기록된 점이다. 동이족이라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겠는가. 본래 은나라의 기자가 조선으로 건너가 세운나라 기자조선이 있었으니 역사적으로 긴밀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주나라를 세우고 문무왕의 스승으로 제나라 땅을 봉토로 받은 강태공은 제나라 태공이 되어 정공, 환공(강소백)에 이르게 된다. 환공 조에 가장 번성하여 800년을 이어갔다고 하니 강태공이 세운 역사가 깊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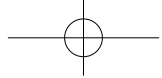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강태공의 사당 안에는 제나라 역사의 명대신들의 신상이 모여져 있다. 강태



공 밑으로 제정공, 제환공, 구목공(강태공의 셋째아들로 세계의 구씨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함), 관중, 손빈, 전양저, 손무, 전단 등 여러 제나라의 위인들이 있었다. 제나라 강태공으로부터 비롯된 성이 50개도 넘는다고 하니 과히 성씨의 조상이라 하겠다. 새로운 사실은 성씨가 산동성의 강태공에서 비롯된 점, 그가 동이족이었다는 점 등이다. 우리나라의 비조성이 신라 시대에 박, 석, 김 삼성이 있고, 고구려 고씨가 있었음에도 강태공에서 비롯된 성씨를 썼던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성씨로 받아들일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또한 사당의 벽면에는 당시 강태공 시절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들이 이어진다. 그 속에 삼족오 깃발이 보인다. 산동성 일대가 동이족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니 강태공도 동이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는 좀 더 굵어졌다. 사당을 나서면 동이족의 시조 묘를 다녀가는 기분으로 그곳을 돌아 나왔다.

#### - 권력의 상징 순마갱의 나라 제, 임치동주 순마갱

강태공사당에서 버스를 타고 '심쿵'이라는 유행어가 어울렸던 곳, 임치의 '순마갱'으로 이동했다. 임치의 거리는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해졌다. 순마갱을 찾아가는 길은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수수밭이 펼쳐진 들을 따라 정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길 건너에는 마을 사람처럼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양철지붕 아래서 발굴이 한창이었다. 흰 테두리를 쳐 둔 곳을 따라 삽으로 흙을 파내고 붓으로는 훑어내고 있었다. 간간이 뿌리는 빗발을 받으며 아직 정비도 되지 않은 수수밭 옆길로 걸어 들어가니 건물 앞 상판에 '임치동주묘순마갱 1983년'이라 적혀 있다. 순마갱 관광 안내 건물은 다시 열려져 있었다. 이미 130여 마리의 순마갱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순마의 유골을 보았을 때는 서너 명의 발굴단들이 붓으로 또 작은 삽으로 흙을 파내고 약품도 바르고 있었다. 발굴 장면을 그대로 관람하게 된 것이다. 본 발굴현장의 말들은 대략 7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헤아려졌다. 제나라 경공의 부장 순마로 알려졌지만 현장에는 어떤 기록이나 설명도 없



었다.

제경공의 신하였던 안영(이름은 안평중)이 함께 전시된 신상이 있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다. 안영은 영공, 장공, 경공을 섬긴 제상으로 검소하고 겸손하여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이 『사기열전』의 ‘관안열전’에서 안영의 마부 아내조차 그의 인격을 사모하여 마부인 남편에게 안영을 본받으라고 하여 재상을 만든 기록을 올려두었다. 끝에 사마천이 말하기를 안자를 위해서 마부라도 되어 채찍을 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다고 하여 그의 인격을 높이 칭송했다. 그런 안영이 모셨던 제경공의 무덤이라고 하니 근검과 절약, 겸손을 실천하던 신하에 600필의 순마갱을 만든 제후의 만남이 어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당시 마차를 가진 능력에 따라 천승지왕, 만승지황이라고 했던 것인데, 경공이 천승의 마차를 거느렸다면 한 대당 100명의 병사가 관리하고 한 대에는 4마



[제나라 건국주 강태공 사당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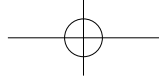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태극 무늬와 용을 새긴 삼정 술 항로]



[제나라 수도 임치현의 순마갱 발굴현장]



[임치현동주순마갱 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순마갱지]



리의 말이 끝었다면 4,000마리의 말과 십만 명의 병졸을 거느렸다는 계산을 해 본다. 그 중 600마리 가량을 순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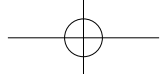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순마갱을 떠날 때도 비는 계속 내렸다. 30분 남짓 살펴보고 서둘러 나왔다. 순마갱 안에서 권 교수님이 우연의 발견에 대한 중국 유적물을 소개해주셨다. 단지 우리는 산동성 그 중에서 몇몇 도시만 살펴보는 것도 술한 역사와 유적들을 걸핍듯 바쁘게 보아야 하는데 거대한 중국 땅 전체를 어느 세월에도 다 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 이정기와 신라방의 흔적을 찾아서, 유방시 청주 청주박물관

청주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비가 제법 굵게 내렸다. 권 교수님이 예전에 청주를 처음 왔을 때는 거지들이 사는 동네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환골탈태를 해서 아주 발전했다고 전한다. 내가 받은 청주에 대한 인상은 깨끗하고 소담스러웠다. 옛날에는 9주에 들만큼 융성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많이 쇠락해버렸다고 덧붙이신다. 내가 사는 진주라는 도시도 그런 도시인지라 잔정이 간다. 이정기와 모덕용, 치우천황의 형상이 조각된 청동도끼날(버클리 에브리의 『케임브리지 중국사』에서 이 도구의 용도를 순장자 처형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등을 보면서 또 다시 동이족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청주의 땅은 위해시와 더불어 신라인들이 신라방을 형성하여 살았던 흔적이 많은 곳이다. 고구려인으로 당나라 땅에 와서 평로치청절도사가 된 이정기가 이 지역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대단한 일이거나 자긍심을 가질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발해인과 고구려인과 연합하여 당나라에 대항했다는 사실이다. 이정기가 당나라의 관리로 자신을 복속시키고 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런 고구려인의 기세와 기반이 있었던 탓에 장보고도 당나라에서 기반을 잡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인과 연합한 당나라에 장보고가 무령군 대장으로 삼아 이정기의 난에 참전했다고는 하나 정확한 것이라 믿기 어렵다.

위 유적 중 치우천황의 형상을 한 청동도끼날에 또 한 번 주목하였다. 태산이



[청주박물관 내부]

[우리나라 귀면화의 주인공 치우천황이 새겨진 청동 도끼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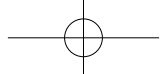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동이족의 도교 성지였는데 진시황이 산을 빼앗아 자신의 사당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치우천황은 역사의 기록에 정확한 국적이 없지만 현원씨를 나타낸 형상으로 환웅천황을 말한다고도 한다. 치우천황의 형상은 중국보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귀면와로 건물마다 발견되고 있어 우리 역사의 인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리고 모택용 역시 선비족이다.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하고 여러 부족들이 함께 세운 발해의 한 부족이 선비족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에 산동성은 당나라 영토였지만 다양한 민족들의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후는 다섯 시간을 달려 최인호의 '해신 장보고' 역사스페셜 5부작을 보면서 석도항 부근 적산대주점을 향해 가야한다.

### - 고인이 된 최인호의 역사기행 '다큐로망 - 해신 장보고' 영상을 보며

서너 해 전 작고하신 최인호 작가의 얼굴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이 그를 기억하게 하고 또 이런 영상들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에 걸쳐 완성된 5부작 다큐멘터리 '다큐 로망 - 해신 장보고'였다. 원래 기행 첫날 들어야했지만 우리 차에 달린 비디오가 고장 나는 바람에 2조 차량과 바꾸어 보게 되면서 귀국이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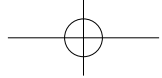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영상의 실마리는 일본 전국시대 다케다 신겐 가문의 영웅 수호신이 장보고라



는 가설에서 비롯된다. 일본 고후 지방에서 열리는 다케다 신겐 마츠리를 보면  
 서 그들의 영웅 장보고를 추적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일본의 근세사에 만  
 난 영웅 하면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쿠카와 이에야스’를 든  
 다. 그들의 성격은 새가 울지 않으면 죽이는 인물, 새가 울지 않으면 울도록 하  
 는 인물,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는 인물로 표현한다. 그러나 다케  
 다 신겐은 ‘새가 울든 울지 않든 사랑한 인물’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말에 나도  
 그가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왔다. 그런 인물을 기리는 일본 축제를 여름휴  
 가에서 만난 최인호는 겐조 가문의 휘장의 태양신이 누구인지 신라사부로가 누  
 구인지 추적하기 위해 석탑사를 찾는다. 신라사부로는 또한 신라명신 상에서  
 그 성을 이어받았다고 하니 그 신라명신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  
 다. 그 과정에 나타난 사람이 엔닌이었고 그가 신라명신이라 부른 인물이라면  
 그가 바로 장보고가 아닌가라는 미끼에 걸려 최인호는 30만km의 대장정을 나  
 서게 된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추리소설처럼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바람에 이  
 어진 꼬리를 잘 잡아야했다.

그렇게 시작된 기행에서 두 번째 꼬리는 라이샤워였다. 2부는 전당사로 중국  
 에 파견된 엔닌의 여정을 추적하는 내용이였다. 하카다를 출발하여 양주로 향  
 하는 뱃길에 신라인 두 명이 있었는데 김정남과 도현스님이였다. 그가 타고간  
 배도 후쿠오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는  
 양주에서 초주로 이동하여 그곳 속성촌의 신라방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간  
 흔적이 있다. 그곳도 이미 장보고가 개척하여 신라타운이 형성된 지역으로 소  
 금을 채취하여 운하로 이동하여 장사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도 그  
 곳에서 생산한 소금이 우리나라에 김장소금으로 팔린다는 것이다. 다큐의 여정  
 은 다시 일본을 향한다. 적산선원에서 ‘적산대명신’상을 보게 되고 그 상에 붉은  
 옷에 화살을 들고 깃발 가운데 보(보배)자가 있음을 봤다. 바로 장보고의 보자  
 아닌가. 그의 이름 궁과는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을 뜻하니 맞아 떨어진다.

다시 다큐는 장보고가 중국 내에서 운하변의 신라인들의 거주지를 통해 당나  
 라 수도까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살피고 있었다. 장보고가 실어  
 나른 무역품인 도자기와 유황 등이 중국 절강성, 섬서성, 산둥성, 청해성을 넘



어 인도, 아라비아, 터키, 이집트까지 이동하면서 최인호의 여정은 실로 장대해지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다큐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여정과 내용들이었다.

그럭저럭 우리의 목적지인 위해시에 가까워진 것 같다. 오는 길에 청도의 '즉묵' 휴게소를 쉬어 왔는데 이곳은 제나라 때 환공이 수레를 수리하여 갔던 곳이라는 내용이 떠오른다. 적산대주점에 돌아와 우리는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누었다. 한국해양재단 이사장님도 마침 일이 있어 이곳에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다. 해물과 온갖 음식이 가득한 뷔페식 샤브샤브를 먹고 칭다오맥주를 마음껏 마셨으니 여행의 절정이라 할 것이다. 내일은 떠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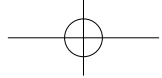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5) 8월 2일 다섯째 날

- 위해시 영성 적산법화원, 성산두

오늘의 기행지는 적산법화원과 성산두이다. 먼저 성산두로 가는 길에 생리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길가 주유소 화장실을 다녀온 두 선생님의 얼굴이 사색이었다. 구더기가 바글거려 오줌마저 내려가기 싫어하여 혼났다는 것이다. 좋은 경험으로 농치고 버스는 달려서 한 시간 남짓 걸려 영성 성산두에 닿았다.

#### - 동방의 불로초를 찾아서 육지의 끝에 서다, 영성 성산두

영성 시 성산두에 내리자 바다 끝에 회랑이 긴 정자가 서 있다. 중국의 지붕은 처마와 추녀 끝이 날렵하게 하늘을 향해 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어서 더위를 날려버렸다. 이곳은 동쪽의 끝이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한다. 바다 끝으로 나가는 광장에 바다를 치고 나갈 것처럼 말을 모는 마부와 신하, 마차를 탄 진시황 조각상이 서 있다. 동쪽 끝, 해가 뜨는 곳이니 만큼 이곳을 성스럽게 여기며 숭배지로 여긴 흔적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 신앙으로 받드는 삼족오 상도 있다고 한다. 태양의 신인 삼족오는 태양을 숭배하는 부족들이 다 숭배하므로 고구려의 신으로만 여길 수 없다고 교수님이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곳까지 고구려 유민들과 발해인들이 내려와 터를 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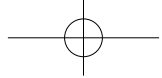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살면서 숭배했던 흔적으로 보고 싶었다. 좋은 운이 가득하길 비는 호운각 저편, 나아갈 수 없는 바다 암석 끝 자연석에 천진두(天盡頭)라고 새겨져 있다. 뒤에 안 사실이지만 그 바위에 새겨진 글이 여러 번 바뀌었다. 호운각으로 새겨 놓은 적도 있고, 성산두라고 새긴 적도 있었다. 시계를 보며 여기 천진두 앞에 서서 저기 멀리 태양신을, 진시황이 서복과 이사를 옆에 데리고 먼 곳을 향해 손짓을 하는 조각상을, 차안에서 들었던 간신상들과 위인상, 호운궁, 한중 우호 기념비 그리고 바닷길로 이어진 산책로들을 그저 바라만 보다 그곳을 떠나야 했다. 진시황이 보낸 서복의 발자취는 거제해금강, 남해상주, 제주도 서귀포 등 우리나라에도 흔한 전설로 남아 있다.

#### - 중국을 통일한, 불로장생을 추구한 진시황, 진시황 사당

성산두를 떠나 10분쯤 가니 진시황 사당이 나타난다. 올라가는 입구에 선 호위무사상의 불과 어깨가 사람들의 손길에 닳아 까맣고 반질반질하여 그 모습에 웃음 짓게 된다. 높지막한 계단을 올라 사당안을 들어서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작은 것에 조금 의아했다. 사당 안 뜰에는 기원을 적은 붉은 천들이 뽁뽁하니 줄에 걸려 있고 향불이 타고 있었다. 진시황 묘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숨은 공간에 모셔져 있는 것이 특이했다. 중앙에 진시황비의 사당이 있었다. 중국은 한 사당 한 인물만 모시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진시황 사당인데도 진시황비, 해신난랑, 청일전쟁의 비애를 안은 대장 등세창 등의 인물들을 모시고 있었다. 고대인과 근세인이 함께 모셔진 점이 이색적이다. 등세창은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청나라 영웅이다. 해군 대장으로 바다에서 죽음을 맞았으니 바닷가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진다.

한편으로 진시황이 이곳까지 왔다니 그 어마어마한 여정이 아찔하다. 진나라가 수도를 삼은 곳이 섬서성의 함양 땅이다. 불로초를 찾아 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 것일까. 물론 고대인들의 삶의 공간은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는 초대 박 코스모폴리탄적이었다는 사실은 장보고나, 혜초가 다닌 여정과 공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다. 오히려 여기서 길이 끊겨 버렸으니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한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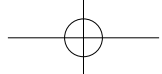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 진시황이 이곳까지 와서 불로초를 구하려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죽고 말았다. 그 때는 지금처럼 한 여름이었다. 조고와 이사는 정치를 농락하기 시작한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 때 진시황의 죽음을 속이기 위해 시체 썩는 냄새를 생선 썩는 냄새로 덮었다고 한다. 마차 뒤에 비린내 가득 나는 생선을 수레에 싣고 함께 왔다고 한다. 자초와 여불위에 얽힌 기만적 승리자의 역사 기록을 들으며 여정을 이어갔다.

#### - 답사의 고지 적산명신 장보고의 역사, 영성 장보고 전기관과 적산법화원

넓은 중국 땅에 짧은 여정으로 많은 볼거리를 소화하려니 내내 종종거리는 느낌이였다. 어느덧 장보고 답사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여행이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아쉬움과 안도감이 엇갈렸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적산법화원이다. 황금과 붉은 색으로 현판을 쓴 일주문 입구를 지나자 잘 정돈된 정원이 나타난다. 처음 당도한 곳은 ‘장보고기념탑’이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글씨를 썼다고 하는 탑으로 1994년 한민족연합회에서 세웠단다.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당나라 무령군으로 있던 시절 신라인들의 기반을 삼고 불교정신을 계승하고자 지은 절이지만 이 절을 재건하기 위해 금전을 댄 나라는 일본인이였다. 신라인 장보고의 유적지를 일본인이 알리고 일으켜 세운 것이 못내 아쉽지만 엔닌 스님의 기록으로 이렇게 장보고대사가 살아날 수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나마 기념탑을 우리가 세웠다니 조금은 면이 선다.

우리는 기념탑 옆 그늘에 들러 앉아 적산법화원에 관한 권교수님이 전하는 역사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여행에서 장보고 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이름이 ‘엔닌’이였다. 승려로 불법을 얻기 위해 838년 일본 하카다 항을 떠나 이곳 산동성 신라방에 머문 것이 우리로서는 더 없이 고마운 행적이였다. 불법 수행을 위해 들렀던 중국 여정에서 적산법화원을 들러 신세를 진 고마움을 기록하면서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인품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전했다. 기록에 “삼가 뵈지도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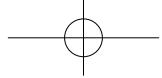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했지만 높으신 인덕과 흠모의 정은 더해만 가고……” 말이 못 뵈고 떠나는 엔닌의 장보고에 대한 존경심이 전해진다. 스님들이 불교 순례를 다닌 예는 신라의 혜초와 의상대사에서도 볼 수 있다. 혜초는 인도 천축국까지 다녀오지 않았는가. 당 무종의 불교 탄압으로 엔닌은 환속을 강요받고 본국으로 퇴출되어 돌아가는 길에 ‘법화원’ 찾았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법화원 건물이 파괴되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도교와의 갈등 속에 사라지고 만 적산법화원은 다시 건립되지 못했다.

우리 답사단은 여기서 다 같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다함께 찍은 사진은 유일한 사진이 될 것이다. 햇살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장보고의 사당으로 가는 길 숲길 옆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기록을 남긴 이런저런 기록들이 돌판에 남아 있었다.

장보고 전기관 앞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연못이 있고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늑한 산원에 계단 위로는 정면 사당이 보이고 바다를 향한 시야로 장보고대사상이 장군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예전엔 깊이도 없이 해상왕 장보고라고 알던 그 말이, 그러나 지금은 사막을 넘고 인도양을 건너고 대륙을 횡단하며 바다를 휘감으며 다가선다. 그러나 장보고가 죽음으로써 바다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조공이나 하며 무역이라 말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발길을 다시 돌려 장보고 사당을 나오니 넓은 화강암 벽면에 적산명신부조상이 족자되어 있었다. 오른쪽에는 세로로 “名神福佑四海”라고 적었고, 왼쪽에는 “大使締交三邦”이라 적었다. ‘명신은 세상 사방 사람들을 복되고 하고, 대사는 세 나라를 사귀었다.’라고 했으니 장보고에 대한 말이 아니고 무엇일까. 다시 발길을 돌려 올라갔더니 시원한 바다가 넓게 펼쳐진다. 적산명신상을 바라다보니 위로 돌계단이 높다랗다. 해운대선생님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저 밑에서 보고 돌아가겠다고 한다. 혼자 올랐는데 높이 갈수록 바다는 더 넓게 보인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진도 찍고 풍경도 찍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수없는 유적이 드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중국에 똑같은 곳을 또 올 수 있겠는가.

법화원 사찰의 대응보전과 극락보살상 분수쇼를 보고 다시 돌아오니 급한 걸



음에 숨이 찼다. 다시 처음 당도했던 석도항으로 돌아간다. 중간에 쇼핑을 한다가에 면세점쯤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영성의 슈퍼마켓에 내려주었다. 살 것을 고민하는 중에 술과 녹차가 동이 났다. 할 수 없이 중국과자를 샀다. 석도항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배를 탔다. 저녁을 먹은 뒤 페리호 라운지에 모여 저번에 준 할인 쿠폰을 모아 커피와 맥주세트를 주문하여 마시며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그때서야 배가 항해를 시작했다. 밤을 새워 가면 인천항에 닿아 있을 것이다.

### 6) 8월 3일 여섯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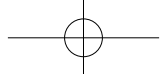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 석도항에서 인천항으로

오늘은 배가 인천항에 닿는 것이 일정의 모두이다. 닷새간에 쌓인 정 때문에 섭섭한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작별인사를 미리 해두었다. 아침을 먹고 갑판으로 나가 바람을 받고 있는데 섬들이 옆으로 지나간다. 인천항이 가까워진 것이었다. 드디어 인천 대교의 긴 다리가 눈앞에 다가 섰다. 배가 다리 밑을 지나가는 순간이 매우 신기했다. 언제 다리 밑바닥을 보았겠는가. 그렇게 장보고 답사여행은 인천대교에 이르러 마무리 되고 있었다. 인천항을 나서서 다시 일상의 시간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 3. 답사를 마치며

- 중국의 역설적 힘

우리는 이번에 산둥성의 몇몇 도시를 돌아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한 시간을 버스로 이동해야 겨우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다. 밟아본 여정은 산둥성의 17개 도시 중에서 동쪽과 중앙부 도시인 위해, 연태, 유방, 치박, 태안, 청도뿐이었다. 중국에는 이런 성 23성이나 되고 그런 성보다 더욱 넓디넓은 티벳과 신장위구르, 내몽고, 서장족 자치구에도 영화회족자치구도 있다. 이런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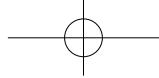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를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실로 놀라웠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 좀 모여 도시가 되었다 싶으면 인구가 500만을 훌쩍 넘어버리는 나라, 공산국가이면서 갑부가 가장 많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이 통할 것 같은 나라, 나에게 다가온 중국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중국은 큰 국가를 통치하고 살 수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가느다란 해답을 인재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엿보았다. 장보고나 고선지, 최치원 이들 신라인들은 당나라에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이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대체로 신분이나 국적에 매여 인재를 버리는 일은 없었다. 중국은 외국인들조차 능력이 있으면 인재로 뽑아 썼음을 신라의 세 인물로 일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가 골품제도에 따른 육두품으로 신분을 나누어 철저히 인재등용에 제한을 둘 때, 나라가 적어 인재 찾기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인재도 가로막는 사회였다면, 중국은 능력을 지닌 자라면 국내외인을 따지지 않고 수용하여 그들의 국력을 길렀으니 가능한 일이었던가. 조선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차별하고 급기야 적서까지 차별하여 하늘이 낸 인재를 나라가 버리는 형국에 비한다면 쪼개지고 합해지며 건국과 패망을 이어온 중국은 인재의 힘이 얼마나 중한지 깨달았을 것이다. 장보고가 신라에 머물렀더라면 해상무역제국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추측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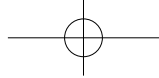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 -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찾는 노력

일본 승려 엔닌과 두목의 기록이 없었다면(『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장보고 기록은 신라 내에서의 정치와 인물평에 그침) 라이샤워가 장보고를 세계에 알리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도 장보고가 얼마나 큰 인물이었는지 몰랐을 것이며, 신라명신이나 적산법화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 몰랐을 것이다. 기록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기록도 그 행간의 숨은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 기록은 기록대로 중요하지만, 삼국이나 고대사에 관한 기록은 매우 적고, 집필의 목적 또한 신라에 기울거나, 불교전승의 목적성이 주가 됨으로 시야가 한정적이었다. 우리의 역사를 찾기 위해 중국의 기록에서 찾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편견과 목적이 만든 기록의 역사를 너머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남겨진 유물과 유적지가 남긴 슬한 역사가 흩어져 있다. '요하문명'에서 찾은 홍산문화유적지, 동북삼성(길림, 흑룡강, 요녕)에 남겨진 고구려 성과 수만 개의 무덤들은 발로 찾아 읽어 내어야 할 우리의 역사임을 인식하였다. 나는 남 이야 기처럼 들었던 우리 고대사가 가슴 뛰게 하는 유물로 남은 무언의 역사들임을 생각했다. 여기 우리의 역사가 가득 널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남의 기록에나 의존하고 남이 인정해주면 그제야 관심을 가지는 어리석음은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중국에 흩어진 우리의 역사들을 중국이 역사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한다고 탓할 때가 아니라 생각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스스로 역사에 대한 긍지와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것을 남의 것 인양 바라본 무관심을 탓해야 할 것 같았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안으로 담아서 이어가려는 노력이 이제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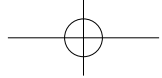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21세기 글로벌 미래 인재의 롤모델 장보고

사파중학교\_이인선(가작)

## 들어가기에 앞서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를 마친 후 여러 경험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답사를 마치고 나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장보고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다. 답사 전에도 장보고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며 당시 신라 시대상을 반영하는 국제적인 인물이라는 인식은 있었으나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 중 하나라는 인식이 강했었다. 하지만 이번 장보고 유적지 답사와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장보고는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지침이 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취업 사이트에서는 글로벌 인재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었다.



1. Holding Speciality :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문 지식과 경험
2. Leadership :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겸비한 지도력
3. Communication / Interpersonal Skills :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인을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전달 능력
4. Multilingual Ability : 국제 공용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추가적인 외국어를 기본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능력
5. Global Etiquette : 다른 국가 및 조직의 문화, 의식, 예절 등에 대한 이해 및 적응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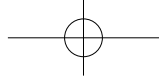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PISA(국제학업성취도 평가) 2004 보고서에 서는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언어와 숫자와 같은 지적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
2.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능력
3.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글로벌 인재의 조건이나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 등을 통해 볼 때 장보고야말로 21세기 글로벌 미래 인재의 롤모델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토의토론, 협력학습, 거꾸로 수업, 배움의 공동체 등의 학습방법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활동도 필요하지만 장보고와 같이 롤모델이 되는 인물의 인생을 통해 도전 의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첫째 날, 설레는 마음으로

2016년 8월 5일, 설레는 마음으로 8시 20분 출발 버스를 타고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천에 왔는데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국제 여객항에 도착했을 때 “우와!”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었다. 부산이 제1 항구도시라고 하지만 부산은 여객항을 가 보지 않아서인지 그 거대한 규모에 감탄하면서 도착한 후 미팅을 했다. 배를 통해 출국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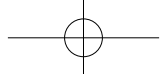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비행기 출국 수속에 비해서 간단하고 캐리어를 가지고 갈 수 있어서 편리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라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어서 바로 옆의 선생님과 같은 조가 된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출국 수속을 마쳤다. 선실은 4인 1실이었는데 같은 방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면서 학교 이야기나 답사에 참여하게 된 동기 등을 이야기하며 친분을 다졌다.

선상에서 저녁식사 후 고정석 교수님의 세미나가 있었다. 답사에서 주제가 되는 해양, 제(齊)나라, 장보고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강연이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답사해야 할 유적지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해양〉에서는 육지와 해양의 비교, 특히 변화와 대외교류를 상징하는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고 〈齊〉에서는 우리가 답사하는 산둥반도에서 강태공 이후 춘추전국 시대의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제(齊)와 그 수도 임치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장보고〉주제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해적을 소탕하는 수군으로서의 해상왕 장보고뿐만 아니라, 무역왕으로서의 장보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자본주의 시대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와 닿는 부분이기도 했다. 특히 상업적 성공에는 장보고가 가진 세계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호혜평등, 선린우호의 국제교류와 당시 산둥반도의 재당 신라인 사회의 구심점으로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역사적 모델로서의 장보고를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예전보다 훨씬 다각적인 면에서 장보고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장보고가 가진 리더십,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대외교류 능력, 협상력 등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미래 인재의 롤모델로서의 장보고를 떠올리게 되었다.

## 둘째 날, 처음 만나는 산둥 반도

8월 6일 아침, 선상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중국 석도에 입국했다. 북부인 베이징 인근은 가 본 적이 있지만 산둥 반도는 처음이어서 흥미로웠다. 안개 때문에 입항이 늦어져서 예정되었던 성산두 견학은 아쉽게도 마지막 날로 미루어졌다. 버스 안에서 석도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이동을 했고, 다음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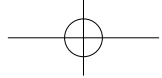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스까지 버스 이동 시간이 생각 외로 너무 길어 깜짝 놀랐다. 그 때는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넷째 날엔 완전히 적응해서 그 정도 쯤이면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버스 안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했는데 다들 재치 있게 자기소개를 해 주셔서 즐겁게 들을 수 있었다. 같은 교사여서 그런지 처음 본 분들이지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고 다들 이 답사에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자극을 받아 더 열정적으로 답사에 참여한 계기가 되었다.

오랜 이동 후 드디어 봉래에 도착했다. 목적지인 봉래각과 등주수성에 도착하기 전에 버스 창문 밖을 보니 많은 중국인들이 바닷가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을 보고 강릉과 같은 관광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도착 후 조금 걸어서 등주수성 입구의 봉래고선박물관에 도착했다. 통나무 배, 차륜선, 모래선이 전시되어 있었고 원나라 때 선박이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해양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유물 등 중따개비가 잔뜩 붙어 있는 항아리를 보고 바다 안에서 바로 출토된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이런 해양 유물들은 선박이 침몰된 후 그 위로 진흙이 쌓이고 쌓여서 직접 바닷물과 접촉을 하지 않아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발굴을 위해서는 지상에서 발굴하듯이 바닷 속 땅을 파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박물관에 있는 지도를 이용해 옛날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항로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답사를 가는 곳들이 해안의 어느 도시들을 통해 이동하는지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또한 봉래고선박물관에는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게 예전 집들과 사람을 거의 실물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 모형 사이를 관람객들이 지나가고 집들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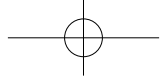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봉래고선박물관 내 신라관 모형]



데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어서 더 흥미로웠다. 우리나라도 박물관에서 실제 크기와 유사하게 모형을 만든다면 이런 방법을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모형들은 굳이 색을 입히거나 옷을 입히지 않고 석상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 배치해 놓았는데 그것도 자연스러워 보여서 좋았다.

모형 중에 신라관도 발견했는데 수업 시간에 통일신라 시대 대외교류 설명할 때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은 자료라 급히 사진으로 담았다. 봉래, 즉 등주가 역사 교과서에는 중국 등주에 신라관과 발해관을 설치해서 신라사신과 발해사신을 접대했다고 해서 그냥 단어로만 등장하는데 이런 집모형 뿐 아니라 등주수성 사진과 답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해주면 훨씬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선박물관에는 그 외에도 박물관 이름에 걸맞게 아주 많은 수의 축소한 작은 선박 모형들이 많았는데 그 곳에서 교수님께서 첨저선과 평저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좋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을 학습할 때 심화 과정에서 세키부네와 판옥선의 차이점에 대해 가르치긴 하지만 주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 요인 중의 하나로 등장해서인지 첨저선과 평저선의 차이에 대해 주로 평저선이 방향 전환이 쉬워서 해전에 유리했다는 설명 위주인지라 원거리 항해에서는 첨저선이 유리하다는 장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봉래고선박물관 관람을 마친 후 봉래각과 등주수성을 둘러보기 전에 먼저 다 같이 모여서 김희만 교수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한 무제(漢武帝)가 봉래라고 불렀다는 점과 그래서 8명의 신선이 바다 건너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 봉래각에 대한 설명과 꼭 봐야 할 곳들에 대한 설명도 좋았지만, 장보고 유적 답사지여서 그런지 산둥지방과 관련해서 이정기에 대한 설명이 매우 흥미로웠다. 고구려 계통의 이정기와 그의 후손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을 주도했다는 점과 후에 신라인 장보고가 고구려 계통이라 할 수 있는 이정기의 후손을 진압하는 무령군에 소속되어 공을 세웠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크게 이름을 떨친 사람으로 고선지 장군만 알고 있었는데 이정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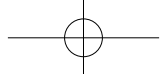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봉래각은 중국 4대 누각 중 하나인데 그 명성에 맞게 봉래각 위에서 내려다 본 해안 풍경이 절경이었다. 봉래각 2층에는 8명의 신선이 술을 마시다가 바다를 건너는 놀이를 했다는 전설에 맞춰서 만들어진 조각상이 있었다. 어떤 신선은 점잖게 술을 마시고, 어떤 신선은 흥에 겨워 술잔을 높이 들고, 그 옆에서 책상에 엮드려 즐고 있는 신선, 아예 의자에 기대서 바닥에 주저앉아 골아 떨어진 신선 등 다양한 자세로 술을 마시거나 취해 있는 모습이 재미있었고 취선이라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남자 신선들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여선(女仙)이 세 명이나 있어서 놀라는 한편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 반성했다.

봉래각을 내려오면서 등주수성을 둘러보았다. 명나라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진해처럼 해상군사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군사도시이면서 동시에 부산과 같이 교통과 정치, 무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등주항이 근대 들어서는 수심이 얕아져서 관광지로 변모했다는 설명처럼 등주수성을 방문한 많은 중국 현지 관광객들과 해안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이토록 멋진 풍경과 도교 성지로서 그리고 역사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본다면 관광지로서 엄청 매력적일 것이라 여겨졌다.

봉래각과 등주수성 답사 후 다시 버스를 달려 유방 부화 호텔에 도착했다. 본격적인 답사 첫날이라 피로가 쌓여 룸메이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금방 잠들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는 산둥반도는 새로움과 신비함, 멋진 풍경으로 다가왔다.

## 셋째 날, 제나라 그리고 태산!

8월 7일 답사 셋째 날 아침이 빠르게 시작되었다. 먼저 순마갱을 견학했다. 지하에 내려가서 견학하게 된다는 것이 신기했고 발굴 당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려가서 보니 엄청난 규모였고 수많은 말들이 순장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말 치고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설명으로는 고대 말들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고 한다. 엄청난 규모라서 객관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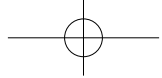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인류 교통수단 발전을 새긴 비]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도 경제적 부의 상징인 말을, 고대에는 그 가치가 훨씬 뛰어났음에도 이렇게 많은 수를 순장시킨 것을 보면 제나라의 부강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직접 고스란히 뼈째로 남겨진 것을 보니 잔인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만일 말이 아니라 사람을 순장시킨 흔적이었다면 무서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순장 풍습이 없어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박물관 내에 여러 시대에 사용하던 말이 끄는 전차 모형이 많았었고 한 쪽에 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가 사용한 교통수단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석판에 새겨놓은 거의 2층 규모의 거대한 비석이 눈길을 끌었다.

다. 그 후 바로 태산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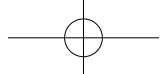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태산! 아주 어릴 때부터 속담으로 익숙했지만 내가 정말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태산에 간다고 생각하니 들떴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올라가는 버스에서 본 풍경이 너무 멋있었다. 몹시 덜컹거렸지만 멋진 풍경 때문에 흔들거림도 잊을 수 있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안개가 끼어서 그런지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신비로운 느낌의 태산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태산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알 정도로 유명한 산이고, 중국 오악 중 최고로 치는 산이다. 고대에서부터 신성시했던 산으로, 답사를 한 여러 유적지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최초의 황제인 진의 시황제가 태산에서 기원전 219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즉위를 알리는 봉선의식을 처음으로 거행한 후 역대 황제들이 봉선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특히 한 무제와 청 건륭제가 태산을 자주 찾아 봉선의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케이블카에 내린 후 태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황제는 가마나 말을 타고 갔을까, 아니면 자신



이 직접 걸어서 갔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계속 가마를 타고 왔어도 마지막 계단은 본인 힘으로 올랐을 터이니 우리처럼 가벼운 차림도 아니고 그 무거운 예복과 면류관을 쓰고 오르려면 덩고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 정성으로 봉선의식을 치렀을 것 같다. 교수님 설명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태산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문무왕으로, 문무왕이 왕자일 때 봉선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황제와 함께 태산에 올랐다고 한다. 또한 태산은 고대부터 신성시되던 곳이어서 절벽마다 비문이 새겨져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를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교수님이 추천하신 무제의 무자비(無字碑)와 당 태종비, 그리고 태산에 올라와서 공자가 말한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구나”를 새겨놓은 비,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에 “과연”이 적힌 비, 그리고 교수님이 꼭 보라고 하신 오악독존(五嶽獨尊)비를 모두 견학했다.

그리고 태산 정상 옥황정 주변의 옥황묘를 견학했다. 태산에 오르는 속도가 제각각 달랐는데 천천히 오르다가 설명대로 쭉 가서 당 태종비를 보고 옥황묘를 견학하고, 옥황정이라고 새겨진 비석을 견학하고 많은 현지인들이 옥황정이라고 새겨진 비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기에 나도 일행과 기념사진을 찍고 비석들을 견학했다. 옥황정과 옥황묘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있었고 안개가 끼어서 그런지 아주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고 경건한 분위기였다. 향 냄새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독특했었다. 문제는 비석들을 본 후 함께 갔던 선생님과 우리 아직 태산 정상에 못 올라가서 더 올라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큰일이다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다른 일행의 선생님께서 자물쇠가 잔뜩 있었던 ‘옥황정’이 태산 정상이라고 설명해 주셔서 다시 발걸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비는 오지 않으면서 안개만 낀 서늘한 날씨여서 태산 등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내려오는 길에 중공군 복장을 한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6.25전쟁 항상 적군으로 나오던 복장이라 순간 흠칫했던 기억이 난다. 중국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중공군 복장을 실제로는 처음 봐서 신기했다. 내려오면서 도교 사원이라서 용마루가 없는 점을 함께 가던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용이 사니까 지붕에 용마루가 없고 그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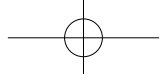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점이 우리나라 교태전과 똑같아서 수학여행 때 경복궁이 코스에 있다면 비교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태산에서 내려오는 버스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촬영하는 예비부부를 발견했는데 태산이 영험한 곳여서 웨딩촬영 장소로 잡은 것 같았다. 풍경도 멋져서 멋진 웨딩 사진이 나올 것 같았고 마음속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빌었다.

태산에 내려온 후 다시 긴 시간 이동해서 셋째 날 숙소인 치박의 만호대주점에 도착했다. 이날은 오랜만에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서인지 약간 근육통이 올 것 같았지만 다행히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유적 답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바로 태산이었는데 그 감격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 넷째 날, 강태공 사당과 소나기 속 청주 박물관

8월 8일 새벽, 어제 태산 등정이 조금 힘들었는지 일어나기가 좀 힘들었다. 그래도 시간에 늦지 않고 조식을 마친 후 답사지를 향해 출발했다. 기대했던 강태공 사당으로 가는 길에 우리 버스에 승차하고 계시던 김희만 교수님께서 거리 이름이 환공로와 직하로이며 도시 곳곳에 제나라의 흔적이 보이는 것도 관찰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강태공 사당에 도착한 후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강태공 사당을 견학했다. 교수님께서 춘추오패와 전국칠웅을 설명하시면서 합종책과 연횡책도 설명해 주셨고, 강태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셨는데 강태공이 위수에서 낚시하다 주 나라 문왕을 만나서 등용되었고 그러므로 강태공은 한낱 물고기가 아니라 나라를 낚은 것이므로 최고의 낚시꾼이라는 것과 주 문왕에게 등용된 후 문왕의 아들인 주 무왕과 함께 상(은) 나라 마지막 왕 주왕을 치고 영역을 넓힌 후 제(齊)나라를 분봉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백성(百姓, 백 가지 姓)을 만든 사람이 강태공이라는 것을 교수님 설명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무경칠서 중 2서인 그 유명한 육도삼략을 지은 인물로 태공망이 꼽히기도 하며, 주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셨다. 팔괘는 신화상의 복희씨가 만들었고, 육십사괘는 주 문왕이 만들었는데 이 때 효사는 강태공이 만들었을 것으로 전해진다고 하셨다. 강태공의 무덤은 함께 상(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을 물리친 무왕과 함께 주의 수도 호경에 있지만 제 나라 백성들의 요구로 강태공이 썼던 옷과 관은 제 나라 수도인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고 설명하시며 의관총도 꼭 보라고 말씀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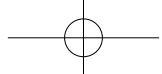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齊를 형상화한 글자]

설명을 듣고 강태공 사당을 견학했다. 비가 조금 내린 뒤 그쳐서 공기도

좋고 적당히 선선한 날씨여서 아침 산책을 하는 기분이었다. 사당 내부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인이 계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견학을 하고 동그랗게 이어진 약간 높은 제단 같은 곳을 따라서 걸었는데 중간에 놓인 비석을 보고서 현재 돌고 있는 곳이 의관총 바깥 구역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규모가 꽤 컸었다. 또한 의관총 주변에는 각 성씨에서 기념하여 새긴 거대한 비석들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꽤 많아서 흥미로웠다.

작은 전시관에는 강태공이 만든 백 가지 성이 모두 정리된 표도 전시되어 있었고 복희씨부터 시작해서 강태공을 필두로 한 제 나라 역대 군주들을 나무의 몸통에 그려놓고 방계혈족은 줄기 쪽에 묘사한 일종의 나무 모양의 족보도를 볼 수 있었다. 전에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관람했던 이슬람 역대 술탄들을 나무 모양으로 정리한 표를 본 기억이 나서 흥미로웠다. 그리고 제 나라의 齊자를 형상화한 서예작품이 기억에 남는데 교수님 설명으로는 새싹들이 올라오는 모습처럼 나날이 커지고 발전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제나라 역사 박물관에 갈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제나라 관련 유물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다.

강태공 사당을 견학한 후 이동해서 제나라 경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동했다. 셋째 날에 봤었던 순마갱처럼 이곳에서도 많은 말들이 순장되어 있었는데 발굴이 한참 진행중이어서 그런지 신중한 손길로 약품을 이용해 발굴을 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곳에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임치 지역은 1960년대에 발굴이 시작되었는데 이 지역 촌로가 지역 주민들이 호랑이 뼈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공룡뼈라고 약으로 먹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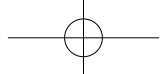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발굴하는 모습]

해서 발굴되었다고 한다. 무덤 규모는 좌우 75미터에 하나당 말이 약 백마리 정도이고 총합하면 육백마리 정도되는 거대한 무덤인데 워낙에 무덤 규모가 큰 지라 도굴되어서 유물은 없었다고 한다. 유물이 없지만 시대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층 밑은 춘추시대, 이 지층 위쪽은 전국시대이므로 이 무덤을 춘추말에서 전

국초 시대라고 본다면 당시 말 육백마리를 순장할 수 있었을 만큼 큰 세력을 가진 제 나라 군주는 제 경공이라 추정한다고 하셨다. 제 경공 관련해서 명재상 안영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 주셨는데, 제 경공이 말을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끼던 말이 죽자 그 말을 돌보던 말 관리인을 죽이려 하였다고 한다. 이 때 안영이 말 관리인이 자신의 잘못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며 세 가지 죄를 들었다고 한다. 말을 잘 돌보라는 왕의 명을 이행하지 못한 죄, 왕이 아끼던 말을 끝내 죽게 한 죄, 그리고 왕을 아끼는 말이 죽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만들어 못 사람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비난받도록 한 죄라고 알렸다고 한다. 제 경공은 다행히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향은 있지만 신하의 말을 경청하는 군주로서의 자질을 지녔는지 그 말을 듣고 말 관리인을 풀어주라 명했다고 한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재치있게 충고하는 점도,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잘못은 고치는 태도 모두 본받아야 할 것 같다.

제 경공 무덤 견학을 마치고 버스로 이동하는데 입구에서 탁구를 열심히 치시는 동네 할아버지들을 목격했다. 중국에서 탁구는 국민스포츠라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동네 할아버지셨지만 탁구를 꽤 잘 치셨다. 남선생님 중 한 분이 도전하셨지만 역시 재야의 고수는 이기실 수 없었던 것 같다.

제 경공 무덤 견학 후 청주박물관을 견학했다. 청주박물관에 도착하기 전 청주박물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청주박물관이 있는 장소 자체가 절터였기 때문에 불교 관련 유물이 많으며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였다. 인상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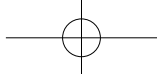


있던 것은 박물관 출입할 때 꼭 공항 검색대 통과하는 것처럼 가방까지 검사하고 사람들도 다 검사했던 것이었다. 박물관에 대한 인상은 하나의 건물에서 모든 유물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동처럼 건물이 나누어져 있었고 건물들이 네모자로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다. 청주 박물관에 막 도착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박물관에 도착하고 교수님께 설명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는 엄청난 소나기가 내려서 빗소리를 들으며 교수님 강의를 열중해서 들었다.



[청주박물관 전경]

김희만 교수님께서 이정기 일가가 이 일대를 장악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안사의 난 이후 당의 혼란기에 평로절도사 왕충지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이으려 하자 그를 죽이게 되고 이후 안녹산 잔당을 토벌하게 되고 후회일을 제거하고 당 조정으로부터 평로치청절도사 직위를 받게 된다. 이후 이정기는 15개주를 차지할 만큼 세력을 늘리게 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당 조정은 이정기 일가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정기는 반란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사망하였고 아들인 이남이 직위를 계승하게 되나 당 조정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자 당에 대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정원군이 반란을 일으켜 당 수도 장안을 장악하자 당 조정은 이남의 평로치청절도사 직위를 인정해 주었다. 그 후 12년 후 이남의 아들 이사도가 그 직위를 받게 되고, 그의 사망 후 이복동생 이사도가 물려받게 된다. 이후 당 현종이 서주 공략을 시작하게 되고 하북삼성을 회유하자 이탈하는 세력이 많아지자 이사도는 당과의 전쟁을 시도하게 된다. 당시 고구려 유민 세력은 580만명 정도이고 이정기 세력이 관할한 곳은 소금 생산이 당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철 생산량이 10퍼센트로 엄청난 자원과 해상교역에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거의 독립 왕국 수준의 세력을 키웠다. 당과의 싸움에서도 이 일대에 풍부한 물자들이 장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막음으로써 당 나라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한다. 이후 장보고가 무역왕으로서 이 지역에서 세력을 키웠던 것은 이 일대를 장악했던 이정기의 기존 세력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만일 장보고가 이정기의 기존 세력을 흡수했다면 당시 토벌에 신라인도 참여했고, 특히 장보고도 그 중의 한명임에도 반감을 누를 수 있을 만큼 그가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보여 그런 점도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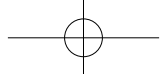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다음 엄청난 빗소리를 배경으로 청주 박물관을 견학했다. 많은 불교 유물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모든 관을 다 돌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다 관람하지 못해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훨씬 더 유물 전시에 신경을 쓰고, 잘 전시되어 있는데 중국과 다르게 우리는 박물관 각 실마다 배치되는 인원도 적고,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다. 청주 박물관에서 들어가기 전부터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고 들고 있는 가방까지 모두 검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습이 유물 보존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날 저녁은 적산대주점에서 머물렀다. 중국 본토에서 먹는 마지막 저녁이어서 일정을 함께 하며 친해진 4조 선생님들과 즐겁게 만찬을 즐기고 떠들썩하게 하루를 마감했다.

## 다섯째 날, 성산두와 적산 법화원,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8월 9일, 중국 유적 답사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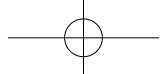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먼저 중국 입항이 늦어서 견학하지 못한 성산두와 진시황 사당부터 견학했다. 8월 8일까지는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해서 굉장히 쾌적한 날씨였지만 이날은 햇빛이 내리쬐어서 조금만 밖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였다. 하지만



하늘은 그만큼 맑아서 바다와 하늘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성산두는 중국의 가장 동쪽의 거대한 해안 절벽으로 특히 진시황이 세 차례나 왔다고 한다. 성산두 가는 길에 진시황 행차를 묘사한 실제 크기의 청동상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진시황 뿐 아니라 한 무제도 고조선을 치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고, 당의 소정방도 백제를 치기 위해 이곳에서 바다를 건넜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진시황의 신하인 서복이 불로장생초를 얻기 위해 동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한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정방 폭포에서 가이드가 서복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서복이 돌아온 곳이라고 서귀포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되었다. 또 교수님께서 백제를 치러 갔을 때는 산둥반도에서 횡단항로를 이용했을 것이고 고구려를 칠 때는 등주에서 연안항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성산두 견학을 마치고 바로 옆의 진시황 사당도 견학했다. 진시황만 모신 사당이 아니라 바다에 관련된 여러 인물이나 신들을 모시고 있었다. 해신난랑을 모신 천후궁도 있었고 청일 전쟁 때 순국한 해군장령 등세창을 기려 세운 사당도 있었다. 해신난랑은 원래 고대부터 있었던 해양과 관련된 여신인 줄 알았는데 북송 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숨진 28세 여인이라고 한다. 관우처럼 원래 역사적 인물이었지만 도교에서 숭상받는 신이 된 사례인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답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적산 법화원을 방문했다. 먼저 장보고 기념탑을 방문해서 장보고에 관한 고경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무령군에 소속되어 이사도 세력을 제압한 공으로 소장(지금의 소령에서 중령) 자리에 오른 장보고는 당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리 높은 지위는 아니었으나 재당 신라이주민들 사이에서는 높은 위치이며, 후일 신라 조정에서 장보고가 해적 소탕을 할 때 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는 권한을 준 배경에는 이러한 무령군 소장 역할한 것이 큰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다. 이사도의 반란 세력이 진압되고 이후 군을 그만둔 장보고의 행적은 정확하진 않지만 무역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다. 당시 장보고가 법화사 운영 자금으로 오백석을 기부했는데, 기부를 오백석 규모로 할 수 있을 정도면 재산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무령군 소장을 역임하고 막대한 부



를 축적한 장보고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면서 자연스럽게 신라방의 신라인들의 리더로 부상했다. 828년 신라로 귀국 후 흥덕왕에게 해적을 소탕하고 청해진 설치를 건의한 후 청해진 대사로 임명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장보고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한 것으로 당시 신라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장보고가 성공한 것은 물론 장보고 개인의 뛰어난 능력도 있지만 신라인들의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이 뒷받침되어 가능한 것이었다. 전세계의 무역은 이슬람 상인들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상인들은 신라, 일본까지 오지는 않았으므로 중국, 일본, 신라 사이의 중계무역을 장보고 선단이 담당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장보고 사후 무종이 대대적인 불교역업을 하면서 그때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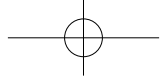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장보고 동상]



[적산법화원]

화원도 없어졌다가 1970년대에 절터 일부가 발견되어 재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장보고가 세운 절임을 확실히 하고 한국해양재단에서도 이를 지원했다고 한다.

설명을 듣고 장보고 전시관을 관람하고 거대한 장보고 동상도 견학했다. 장보고 전시관에는 그림과 함께 한글로 된 설명도 있어서 관람하기 편했다. 우리나라에서 그린 장보고 국가표준영정도 있고 중국에서 그린 장보고 전신상 그림도 있어서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 후 거대한 적산명신상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았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적산법화원에 들렀는데 가람배치가 조금 험갈려서 자칫하면 적산법화원을 제대로 견학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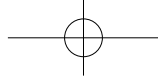


지나칠 뻔 했는데 중간에 교수님을 만나서 다행히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적산 법화원을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모든 유적지 답사가 끝났다. 버스에서 가이드분의 인사를 듣고 석도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다. 원래 4명이 한 선실에 머물렀는데 화장실이 고장나서 더 좋은 선실로 바뀌게 된 점은 행운이었다. 저녁 식사를 하고도 배가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갑판에 올라 주변 정경을 둘러보았는데 트럭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계속 배에 싣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바빴지만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배에 실리고 또 다른 곳으로 컨테이너 박스들이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번 답사 주제인 장보고에 대해 생각했다.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이 활발한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는 항구도시였으니 그야말로 주제에 맞는 풍경을 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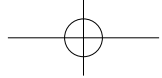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 마지막 날, 답사를 마무리 하며

8월 10일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닷새 동안 정들었던 선생님들과 뽀뽀이 흠어지려니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빨리 통과되어 먼저 출국 수속을 밟았지만 여객 터미널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했다. 각자 인사를 하고 드디어 집에 도착했는데 마산까지 오는 시간이 있었는지라 매우 피곤했고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 너무 반가워서 포식하고 바로 잠들었다.

마지막으로 답사기를 쓰면서 견학갔던 곳이 하나씩 기억이 난다. 그리고 답사기를 쓰는 과정에서 장보고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줄지도 고민하게 되었고 최근 교육이 주입식 지식 암기에서 방대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로 넘어가면서 실용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식,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는 응용력 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데 장보고는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목표했던 것처럼 직접 체험하고, 또 멋진 사진 자료들도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했다. 이런 고민들을 통해 내가 겪었던 것처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장보고를 새롭게 인식하길 바라고 동시에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



가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라고,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는 사명감이 커지는 계기가 된 답사였다고 생각한다.



# 5박 6일 장보고와 함께한 중국유적답사

내성초등학교\_ 진병창(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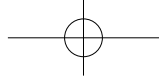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 1. 답사를 준비하며

2016년 3월, 3년간의 벽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봉화읍내의 1번지 학교인 내성초등학교로 근무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전교생이 300여명으로 18학급 규모로서 봉화군내 초등학교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학교이다.

교직생활 20여년을 지내면서 어느덧 중장년의 나이에 접어들기고 하였고 교육경력도 제법 쌓이다 보니 학교를 옮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본인 나름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기분으로 학교의 인사문제에 아무런 언급 없이 주어지는 대로 3-4학년 교고전담교사를 하게 되었다.

1994년 처음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 교과전담교사 수업시간도 10여 시간 밖에 되지 않았는데 40중반이 넘는 지금, 주당 18시간의 체육전담교사의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몸과 마음 모두 지쳐 힘들어 가고 있을 때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 보고자 할 때 한국해양재단의 “2016년 초중고 교사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교직생활을 시작하며 특별히 몸이 아팠을 때와 공직자로서의 특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주일(일요일)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께서도 참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참가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렸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했는지, 6월말 한국해양재단의 선발자 발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영광을 맞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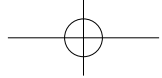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지금까지 교육부나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 해외여행 참여의 기회가 한 번도 있지 않아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며 참가비를 납부하고 시청을 찾아 여권을 만들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하여 여행에 참가하는 2016년 중의 최고의 설렘으로 들뜬 7월과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 있었다.

물론 공문을 보고 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과 교감 선생님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참가 승인을 받았으며 복귀하여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다짐도 전달했다.

## 2. 5박 6일간의 장보고 중국유적을 답사하며

### 가. 2016년 8월 5일(금) - 1일차

집사람과 작은 아들의 배웅을 뒤로하며 영주터미널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경북여객 11시 20분 버스에 몸을 실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몸이 더욱 지쳐있었는데 공항리무진버스와 같은 시외버스가 너무나 시원하였다. 영주에서 인천까지 가는 버스에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많은 승객은 탑승하지 않아 더욱 시원한 모습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시외버스는 풍기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로 접어들더니 제천까지 신나게 달린 다음, 제천-평택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천등산 휴게소’에 잠시 머물러 ‘올고 넘는 박달재’를 들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려 여주까지 올라오더니 다시금 서쪽으로 인천을 향해 한여름의 더위를 뒤로하고 인천행 시외버스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해 나갔다.

출발하기전 준비한 조정래의 소설 “들꽃도 꽃이다”를 읽다보니 내가 탄 버스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시 정차한 후에 몇 명의 손님을 하차시킨 후 바로 인천을 향해 다시금 출발하였다. 도시를 지나가고 있어서 그런지 높고 큰 많은 건물이 시선을 빼앗아 읽던 책을 배낭에 넣고 차창 밖으로 인천가는 길을 두 눈으로 열심히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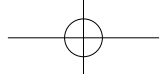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출발전 확인했던 소요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인천시외버스터미널 도착하였다.(14:30경) 터미널 앞쪽에 기다리던 택시를 잡아타니, ‘박태준’ 전 국무총리와 동명이인인 기사님이셨다. 몇 일전 개통한 지하철 2호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인천의 현재 경제사정을 기사님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70세에 가까운 고령의 연세이지만 친절하게 연안 국제1터미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 편안하였다.

인천 30바 1125(기사 박태준) 택시를 떠나보내고 터미널 안에 들어섰다. 버스를 타고 오느라 점심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해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갔다. 혼자서 제육볶음을 시켜 먹다보니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들리는 것을 보니 여러 명의 중국인들도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나랑 비슷한 차림으로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었다. 연배도 있어 보이고 함부로 말 걸기가 어려워 묵묵히 밥을 먹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천 의림여중에 근무하고 계신 김천기 선생님이셨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양치를 한 이후에 한국해양재단에서 준비한 부스에서 준비물을 받고 여객터미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조별로 순서를 확인한 이후 17:00에 드디어 중국으로 우리를 옮겨줄 화동훼리(화동해운유한공사, HUADONG FERRY CO.,LTD)에 승선하였다.

화동훼리는 19,534톤급으로 길이는 174.5m, 폭 28.8m의 여객선으로 탑승



인원 1,000명이 되는 규모가 큰 배로 인천항부터 석도항까지 주 3회 운행한다고 한다. 귀국하는 때에 배의 최상부까지 올라가보니 내가 지금까지 탄 배중에서 가장 큰 배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석도항에 인천으로 출발전 화동훼리 정상의 모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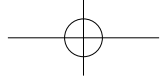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석도항에 인천으로 출발전 화동훼리 정상의 모습 2]

내가 배정받은 객실은 306호로 4명이 한 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출발전에는 제대로 인사를 할 기회가 있지 않아 서로 인사를 하며 함께하는 여행의 출발을 시작했다. 인천여자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 박관수 선생님, 대전 서일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계신 임종철 선생님, 충북 음성 대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성재 선생님, 이렇게 4명이 한 방에서 가고 오는 길을 지내게 되었다. 지금까지 참가한 여러 활동에서 막내가 된 때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방 호구조사를 살펴보니 막내가 되었다.

(참고로 이번 2차 답사에는 50명의 선생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는 2호차에 배정되었다. 역시나 2호차에서도 막내였다.)

화동페리내 식당에서 중중식음식의 뷔페식으로 저녁을 먹고 19:00에 저녁을 먹은 식당에서 답사 안내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국해양재단에서 나오신 김성호 부장님의 답사일정 전체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이어 이번 답사기간 동안 많은 시간 함께 해 주신 해군사관학교의 고경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고경석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금번 답사의 키워드 ‘1. 해양, 2. 제나라, 3. 엔닌’을 기억하라는 말을 남기며 객실로 돌아갔다.

고경석 교수님은 대학교 다닐 때의 동명의 친구가 있어 더 친근감이 들었다. 일찍 교사의 길을 접었다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었는



데 이렇게 동명이인인 교수님과 함께하니 조금은 아이러니(?)가 아닌지……

잠이 오지 않아 낮에 보던 “들꽃도 풀이다”를 다시금 꺼냈다. 크지는 않지만 위층에서 울리는 음악소리와 함께 누운 선생님의 코골이 자장가를 함께하며 ‘강교민’ 선생님을 꿈속에서 만나보길 기대하며 꿈나라도 떠났다.



[세미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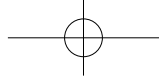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고경석 교수님 강의]

## 나. 2016년 8월 6일(토) - 2일차

아침 7:00 선내에서 아침식사를 하니 석도 가까이 도착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심한 해무로 인해 첫 중국의 도착부터 차질이 일어날까 다들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객실 선생님들은 2016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개막식을 보느라고 텔레비전에 빠져들고 말았다. 조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2층으로 내려가니 우리 객실 교사들만 모이지 않고 모두 모여 있어 조금은 창피함을 맛보았다. 학생들을 인솔하면은 항상 앞장서서 준비하고 챙기고 했었는데 이제는 얼마 되었다고 따라다니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조금은 한심하기도 하였다.

해무로 인해 정상적인 첫날 오전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첫 번째 답사지였던 ‘성산두(우리나라의 의미로는 간절곶 도는 정동진, 아니면 독도)’마지막 날에 찾기로 결정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는 석도에서 65km 이상 떨어진 ‘위해’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다. 멋진 건물에 보기는 좋았지만 냉방기가 가동되지 않아 뜨거운 중국음식과 뜨거운 날씨로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장소는 더 좋을 것이라는 답사 담당의 말을 듣고 참았다.

점심을 먹고 첫 답사지인 ‘봉래’로 향했다. ‘위해’에서 ‘봉래’까지도 180km나



되는 거리인데 가운데 휴게소에서 한 번 휴식 후 첫 답사지인 고선박물관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려선박이 발견되어 등주가 고려와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주기도 알 수 있었다.



[고선박물관 외부모습]

[고선박물관 내부모습]

다음으로는 중국의 4대 누각의 하나인 봉래각으로 이동해 등주수성을 살펴보았다. 통일신라시대말 장보고의 무역선도 아마 이 등주수성을 드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잠시 먼 동쪽 바다를 바라보다 아픈 과거사를 듣고 나니 정신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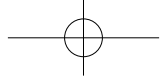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바로 이곳 등주수성이 한반도로 가는 군대의 출발지라는 것이었다. 기원전 109년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침략할 때 누선장군 양복이 수군 7,00명을 출발하였고, 612년과 645년 고구려를 치기 위해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곳에서 출발하였다는 설명을 들으니, 이런 멋진 곳을 우리에게만 아픔의 역사로 다가왔으니 역사의 '아리리니'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등주수성과 인근 해수욕장 모습]



[등주수성을 바라보는 김관수 선생님 모습]



등주수성 부근의 해수욕장에서는 많은 중국인들이 여름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과는 매치되지 않아 의아함도 더해졌다.

봉래각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봉래각을 뒤로하고 숙소인 유방의 부화호텔로 출발하여 468호 숙소에 들어오니 어느덧 밤 10:00가 다되었다. 간단히 세면을 한 이후 함께하는 2조 팀원들과 함께 인사를 한 후 꿈나라로 갔다.

### 다. 2016년 8월 7일(일) - 3일차

아침 5:30 모닝콜을 받고 6:30 일찍 식사를 하고 7:30 임치로 이동하려고 호텔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행히 우산을 준비해 있어 배낭에 넣어 두었던 우산을 꺼내 버스로 걸어갔다. 태산을 오를 때 비가 오면 행운이 따른다고 했는 우리가 오늘 오를 때에도 비가 올지 기대하며……

오늘의 일정은 호텔과 가까운 고차박물관 견학과 태산등정 밖에 없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잠시 졸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고차박물관에 도착해 있었다. 이 박물관은 임치 주변에서 벌어진 전차전의 모습과 함께 중국 고차의 다양한 모습을 한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제일의 고차박물관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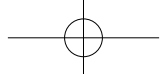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최근(1994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던 중에 발견된 유물들로 만들어진 박물관으로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고 비포장도로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밑에 통로를 만들어 드나들게 한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아직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된



[고차박물관 외부]



[고차박물관 내부]



다.(우리나라라면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하지 않았을까?)

고차박물관에서 나와 태산을 오르기 위해 태안으로 이동했다. 태산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왠지 우리의 주변과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 왔다.

태산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한 후 태산입구까지 버스를 타고 다시금 이동했다. 태산 입구 가까이 갈 때까지 보이는 것은 바위산밖에 없었다. 대학시절 지형학에서 들은 악산 중에 악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산인 설악산과 월악산은 귀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였다.

태산입구에 버스를 세우고 공원에 준비한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케이블카 탑승장까지 올라갔다. 기사님의 날렵한 운전실력으로 케이블카 탑승장 주차장까지 한 번도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고 단번에 올라간 느낌이다.

태산은 중국 국민들에게 '만물의 시작이고 음양의 교대가 일어나는 곳'으로 여겨져 아직도 많은 국민이 평생에 한번은 오르고 싶어 하는 로망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또한 태산을 오르면 10년은 더 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태산입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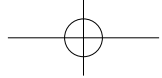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태산으로 가는 케이블카]



[1545m 태산정상에서]



[옥황정에서]



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10년에 한 번 짬은 다시금 올라 방문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80세에 다시 올라 100세까지 인생을 살아볼까 하는 간사한 인간의 모습으로 빠져 들기도 하였다.

6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거의 1450m까지 올라간 후 마지막은 걸어서 태산 정상까지 올랐다. 옥황정 정상에서 시계의 고도측정기를 작동해보니 1545m에서 2m 부족한 1543m가 찍혔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백산이 1436m인데 이 정도의 산이 많은 중국인들이 신성시하며 역대 황제들이 올라 봉선의식을 진행했다고 조금은 의아한 생각도 들었지만, 정상을 올라가면 주변에 새겨진 1800여개의 석각이 존재하는 것을 보아 중국민들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점심을 먹은 식당에서 다시금 저녁을 한 후 3일차의 숙소인 치박의 만호대 호텔로 향했다. 어두워진 고소도로를 2시간여 달려 호텔에 도착하니 역시나 22:00 다되었다. 5006호에 들어서 답사 3일차로 다소 지쳐가는 몸의 회복을 위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30분 정도 몸을 담구니 쌓였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피로가 사라졌는지 금방 잠에 들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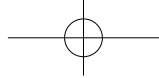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 라. 2016년 8월 8일(월)-4일차

아침 5:30 모닝콜을 받고 6:30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7:30 차량에 몸을 실었다. 호텔 인근에 있는 강태공사당과 순마갱을 견학하고 청주로 이동해 청주



[강태공사당 앞 모습]

[강태공사당 내부모습]



박물관을 견학하는 오늘 일정을 가이드에게 듣고 버스를 살펴보니 많은 동료 선생님들도 피곤하신지 꿈나라로 빠져들고 계셨다.

춘추전국 시대의 오패 가운데 하나이자 전국시대의 칠웅 중의 하나로 산둥반도 일대를 장악했던 제나라의 시조가 바로 강태공인데 우리에게는 낯시로 더 유명한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강태공 사당을 찾아 성씨의 유래도 들으면서 거대한 무덤을 한 바퀴 돌아서 순마갱으로 향하는 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다.

순마갱은 치박시를 흐르는 치구하에 인접해 있는 20여개의 묘 가운데 5호분 주변에서 발견된 600여필의 말이 순장된 말의 무덤이다. 아직도 여러 명의 발굴자가 나와서 부서진 말뼈를 정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대규모의 말 무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발굴중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 신기하기도 했지만 좀 더 정리된 이후에 보여주었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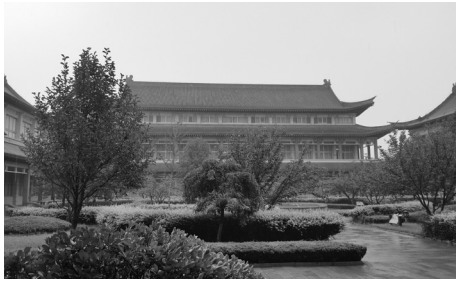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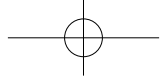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순마갱 입구 모습]



[순마갱 내부 모습]

말 무덤을 뒤로하고 치박에서 30여km 떨어진 청주로 이동하여 청주박물관을 견학하였다. 시원한 빗소리로 인해 교수님의 설명이 잘 들리진 않았지만, 중국 불교문화와 근현대사 분야의 중요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박물관내부의 촬영이 허락되지 않아 유물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청주에서 유방으로 오려고 고속도로에 오르려고 하니 특수상황이 발생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소도로 폭우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7인승 이상의



[청주박물관 모습]



[청주박물관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시간여를 버스 안에서 대기한 이후에 다행히 고속도로 통행이 재개되어 유방에서 중식을 하고 허허벌판을 지나 석도의 석산대호텔에 21:30이 다 되어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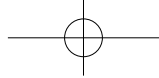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한국해양재단에서 준비한 저녁 만찬(해물 뷔페)을 즐겁게 먹고 함께 한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306호실에 중국에서 마지막 잠에 들었다.

#### 마. 2016년 8월 9일(화)-5일차

첫 날에 계획되었던 성산두를 찾기 위해 역시나 5:30 모닝콜을 받아 기상하여 6:30 식사를 하고 7:30에 성산두를 향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로 1시간을 조금 넘게 달려 성산두에 도착하니 중국 각 지역에 온 많은 차들이 주차장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태산에서 본 타 지역의 차 보다 훨씬 많은 차가 모여 있는 것을 봐서 이곳이 아마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찾는 관광지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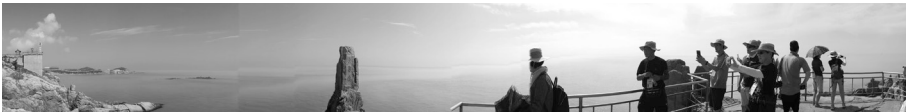
성산두는 중국 가장 종족에 있는 거대한 해안절벽으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태양이 떠오른 곳, 중국의 희망봉'이라고 불린다. 지금은 오시는 손님들에게 복과 행운을 주는 곳이라 하여 '호운각'으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성산두에서 우리의 황해 바다를 다시금 바라보니 봉래각에서 바라보았던 생각이 다시금 떠오른다. 이 바다위에 커다란 통하나를 띄워 나의 몸을 올리면 바



다가 나의 몸을 고향(조국)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푸념에 잠깐 잠기기도 하였다.

성산두에서 내려오면서 진시황사당에 잠시 들러 나의 성씨의 근본이 되신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답사의 최종 목적지인 적산법화원을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성산두 주변 파노라마 촬영]



[성산두 표지석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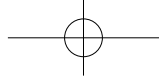


[성산두 부근에 조각된 진시황 모습]

적산대호텔에 다시금 돌아와 점심을 하고 마지막 목적지인 적산법화원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답사의 마지막에 우리들도 더위와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

많지 않은 계단과 길을 올라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 사찰에 이르렀다. 일본 천태종 제3대 좌주인 엔닌이 지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그 실체가 기록되어 장보고가 세웠다는 것을 증명해, 장보고가 살았던 당시에는 산동에서 가장 규모가 제일 큰 불교 사원이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은 새로이 세워진 건물과 이곳이 적산법화원 터임을 나타내는 표지석만 보여, 1200여년의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안동의 봉정사, 영주의 부석사처럼 천년고찰로 후시나 자라잡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장보고 기념탑 앞에서 답사를 마무리하는 2기 전원이 참가하는 기념촬영을



한 이후에 현재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관음상을 찾았다. 회전하는 거대한 관음상도 남달랐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분수의 모습을 보면서, 적산대명신상을 보면서 대륙의 스케일을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었다.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답사의 하이라이트인 적산법화원 관람을 마무리하며 중국대륙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석도항에 16:00경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하여 17:00에 승선하였으나 화동훼리는 22:00가 다되어서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출발했다.

귀국하는 배 안에서 출발 전에 계획했던 조정래 선생님의 “들꽃도 꽃이다”를 다시금 꺼내들어 마무리 읽기를 하였다.



[적산법화원 입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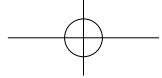
[적산법화원 터 표지]



[장보고 기념탑]



[장보고 동상]



[관음상 분수전 모습]



[관음상 분수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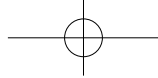
### 사. 2016년 8월 10일(수)-6일차

중국에서는 나왔지만 답사의 마지막 날 일정으로 화동웨이에서 한국식 아침으로 식사를 한 후 10:00경 하선을 하였다. 행사를 진행했던 한국해양재단 관계자분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함께 했던 동료 선생님들과도 마지막 인사를 한 이후에 인천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다. 여행기간 함께했던 두 선생님과 함께(임종철, 이성재).

임종철 선생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성재 선생님도 먼저 출발한 이후 영주로 향하는 12:50 시외버스에 몸을 옮겼다. 답사기간 같은 차량이 아니라 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1호차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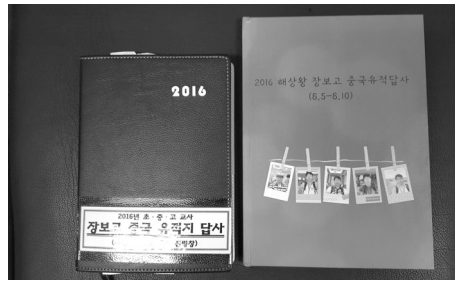
### 3. 답사를 돌아보며

5박 6일의 무더웠던 중국에서의 여름, 장보고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던지 없던지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답사가 마무리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 잊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겨두려고 포토북을 하나 만들었다. 만들고 보니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붉은색의 표지가 돼 버렸다. ‘나도 중국 사람이 되었나?’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120여장의 포토북을 다시금 펼쳐보았다. 여행의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평생의 좋은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되기를 소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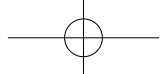


우리 귀에 익은 시조 한편을 보며 ‘2016 해상왕 장보고 중국유적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또한 전국의 많은 선생님의 도전을 희망하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뾰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뾰만 높다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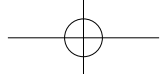
[포포북과 다이어리]



## 참가자 및 인솔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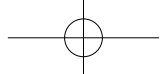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2016년 초·중·고 교사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1차 참가자 명단

NO	성명	학교명	비고
1	강신옥	용운중학교	
2	권경민	오천고등학교	
3	김경순	강현중학교	
4	김경현	금오초등학교	
5	김다숙	창원여자중학교	
6	김덕용	조원중학교	
7	김도숙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8	김민중	대구다사초등학교	
9	김병섭	강동고등학교	
10	김소영	인천봉화초등학교	
11	김연수	능주고등학교	
12	김은정	서울면북초등학교	
13	김은출	신도초등학교	
14	김인숙	강원서석중학교	
15	김종미	경기대명고등학교	
16	김진이	횡천초등학교	
17	김진환	수일초등학교	
18	김현수	원주삼육고등학교	
19	박기윤	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20	박병기	칠원고등학교	
21	박성준	백학중학교	
22	박정순	서울정목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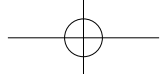


# 張保皋

23	박진우	청봉초등학교	
24	서미희	진주봉원중학교	
25	설상식	울산미용예술고등학교	
26	성형모	여천중학교	
27	신미야	함안중앙초등학교	
28	신종진	남지고등학교	
29	양미혜	보성초등학교	
30	오정은	흥덕고등학교	
31	유철민	인천신현초등학교	
32	윤순희	신관초등학교	
33	윤한기	백봉초등학교	
34	이숙경	창원신월고등학교	
35	이영지	거제지세포중학교	
36	임용덕	원일초등학교	
37	임형순	빛가람중학교	
38	장우중	전남여자고등학교	
39	장찬곤	서울돈암초등학교	
40	장철호	해인초등학교	
41	전경애	완도수산고등학교	
42	전혜인	단관초등학교	
43	정다희	대구서재중학교	
44	조희경	벌빛중학교	
45	최강호	울릉중학교	
46	최강희	광양백운초등학교	
47	최민석	대구중앙초등학교	
48	최재영	동성초등학교	
49	한인호	강원사대부고	
50	허영아	순천매산중학교	
<b>인솔 교수</b>			
51	권덕영	부산외국어대학교	
52	이유진	송실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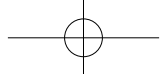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53	전근중	국립해양조사원	
54	채민정	기획재정담당관	
해양 관련 기관			
55	윤종빈	한국항만물류협회	
56	김윤철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海리포터			
57	김나영	부경대	
58	신혜진	성신여대	
한국해양재단			
59	김성호	기획총괄팀	
60	박광우	기획총괄팀	
2016년 초·중·고 교사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 2차 참가자 명단			
NO	성명	학교명	비고
1	강연호	대전둔원초등학교	
2	강정권	남양초등학교	
3	강필숙	포항동성고등학교	
4	구미란	삼계중학교	
5	김대성	두원초등학교	
6	김동철	덕신고등학교	
7	김명진	성지송학중학교	
8	김성자	일신초등학교	
9	김수미	송라초등학교	
10	김수정	부흥고등학교	
11	김은지	대전가양중학교	
12	김의경	남광초등학교	
13	김인식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4	김정현	서남초등학교	
15	김진성	강원서원중학교	



# 張保皋

16	김창규	삼정자초등학교	
17	김천기	의림여자중학교	
18	김효선	영해초등학교	
19	박관수	인천여자중학교	
20	박두갑	옥포성지중학교	
21	박성옥	성서중학교	
22	박순진	부산해강중학교	
23	박옥연	화명고등학교	
24	백소영	초량초등학교	
25	서정미	강구중학교	
26	서정숙	풍천중학교	
27	송정미	조림초등학교	
28	송혜경	정동고등학교	
29	신경희	환호여자중학교	
30	심옥남	인천산곡남초등학교	
31	양봉수	나주금천중학교	
32	이경희	으뜸초등학교	
33	이기훈	대구매호초등학교	
34	이상훈	창원고등학교	
35	이성재	대장초등학교	
36	이시택	청해초등학교	
37	이인선	사파중학교	
38	이재춘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39	임종철	서일고등학교	
40	장문요	귀인초등학교	
41	장세근	송면중학교	
42	장승아	대구월배중학교	
43	장창호	경산금락초등학교	
44	정봉학	정읍고등학교	
45	제갈일순	화진초등학교	
46	진병창	내성초등학교	



47	한영철	순천공업고등학교	
48	한주연	대미초등학교	
49	황상필	정의여자고등학교	
50	황현주	백제중학교	
인솔 교수			
51	고경석	해군사관학교	
52	김희만	동국대학교	
해양수산부			
53	조한일	대산청	
54	권보균	부산청	
55	이 정	해양환경정책과	
56	박명옥	운영지원과	
해양 관련 기관			
57	강동오	케이엘넷	
58	김영복	수협중앙회	
59	윤희훈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재단			
60	김성호	기획총괄팀	